

2020

오 픈
작 품 집
드 라 마
하

2020 오픈 작품집 — 드라마 하

2020

오픈
작품집
드라마
하

오픈 소개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①신인 창작자 발굴 ②콘텐츠 기획 개발 ③제작/편성
④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차례

모텔 하와이: Motel Hawaii — 윤나라

9

업로드하시겠습니까? — 이봄

67

심리학과 신비학 — 임윤성

121

러브스포일러 — 홍은주

179

봉선화 꽃잎 물들기까지 — 신시우

231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 — 문지은

287

학폭과의 전쟁: 삼촌들 전성시대 — 연조

339

오명남녀 — 백이신

399

Re-Play— 김미숙

453

산부인과로 가는 길 — 이하니

509

모텔 하와이

: Motel Hawaii

윤나라

주고받는 상처에 지쳐 나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마음을 아꼈다.
상처가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것을 아낀 만큼
주고받는 상처의 무게도 줄어야 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인과관계는 어디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자신의 온기를 아낌없이 주고도 재지 않는 사람.
원래 사람이란 이런 존재라는 듯,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듯,
우직하게 사람을 풀어내는 사람.
거칠고 투박한 표현에 따듯한 진심이 깃든 사람.

그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
결국 살아갈 힘은 사람에게서. 너와 나의 온기에서 온다는 것을.
그 미묘한 온도 차이가 서로를 지치게 할지라도.
안을수록 찢리고 아플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작고 남루한 공간에서
있는 힘껏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온기를 이야기하고 싶다.

등장인물

남희봉(70대, 남)

내뻗는 말의 대부분이 짧고, 굵고, 거칠고 투박하다.
하여 많고 다양한 욕을 얻어 잡숫고 살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개천의 건물주. 누군가는 그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모르는 소리, 빗더미
위의 건물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텔 하나 건사하며 겨우
살아내고 있는데 자꾸만 그의 판을 흔드는 꼬마 녀석이 나타난다. 누구냐, 넌.

지호(9세, 남)

작은 전학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에, 사람에게 잘 적응하지 못한다. 정 붙일 만하면 떠나야 했고 잊어야 했다. 언젠가부터 친구 사귀는 걸 포기했다. 그래야 떠날 때 한결 쉽다. 유일한 취미는 축구공 차기. 그러나 이것 또한 혼자만의 놀이다. 모텔이며 찜질방이 이골이 난다. 다 거기서 거기. 근데 큰 개와 반짝이는 오토바이가 있는 아주 허름한 건물을 만난다. 그 안에서 소금을 뿌리며 요상하게 웃는 할아버지까지. 엄마, 우리 여기 있어볼까?

지호 모(40대, 여)

위장위혼 6년 차. 남편 빛이 아이와 자신의 삶까지 잡아먹을 것 같아 먼저 위장 이혼을 제안했다. 분명 1년 안에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손 꼭 붙잡고 있는 힘껏 살아내고 있다. 경계심이 강하고 타인의 시선과 기준이 중요한 인물. 지호에게도 거짓 행복을 강요한다.

지호 부(40대, 남)

거리에서 나고 자랐다. 사랑받는 법도 책임감 있게 사는 법도 알지 못해 땅에 발붙이고 산 적이 없다. 뺏고, 뺏기며, 도망치며 사는 인생. 지호와 부인이 지내고 있는 모텔 하와이로 들어오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돈뿐.

태철(40대, 남)

도박꾼. 강약약강.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인물. 목적에 필요하면 납작 엎드려 울다 타인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인물이다. 희봉과는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 형님 동생 하지만 결국 사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판을 짜서 희봉의 모텔을 먹고자 하는 인물. 거칠고 비열하다.

차윤서(9세, 여)

지호야, 니 내 말 안 들리나? 우리 같이 축구 한판 하자!
밝고, 건강하고, 당돌하다.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지호에게 끊임없이 노크하는 9살.

순애(70대, 여)

희봉의 단 한 사람이자 삶의 이유.

그 외

사채 회장, 상혁, 담임선생님, 도박꾼, 심부름녀 외 여러 인물

줄거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번두리.

유난히 작고 허름한 동네 모텔에 지호와 엄마가 월방으로 이사를 온다. 첫인상부터 괴팍한 희봉이 지호 모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웬일인지 지호는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한다. 또래보다 작고 왜소한 데다 내성적인 지호. 이번 동네에서도 또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모텔 마당으로 급히 숨어든다. 희봉의 도움으로 지호는 그날을 무사히 잘 버티게 되고 둘은 조금 가까워진다. 그러나 여전히 괴팍하고 거친 희봉.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모텔 안에서만 생활한다. 매일 수없이 드나드는 저 비밀스러운 방 안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지호는 궁금하기만 하고...

#1. 도심+모텔 하와이 전경

개발이 막 이뤄지기 시작한 서울 번두리 어디쯤.
높이 솟은 아파트들 보인다. 바로 옆 길 하나 사이로 고만고만하게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풍경 이어진다. 그 사이로 유난히 허름하고
남루한 건물 한 채. 마치 작은 섬처럼 보이는 건물로 화면 점차 다가간다.

#2. 모텔 하와이/옥상(낮)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한가한 옥상 전경.
뽕뽕하게 고막을 울리는 경쾌한 음악.
빛바랜 모형 야자수 나무에 빨랫줄 걸려 있고, 그 위에 새하얀 침대
시트들이 바람에 날린다. 알록달록 하와이안 셔츠에 오래된 선글라스를 낀
남희봉(70대, 남). 가까이 다가가보면 이불 빨래 자근자근 밟고 있다. 마치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즐기는 듯, 리듬에 몸을 맡긴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3. 거리(낮)

산동네. 가파르고 좁은 비탈길.
얇은 숨을 헐떡이며 축구공을 안은 채 달리고 있는 지호(9, 남)의 얼굴.
지호 모(30대 후, 여), 한 손에 짐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 지호를 꼭 잡은 채,
아래로 아래로 내달린다.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보는 지호와 지호 모.
둘, 쫓기고 있다.
지호, 달려가다 낱아서 해진 운동화 한쪽이 벗겨진다.

지호 어, 엄마!!
지호 모 (다급한, 잡아끄는) 가야 돼!!

빛쟁이(E) 니들 내 손에 잡히면 뒤져!!

뒤쫓아 뛰어나오는 빛쟁이들 보인다.
지호, 벗겨진 신발 미처 신지 못하고 다시 지호 모와 뛰기 시작한다.

#4. 터미널(낮)

지호 모, 자신의 신발 지호에게 신긴다.
지호와 조금 떨어져 통화 중인 지호 모.

지호부(F) 별일 아니야. 해결하느라 그렇다니까?
지호 모 (두려움에 떨리는) 별일이... 아니야? 해결...?
그 말만 몇 년째인지 알아?

지호 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린 지호 돌아본다.
잠시 후, 지호 모, 지호 손을 꼭 붙잡고 버스에 오른다.

#5. 고속버스 안(낮)

달리는 고속버스 안.

지호부(E) 진짜야. 쫓만 참아. 이번 일만 잘되면 월세 보증금은 건진다니까.

창밖, 거친 산 능선 이어지다 어느 순간 푸른 들판 펼쳐진다.
지호,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 바라보다 잠이 든다.
지호 모 꼭 붙든 지호의 두 손. 그런 지호 안쓰럽게 보는 지호 모.

#6. 모텔 하와이/1층(낮)

모텔 하와이로 들어서는 남과 여.

중년의 남자와 화려한 치장으로 나이를 감췄지만
아직 옛된 얼굴의 여자아이.
여자, 어깨에 멘 쇼핑백에 아무렇게나 넣은 파우치와 교복 빠져나와 있다.
카운터 유리 앞에 붙여진 손글씨. ‘벨을 누르시오’ 그 옆에 연결된 호출 벨.

남손님 (피식, 벨 누르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여손님 (싫은) 뭐야. 딴 데 가.
남손님 이런 데어야 아무도 없어.
(느물거리는) 그리고 불 끄면 다 똑같아.
여손님 짐 낮이거든요?

남과 여 투닥거리며 실갱이 하는 사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희봉.
희봉, 레이저라도 뿜을 기세로 남과 여를 뚫어지게 본다.
이내, 시선 거두고 카운터로 들어선다. 책상 위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들.

남손님 아저씨, 방 있죠?
희봉 (대답 없는)
남손님 없어요?
희봉 민중.
남손님 (피식) 아저씨, 내 얼굴을 봐. 내가 짐 그걸 깔 나이야?
희봉 (시선, 옛된 여자 얼굴로, 뻔히 본다)
여손님 (움찔, 짜증) 아, 오빠. 그니까 내가 딴 데 가자고 했잖아!!
후지게 진짜. 짜증 나!
남손님 쳇,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희봉 나가.
남손님 허! 아저씨 장사 안 해?
희봉 니들 같은 것들한테 안 해!!
남손님 니들? 같은? 것들?? 우리가 뭐?! 뭐, 어떤데!!
희봉 (보는, 잠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찾는데)
남녀손님 ??

#7. 모텔 하와이/마당(낮)

기겁하며 문밖으로 튕겨 나오는 남과 여.

여손님 까아아악! 오빠, 저 할아버지 미쳤나 봐!

남녀 손님 위로 흰 소금이 팡! 팡! 뿌려진다.
바람에 날리는 흰 눈발처럼 사방팔방 흩날리는 소금 알갱이들...

남손님 (기겁하며) 아, 진짜 영감 노망났어!

외치는 남자 손님에게 소금 바가지를 안은 희봉이 쿵! 쿵! 쿵! 다가선다.
젠걸음으로 도망치는 남 손님. 몸 여기저기에 내려앉은 소금을 털며
모텔 마당을 벗어나는 남과 여. 희봉, 만족스러운 듯 웃는다.
마당 입구.
큰 가방을 든 지호 모와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축구공을 소중히 안은 지호.
지호 모, 슬며시 지호의 눈을 가린다.

지호 (엄마 손 내리며) 뭐얼. 새삼...
지호모 ...지호야... 괜찮을까?

지호의 시선, 마당의 큰 개와 오래돼 보이지만 반짝이는
오토바이에 잠시 머문다. 지호, 지호 모를 안쪽으로 잡아끈다.
하와이로 들어서는 작은 뒷모습들, 그 위로 타이틀 떠오른다.
<모텔 하와이>

#8.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낮)

희봉, 소금 바구니 내려놓는다.
바구니 아래 깔리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들.
경계심 가득한 지호 모와 심드렁한 지호가 들어선다.
희봉, 지호 모가 들고 있는 가방으로 시선 간다.

지호 모 (지호만 들을 정도로 작게) 지호야, 아무래도 우리...
 희봉 (듣고는 바로) 달에 삼십.
 지호 모 네? 아니, 저희는... (고민하는데) 하루 이틀 있어보고...
 희봉 29만 원.
 지호 모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희봉 28만 5천 원. 더 이상은 안 돼!

#9. 몽타주. 모텔 하와이의 나날

— 카운터 벽면 한쪽에 걸린 사진들이 희봉의 세월을 말해준다.
 — 오래되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내부.
 — 물이 새는 배수관을 고치고 돌아서는데 깜박이는 1층 복도 전등.

희봉 (전등을 갈며) 그렇지, 그렇지. 니놈이 나갈 때가 됐지.

CUT TO

삐끄덕 소리 내는 마루를 망치로 두드린다.

희봉 그래 이놈아 이제 그만 울고 조용히 좀 살자.

— 쓸고, 닦고, 빨고, 널고, 고치고
 오랫동안 해온 희봉만의 질서가 있는 공간들.
 모텔 하와이다. 고된 노동에도 희봉, 행복해 보인다.
 — 그러다 비밀번호 도어록이 달린 방 앞에 선 희봉. 뒷주머니에서 쪽거울을 꺼내 요리조리 매무새를 다듬는다. 조용히 노크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다. 희봉, 주의를 한번 살피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간다.

#10. 모텔 하와이/201호(낮)

우당탕 쿵!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는 지호. 모텔 어디선가 들리는 왈카지결한 싸움 소리. 지호, 놀란 토끼 눈으로 소리를 듣다 엄마가 남긴 쪽지와 용돈을

본다. '아들, 엄마 일하러. ○○식당, 000-000-0000'

지호,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든다. 통장이다. 엄마가 두고 간 용돈을 소중히 넣는다. 익숙한 듯 혼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지호.

#11. 모텔 하와이/301호(낮)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방. 술 취한 도박남1(30대, 남)이 판을 엮는다.
 도박꾼 태철(40대, 남), 익숙하다는 듯 꼼적 않고 돈을 챙긴다.

도박남1 내가 병신 호구로 보여? 너들!! 싹 다 한패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태철 아니, 점잖게 놀다 가시지 왜 이럴까! 어!!

도박남1, 태철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방 안.
 이때, 슬그머니 일어나는 심부름녀(30대, 여).
 도박남1, 갑자기 여자의 머리채 움켜쥔다.

도박남1 너지? 니가 꽤 읽어다 바쳤지? 내가 다 봤어!
 심부름녀 (태철 향해 도움 청하는 눈길 보내며) 아악! 놈! 놓으라고!
 태철 (심부름녀 시선 외면하며) 참, 나.
 도박남1 모른 척 하시겠다?
 태철 알아서 하시든가.

심부름녀 "사장님!" 하며 도움 청하지만 태철, 모른 척 외면한다.
 도박남에게 끌려나가는 심부름녀.

#12. 모텔 하와이/1층(낮)

못마땅한 표정으로 싸움 소리가 나는 천장을 노려보고 있는 희봉.
 책가방을 멘 지호 내려온다.

지호 할아버지! 위에서 싸워요.

희봉 안다.
 지호 안 말려요? 엄청 크게 싸워요.
 희봉 (귀찮은)
 지호 신고해요! 112!
 희봉 (신고?! 짜린다)

#13. 회상. 모텔 하와이/마당(밤)

비 오는 날. 희봉 앞에 납작 엎드린 태철. 얻어터지고 찢긴 행색.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의 모습으로 빙고 또 비는 태철.

태철 형님 제발! 내가 뭐 벌거 해달래요? 딱 방 한 칸요!!
 희봉 (단호한) 내 모텔에 도박판은 안 돼!
 태철 (희봉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제발, 형님임!
 나 좀 살려달라구요!!
 희봉 (차마 더 뿌리치지 못하고, 두 눈 질끈 감아버리는)

#14. 모텔 하와이/1층(아침)

희봉 (머리 지끈거리는데)
 지호 누가 다치면 어떡해요.
 나쁜 사람들이 한 사람만 막 때리고 괴롭히면.
 희봉 가라.
 지호 (해맑게) 제가 할까요?
 희봉 이건 으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뚝 하니 지호 보면)
 지호 ……어떻게요?

지호, 말뚱말뚱 희봉 앞에 서 있는데, 도박남,
 심부름녀 머리채 잡고 계단으로 내려온다. (희봉 시야에만 보인다)

도박남(E) 썩! 나 혼자서 절대 안 죽어. 내가 나가려면 너도 나가리야.

희봉 (지호 향해) 가! 언능!
 지호 (나가며, 해맑게) 나쁜 사람 112! 아프면 119! 급하면 120!
 희봉 ?!

도박남1, 심부름녀 끌고 나간다.
 도박남1 나가자 건물건들 내려오는 태철.
 희봉에게 툭, 던지듯 현금 내려놓는다.

태철 쓸쓸하죠, 형님? 그때 나한테 방 안 쫓음 어쩔 뻔했어…
 이렇게 딱박딱박 장기적으로다가 돈 벌어주는 놈 있어요?

태철, 비릿하게 웃는데. 희봉의 표정 복잡하다.

#15. 거리(아침)

지호, 동네를 나서면 ‘축 재개발’ 현수막 걸려 있다.
 군데군데 웅장한 포클레인 서 있는 공사 중인 동네 풍경 보인다.

#16. 초등학교/교실 안(아침)

왁자지껄한 교실 안으로 담임(30대, 여)과 책가방 멘 지호가 들어선다.
 담임, 전학생 지호를 소개한다.
 지호, 어색하게 서 있다 지정받은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이때 지호의 시선에 들어온 짝궁 윤서(9, 여).

담임 새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반장, 인사.
 상혁 차렷, 경례.
 지호 (결눈질로 겨우 윤서 보며, 불 발그레)
 윤서 (배시시, 짝궁 생겨 좋은) 내도 지난달에 전학 왔다.
 니 어디서 왔노?
 지호 (수줍고 낮선, 대답 없고).

윤서 니, 말 몬 하나? (장난스럽게 보며 싱긋 웃는데)
상혁 (그런 윤서와 지호 보는)

#17. 모텔 하와이/학교 운동장(낮)

퍽!! 바닥에 밀쳐지는 지호. 그 위로 던져지는 고가의 캐리어형 책가방들.
상혁, 넘어진 지호 발로 툭툭 차며

상혁 야. 요새 누가 너처럼 촌스럽게 책가방 메고 다녀. 딱 봐도 그지네.
지호 그지 아니야!
상혁 됐고, 들고 따라오기나 해.
지호 내가 왜!
상혁 빙신. 끼워주는 거잖아. 싫어?
지호 ……싫어!
상혁 어쭈? 이게 (하며 지호 위로 올라탄다)

#18. 모텔 하와이/옥상(낮)

옥상. 희봉, 목이며 무릎에 반으로 잘라 붙인 파스들. 중간중간 공—공—
않아가며 맨손체조 한창이다. 이때, 마당에 있던 덩가(12, 희봉의 개) 킁!킁!
짖는다. 희봉, 소리가 나는 쪽을 내려다보는데, 달려오는 지호.

#19. 모텔 하와이/마당(낮)

지호, 모텔 마당에 뛰어 들어와 희봉의 오토바이 뒤에 숨는다.
누가 오는지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호.
순간, 기우뚱! 오토바이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

희봉 (기겁하며) 이!!! 이!!! 이놈아!!!

희봉, 다급히 뛰어 내려와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잡으려는 순간!
혹, 넘어 가버리는 할리데이비슨. 희봉, 안절부절 경악하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다. 한쪽 백미러 덜렁이다 힘없이 푹, 떨어진다.

희봉 (백미러 주워들고 부들부들) 이!! 이놈의 자식……!!
지호 (움찔)
희봉 이거 어쩔 거냐. 어?! 니 엄마는!!!
지호 엄마… 식당에 일하러 갔어요…. 밤에 와요. 아주 늦게요.
희봉 (지호 잡아끄는) 어디냐 거기가! 앞장서!!

#20. 식당(낮)

손목 보호대에 파스까지 붙이고 정신없이 일하는 지호 모.
앞치마 안에서 계속 울리는 전화, 지호 모 겨우 받는다.

지호부(F) (짜증 섞인)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지호모 점심때 정신없는 거 알잖아. 지금 겨우 숨 돌려.
지호부(F) (아무 말 없고)
지호모 애가 보고 싶어 해.
지호부(F) 돈 좀 구해봐.
지호모 애가 보고 싶어 한하는데 돈 애기가 그렇게 바로 나오니?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지호부(F)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냐!
지호모 생활비 털어서 보내준 지 며칠 안 됐잖아…
지호부(F) 이번 일만 잘되면 우리 인생 한 귀퉁이 피는 거라니까.
지호모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그러니? 응?

지호 모, 속상한 마음으로 전화 끊고 돌아서는데
끈적끈적한 손길로 지호 모의 허리를 확 끌어안는 식당 사장.

지호모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식당주인 (굴하지 않고 손길 더 노골적으로 더러워지는데)

#21. 식당 앞(낮)

성큼성큼 걸어오던 희봉, 식당 앞에 멈춰 선다. 지호, 희봉 따라 멈춰 선다.
거부하는 지호 모와 희롱하는 식당 주인을 보는 희봉.
지호가 보지 못하게 막는다.

지호 할아버지, 왜요?
희봉 애들은 몰라도 된다.
지호 뭐를요?
희봉 (지호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하는데)
식당 주인(E) 으아아악!

#22. 식당 안(낮)

식당 주인의 손을 콕! 깨물고 있는 지호 모.

식당 주인 이거 놔! 놓으라고!

손을 겨우 뺀 식당 주인, 지호 모의 뺨을 거세게 내리친다.
휘청하는 지호 모.
희봉, 순간 멈칫! 식당 주인에게 다가선다. 확! 한 대 칠 기세로 백미러
높이 드는데, 어느새 들어선 지호. 울먹이며 식당 주인에게 소리친다.

지호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식당 주인, 성가신 듯 지호를 거칠게 밀쳐낸다.
희봉, 식당 주인 멱살을 잡는데.

#23. 식당 밖(낮)

잠시 후, 식당 밖으로 튀기듯 쫓겨나는 희봉, 지호, 지호 모.

#24. 거리(해질녘)

너덜거리는 백미러를 들고 있는 희봉과 앞치마를 한 지호 모.
그리고 두 사람 눈치를 보는 지호. 셋. 터덜터덜 걷는다.

#25. 모텔 하와이/마당(밤)

모텔 마당에 들어서는 희봉, 지호, 지호 모.

지호 모 (멈춰서, 찌른다) 심심하세요?
희봉 ??! (보면)
지호 모 앉은 자리서 돈 버시니까. 심심하시냐구요!
희봉 이보게.
지호 모 뺨 한 대로 끝내면 될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세요!
희봉 (!) 그거야 꼬맹이 녀석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호 모 책임지실 것도 아니면서 남의 밥줄을... 왜 끊어놓으시냐 말예요.
희봉 !!
지호 모 애 하나 데리고 동둥거리며 사는 게... 어떤 건 줄 알거나 하세요?
앞으로 저희 두 번 다시 상관 마세요.

지호 모 쏘아붙이고 들어가 버린다. 희봉. 괜한 일을 한 듯 심란하다.

INSERT

모텔 옥상. 전화를 받던 태철. 지호 모와 희봉의 모습 지켜본다.

#26. 모텔 하와이/계단(밤)

1층으로 내려오던 태철,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호 모와 마주친다.
태철, 비릿한 시선으로 지호 모 위아래로 빠르게 속 훑는다.

#27. 모텔 하와이/마당(밤)(#25 연결)

지호 모가 쏘아붙이고 들어가 버린 마당에 남은 희봉과 지호.

지호 할아버지. 엄마요……. 화난 거 아녜요.
 희봉 (보면)
 지호 슬픈 거예요. 힘들어서.
 희봉 (지호 본다. 지호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알겠고)

#28. 모텔 하와이/옥상(밤)

지호 모. 훅 올라오는 울음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히는데
아무리 숨을 쉬어봐도
막막하고 답답하다.

태철(E) 먹고살기가 참, 뭇 같죠?
 지호 모 (소리 나는 쪽 보면)
 태철 (지호 모 쪽으로 다가서며) 일자리. 필요하지 않아요?

#29. 모텔 하와이/301호(밤)

태철(E) 너~무 쉬운 일. 팁까지 넉넉해.

도박 방에 들어선 지호 모, 테이블마다 음료와 담배를 서빙하기 시작한다.

#30. 모텔 하와이/201호(밤)

지호, 가방을 연다. 가정환경조사서와 알림장, 통장을 꺼낸다.
바닥에 엎드려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한다.
부(父) 직업 부분에서 고민하는 지호.

#31. 과거. 찜질방(밤)

모두가 잠든 어두운 찜질방 한쪽에서 핸드폰 불빛 아래
엎드린 지호와 지호 모.
가정환경조사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

지호 모 지호도 이제 아홉 살이니까. 엄마 바쁠 땐 이런 거 혼자 적어.
아홉 살은 다 컸잖아. 그지? 혼자 할 수 있지?
 지호 (대답 없이 종이 보고 있다가) …거짓말…
 지호 모 응? 뭐가?
 지호 …내가 아빠가 어디 있어.
 지호 모 (!) 니가 아빠가 왜 없어. 지호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 못 하는 거지.
엄마가 몇 번 말해. 아빠 공무원이셨다고.
 지호 (시무룩)
 지호 모 그리고 이렇게 써내야 무실 안 당해.
사람들, 괜히 안 그런 척해도 결혼이니 한 부모니 다들 뒤에서
험담하고 손가락질해. 엄마 말 들어.
 지호 …맨날… 거짓말.
 지호 모 (어르는) 말했잖아. 우리 세 식구 살 집 구하면. 아빠 진짜 오실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지?
 지호 와서 사도 되잖아. 그럼 엄마도 일 덜 해도 되고!!
 지호 모 !!

#32. 모텔 하와이/201호(밤)

다 채우지 못한 가정환경조사서.
지호, 공공 숨겨둔 사진 한 장 꺼낸다. 지호 백일 때쯤 지호를 안은 지호 모.
접힌 부분 펼치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지호 부의 모습 보인다. 낯설다.

지호 아빠.

지호, 작게 아빠 불러보고는 그대로 엎드린 채 홀로 잠이 든다.

#33. 동네 작은 문방구 앞(낮)

아이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있다. 지호, 순서 기다리다 앉으려는데.
자전거 탄 상혁, 지호에게로 와 그대로 들이받는다.

상혁(E) 꺼져!
지호 …내 차례야…
상혁 꺼져. 그지 새끼. 너 여기 모텔 살지? 내가 다 봤어.
지호 거지 아니야!
상혁 (자전거 으쓱 내밀며) 너 이런 거 있어? 너, 집 있어?
지호 !!

#34. 모텔 하와이/마당(낮)

마당에서 떨어진 백미러를 청테이프로 칭칭 감고 있던 희봉,
순간, 아이들 소리에 신경 곤두선다.

희봉 욱! 또!!!

빠져나가려는 지호와 막아선 상혁 사이 작은 몸싸움이 인다.
옆치락뒤치락 밀고 당기며 어느새 모텔 마당. 아이들 가까이 다가올수록 희봉,
오토바이 지키느라 바쁘다. 덩치 큰 상혁에게 한참 밀리는 지호.
상혁, 기어코 지호를 깔고 앉는다.
말없이 보던 희봉, 바닥에 깔린 지호와 순간 눈이 마주치는데…
무시하려던 희봉, 덩가에게 다가간다.

희봉 덩가. 가!! 실컷 짓어! 넌 어차피 못 물잖아.

덩가, 싸움 중인 아이들에게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쾅! 쾅! 몸을 부비며
짓는다. 노는 건 줄 안다. 그러다 상혁에게 깔린 지호 옆에 살포시 눕는다.
지켜보던 희봉, “그럼 그렇지” 실망하는데 상혁 “이건 뭐야!” 귀찮다는
듯 덩가 발로 툭 찬다. 순간 희봉 눈빛 변한다. 상혁, 다시 지호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희봉, 일부러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동 건다. 아이들 시선, 모텔 마당의
희봉에게 쏠린다. 희봉, 화려한 엔진 소리와 함께 모텔 마당을 크게
한 바퀴 돈 후, 지호 곁에 착지. 한쪽 백미러는 없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오토바이. 희봉, 상혁 보며 씨익 웃는다.

상혁 (시선 뺏겨) 와!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희봉 (미소) 그래? (하더니 상혁의 자전거 발로 뺨 찬다.)
상혁 아이씨! 뭐 하시는 거예요? 기스 나잖아요!
희봉 아프냐?
상혁 ?!
희봉 재도 아프다.
상혁 아, 뭐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거지새끼 아프든 말든!
희봉 (엎어진 자전거 바퀴를 한 번 더 킁! 밟는다)
상혁 !!!
희봉 어이, 큰 꼬맹이, 잘 들어. 덩가는 열두 살이야.
상혁 에??
희봉 (덩가) 열두 살은 늙고 아파. (지호) 아홉 살은 아직 어리지.
둘 다 맞으면 아파.
상혁 아 뭐래. 어찌라고요.
희봉 (눈 부릅, 사뭇 비장) 앞으로 요 작은 것들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담 번엔 니 다리를 이렇게 뽀개놓을 줄 알아. 알았냐!!
상혁 (완전 얼었다.)
희봉 왜 아직도 여깃냐. 한 번 더 밟아주랴?
상혁 (도망치는)
희봉 가서 일러. 니가 한 짓도. 내가 한 짓도. 빠짐없이 똑바로!
지호 (넘어진 채 그대로 어리둥절한)
희봉 (지호 향해) 자냐?

희봉, 짧고 굵게 지호를 구하고는 쿨하게 모텔 안으로 퇴장한다.
지호, 희봉이 들어간 모텔을 누운 채로 한참 바라본다.
잠시 후, 여기저기 상처 난 팔다리로 천천히 툭, 툭 털고 일어난다.

#35. 모텔 하와이/1층(낮)

지호, 모텔 안으로 들어선다. 희봉, 붙이다 만 청테이프로
더 너덜너덜해진 백미러 들고 입을 꼭 다문 채 서 있다.
지호, 주뿔주뿔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려는데 지호를 꼭 잡는 희봉.

#36. 모텔 하와이/마당(해질녘)

평상에 앉아 뽕빠레 아이스크림 먹는 희봉과 지호.

희봉 내 백미러 한쪽은 지켜야 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두 번은 안 가르쳐줄 거니까 잘 들어.
지호 (끄덕끄덕)
희봉 너, 팔 힘이 약하잖아.
지호 (와중에 해맑은) 제가 약한 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희봉 (한숨, 누르는,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나) 팔 들어봐.
지호 (들어 올리는)
희봉 쪽 뺨어봐. (지호 팔 흔들며) 자, 봐봐. 짧고, 가늘지?
지호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가웃, 그런가?)
희봉 주먹 쥐어봐.
지호 (힘껏, 주먹 꼬옥 쥐다)
희봉 작지? (자신의 주먹을 지호의 손 옆에 대주면)
지호 (끄덕)
희봉 짧고, 가늘고, 작지? 그럼 힘이 썰 수가 없어.
지호 (바로 수궁하는) 아...
희봉 아홉 살 인생 동안, 니가 약한 것도 파악이 안 된 거냐?
뻘고, 잘 들어. 그럴 때 방법은 하나야.
지호 (눈 초롱)
희봉 급소.

#37. 상혁이네 마트(낮)

물건 정리 중인 마트 주인 상혁 모. 태철, 마트로 들어선다.

태철 (건들, 상혁 모에게) 아줌마, 라이트.
상혁 모 한 개?
태철 (피식) 보루. 따블.
상혁 모 (물건 내는데)
상혁 (앙, 울며 들어서는) 엄마!!
상혁 모 너 왜 이래!
상혁 모텔 그지가 때렸어!
상혁 모 어디? 어느 모텔?
상혁 그 깡패 할아버지랑 그지 새끼가.
상혁 모 하와이 그 노인네? 저! 저놈의 싸구려 모텔!!
괜히 동네만 험해지고!
태철 (톡, 서늘하게) 너도 저 모텔 싫지.
상혁 모 (뜬금없다 싶어 보면)
태철 (피식) 재개발 발목을 잡잖아요.
그죠? (건들건들 담배 들고 나가는)
상혁 모 !

#38. 모텔 하와이/마당(낮)

희봉 급소란, 위, 아래, 중간. 즉, 인중, 명치, 단전인데! (지호 보면)
지호 (말똥말똥 못 알아듣는다)
희봉 그래, 못 알아듣겠지. 그리고 너, 어차피 짧아.
팔이 가는 동안 더 맞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노려. (턱)
지호 (작은 주먹 야무지게 쥐고) 이걸로요?
희봉 어. 아님 이걸로. (머리 툭툭 가리킨다)
지호 (따라 해본다) 주먹 아님 이거. (머리 가리키며)
희봉 그렇지.
지호 ...근데... 엄마는 친구 때리지 말랬어요.

희봉 친구냐?
지호 ...
희봉 거봐. 아니잖아.
지호 사고 치면 엄마 골치 아프다고... 참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요.
내가 사고 치면 엄마 울어요...
엄마가 울 거 같으면 난 바로 알아요.
희봉 ...그래서 사이 좋냐?
지호 (고개 절레)
희봉 니가 개보다 머리 하난 작지?
지호 (끄덕)
희봉 니가 개보다 약하지?
지호 (끄덕)
희봉 그럼 너를 지켜. 알겠냐?
지호 (끄덕)
희봉 그래야 너도 지키고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지키는 거다.
지호 할아버지도 지켰어요?
희봉 (끄덕. 누군가를 생각하는 듯, 이전에 볼 수 없던 눈빛 스치고)
지호 (그런 희봉을 본다)
희봉 다시.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지호 (야무지게 꼭 쥐며) 주먹 아님 이거! (머리)
희봉 그렇지. 작은 니가 아래서 위로 밀어 올리듯이. 뻑! (시범 보여가며)
지호 (어설픈 듯 따라 하는)
희봉 (지호의 엉성한 폼 교정해주며)
조금 더 끌어 올리는 느낌으로! 뻑!!

한 손에 뺨뺨레 들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는 자세를 계속 취하는 지호와 희봉.
마치 슬로 모션으로 움직이는 자유의 여신상 같다.
사람들 보기에 사뭇 코믹한데,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다.

#39. 모텔 하와이/201호(낮)

모텔 간판의 네온사인 불빛만 어슴푸레 들어오는 불 꺼진 201호.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방을 뒤지고 있다.
지호, 방에 들어서며 불을 탁! 켜다.
방을 뒤지던 남자, 순간 당황하며 멈추는데. 지호 부(40대, 남)다!

지호 (놀라고, 겁먹은) 누구...세요?
지호부 !!! 어? 어... 그게...
지호 (덜컥 겁먹는) 할아버지!! (부르며 뛰쳐나가려는데)

지호 부, 반사적으로 지호 입을 틀어막는다.
지호, 지호 부에게 잡혀 버둥대는데...

지호부 야! 야! 쉬잇. 조요 조요!
지호 (입 틀어막힌)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지호부 아, 아빠야!
지호 !!!!!

지호 부, 지호 놔준다. 아빠 얼굴을 한참 보는 지호. 어색한 정적.
잠시 후, 지호 부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고 있다.
지호, 그런 지호 부 신기한 듯, 낯선 듯 계속 본다.

지호부 엄마는. 일 잘하고 있지?
지호 (끄덕) 식당서 매일, 매일 밤에 와요...
지호부 아빠가 바빠서 그것만 가지고 아니,
이것만 먹고 가야 돼서 그러는데... 엄마가 돈은 어디다 두니?
지호 ...
지호부 몰라?
지호 (끄덕)
지호부 잘 생각해봐. 급해.
지호 ...아... 빠...
지호부 ...어?

지호 공무원이에요?
 지호부 어...? 어...어.
 지호 진짜요?
 지호부 그렇다 치자. 나라서 주는 콩밥 먹었으니 그거나 그거나.
 지호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빠랑 셋이 같이? 집 사서?
 지호부 뭐?

어딘가 모르케 안심하는 지호,
 미완성이던 가정환경조사서 꺼내 빈칸을 채운다.

#40. 초등학교/교실(낮)

다음날. 지호, 가정환경조사서를 꺼내는데, 이를 획- 낚아채는 상혁.

상혁 니네 아빠가 무슨 공무원이야! 모텔에 사는 그지 새끼가!
 지호 내놔!
 상혁 울 아빠가 그 모텔 할아버지도 완전 그지에 깡패렸는데!
 사람 패서 깡방도 갔다 왔잖어!
 지호 아, 내놓으라고.
 상혁 왜? 또 그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 해보시든가.
 혼자선 덤비지도 못하는 게?
 이때, 누군가 다가와 상혁의 등짝을 강하게 스매싱!
 상혁 (획!) 아! 누구야!
 윤서 내다! 차윤서, 송지호 짹.
 (상혁의 손에 있는 지호의 서류 낚아채는)
 상혁 안 내놔? 이게 니 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
 윤서 그럼 이기 니 끼가? 니는 뭔데 내 짹 괴롭히노.
 상혁 뭐? 내 짹?
 윤서 그래, 내 짹 건들지 마라! 머스마야! 비겁하고로. 왜 남의 걸 들고

난리고? 니는 반장이나 되가 사생활 보호도 모르나?
 상혁 이게 진짜!
 담임 (들어서며)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구경하던 아이들, 우르르 자리로 돌아간다.
 상혁 (자리에 앉아서도 뒷자리 윤서 노려보는)
 윤서 (지지 않는, 두 손가락과 입 모양으로) 내 너를 지켜볼 까다.
 상혁 우씨.
 지호 (그런 윤서 보는)

#41. 초등학교/운동장(낮)

종소리 울리고. 운동장으로 아이들 쏟아져 나온다.
 아이들 사이로 지호, 발끝에만 시선 고정된 채,
 축구공 툭툭 차며 걸어 나온다.
 윤서, 폴짝폴짝 지호 곁으로 뛰어온다.

윤서 야, 송지호!
 지호 (멈춰서, 돌아보는데)
 윤서 (숨 고르며, 발그레) 너, 우리 축구부 들어올래?
 지호 (수줍은) ...아니.
 윤서 뭘,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대답하노?
 ...그러면 요 앞 사거리서 떡볶이 먹고 갈래? 그 집 잘한다 아이가.
 지호 아니...
 윤서 니도 바쁘나? 니도 요 동네 아들처럼 학원 억수로 많이 다니나?
 지호 아니...
 윤서 니 내랑 축구하기 싫나?
 지호 아니. (아차) 어, 싫... (하려는데)
 윤서 아니문~ 방과 후 축구교실 들어온나. 같이 공 줌 차고로.
 니 맨 혼자 요래요래 차른 재미없다 아이가.
 지호 ...싫어.

윤서 와? 축구공은 그라픈 폼으로 들고 다니는 기가?
 찰 거 아이고? 어데 함 보자. 얼마나 대단한 공인데 그라노?
 (하며 성큼 다가서는데)

지호 (반사적으로 한발 물러나는)

윤서 (지호 행동에 순간, 윤서 얼굴에 민망함이 번지고)

지호 (그 민망함을 읽는, 미안한) 나... 축구 잘 못해...
 (하고 후다닥 가는)

윤서 (지호 등 뒤에) 문딩이 머쓰마! 누가 잘하라 카드나!
 고마 같이 하자는 기지!

지호 (미안하고, 쑥스러운, 뉘듯이 가버리는)

#42. 모텔 하와이/301호(낮)

도박이 한창인 301호.
 지호 모, 게임이 끝난 테이블 치운다.
 재떨이를 비우고 담배며 음료 나르는데.

#43. 모텔 하와이/이곳저곳(낮)

지호 부. 오징어 다리를 질경질경 씹으며,
 모텔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린다. 딱 한량처럼.

#44. 모텔 하와이/301호 앞(낮)

지호 부, 301호 앞에 선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공들여 기웃거리려
 보는데 301호에서 게임을 끝낸 사람이 나온다.
 방문이 열린 틈새로 지호 부,
 안을 흘끔 들여다본다. 순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도박판과 돈다발이 휘리릭
 넘어가는 것이 눈에 확! 뜨이는데!! 그 안에 있는 지호 모!!

지호부 (지호 모에게) 야!!

#45. 모텔 하와이/마당(낮)

모텔 뒷마당. 지호 부, 지호 모의 손목 거칠게 잡아끈다.

지호모 누, 누군 뭐 좋아서 해? 지호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호부 야, 나 줌 거기 넣어줘라.

지호모 (예상치 못한) 뭐???!!

#46. 모텔 하와이/301호(낮)

모두 말없이 패를 주고받는데, 지호 부 흥분한 탓에 혼자 목소리를 높인다.

지호부 너무 오랜만이라 손에 제대로 붙을지 모르겠네. 하하하.
 내가 왕년에 이걸로 줌 벌어들였거든요. 하하하하.

아무도 지호 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 태철만 그런 지호 부를 뵈히 본다.

태철 (피식) 알아서 굴러들어왔네.

#47. 과거. 폐창고(밤)

양 손목이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태철. 그에 비해 차갑도록 평온한 회장.

회장 태철아.

태철 네... 네 형님.

회장 내 돈을 썼으면, 신속히 줌 갚아야지.

태철 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 그 작은 판으로 언제 다 갚을래? 내 돈이 소꿉장난이야?

태철 (꿀꺽 마른침 넘어가고)

#48. 현재. 모텔 하와이/301호(밤)

회장(E) 좀 똑똑히 봐야지.

태철, 301호 굳게 닫힌 암막 커튼 열어 창밖 보면,
여기저기 재개발 중인 동네.

회장(E) 하와이 노친네가 관 뚜껑 닫을 때까지 버티고 살겠는데
나는 그 땅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철 !

회장(E) 니가 빌린 원금은 내 손에 하와이 들어오는 날 계산 끝나는 거야.
엎어지면? 니 손모가지는 내 이자가 되는 거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관 키워놔. 한 번에 가게.

태철, 창가에서 방 안으로 돌아서면, 시선에 들어오는 지호 부, 지호 모.

#49. 모텔 하와이/101호 앞(낮)

희봉, 정성스러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101호 앞에서 있다.
이때, 지호 들어선다.

지호 (천진한) 컵라면 말고 다른 것도 돼요?

희봉 (저리 가라는 손짓) 가거라.

지호 (궁금한) 여긴 누가 살아요? 할아버진 방이 두 개예요?

희봉 (입을 꼭 다문, 사뭇 무서운 표정 지어 보이면)

지호,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간다.

#50. 초등학교/운동장(낮)

오후의 운동장. 친구들과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윤서 보인다.
지호, 혼자 공을 차며 놀고 있는데, 누군가 태클을 걸어 공을 뺏는다.
상혁이다.

상혁 뺏어보든가! 이 그지 새끼야!

하더니 공을 멀리 차버린다. 윤서의 몸에 공 맞는다.
윤서, 아파서 주저앉는다.

상혁 아프냐? 아프냐? 썸통이다.

상혁, 다시 공을 뺏어 또 멀리 차버린다. 교무실 창문이 와장창 깨진다.

선생님 (창문 열며) 누구야!

지호 야! 김상혁!

상혁 (으쓱, 난 모르는 일인데, 약 올리면)

지호, 희봉에게 배운 대로 있는 힘껏 상혁을 향해 돌진한다.
퍽! 나가떨어지는 상혁.

#51. 양호실(낮)

양호선생님, 윤서를 치료 중이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지호.

선생 뻘도 괜찮은 거 같고, 멍이 크게 들지는 않겠다.

윤서 (지호 향해, 싱긋 웃어 보이며) 내 쾌애타! (팔 휘휘 돌려 보이는)

지호 (그제야 안심하며 얼굴 편다)

#52. 모텔 하와이/1층(낮)

신나서 모텔로 뛰어 들어오는 지호.

희봉, 101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열결에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선다.

지호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제가 제대로 복수했어요!
 빠—!! 제가 혼내줬다구요! (주먹 불끈 쥐며)

지호, 희봉을 따라 열결에 들어왔는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야자수와 바다 페인팅 벽지, 레이스 커튼,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깨끗한 침대보. 그 위에 달린 모빌. 책장 가득 동화책과 장난감들. 한 편에 여성용 기저귀까지.

넓은 모텔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 듯한 공간. 마치 작은 하와이 같다.

그리고 너무나 곱고 우아하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순애(70대, 여)

지호, 펼쳐진 다른 세상에 놀라고, 희봉, 지호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희봉 너!!!
순애 (지호 보는, 미소로) 참 곱다.

 이빠... (지호 향해 손을 뻗어, 이리 온)

지호 (희봉 보는)

희봉 (고개 끄덕)

순애 (부드러운 손으로 지호 머리칼을 따듯하게 쓰다듬는)
 곱다. 참 고와.

순애, 지호의 이마, 눈썹, 코, 동그란 볼을 소중히 어루만지는데...

지호, 이렇게 따듯하고 낮은 손길이 처음이다.

시간이 지나고, 희봉, 순애에게 나지막이 동화책을 읽어준다.

괴팍하고 투박한 희봉은 온데간데없고 낮고 따듯한 목소리다.

순애, 어느 순간 아이처럼 스르륵 잠이 든다. 희봉, 순애를 편하게 눕혀준다.

이제야 희봉도 편하게 앉는다. 무릎이 아픈지 공... 주무르는데, 파스가

쫄쫄쫄한. 카운터 벨이 울린다.

벨소리에 살며시 잠에서 깨 눈을 뜨는 순애.

희봉 (지호에게) 여기 잠깐...

지호 (순애 곁으로 다가가 앉는다) 네...

희봉 (지호와 순애를 보다 밖으로 나간다)

#53.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낮)

희봉에게 열쇠를 받은 손님, 위층으로 올라간다.

희봉, 계속 무릎이며 어깨가 불편한지 미간이 찌푸러지고.

#54. 모텔 하와이/101호(낮)

지호, 희봉이 읽던 동화책을 또박또박 읽는다.

순애, 얼마 듣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든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희봉. 한참 동안 이 모습을 본다.

#55. 모텔 하와이/1층(밤)

잠시 후 지호, 덩가와 공을 굴리며 놀고 있다. 희봉, 빨갛감 들고

101호에서 나온다. 이때, 301호 도박방에서 호출이 울린다.

무시하고 받지 않는 희봉. 벨소리 멈추고, 잠시 후 태철이 직접 내려온다.

태철 아니, 형님, 호출 벨은 장식이요?

희봉 (하던 일 계속하는)

태철 (만 원짜리 특) 음료 좀 올려 보내봐요.

 (건들) 남은 건 용돈 허시고!

희봉 (만 원 특, 날려버리는)

태철 !!!! 허!

순간, 분위기 차게 얼어붙는다. 이때,

지호 저요! 제가 할게요!
태철, 희봉, 동시에 지호 본다.

#56. 모텔 하와이/2층 계단(밤)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지호, 통장을 소중히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서 들리는 싸우는 소리.

#57. 모텔 하와이/201호(밤)

지호 부, 지호 모와 언성을 높이고 있다.

지호부 나 못 믿어? 내가 따블로 불러다 준다고!
지호모 제발 그만해!
지호부 인생 한 방이야. 계속 하루 벌어 근근이 먹고 살래?
판이 커지고 있다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먹을 거 아냐!
지호모 애랑 내 생각은 안 하니? 제대로 살 생각이 있기는 해?
지호부 야! 꼴에 에미라고. 책임도 못 질 거.
너나 나나 지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인생들인데, 누가 낳으래?!
지호모 (짹! 소리 나게 지호 부 뺨 후려친다)

방문 앞에 있던 지호,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 스르륵 풀리고.

#58.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밤)

지호, 마당 구석 희봉의 할리데이비슨 뒤로 몸을 숨긴다.
딩가, 지호 곁에 눕는다. 잔뜩 웅크린 지호 울음을 꺾꺾 눌러보지만 닭똥 같은 눈물 똑똑 떨어진다. 속속 눈물 흘린다. 잠시 후, 지호 잠이 든다. 마당으로 나와보는 희봉. 잠든 지호를 안아 드는데...

지호 (잠에서 깨는) 할아버지...
희봉 चु다. 들어가자.

#59.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밤)

희봉과 지호, 소박한 밥상을 두고 마주 앉는다.
위에서 아직도 싸우는 소리. 희봉, TV 볼륨을 높인다.

희봉 (물잔에 소주 채워 마신다)
지호 (수저 들지 않고 기다리는)
희봉 (그런 지호 보는) 먹어라.
지호 (그제야 수저 든다)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희봉 (소주잔 들며) 이걸 어른들 약이다.
지호 우리 엄마도 맨날 그거 마셔요.
희봉 (보는)
지호 그리고 울어요.
희봉 (보는)

시간 경과.

소주를 물처럼 훌쩍이고 있는 희봉. 곤하게 잠든 지호 보며 TV 소리 낮춘다.
울어서 눈가 붉게 부은 지호 모 험클어진 매무새 다듬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희봉, 지호 모에게 손짓한다.

지호모 (들어서며) 애가 왜 여기서...
희봉 밥 먹고 방금 잠들었네.
지호모 (지호 들쳐 업으며) 고맙습니다.
희봉 (손을 거든다, 눈가 붉은 지호 모 보는)
지호모 (인사, 나가려는데)
희봉 (남은 소주 반병) 난 다 마셨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든가.

#60. 모텔 하와이/201호 방 앞(밤)

지호 모, 지호를 업고 방문 앞에 도착한다.

바구니에 담겨 문 앞에 놓여 있는 새하얀 침대보.

#61. 모텔 하와이/301호(여러 날)

대여섯 명이던 사람들이 점차 늘어 방이 꽉 들어찬다.

오가는 판돈이 커진다. 덩달아 바빠지는 지호 모.

#62.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낮)

희봉, 어깨에 붙은 파스를 다시 붙이려는데 여러 번 떴었다 다시 붙인 듯

뜨글뜨글한 파스가 겨우 붙어 있다. 쟁반 든 지호 들어선다.

지호, 그런 희봉의 어깨를 본다. 희봉, 손이 잘 닿지 않는지 끄끙대고 있으면

지호 (작은 손으로 희봉 어깨 꺾꺾 누르며) 할아버지, 요기요?

희봉 거보다 좀 더 아래쪽이….

지호 요기요?

희봉 그래, 거다.

지호 (파스 다시 붙여보려 하지만 잘 붙지 않고) 잘 안 붙어요.

희봉 아직 붙일 만할 텐데… (하며 꺾꺾 눌러보는)

301호에서 호출이 온다. 지호, 심부름 값을 받아 밖으로 나간다.

희봉의 마음 웬지 편치 않다. 잠시 후,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 들린다.

태철(E) 이 새끼가! 미쳤나!

#63. 모텔 하와이/301호(낮)

테이블이며 집기들 넘어가 있다.

지호 부, 부하1·2에게 제압당하고 밖으로 쫓겨난다.

태철 (끌끌) 인간이, 접을 땀 알아야지. (들어선 희봉 보며) 안 그래요?

희봉 (보는)

태철 형님, 오신 김에 함 앉아보시든가요.

압니까. 하와이 벽지라도 새로 바를지?

태철, 부하들에게 신호 보낸다. 망설이다 자리에 앉는 희봉.

#64. 상혁이네 마트(낮)

지호, 냉장고에서 에너지음료 여러 개를 꺼내 품에 안는데

계산대에 앉은 상혁 모, 손님과 이야기 중이다.

상혁 모 저 모텔 요새 왜 이렇게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아?

손님1 요새 수상하지 않아요?

상혁 모 언젠 안 수상했나? 낡았지, 손님 없지. 할머니 안에만 갇혀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아.

손님1 치매 걸린 마누라 돈 아까워서 병원도 안 보내고 고생시킨다는 게 사실이에요?

상혁 모 그니까. 젊어서 남편 옥바라지하다가 말년에 저게 무슨 고생이야.

얼마나 답답해 그래… 나니까 가끔 들여다봐주고 하는 거지.

손님1 그럼 할머니 보신 거죠?

상혁 모 왜?

손님1 소문엔 이미….

상혁 모 어휴! 그러지 마. 소름 끼쳐.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쉽게 떠드는 상혁 모와 손님1

지호 (계산대에 물건 올려놓으며) 그런 거 아니에요.
상혁 모 뭐?
지호 할머니 자요. 예쁜 방에서.

#65. 모텔 하와이/301호(낮)

“이야!!!” “땀네!” “났네!!!” 함성에 박수 터지는 방 안. 웅성이는 사람들.

부하1 이야!!!! 영감님 완전 타짜네. 어! 이게 다 얼마야?
희봉 (태연한 척 감정 숨기는)
태철 거 보쇼, 형님! 오늘이 날이신갑네! (부하1에게 눈짓)
부하2 (돈을 챙겨 희봉에게 건넨다)
희봉 (조용히 돈을 챙겨 일어서는데)

부하1,2, 은밀한 눈빛 주고받는다.

이때 지호 들어선다. 희봉, 차분히 지호 손을 잡아끈다.

#66. 모텔 하와이/마당(낮)

모텔 마당으로 나와서야 펄쩍 뛰며 소리 없는 함성을 내지르는 희봉.
지호 덩달아 신기해하고 신나는.

지호 할아버지, 왜요? 딴 거예요? 이제 부자예요?
희봉 그래, 오늘은 일단 부자다! 가자!
지호 어딜요?

#67. 한강 둔치(낮)

자전거 대여소에서 빌린 자전거에 올라앉은 지호. 페달을 밟아보지만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희봉, 자전거를 잡아준다.

지호 할아버지, 놓으시면 안 돼요!
희봉 잡고 있다.
지호 (잠시 후, 또) 할아버지. 거기 계시죠? 놓으시면 안 돼요!
희봉 땅 말고 앞! 앞을 봐야 안 넘어져.

지호,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를 여러 번.

이내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호 (신난) 할아버지 잡고 있죠?

하고 뒤돌아보는데, 지호 혼자 앞으로 달리고 있다

지호 와! 할아버지!! 저 자전거 타요! 와! 와아!

희봉, 즐거워하는 지호 모습에 미소 번진다. 강바람 시원하게 불어온다.

#68. 한강 둔치/편의점(낮)

무인오더기 앞에 선 희봉과 지호. 안내 음성 나온다.

희봉 (낮선, 이 요상한 물건 무엇인가 보면)
지호 제가 할 수 있어요.
희봉 그럼... 난 맥주. 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지호 정말요?

지호, 주문을 하는데 그 양이 많다.

희봉 다 먹을 수 있냐?
지호 두 개는 할아버지랑 제 거구요.
한 개 할머니, 한 개 엄마, 한 개는 아빠 거요....
희봉 (말은 많지만 순애를 챙기는 지호 마음에 고맙고 콧잔등 째하고)

희봉과 지호 마주 앉는다. 지호의 콜라와 희봉의 맥주 짠.
기분 좋게 맛있게 먹는다. 희봉, 얼굴에 투박한 미소가 열게 번지고.

#69. 모텔 하와이/201호(밤)

불도 켜지 않은 방. 지호 부, 몰래 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던 지호 모, 불을 켜다.
지호 부 그대로 얼음처럼 굳는다.

지호 모 인간아!!
지호 부 (초조 불안해 보이는) 이번에 진짜 급해! 응?!
지호 모 ...
지호 부 에이씨, 내가 너 아니면 돈 못 구하냐!!!

옷을 들고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는 지호 부.

#70. 모텔 앞 거리+마당(밤)

지호 모 밖에 나와보지만 지호 부는 보이지 않고, 멀리서 걸어오는
희봉과 지호 보인다. 희봉, 기분 좋게 취기 올라 휘적휘적 걷는다.
희봉이 비틀거리면, 지호가 희봉의 손을 잡아 부축한다.
지호 모,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지호 모 송지호!
지호 ...엄마!
지호 모 (지호 손 잡아끄는) 밤늦게까지 어딜 돌아다녀? 엄마 걱정하게.
지호 할아버지랑 저녁 먹... (하는데)

이때, 모텔 3층 창문 열리며 태철이 고개를 내민다.

태철 (지호 향해) 꼬맹아! (빈 담뱃갑에 만 원짜리 넣어 지호에게로

던진다) 라이트 두 개. 그걸로.

지호 모 (이게 무슨 일인가 올려다보는데)
태철 싸게 싸게 댕겨와! 잔돈은 니 꺼고. (창문 닫는)
지호 모 (떨어진 담뱃갑 주워 열면 들어 있는 만 원, 표정 어두워진다)
너, 이게 뭐야?
지호
지호 모 이게 뭐냐고!

#71. 모텔 하와이/복도(밤)

지호 모,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점점 더 표정 굳고, 손에 든 담뱃갑 구긴다.
거칠게 문 두드리는 지호 모. 태철 나온다.

지호 모 이걸 왜 지호한테 던져요??
태철 효자야. 엄마 나머지 일을 돕겠다네?
지호 모 !!! 뭐라구요?
당신들 애한테 무슨 짓이야? 두 번 다시 이런 짓 해봐!

#72. 모텔 하와이/201호(밤)

지호 모, 방으로 들어선다.

지호 모 여기 안 되겠다. 짐 싸.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짐 싸기 시작하는데)
지호 싫어! 다른 데 가면 뭐가 다른데.
지호 모 물라 물어? 적어도 니가 술 취한 할아버지랑 돌아다니진 않겠지.
지호 (버티는)
지호 모 안 해?? 계속 모텔 사람 담배 심부름이나 하겠다고?
지호 ...
지호 모 그럼 엄마 혼자 갈 거야. 넌 혼자 여기서 계속 살아.
지호돈 있어야 아빠 온다며!

지호 모 !
 지호 살 집 구하면 온다며!
 지호 모 !!!!
 지호 할아버지가 뭐 어때서!
 지호 모 !!
 지호 심부름 그게 뭐! 어때서! 싫어 안 가! 엄마 혼자 가!
 지호 모 !!!!!

시간 경과.
 울다 등을 돌린 채 잠든 지호.
 지호의 얼굴을 안쓰러운 듯 쓰다듬는 지호 모.
 한참 지호를 바라보는데 울리는 전화. 지역번호가 뜬다.
 망설이다 전화 받는.

지호 모 ... (한참 뜬 들이고)
 경찰 송기만 씨 부인 되시죠?
 지호 모 (빛쟁이라 생각한, 바로 끊어버리는)

다시 걸려오는 전화.

지호 모 (받자마자 부러 더 날카롭게) 그 사람이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사람 저한테 찾으세요?! (끊으려는데)
 경찰 여기 남해경찰선데요.
 지호 모 !!!

#73. 모텔 하와이/201호(아침)

지호, 잠에서 깬다. 엄마 없고 쪽지와 3만 원만 덩그러니.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남해 가. 금방 올 거야. 전화할게.’
 지호, 울음 꺾꺾 누르며 쪽지만 본다.

#74.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아침)

책가방을 멘 채 간절한 눈빛으로 회봉을 보고 있는 지호.
 꺾꺾 울음을 누르고 있다.
 회봉, 지호 부탁으로 전화를 걸고 있지만 지호 모, 받지 않는다.

회봉 (전화기를 내려놓는) 이만 학교 가거라.
 지호 (꿈쩍 않는)
 회봉 전화 오면 잘 받아둘 테니 어여 가!
 지호 (간신히 울음 참으며 버티고 서 있는)
 회봉 (보다) ...울어야겠거든... 울든가...
 지호 (꺾꺾 누르던 울음이 혹 터진다)
 회봉 ...소리 내 울어도 된다...
 지호 (서럽게 영영 우는)
 회봉 ...올 거다. 온다잖냐.....

영영 소리 내서 울며 회봉에게 안기는 지호.... 영락없는 애다.
 ‘안기라는 말은 안 했는데....’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호를 토닥이는 회봉.
 FADE OUT

#75. 모텔 하와이 근처/다른 날(낮)

갓길에 세워진 차 한 대. 그 안에 앉아 있는 사채 회장님과 태철.

회장 자, 마지막 판돈.
 태철 네.
 회장 서둘러. 내 돈으로 니 배때기 불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억해라. 니 손모가지 나한테 달려 있다.
 다음엔 경고 없이 실전이야. 알아듣지.

태철,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한다. 차 떠난다.

#76. 초등학교/교무실(낮)

지호, 기가 죽은 채 담임 앞에 서 있다.

담임 어머니께 몇 번이나 다시 전화 드렸는데. 통화도 안 되시고. 학폰 언제 오실 수 있다니?

지호 (할 수 있는 대답이 없고)

담임 약속을 이렇게 어기실 거면 전화라도 주시든가….

지호 ……

담임 대답 좀 할래? (답답한, 한숨)
이번 주까지 안 오시면 상혁이 부모님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여시겠다니까 꼭 모셔와. 가봐.

지호 (풀 죽어 교무실 나가려다 돌아와선)
…선생님. 엄마 말고 다른 분 모셔와도 돼요?

#77.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밤)

빨래를 접고 있는 희봉. 지호가 카운터로 다가선다.

지호 (조심스레, 부르는) 할아버지…

희봉 (보는)

지호 …바쁘셔서… 학교엔 못 오시죠?

희봉 (보는)

#78. 모텔 하와이/1층(아침)

모텔 거울 앞에 서 있는 희봉과 지호.

희봉 거참. 귀찮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한껏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희봉.

지호, 처음 보는 희봉의 모습에 신기한 표정.
희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고 있다.

희봉 어퍼냐. 이 정도면 쓸 만허냐.

지호 학교 끝나는 시간에 오시는 건데….

희봉 아암. 안다.
(다짐받듯) 약속한 거 기억하지?

지호 네…

희봉 됐다, 그럼.

#79. 모텔 하와이/101호(낮)

잠든 손애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지호.
지호, 끝낸 숙제를 가방에 챙겨 넣고는, 통장을 꺼내 본다.
손애, 순간 뒤척이면 지호, 손애 곁으로 다가가고.

#80. 초등학교/교실(낮)

담임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희봉.

담임 지호… 할아버님이시라…구요…
가정환경조사서엔 조부모님이 안 계셔서… 계신지 몰랐어요.

희봉 없다가 생기기도 하니까.

담임 …아… 네… (뭔가 이상하지만)
저… 할아버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호가 반 친구를 때려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희봉 친구 아니네.

담임 네?

희봉 괴롭히는 건 친구가 아니지.

담임 할아버님. 상혁이는 반장이고, 내내 학급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시구요.

희봉 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는데... (하는데)
 (단호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일 때려눕히고, 축구공을 뺏고,
 거지라고 놀려도 친구란 말인가? 반장이고 공볼 잘하니까?
 먼저 운동장 바닥에 때려눕힌 건 그 학생이네.
 담임 !
 희봉 몰랐겠지. 그 지호 녀석은 말 안 했을 테고, 부모는 돈 버느라
 바빴고, 그놈(상혁)은 지가 당한 것만 말했을 테니까...
 보호받지 못한 애들은 자기를 지킬 줄 모르지.
 과하게 보호받은 애들은 남을 지킬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쳤네. 당하기만 하지 말라고.
 지호를 괴롭힌 그 애한테 가서 전하게.
 ...한 번만 더 약하단 이유로 괴롭히면, 그뎨...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찾아갈 거라고.
 담임 (황당한) 네???
 희봉 (진지한, 진심이다)

#81. 모텔 하와이, 101호(해질녘)

희봉, 문을 열고 들어선다.
 순애 곁에서 잠든 지호와 덩가. 이를 보는 희봉 얼굴. FADE OUT

#82. 모텔 하와이/마당(아침)

마당을 물청소하고 있는 희봉. 가방 멘 지호, 희봉에게 다가간다.

지호 (폼속에서 무언가 꺼내며) 엄마는 이게 제일 시원하다고 했어요...
 희봉 (보면, 파스다. 엄마 얘기에 마음이 걸리고)
 지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후다닥 나가는)

#83. 초등학교/운동장(낮)

등교 중인 지호. 상혁, 지호를 그냥 지나쳐 간다.
 지호, 괜히 어깨가 좀 펴지고.
 윤서, 지호에게 다가서는데 축구공을 안은 채다.

윤서 니 까다.
 지호 (축구공과 윤서를 번갈아 보는)
 윤서 우리 집에 공이 좀 많다 아이가.
 지호 (망설이고)
 윤서 와? 남이 쓰던 건 싫나?
 지호 (윤서 보는)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서 (지호 품에 축구공 안겨주며) 그림 받아라. 니 까다.
 지호 ...고마워...
 윤서 (발그레) 니 그런 말도 할 줄 아나?
 내는 니가 내한테만 말을 묻하는 줄 알았다. (수줍게 웃고)

#84.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밤)

희봉, 돋보기를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옆에 누운 덩가.
 지호, 희봉 곁으로 다가선다.

지호 할아버지, 제가 덩가 산책시킬까요?
 희봉 (계속 일하며) 됐다. 덩가가 널 끌고 다닐 테지.
 지호 그럼... 제가 수건 정리해드릴까요?
 희봉 (무뚝뚝이) 아직 세탁기 돈다.
 지호 (고민하다) 그럼... 마당 쓸어드릴까요?
 희봉 (하던 일 멈추고, 지호 돌아보는) 뭐냐...
 지호 (희봉에게 자신이 모은 통장 내민다)
 희봉 (지호가 내민 통장을 받아 넘겨본다)
 지호 ...기브앤테이크요.
 희봉 뭐시?

지호 ...엄마 좀 찾아주세요....
희봉 지금 아홉 살 인생 전 재산을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냐?
지호 (끄덕끄덕)

이때, 세탁기 종료 알림음 들리고...

지호 제가 할게요!
희봉 뒤라.

희봉, 말려보지만 지호, 세탁기에서 수건을 꺼내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다.
지호의 작은 등을 보는 희봉의 눈에 찐함이 스친다.

#85. 파출소 앞(낮)

‘남해’라고 남긴 지호 모의 쪽지를 들고 서 있는 희봉.

#86. 모텔 하와이/1층 카운터 앞(낮)

일수 가방을 들고 힐끗 카운터 안을 살피는 태철.
희봉의 빈자리를 확인한다.
주의를 경계하며 카운터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잠겨 있다.

#87. 모텔 하와이/2층(낮)

태철, 2층으로 올라온다. 방에서 나오는 지호.

태철 어이, 꼬맹이. (손으로 지호 부르는)
지호 (돌아본다)
태철 (일수 가방 주며) 이거, 할아버지 책상 서랍 맨 아래 넣어놔.
아무도 못 보게.

지호 아무도 못 보게요? 왜요?
태철 어, 방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호 네. (가방 받아 든다)
태철 할아버지한테 내가 나중에 말할 테니까.
글고, 너, 아저씨가 시키는 중요한 일 하나 더 해.
지호 (보는데)

#88. 모텔 하와이/1층(낮)

이때 며칠 전 떠났던 지호 부 추레한 물골로 모텔 들어선다.

#89. 모텔 하와이/2층(낮)

태철 아주 쉬워. 어떤 사람들이 301호에 대해 묻거든, 아는 대로 대답해.
지호 !?
태철 할 수 있지?
지호 뭐를요...?
태철 다. 니가 아는 거, 니가 본 거.
아저씨 아줌마들이 여기서 뭐 했는지.
지호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보면)
태철 할 수 있어?
지호 ??
태철 여기서 아저씨들이 뭐 했어? (술술) 도박했지?
지호 ?!
태철 모텔 할아버지는 뭐 했어? 방 주고, 할아버지도 같이했지?
너도 봤잖아. 맞지?
지호 ?!
태철 시키는 대로만 해. 쉽지?
지호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고)
태철 (만 원 꺼내주며) 이걸, 수고비. 지금, 가방 넣어두고 와.
그럼 만 원 더. 그리고! 내일 제대로만 말하면 이거만큼 또 줄게.

어때, 할 수 있지?

이때 태철의 전화기 울린다. 지호에게 다녀오라는 손짓 한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가며 전화를 받는 태철.

태철 네 회장님.

지호, 가려다 말고 몰래 숨어 전화를 듣는다.

태철 네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자정이면 다 끝납니다.
판돈 키워 세팅해놨고 증언해줄 애도 준비했습니다.
모텔에 살고 있는 꼬마애라 경찰도 의심 안 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노친네 잡혀 들어가고 모텔 접수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지호, 태철의 소리에 놀라 가방을 떨군다. 겁을 집어먹은 얼굴. 도망치듯
카운터로 뛰어 내려오는 지호. 애타게 희봉을 찾지만... 없다.
순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보지만 역시나 희봉 없고.

#90. 모텔 하와이/2층(낮)

3층으로 올라가던 지호 부. 지호가 떨어뜨린 가방을 발견한다.
안에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바로 품속으로 가방을 숨긴다.
전화를 마친 태철, 돌아보는데....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가는 지호 부.

#91. 모텔 하와이/내부 일각(낮)

태철, 지호를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희봉을 찾던 지호, 놀라서 멈춰 서고.

태철 가방, 잘 넣어놨지?

지호

태철 넣어놨지?

지호 ...할아버지... 잡혀가요?

태철 (!!) 아니! 무슨... 넌 신경 쓸 거 없어. 가방은?

지호 (뻘뻘 보는)

태철 뭐여? 어쩔어!

지호 ...아까, 거기 그냥 두고 왔어요.

태철 (눈빛 확 돌변하고) 뭐? 이 자식이.

태철, 301호로 다시 뛰어 올라간다. 문 앞, 복도 어디에도 가방은 없다.
다시 지호에게로 뛰어가 목덜미를 낚아챈다.

태철 장난치지 말고, 가방 어딴어?! 내놔.

지호 진짠데...

태철 !! 이 새끼가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일을 망쳐!!!

지호 ...제가 뭘...요...

태철 좋은 말 할 때 내놔.

이때, 희봉이 들어온다. 태철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지호를 본다.

희봉 (!!!!) 뭐 하는 짓이야!

태철 영감, 빠지쇼! (지호 향해) 너, 큰일 치르기 싫음 바른대로 말해.

지호 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희봉 (다가가 태철의 팔의 낚아채는)

태철 (확 뿌리치며) 노친네. 나, 건들지 마소.

(꼭지가 돈) 짐 얼마짜리 돈 가방이 사라졌는지 알아?

하다가, 지호 내뺨개치듯 내려놓고, 방들을 부술 기세로 뛰지기 시작한다.
지호, 무서워 희봉의 뒤로 숨는다.

태철 (흥분한) 으아악. 그새 어따 숨겼어? 너 그게 얼마 줄이나 알아?

태철, 희봉을 밀치고 다시 지호의 목살을 잡는데

희봉 (태철 잡으며) 그 손 놔. 안 놓으면 경찰 부르겠네.
 태철 (비웃는) 경찰? 모텔 문 닫고 싶으면 한번 해보쇼.
 뭐라 그럴 건데? 도박판을 벌였다. 돈이 없어졌다.
 판돈 주인이 깡판 치며 돈을 찾고 있으니 잡아가라?!

희봉 (보란 듯이 112로 전화 거는)
 태철 (비웃는) 경찰?! 모텔?
 (헛웃음. 진짜 할 거라 생각 않고) 쇼하네.
 영업 정지 먹고, 모텔 문 닫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꼬맹이 구하고 모텔 날리는 꼴 한번 봅시다!
 꼬맹이 구하고 모텔 날리시겠다? 꺾이나. 씨….

희봉 여기 20-19번지 하와이 모텔인데 지금 도박판… (하는데)
 태철 (희봉에게 달려들며) 노친네가 진짜 미쳤나.

#92. 모텔 하와이/101호(밤)

지호, 희봉과 손애에게로 달려간다.

지호 할아버지! 할아버지!!

태철, 희봉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진다. 박살 나는 휴대폰.
 태철, 닥치는 대로 방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93. 모텔 하와이/101호(밤)

태철, 굳게 잠긴 101호 앞까지 온다.
 어디선가 망치를 찾아 들고 와 방문을 부수는 태철.

희봉 뭐 하는 짓이야!

희봉, 있는 힘 다해 태철 막아보지만 역부족이다. 태철,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다. 손애, 놀란다. 방 안을 보고 태철도 멈칫, 놀라는. 이내 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다시 태철을 막아서는 희봉. 몸싸움이 일어나고. 점점 더 격렬해지는데 태철, 힘으로 밀고 희봉, 버티고. 지호, 희봉을 놔주라며 태철을 때리고, 매달리고. 뒤엎기는 세 사람. 태철, 희봉을 거세게 민다. 순간 사이렌 소리 들려오고. 덩가 쿵쿵 짓는다.

태철 아이씨!! (다급히 달려 나가고)

지호, 엉엉 울면서도, 태철 잡으러 뛰어나간다.
 책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는 희봉.

#94. 모텔 하와이/마당(밤)

태철, 다급히 도망치는데, 덩가 쿵! 짓는다.

지호 (엉엉 울며, 다급한) 덩가!!

덩가, 마치 지호의 말을 알아들은 듯, 태철에게 달려가 다리를 쿹! 문다.

태철 으아아아아악!!!

태철, 덩가에게 잡혀 버둥대는데. 경찰차 모텔 앞에 도착한다.
 도박판 사람들, 태철, 태철의 부하들 줄줄이 연행된다.

#95. 병원/응급실(밤)

침대에 누운 채, 의식을 회복한 희봉. 의사가 검사 경과보고를 한다.

의사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보통은 별 이상 없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출혈이 없는지 이삼일 경과를 지켜보고 퇴원하시죠. 어… 보호자분이 입원 절차를 밟아주셔야 하는데… (하고 내려다보면)

울음을 꼭꼭 참고 서 있는 지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간 표정의 순애.
의사, 난감한 표정으로 희봉과 순애, 지호를 번갈아 보는데.
그때, 조용히 들어서서... 지호 모.

희봉 (지호 모 보며) 타이밍 죽이네.

지호,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긴다.
희봉, 그런 지호를 보며 안심한 듯 얇은 미소 번진다.

#96. 회상. 남해경찰서 앞(새벽)

경찰서 앞. 초췌한 물골로 걸어 나오는 지호 모.
멀찍이 서성이고 있는 희봉. 지호 모, 희봉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지호 모 여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잡으러 오신 거예요?
희봉 (덤덤히) 그럴 리가. 모시러 온 거지.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지호 모 지호 아빠 현상 수배 중이래요.
빛쟁이들한테 쫓기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지경까지 갔을 줄은...
사업하다 망했어도 착한 사람이라 언젠가 마음잡겠지 했는데...

희봉 (말없이 지호 모 이야기 듣는)

지호 모 제 명의까지 끌어다 써서... 핸드폰 요금만 수백만 원이에요.
조사받고 그것부터 수습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용히 지호의 통장을 꺼내 지호 모에게 건넨다.
지호 모, 통장을 넘겨보면 몇천 원씩 모아온 지호의 오래된 통장.
그 울컥한 숫자들에 지호 모 결국 터진다.
통장 맨 마지막 줄에 찍혀 있는 희봉의 이름.

희봉 애가 목 빠지게 기다리네.
지호 모 여기 일 정리되면 바로 올라갈게요.
...그때까지만 우리 지호 좀 부탁드려요.
희봉 ...일엔... 아마 돈으로 해결이 될 테지...
지호가 기다리는 건 엄마네.
지호 모 (보면)
희봉 돈 많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있는 엄마도 아니야.
...그 녀석은 그냥... 엄마를 기다리네...
지호 모 (울컥 터지고)
희봉 (묵묵히 그 흐느낌을 받아낸다)

#97. 병원/응급실(밤)

다시 현재. 누워 있는 희봉. 희봉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지호.
그 곁에 앉은 지호 모와 순애.

희봉 부탁 들어주길 잘했네...

희봉, 투박한 얼굴에 얇은 미소 번진다.
FADE OUT

#98. 모텔 하와이/마당(낮)

모텔 하와이 전경.
희봉, 사다리를 타고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지호 사다리 고목 잡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

지호 할아버지, (곰곰이 생각하다) 파인애플 같아요.
희봉 (만족스러운, 웃으며) 순애가 젊었을 때 그거 참 좋아했지.
지호 (웃으며) 그럼 저도 좋아요.

지호, 마당 한쪽을 본다. 희봉을 바라보고 있는 순애 보인다.

#99. 초등학교/운동장(낮)

지호 (축구공 안은) 차윤서!

친구들 사이에 있던 윤서, 지호를 보면

지호 너, 나랑 축구 할래?

남녀 학생들 섞인 방과 후 축구교실.

축구를 한다기보다 공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수준이다.

그 안에서 까르르 웃음소리들 터져 나온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모두의 얼굴이 밝다.

지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다닌다. 축구를 마치고,

지호 윤서야, 올 집 가서 밥 먹을래?

#100. 주민센터(낮)

지호 모,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직원 한참 전부터 지원 가능하셨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지호 모 (미소) 그러게요.

지호 모, 당당하게 신청서류를 써내려간다.

#101. 모텔 하와이/101호(낮)

여전히 하와이처럼 꾸며진 방. 지호가 그린 순애와 희봉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 순애를 씻기고 로션을 발라주고, 손톱을 손질해주는 희봉.

희봉 (순애 보며) 아, 곱다... 참 곱다.

순애 당신도... 당신도 참 곱다... 이뻐...

둘, 마주 보고 웃는다.

#102. 모텔 하와이/계단+옥상(낮)

지호, 후다다닥 모텔 하와이 마당으로 뛰어 들어와 옥상으로 오른다.

경쾌하게 지호를 따라 뛰어 오르는 윤서.

윤서 (통화 중) 엄마. 내 친구 집에서 밥 묵고 갈게.

윤서모(F) 친구 집이 오텐데?

윤서 (신난, 밝은) 친구 집? 하와이!

옥상에 오르면,

동그란 탁자에 순애, 지호 모, 희봉, 지호, 윤서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밥 먹는다. 밝게 웃는 그들.

여전히 낡고 허름하지만 온기로 채워진 그곳, 모텔 하와이 모습에서 엔딩.

끝.

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에 대한 좌절감에 눌려 한 걸음은 고사하고 반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무게를 등지고 야심한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작은 불빛 아래 앉으면, 한없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의 한계를 매 순간 인정하고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두어 저만치 멀리 가버린 모텔 하와이의 '희봉'과 '지호'가 나의 곁으로 쉬이 돌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글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인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서툴고 투박한 글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온기가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과감하게'라는 키워드를 말씀해주신 김지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니 '지치지 말고 걸어나가라'라는 말로 격려해주신 임고은 피디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의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말씀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해내지 못한 과감함은 앞으로 하나씩 채워나가겠습니다.

딸을 위해 매일 기도해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봄

소비에 관대한 세상!
 SNS를 통한 부의 과시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면서
 상류층의 부의 소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뿐 아니라
 내 손안의 휴대폰 액정 속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소비하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수많은 셀럽들의 SNS를 팔로우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개같이 일한 돈으로 얻은 명품 하나에 행복을 느낀다거나,
 질투와 시기로 넘친 키보드워리어가 되거나!
 여기, 자신의 과거를 지운 채 태생부터 재벌인 척하는 SNS 셀럽이 있다.
 가짜 셀럽 행세 속에서도 랜선 친구들이 있기에 삶에 만족하던
 여자가 일명 부자들의 돈 자랑인 폴링스타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연쇄 살인범의 타깃이 되고 만다.
 허영으로 만들어진 여자의 가짜 삶을 알게 된 살인범은
 뜻밖의 제안을 해오고...
 가짜 삶과 목숨이라는 고민조차 필요 없는 선택 앞에서 갈등하는
 여자를 통해 인스타, 유튜브라는 온라인 상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2020년, 당신의 SNS는 얼마나 실제 삶과 일치하는가.

등장인물

유하나(25세, 여)

허세와 허영의 명품 중독자. 콜센터 아르바이트로 산 명품백 사진 하나가 갑작스레 주목을 받으면서 수십만의 팔로워가 생기자 순식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진짜 이름을 숨긴 채 태생부터 재벌인 척 명품과 화려한 일상으로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로까지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는 이 가짜 일상이 먹고사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름

- 2019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프로젝트 선정 <프레임>
- 2018 · YES24 시프트북스 웹소설 연재 <별채 아씨 길들이기>
- 2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작가데뷔프로그램 선정 <별채 아씨 길들이기>
- 2016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동반프로젝트 선정 <양색인>

하지만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다시 그 명품 소개 영상으로 돈을 벌고, 또 번 돈은 명품을 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재는 돈 한 푼 못 모으고 작은 원룸에 월세로 사는 빈털터리. 그런 데다가 태생부터 재벌이라는 거짓말이 탄로 날까 진짜 이름까지 숨기고 친구도, 가족과의 교류도 끊은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수십만 팔로워의 관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강태수(33세, 남)

가난했지만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다. 대학만 졸업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갑대 출신에게 4년 졸업 후 남은 건 수백 통의 취업 탈락 문자와 학자금 대출 빚뿐. 결국 막노동부터 지방 공장까지 전전하며 하루 열두 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 보통의 인생에 가닿는 듯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취업을 빌미로 전 재산을 빌려간 대학 선배에 의해 한순간 무너진다. 사람 잘 믿고, 순진하고 순박한 청년이었지만 세상은 왜 나에게만 잔인한가, 의문을 품는 순간 연쇄 살인범의 모방 범죄를 계획한다.

김성필 (22, 남)

렌터카 업체 직원. 하나의 짤방이지만, 하나의 팬만은 아니다. 모든 금수저 유튜버들을 덕질한다. 그들의 돈 자랑을 보며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하지만 성필의 ‘일’이란 조금 특별한 것이다.

줄거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셀럽으로 유명한 하나는 가난했던 과거를 숨긴 채 태생부터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인 척 명품 소개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수입은 다시 명품을 사는 데 쓰게 되고, 강남 원룸의 백만 원 가까이 되는 월세를 감당하다 보니 들어오는 수입 이상을 쓰게 되는 소비 지옥에 빠져 실상은 빚까지 있는 빈털터리 상태.

그러던 중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부자들의 돈 자랑 ‘폴링스타 챌린지’가 한국까지 유행으로 번지고 하나는 대여점에서 빌린 수십 개의 명품을 펼쳐놓고 돈 자랑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역시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거다, 재벌은 클래스가 다르다 하는 식의 댓글들에 뿌듯해하던 도중, ‘폴링스타 챌린지’에 참여한 셀럽들이 살해당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한 달 새, 세 명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범인의 행방은 묘연하고 중고 명품숍에 다녀오던 하나는 괴한에 의해 납치되고 만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정신을 잃었던 하나가 눈을 뜬다. 흐잇! 쓰레기장 같은 지하방. 손발이 다 묶이고도 위협에 빠졌다는 생각보다 이 더러움을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빛을 발하는 모니터를 보는 순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하나. 앞서 실종된 피해자들의 사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으아아악! 하나의 비명과 동시에 분홍 복면을 쓴 납치범의 등장!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복면을 쓴 납치범은 준비한 연장들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하나가 자기의 마지막 길에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하나. 부자들의 돈 자랑도 싫고, 이렇게 계속 사람 죽이는 것도 싫으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SNS에서 유명한 하나와 죽으면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도 유명해질 것이라는 납치범이다. 하나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데 돈 많은 것들을 경멸한다며 흥분한 납치범이 당장이라도 죽일 듯 하나에게 달려드는 순간! 또록—! 하나의 유튜브에 하나의 본명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댓글을 단다. ‘너 당진여중 고미옥이지?’ 댓글을 지워야 한다며 패닉에 빠진 하나는 결국 자신이 가짜 금수저였음을 고백한다.

자신은 부자도 뭐도 아니니 살려달라는 하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 고민하던 납치범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다 까. 재벌인 거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해. 그럼 살려줄게.” 할 수 없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이미지가 다 가짜였다는 커밍아웃 동영상을 찍던 하나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져 사회에서 매장당해 굶어 죽나, 여기서 죽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어차피 이관사관!

“죽어요, 죽어! 그냥 같이 죽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몰라.
그냥 루저 돌이서 곰팡이 핀 지하에서 곰팡이 퍼서 죽는 거라구!”
하나의 돌발에 납치범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하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납치범을 설득해 탈출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하나는 가짜 납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며 납치범을
설득한다. 자극적인 동영상 때문에 조회수가 치솟을 것이고 그 수입
다 줄 테니 그 돈으로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제안.

솔직히 썩 내키는 제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의 청산유수
달변에 납치범이 복면을 벗어던지는데 이게 웬걸? 엄청난 미남이다!
이 정도 얼굴이면 대박이다! 대박!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선 납치범 태수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이어지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한쪽 모니터에서 ‘폴링스타 챌린지’ 살인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놈은 살인자가 아니다!
누구나, 넌!

태수가 단순히 살인범을 흉내 낸, 실상은 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나는 이제
태수를 만만하게 보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들을 찾아온 누군가.

순진한 얼굴의 한 남자, 진짜 연쇄 살인범이 등장한다!

하나와 태수는 진짜 살인범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고, 태수와
살인범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 속에서 도망쳐 나오는 하나.

헉, 헉... 살았어, 이제 살았어. 괜찮아... 자신을 다독이던 하나는 뭔가 생각
난 듯 절망에 빠진다. 동영상! 자기가 가짜 부자라고 고백했던 동영상이 아직
태수의 지하방에 남아 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살인범과 납치범이 있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
SNS 속 가짜 삶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업로드하시겠습니까? 이봄

#1. 고급 빌라/거실(밤)

백 평대 고급 빌라. 넓은 주방, 대리석 바닥,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그림들이 실내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보라(E) 금수저? 요즘도 그런 말 써?

커다란 소파에 누워 휴대폰 카메라 보며 이야기하는 강보라.
늘씬하게 뻗은 긴 다리, 작은 얼굴, 상당한 미모.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 중이다.

강보라 돈 많은 기분? 글썄?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냐?
노력으로 돈 버는 세상은 지났잖아.

휴대폰 라이브 창에 하트 이모티콘, 댓글들 달리는데—
땡땡! 현관 벨 울린다.

강보라 (일어나 앉으며 화색) 어? 야식 왔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테이블에 휴대폰 놓고 일어서는 보라.
인터폰으로 향하면, 화면 속 헬멧 쓴 남자.
보라, 현관문을 여는데 퍽! 보라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는 헬멧!
보라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헬멧의 칼이 허공으로 높이 솟으면서...!

#2. 하나 원룸(밤)

탁, 조명 스위치 누르는 손. 탁, 모니터 위 카메라 전원 켜지고.
탁, 모니터 전원 버튼 누른다.

책상 위에 정렬된 소형 전기톱, 망치, 정, 전동드릴...
의자에 앉은 여자. 모니터 밝아지면 화면 가득 예쁜
유하나의 얼굴 들어온다.

하나 (화면 보고. 경쾌한) 여러분, 안녕안녕안녕! 유하나예요!
오늘 명품 해체 영상 찍는 날이죠? 자, 오늘 해체시킬 가방은...
(명품 가방 올리는) 짹! 어제 나온 따끈한 신상!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전기톱 작동) 이런 거, 뭐. 얼마나 한다고.

위아이잉— 톱날이 명품백에 닿으면서.... 순식간에 부악—! 두 동강 난다.

#3. 몽타주. 모니터 화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동영상 속, 두 동강 난 명품백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하나 얼굴.

인터넷 유튜브 창. 동영상 썸네일 ‘돈 많은데 취미로 유튜브하는 유튜버.’

동영상 재생되면 BJ가 나타나 수다 떠다.

“금수저도 모자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자랑하는 유튜버들이 있죠? 맨날
나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명품 소개, 지 돈 쓴 자랑. 그중 가장 핫한 삼 인방!”

오프닝에 등장한 강보라 사진 뜯다. “오성그룹 손녀로 알려진 강보라!”

귀여운 외모의 윤지수 사진. “청담동 재벌 윤지수!”

명품백 들고 웃고 있는 유하나 사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외교관, 어머니가
국제변호사라는 신혼 갑부 유하나!”

유튜브 창 작아지면서 왼쪽 상단으로 획— 옮겨지고.

인스타그램 창으로 전환. 검색에 ‘폴링스타 챌린지’ 쓴다.

주르륵— 뜨는 돈 자랑 사진들. 고급 외제차, 명품, 돈다발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중 하나를 클릭하면—

외제차 앞에 넘어진 여자의 컨셉 사진. 주변에 널린 명품, 돈다발...

강보라 인스타그램이다. 팔로워 20만 등의 화면 보이면,

모니터에 비치는 하나 얼굴. 못마땅한 듯 일그러지고—

땡동— 알림음. 화면 하단에 작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시 유튜브 채널로 돌아가면

하나가 올린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

‘와! 오늘도 6시. 칼 영상!’, ‘언니 영상 너무 좋아요.’ 등의 선플.

반면에 ‘맨날 돈지랄.’, ‘강보라가 한 거 아냐? 열등감 짬.’ 등의
악플은 바로 삭제, 삭제.

순식간에 좋아요 수가 치솟고, 엄지손가락 치켜든 그림이 모니터
가득 퍼져나간다. 모니터에 비치는 하나 얼굴. 미소가 번진다.

타이틀. <업로드하시겠습니까?>

#4. 거리(아침)

아나운서(E) 부자들의 돈 자랑 폴링스타 챌린지를 아십니까?

분주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대형 전광판에서 나오는 뉴스.

아나운서 이들 전, SNS 셀럽이라 불리는 정 모 씨의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나운서 옆으로 폴링스타 챌린지 컨셉 사진이 뜬다.

아나운서 그리고 며칠 뒤, 정 씨의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더 올라오는데요.
(앞선 사진과 같아 보이는 사진 하나 더 뜨고)

똑같아 보이지만 두 장의 사진에는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사진 한 장 확대되면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아나운서 사진 업로드 세 시간 만인 오늘 새벽, 정 모 씨가 사는 한남동
근처 한강변에서 정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일주일 전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5. 하나 원룸(아침)

띠리리리링—!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
 동시에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도 노래 흘러나온다.
 머리끝까지 이불 뒤집어쓰고 자던 하나, 끄응... 살짝 얼굴 내민다.

하나 예쁜 하나, 알람 꺼.
 스피커 예쁜 하나, 알람 끌게요.

다시 조용해지는데... 잠시, 띠리리리리링—! 전화 온다.
 하나, 더듬더듬 전화 받으며,

하나 (부스스) 네...
 남자(F) 유하나 씨 되세요?
 하나 어디신데요?
 남자(F) 렌터카 신청하셨죠? 여기 스타빌리지 앞이요.
 하나 (일어나며) 나가요.

#6. 스타빌리지 앞(낮)

휘황찬란한 주상 복합 아파트 스타빌리지.
 그 앞에 페라X 같은 고급 외제차가 서 있고, 쿵쿵쿵쿵! 들려오는 음악.

크게 음악 틀어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옛된 외모의 성필.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핸들 두드리고 있는데
 백미러로 작은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여자 보인다.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커다란 쇼핑백을 어깨에 걸쳐 멘 하나.
 차를 향해 걸어온다.

성필 (갸웃)?

#7. 차 앞(아침)

성필, 차에서 내리면 하나가 뒷좌석 문 열고 쇼핑백 던져 놓는다.

성필 차키는 안에 있구요, 시간 되면 제가 가지러 올...
 하나 (조수석으로 가며 말 끊고) 타요.
 성필 네?
 하나 (스타빌리지 주차장 가리키며) 요 앞까지 운전 좀 해주세요.
 성필 (당황) 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 (조수석 올라타며, 해맑은) 제가, 장롱면허거든요.
 성필, 뭐지... 싶은 듯 운전석 탄다.

#8. 스타빌리지 주차장(아침)

드문드문 주차된 외제차들.
 고개 쪽 빼고 앞을 보는 하나를 흘끔흘끔 보는 성필.
 하나, 어딘가 자리 찾은 듯,

하나 (앞쪽 가리키며) 저기요!
 성필 (핸들 돌리는)

CUT TO
 난감한 듯 차에서 내리는 성필.
 비스듬하게 세워진 차가 옆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

성필 (만족스러운 듯 차를 보고 있는 하나에게)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데... 백 프로 욕 먹어요, 이거.
 하나 (쇼핑백 꺼내며) 괜찮아요. 차도 없는데, 뭘.

성필, 쭈뼛쭈뼛 서 있는데 하나가 안 가냐는 듯 쳐다본다.

성필 (유심히 하나 보면서) 저기... 맞죠? 하나 누나?

성필이 휴대폰 내밀면 유튜브 하나 동영상 나온다.

성필 저 누나 완전 짠팬이예요! 아이디 성필!

하나 (시선 피하며, 자체 음성변조) 아닌데요.

성필 (휴대폰 돌리면 케이스에 하나 얼굴 박혀 있는. 자랑스럽고)

하나 (슬쩍 보고. 좋지만 감추는) 참 호감 가는 스타이죠? 유하나?

성필 (엄지 척) 완벽, 그 자체죠. (꾸벅, 인사) 만나 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주차장 빠져나가는 성필.

하나, “아이, 참...” 부끄러운 듯 성필 향해 살짝 손 흔들다.

CUT TO

하나, 겹옷 벗어던지면 예쁜 원피스 차림이고, 마스크와 모자도

확실히 내동댕이치면 풀메이크업 상태.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 몇 개, 명품 로고

딱! 박힌 화장품들, 명품 신발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삼각대에 놓인 카메라 한번 보고.

차에 한쪽 발 걸쳐놓고 바닥에 엎드린다. 넘어진 듯한 모습 연출.

다른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부들부들. 손에 쥔 카메라 리모컨을 누른다.

#9. 모니터 화면

방금 전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다.

#10. 하나 원룸(밤)

노트북에 시선 고정해 채 오징어 다리를 씹고 있는 하나.

강보라 인스타그램 보고 있다. 티파니 목걸이 사진.

하나 (눈 번쩍!) 우와! 미친. 이거 천이백짜린데.

(하...) 돈이 오지게 많긴 하구나.

뒤로 가기 누르는데 멈춰버린 화면. 몇 번 시도하다가 새로고침 누른다.

다시 강보라 인스타그램 뜨는데, 방금 전 없던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폴링스타 챌린지 컨셉 사진. 하나, 클릭해보는데...

전에 올린 사진과 똑같지만 등에 칼이 꽂혀 있다.

하나 (놀라서) 헐...! 뭐야... (그러다 피식) 어그로 끌려고 별짓 다한다.

(짜증 나는 듯 오징어 던지고)

나가려는 듯 일어서는데, 요란한 벨소리 울린다.

발신자 보면, '엄마'. 하나, 받지 않는다.

#11. 명품 중고 매장(밤)

하나(E) 이거 다 오늘 뜯은 새거예요!

명품 물건들 전시되어 있는 내부.

가방 팔러 온 하나. 쇼케이스 위에 서너 개 명품 가방 놓여 있다.

직원 (가식 친절)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손 탄 제품이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 (울상) 그래도 가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직원 명품은 남이 뜯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파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하나 (할 수 없이) ...팔아요. (뒤에 진열장 가방 가리키는)

저거, 저거, 저거. 다 신상이죠? 얼마예요?

직원 (진열장 한번 돌아보고. 계산기 두드리는데)

이십만 원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헐) 네?! (낭패) 모자란데, 돈이...

직원 (어쩔 거냐는 듯 보는)

하나 (고민하다가 번쩍!) 여기... 대여도 되죠?

#12. 청담동 명품 거리(밤)

한적한 거리. 문 닫힌 명품매장들.
대여한 쇼핑백 한아름 짊어지고 걷는 하나.

하나 (투덜) 으! 사기꾼들.

하나,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 이체 금액에 '3,000,000' 적어 넣는다.
그때, 띠링— 인스타 댓글 알림음.
인스타 댓글 보는 하나.
'언니도 사진 내려요', '미쳤다, 연쇄 살인', '니가 죽었지?'

하나 (대수롭지 않게 걸으며) 뭐래...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강보라 인스타그램', '강보라 살해',
'강보라 유투버' 등이 실시간 순위를 도배하고 있다.
하나, 그제야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 뉴스 동영상 클릭.
"폴링스타 챌린지에 참여한 또 한 명의 SNS 셀럽 강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그때 등 뒤로 두두두두두—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쇼핑백과 가방을 낚아채 가는 오토바이! 날치기다!

하나 어? (정신 번쩍! 쫓아가는) 야, 이 미친놈아!

전력질주! 오토바이를 쫓아 달리는 하나.

하나 도둑이야! 도둑!!! 야, 이 쌍노무 (삐삐삐— 온갖 욕) 남의 피나
빨아먹는 도둑노무 새...! (하는데)

끼이이익—! 갑자기 멈추는 오토바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헬멧 쓴 남자. 하나, 놀라서 쳐다보는데,
다다다닥— 헬멧이 하나를 향해 전력 질주!
헉...! 놀란 하나 얼굴에서—!

#13. 하나 꿈. 반지하방

스멀스멀... 벽지에 파랗게 핀 곰팡이.
잔뜩 화가 난 듯 뭔가를 노려보고 있는 초등학생 하나.

엄마(E) 먹어, 배고프잖아.

하나 (씩씩대며 엄마를 노려보고)

엄마 (푸석한 얼굴) 응?

부스럭, 부스럭. 엄마가 봉지에 싼 음식들을 풀어놓는데,
헉! 집어 던지는 하나.

하나 더러워! 더러워! 안 먹는다고!

#14. 지하방(아침)

짹, 새 우는 소리 들린다.
 눈을 뜨는 하나. 벽지에 핀 곰팡이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 (인상 쓰는)

좁은 단칸방, 쓰레기장처럼 더럽고.
하나, 그 더러움에 흠칫! 놀란다. '아, 씨...' 짜증 내며 발로 주변
쓰레기를 밀어낸다. 한쪽 발을 들어보면 먼지가 잔뜩 묻어 있다.

하나 (기겁) 으! 드러!

후, 후, 발바닥 먼지를 불어내려는데 그제야 불편함을 느낀다.
 뒤로 꺾여 묶여 있는 손. “아, 진짜!” 짜증이 확 솟는.
 정면 책상에 모니터 두 대. 화면 보호기 상태다.
 쿵쿵, 의자를 끌어 모니터 가까이 가는 하나.
 머리를 이용해 마우스를 건드려 보는데,
 화면 밝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뜨는 시체 사진들!
 앞서 죽어나간 피해자들! 등에 칼이 꽂힌 강보라 사진이 마지막에 캉!

하나 ...아아아악!

#15. 렌터카 사무실(아침)

성필, 사장에게 혼나고 있다.

사장 야, 이 새끼야. 수거할 때 차량 확인 안 했어?
 성필 했죠... 했는데요.
 사장 (말 끊고) 근데? 한 시간도 안 돼서 가져온 차에 기스가
 나?(블랙박스 칩 던지며) 이걸 또 왜 안 되는데?
 성필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사장 (노려보며) 니가 그랬지?
 성필 (억울한. 손사래) 아니에요!
 사장 니 말을 믿으라고? 저번에도 차 긁어놓고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씌우고. (일어나 성필 머리를 툭툭, 치며) 어쩔 거야?
 돈을 가져오든가, 돈을 받아오든가!
 성필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난처한 듯 전화 거는 성필.

#16. 지하방(아침)

띠리리리링—!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전화음.

소리에 집중하는 하나. 등 뒤 어딘가 가까운 데서 들리고 있는 소리.
 그러다 푹. 벨소리 끊긴다. 그리고 잠시 후, 끼이익—
 하나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 들린다.
 하나,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

하나 사... 살려주세요...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의자 등받이를 잡는 손. 하나, 기겁하는.

하나 아아아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는 하나. 의자가 뒤로 질질 끌려가다가 멈춘다.
 하나, 입 꼭 다물고 잔뜩 긴장. 눈만 굴리는데...
 옆에 선 남자가 바닥에 놓인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씩 꺼낸다.
 커다란 망치, 펜치, 드릴, 노끈, 전기톱이 툭, 툭, 바닥에 던져지고...

남자(E) 골라.

하나 네?

남자(E) 뭘로 죽을지 고르라고.

하나 (혼란스럽고)

천천히... 고개 들어 옆에 선 남자를 올려다보는 하나. 그런데...

하나 (잉? 뭐지?)

눈, 입만 뚫린 분홍 복면을 쓴 남자. 비뚤어진 복면이 어딘가 우스꽝스럽다.

하나 (어딘지 만만하고. 보다가) ...몰카구나?

복면 뭐?

하나 아저씨, 지금 이거 몰카죠?

(긴장 풀리고 두리번) 카메라 어딴어요?

(카메라 찾는 듯 허공 보면서, 해맑은) 여러분 유하나 몰카, 대실패!

복면 (어이없다는 듯 보는)
 하나 (애교) 고르긴 뭘 골라요, 다 가짜면서.

복면, 커다란 망치를 집어 든다. 그 모습에도 생글생글 웃는 하나.
 그러다가 쿵! 복면의 망치가 바닥에 내리꽂힌다.

하나 !!!

하나, 다리를 짝 벌려 간신히 망치를 피했다.

하나 (덜덜) 아... 지, 진짜구나... 의심한 건 아니에요...
 복면 (답답한지 복면을 고쳐 쓰는)
 하나 (복면 보다가. 조심스럽게) 근데 아저씨...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저 유하나예요, 유하나. 요즘 초당, 유당들도 다 보는 게 유튜브인데?
 아, 맞다! 그걸 모르면 강보라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도 알겠네요?

복면 ...

하나 내가 하루 하나 영상 안 올리면 다들 난리 나요. 나 사라진 거
 다 알 거고, 금방 찾으러 온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외교관,
 엄마가 국제변호사인 것도 알죠?

복면 괜찮아. 지금 죽을 거니까.
 하나 (겁먹었지만 대차게) 나, 나 죽어도 아저씨 금방 찾아낸다니까요.
 복면 (다시 한 번 망치 들어 쿵! 연습) 괜찮아, 나도 죽을 거니까.
 하나 네?
 복면 나도 죽는다고. 너랑 같이.
 하나 !!!

#17. 스타빌리지 경비실 앞(낮)

경비원에게 애원하는 성필.

성필 집 나간 친누난데요, 누가 여기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하나라는 사람 좀 찾아주세요, 네?

경비원 아, 안 돼! 친누나든 바람난 남편이든, 세입자 정보는
 살인 사건 아니면 절대 못 가르쳐준다니까.

성필 (흑흑, 연기) 누나 때문에 엄마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가
 오 년째고... (앗!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경비 잡고)
 그럼 여기 사는지만요.

경비원 (성필 밀어내며) 누구 밥줄 끊기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쫓겨나는 성필. 낭패고... 맞은편 작은 원룸 건물을 본다.

#18. 지하방(낮)

복면이 망치를 집어 던지고 전기톱을 든다. 지이이잉— 작동시켜보고.

하나 (놀랐다) 그, 금방 찾으러 온다니까요...?
 복면 그럼 빨리 해야겠네.
 하나 뭐, 뭘요...? (턱으로 모니터 가리키며) 저 사람들,
 진짜 아저씨가 죽었어요?

복면, 스웩— 무심히 모니터를 보는데...
 그때, 띠리리리링—! 하나의 휴대폰 벨소리!

하나 (흥분) 누구예요? 이것 봐요. 나 없어진 거 벌써 다 알았다니까?

복면,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거절 누른다.

하나 (황당. 성질도 나고) 누군데요? 아니,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해요?
 비즈니스 전황지도 모르는데... 저 좀 보여주세요. 네? 어? 어?

복면, 시끄러워 미치겠다. 하나 앞에 휴대폰 들이밀며 보여준다.

복면 이거야, 이거! 알아? 너 아는 사람이야?

하나 (처음 보는 번호라 가웃) 아뇨. 모르는 번호인데. (잠시) 이봐, 이봐. 벌써 나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 아저씨,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다 들어드릴게요. 돈이에요? 돈?

복면 필요 없어. 그만 거.

하나 아니, 왜? 왜 돈이 필요가 없어요?

복면 어차피 죽는다니까!

하나 (답답) 그니까, 왜 죽냐고!

복면 그냥 죽고 싶으니까!!!

하나 (주눅. 울상) 도대체 그게 왜 나냐구요. 우리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왜 나랑 죽겠대...

복면, 뉴스 볼륨을 높인다.

아나운서(E)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 모 씨와 강 모 씨의 공통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폴링스타 챌린지에 참여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 재벌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SNS 활동이 활발한 재벌들이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면 니들 돈 자랑, 지겨워.

복면, 하나를 획 돌아본다. 하나, 진짜 죽나? 어찌지, 미쳐버리겠는데. 휴대폰 문자음. 복면, 하나 휴대폰을 보는데...

#19. 하나 원룸 앞(낮)

원룸 건물을 올라다보는 성필.

INSERT #6 스타빌리지 앞

백미러로 하나가 원룸에서 나오던 모습. 가웃, 하는 성필.

#20. 지하방(낮)

복면, 문자 확인하면 '누나, 차 범퍼가 700이래요.

자꾸 이러시면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요ㅠㅠ 어디예요??'

복면의 눈에 '경찰', '신고'라는 단어가 유독 부각된다.

복면 (하나에게 문자 보여주며 패닉) 야, 이게 뭐야? 신고한다잖아! 모르는 사람 맞아? 너 어디다 연락했지? 어?

복면이 안절부절못하며 하나 주머니를 뒤진다.

하나 어디다 연락을 해요. 내 핸드폰 계속 아저씨가...(하다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자) 어? 맞아, 맞아! 내 친구 폰이에요. 내가 좀만 연락 안 돼도...

복면 아, 씨발...

복면, 약통을 집어 수심 알을 손바닥에 쏟아낸다.

하나 그, 그게 뭔데요?

복면 수면제. 그냥 죽으면 아프잖아.

복면이 하나 입에 수면제를 쑤셔 넣는다.

하나 (뿔, 뿔. 다 뺏어내고) 싫어! 싫어!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아저씨랑 같이 죽어?!

복면 (쪼그려 앉아 흩어진 수면제 쓸어 모으는) 이씨.

더럽게 아프게 죽을래? 이게, 생각해주시까.

하나 이미 충분히 더러워요! 이 방 꼬라지 좀 봐! (하는데)

복면이 다시 하나 입에 약을 쑤셔 놓고 입을 막는다.

하나, 삼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음, 음!

그때 복면이 갑자기 하나 이마를 푹! 때리면,

순간 놀라서 약을 삼켜버리는 하나. 꿀꺽—!

하나 (울부짖는) 아! 아아아앙!

복면, 남은 알약을 입에 털어 넣고, 주방으로 향한다.
복면이 과도로 가스관을 잘라버리자, 취이익— 새어 나오는 가스.
다 끝났다는 듯 책상에 기대어 앉는 복면.
절대 잠들지 않겠다는 듯 눈 부릅뜨고 씩씩대고 있는 하나.
복면, 졸음이 쏟아진다. 서서히 눈이 감기는데...
그때, 띵! 하나 휴대폰 문자음.
액정에 ‘딸, 미역국은 챙겨 먹었어? —엄마’
복면, 하나를 올려다보는데... 스르르— 감기는 눈.
암전.

#21. 지하방(낮)

시간 경과.
암전 속에서 속속— 뭔가를 잘라내는 듯 들려오는 칼질 소리.
천천히 화면 열리면서 눈을 뜨는 복면.

복면 (뭐지? 천국인가? 고개를 돌려보는데, 인상 꺾) !!!

의자에 묶인 채 바닥에 엎어진 하나 뒷모습.
뒤로 묶인 손이 잭나이프로 밧줄을 잘라내고 있다.

하나 (벌게진 눈 부릅뜨고, 중얼중얼) 내 정신은 아주 맑다, 맑다,
상쾌하다... 상쾌해 미치겠다...

순간, 툭! 밧줄이 잘렸다. 그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 보고 있는 복면.

하나 뻘대!

환희에 찬 하나가 밧줄 풀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복면이 하나 다리를 붙잡는다. 퍽!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는 하나.

하나 으악! 놔! 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 하나 발에 퍽, 퍽, 얼굴 맞는 복면.
무작정 손에 잡히는 걸로 하나 머리를 퍽! 때리는데...

하나 (뭔가 기분 나쁜 느낌. 손으로 이마 만지는) 으... 뭐야...

하나 손에 묻어 나오는 생크림. 이마에 곰팡이 핀 케이크가 뭉개져 있다.
하나, 복면 손에 들린 케이크 받침대를 본다.

하나 으아아악! 더러워! 더러워!
(드러누워 벌벌 떨고, 게거품 물기 직전)
치워줘요, 이것 좀 치워줘!

CUT TO

다시 묶여 있는 하나. 녀이 나가서 멍하다.
복면, 미안한지 하나의 딱 진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준다.

복면 아니... 니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나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 꼭 참는)

복면, 미안한지 하나 휴대폰을 내민다. 하나 엄마가 보낸 메시지 창.
‘딸, 미역국은 챙겨 먹었어? —엄마’

복면 답장할래?

하나 (고개 돌리는) 아니요.

복면, 머쓱해지는데 드르르— 복면 휴대폰 문자 온다.
확인하면,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
강태수 고객님의 가스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되었습니다.’

복면 (하... 한숨) 안 아프게 죽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네.

하나 (슬쩍 복면 휴대폰으로 시선 향하고. 궁금한)

띠링—! 다시 올리는 하나 휴대폰. 복면, 문자 보는데 ‘OO카드 미납안내’
연달아 띠링! 띠링! 띠링! 계속 들어오는 연체 문자들.
‘관리비 연체 고지’, ‘OO명품 중고샵 반납일 안내’ 등.

복면 (의아한) …부자도 연체 문자를 받아?

드르륵— 복면 휴대폰 전화 온다. 액정에 ‘1544-0000’

하나 (복면 휴대폰 보고) 그거 케이씨 미납 센터잖아요.
그런 건 미리미리 차단 좀 해줘요. 귀찮지도 않나?

복면 (거절 버튼 누르면서도 이상한)

하나 아저씨 돈 때문이죠? 이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같이 죽는 건 아닌 거 같아.

복면 …

하나 (설득) 아니, 앞에 두 명이 그냥 죽어나갔어.
근데 갑자기 나랑 같이 죽어. 그럼 사람들이 왜? 궁금하겠죠?
(복면이 고개를 갸웃) 이유 있어요?

복면 (끄덕)

하나 (당황) 응? 이유가 있어? 뭔데요?

복면 난 한 번도 유명했던 적이 없어.

하나 …에에?

복면 너랑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냐. 나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나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구요?

복면 (끄덕) 그리고 난, 너같이 돈 자랑하는 재벌들, 태생부터 금수저…
(말하다 발끈!) 아씨! 똑같은 걸 몇 번 물어보는 거야!

하는데 또록—! 하나 휴대폰. 유튜브 댓글 알림음.
복면, 하나 휴대폰으로 유튜브 들어간다. 댓글 보더니 스웁, 하나를 보는.

하나 ?

복면 너, 고미옥이지?

하나 (헉! 놀라 눈 커지는)

복면, 하나에게 댓글 보여준다. ‘너, 고미옥이지?’

하나 (소리 지르며 발악) 아, 아저씨! 그거 지워!
당장 지워야 돼! 빨리!!!

#22. 하나 원룸 앞(낮)

드르르륵— 열쇠 수리공이 도어록 열고 있다. 옆에 서 있는 성필.

수리공 (작업 끝난 듯) 집 나간 누나라니까 열어주는 거야.

성필 (고맙다는 듯 웃으며) 네, 네. 감사합니다.

성필, 수리공에게 오만 원짜리 준다.

#23. 하나 원룸(낮)

안으로 들어서는 성필.

성필 (둘러보며) 와, 내가 여길 다 들어온다.

여덟 평 정도 되는 좁은 내부.

명품 쇼핑백이 줄 맞춰 세워져 있고, 깔끔한 실내.

책상 주변 조명들과 데스크톱.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 있고,

액자에 교복 입은 하나와 엄마가 같이 찍은 사진.

성필 (걱정) 근데 이 누나가 진짜… 어디 갔어?

성필, 테이블 위 쌓인 고지서를 들춰본다.

‘카드 연체 고지서’, ‘관리비 납부 연체 고지서’, 모델하우스 전단지 등.

그 중 ‘xx중고 명품샵 렌탈 영수증’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보는 성필.

주소가 눈에 들어오는데 띠리리리 성필 휴대폰 울린다.

3시 알람이다.

#24. 지하방(낮)

‘아아아악!’ 소리 지르는 하나. 복면, 귀 막고는,

복면 (짜증) 알았어! 알았다고!

복면, 댓글 삭제. 하나에게 보여준다.

하나 (헉... 헉... 살았다는 듯 거친 숨소리)

복면 너 진짜 부자 맞아?

하나 ...그,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죠.

아저씨 부자만 죽인다면서요.

복면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하나 휴대폰 전화 온다! 복면이 액정 내려다보는 사이,
퍽! 복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발로 차내는 하나!
그와 동시에 복면의 복부를 발로 가격! 복면이 뒤로 쿵! 나가떨어지고...
휴대폰이 하나 앞에 떨어진다.
재빨리 발가락으로 통화버튼 누르는 하나.

하나 살려주...! (하는데)

여자(E)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야! 고미옥!

하나 !!!

여자(E) 너 당진여중 고미옥이지?

뒤로 깔깔대고 웃는 여자들 소리.

하나, 발가락으로 종료 버튼 누르려는데 획! 휴대폰 뉘아채는 복면.

여자(E) 유하나는 개빨! 미옥아! 우리 동창회 하는데 너도 한번 나와야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누가 몰라?

까르륵— 웃는 소리와 함께 전화 끊는 복면.

복면 야! 이거 뭐야! 너 누구야?

하나 (분한 듯 노려보다가. 터뜨려버리는) 그래! 나 고미옥이다!
나 완전 빈털털리에 빗도 엄청 많아! 개그지야! 개그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에에에?!

#25. 지하방(낮)

시간 경과. 휘리릭— 바퀴벌레가 벽을 타고 올라간다.

어느새 하나 옆에 의자 놓고 앉아 있는 복면.

하나, 세상 다 산 듯 체념.

하나 엄마가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맨날 손님들이 남긴 밥 싸와서,
날 먹었어요...

복면 하... (한숨)

하나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러웠어... 단무지에 고춧가루 묻어 있고,
김치에 가장 소스가 묻어 있었어요. (울컥) 먹어봤어요?
그런 더러운 거?

복면 (잠시 생각) ...식당 가면 가끔 나오지 않나? 그런 거?

하나 (획! 찌려보며) 그럼 이건?

삼계탕이라고 가져왔는데 빨다 남은 닭 뼈만 있는 건!

복면 (비위 상한다) 우웬...

하나 그것 봐! 구역질 난다구!

복면 (고개 끄덕끄덕)

하나 (애원) 그러니까 저 이제 풀어주세요, 네? 저 진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다구요.

복면, 생각하는 듯하다. 더 불쌍한 표정 지어보는 하나.

복면이 일어나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삼각대를 꺼낸다.

삼각대를 세워 카메라를 세팅한다.

복면 알았어.
 하나 (하, 살았구나! 환희!)
 복면 (카메라 초점 하나에게 맞추며) 여기다 말해.
 하나 ??
 복면 너 거지라고,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해. 그럼 보내줄게.
 하나 (절망스럽고)
 복면 니가 어렸을 때 고생했다는 거 알겠어. 충분히 이해해.
 그렇다고 거짓말로 유명세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
 하나 (카메라 렌즈와 복면을 번갈아 보며 고민스럽고)
 ... 진짜 풀어줄 거예요?
 복면 (끄덕끄덕)

#26. 부티크 호텔 주차장(낮)

휘황찬란한 외제차들 주차되어 있다.
 명품 원피스에 힐 신고 또각또각 걸어오는 윤지수. 통화 중이다.

윤지수 강보라, 그년은 죽어도 싸.
 지수, 차 리모컨 누른다. 삐빅! 소리 나는 쪽을 둘러본다.

윤지수 대놓고 지가 금수저니, 어찌니. 꼭 어설피게 있는 것들이 그러지.
 차를 못 찾았는지 다시 한 번 리모컨 누르면 삐빅!
 불빛 들어오는 윤지수의 고급 스포츠카.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부양—! 지수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툭, 검은 봉지가 떨어진다.
 지수, 지시간 오토바이를 보는. 계속 통화하면서 봉지를 피해 차로 향한다.
 봉지에서 빨간 핏물 같은 것 새어 나오고...

윤지수 없는 애들이 날 왜 좋아하는지 알아?
 지들도 언젠가 나처럼 살아볼 거 같거든. 웃기지도 않는 희망.

지수, 피식, 웃는데... 다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가 떨어뜨린 봉지 주우려는 듯 다시 돌아오다가...
 갑자기 지수를 향해 돌진한다!
 놀란 지수, 다급히 운전석 문 여는데 끼이이익—!
 운전석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코앞에 멈추는 오토바이.
 지수가 차로 들어가려는데 순간, 머리채를 휘어잡는 헬멧 쓴 남자!
 지수 입을 틀어막는 헬멧. 뒷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낸다.

#27. 지하방(낮)

어색한 듯 고개 푹 숙이고 있는 하나.
 복면이 카메라 옆에 서서 하나를 보고 있다.

하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
 복면 (탕탕! 책상 내리치는) 뭐야? 얼굴 들고! 당당하게!
 나 재벌 아니다!
 하나 (아주 살짝 고개 들고)
 복면 이거 완전 내가 시키는 거 같잖아!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
 하나 (속상한) 저 지금 완전 뽕얼이거든요? 한 번도 뽕얼 공개한 적
 없다가요. (혹, 고개 들고) 나 머리 떡 졌죠? 여기 조명도 하나도
 없잖아요. 얼굴 시커멓게 나올 텐데...
 복면 (달래는) 됐어, 괜찮아. 충분히 예뻐.
 하나 (귀 얹다) 진짜요?
 복면 어! 그니까 다시 찍어 보...
 하나 (울부짖는) 그래도 제발, 조명이라도요! 네?!

CUT TO

형광등 환하게 켜져 있고, 하나 옆에 책상 스탠드 들고 서 있는 복면.
 화면에 잡히지 않으려고 엉거주춤한 자세.
 하나, 이왕 하기로 한 거, 잘 해보자! 마음을 다잡는다.

하나 (경쾌한) 안녕안녕안녕! 유하나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뭐, 커밍아웃 영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숨긴 게 있어요. 저는, 낱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예요. (울먹) 잘산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록. 하나 휴대폰 울린다. 복면, 휴대폰을 본다.
유튜브 구독자 추가 알림이다. 다시 또록, 또록.
이번에는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음 울리고... 하나, 소리가 신경 쓰이는데.

#28. 몽타주. 하나 상상

— 유튜브 동영상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하나.
“여러분 그래도 제 채널 계속 구독해주시고...”와 함께 달락,
마우스 커서가 구독 취소 누른다.
— 하나 유튜브 동영상마다 붙는 노란 딱지와 구독자가 바닥을 치는 그래프.
— ‘유하나 TV’ 채널 이름이 ‘고미옥 TV’로 바뀌면서...
동영상 다 삭제된 텅 빈 채널만 남는다.

— “카드 대금 체납으로 인해 모든 금융 거래 중지...”
원룸 안에서 전화 받고 있는 하나의 절망스러운 얼굴.
— 작은 상 위에 놓인 라면. 하나, 라면 국물을 휘휘 젓다가
한 젓가락 뜨는데, 허거거걱! 젓가락에 걸린 앙상한 닭 뼈!
어느새 원룸은 더럽고 좁은 지하방이 되어 있고!

#29. 지하방(낮)

하나,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나 아아악!!! 여러분, 아니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완전 돈 많고, 지금도 돈 많고, 이거 지금 제가 다 헐박받아서...!

퍽! 복면이 들고 있던 스탠드를 내던진다.

복면 (히! 기가 찬) 너 진짜 살기 싫지?
하나 아저씨, 나 이거 퍼지면 사회에서 매장이야. 동영상 다 퍼지고
내 과거 털리고 굶어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로!
아, 몰라! 몰라!
복면 하... 너 정말... 나는 기회를 쫓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 이게 무슨 기회야! 나한테 이걸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로야.
사형 선고라구요!
복면 (어이없을 뿐이고)
하나 내가 이렇게라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누가 내 과거 알까
봐 친구도 싹 다 끊어내고, 사람 하나 안 만나고...
나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게 살았대구요!
복면 어찌라구!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하나 진짜 이렇게 죽을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몰라.
루저 둘이서 곰팡이 핀 지하에서, 곰팡이 퍼서 죽는 거라구요!
복면 (왔다 갔다 고민) 아... 씨...
하나 (설득) 그러지 말고, 내가 돈 줄게요.
복면 너 그지잖아! 거기 갱쟁이라며!
하나 (쩍...) 아니, 내가 월세 내고 돌려막기 해서 그렇지 유튜브로
돈 많이 벌었어요. 한 달 전에 가짜 납치 동영상 찍어서 올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 오백만이에요.
복면 근데?
하나 (답답하다는 듯) 동영상 하나가 조회수 백만이면 수익이
이백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백만이야.
복면 (생각하다가) ...!!! 천, 천만 원?!
하나 (그렇지! 싶은 듯 끄덕끄덕) 내가 유하나 납치했다, 이런 거 하나
찍어서 올리면 동영상 대박 날걸요? 채널 수익금 엄청 들어올 거고.
그 돈, 그거 아저씨 다 줄게요. 그걸로 새로 시작해봐요.
...사실 아저씨도... 죽기 싫잖아.
복면 ...
하나 세상에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딴어... 영상 찍어서 다 말해요.
나란 사람도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도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떨리는 눈으로 복면을 본다. 복면, 고개를 떨구고, 하...
복면, 결심한 듯 복면을 벗는데...!

#30. 중고 명품숍(저녁)

성필, 직원과 대화 중이다.

성필 언제 왔다 갔는데요?
직원 어제요. 항상 마감 때 와요. 열 시쯤.
성필 어제 뭐 이상한 건 없었어요?
직원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이상한)
성필 누나거든요. 친누나.
직원 ...퇴근하는데 옆 골목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 같긴 해요.
무서우니까 보진 않았죠.

#31. 청담동 골목(저녁)

하나가 납치되었던 골목길. 성필, 전화 온다. 사장이다.

성필 (받으면)
사장(F)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성필 사장님, 이거 이상해요. 사람이 없어졌다니까요.
사장(F) 그럼 넌 범퍼 굽고 나 여깁수다 하겠냐?
오늘 안에 해결 못 하면 니 월급에서 깎 거야, 인마!

전화 끊긴다. “하, 진짜...” 짜증 나는 성필.
골목을 둘러보는데 구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
주워보는데 돈은 없고, 뒤지면 운전면허증 나온다. 강태수 면허증이다.
태수의 사진을 유심히 보는 성필.

성필 (가웃) 어디서 봤더라...?

#32. 지하방(저녁)

하나, 병진 얼굴. 눈만 깜빡깜빡.

하나 오마마...! 미쳤나 봐...

땀에 젖은 머리를 툭툭 털어내는 복면, 태수. 엄청난 미남이다!
얼굴 천재 저리 가라 수준.

하나 지금 그 얼굴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어요?

태수 뭐?

하나 거울 안 봐요? 사람들이 안 쳐다봐? 연예인을 했어도 백 번은
했겠구만. 아니, 얼굴만 찍어서 올려도 구독자 오십만은 넘을걸요?

태수 뭐라는 거야... (웬지 쑥스러운)

하나 (쑥쑥) 진짜 자기 재능을 모른다.

태수 (민망해서) 됐고. 유하나 납치했다! 뭐 이런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지?

하나, 웃으며 고덕이는 얼굴에서...

CUT TO

뚱—하게 바뀌는 하나 얼굴.

태수 (발연기) 내가! 내가 유하나를 납치했다!

카메라에 얼굴 들이밀고 있는 태수. 하나, 못마땅한 듯 본다.

하나 컷! 컷! (태수가 보면) 연기가 이렇게 어설피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 그만두고! 나도 그냥 풀어주고! (짜증 내는데)

동영상 재생시키는 태수.
하나가 찍은 “여러분 저 할 말이 있어요...” 고백 동영상이다.

태수 영상 올리고 수익 들어올 때까지, 저건 내 거.
하나 (망할...)

하나, 방을 두리번두리번. 생각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대학 졸업장.

하나 (아니꼬고) 치... 대학까지 나왔어? (하다가) 그래!
오빠 사연 먼저 풀어봐요. 대학까지 나와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걸로!

태수 뭐?... (쭈뼛. 부담되고)

#33. 태수 과거. 피시방(밤)

태수(E) 그깟 대학... 졸업하고 남은 게 뭔지 알아?

모니터에 태수 이력서 띄워져 있고, 휴대폰 액정에는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하셨습니다.’ 불합격 문자. 괴로운 듯 머리 감싸고 있는 태수.
드르륵. 문자 오고 확인하면. ‘한국장학재단-00년도 1학기 원금 납입일이’
태수, 하... 괴롭다.

태수(E) 취업 탈락 문자 수백 통, 몇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

#34. 몽타주. 태수 과거

태수(E)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야.

—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과 모여 있는 태수.
잠시 후, 봉고차 오면 사람들과 함께 올라탄다.

태수(E) 평범하게만 살자. 남들 사는 만큼만 살자.

— 공장에서 일하는 태수.
— 묵묵히 혼자 밥 먹는 태수.

태수(E) 하루 열두 시간, 칠 년을 하니까 평범... 그 언저리까지는 가더라.

— 녹음에 헛살 눈부시다. 밝은 얼굴로 운전하는 태수의 손에 포개지는 손.
조수석에 태수 애인이 손을 잡고 있다.
마주 보며 웃는 두 사람. 행복한 한때.

#35. 태수 과거. 술집(밤)

태수 (화색) 진짜요?

태수와 대학 선배, 술 마신다. 선배는 조금 취한 듯 큰소리 땡땡.

선배 그래! 내가 밀어준다니까! 너 나이 삼십 넘어서 취업하기가
강남 집사기보다 힘든 거 알지?

태수 (웃으며 끄덕끄덕)

선배 너도 이제 평범하게 좀 살아야지.

태수 (쑥스러운 듯 웃는) 저, 나름 평범해요.

선배 (보다가. 박장대소) 하, 이 새끼. 농담은. 야, 근데 너 돈 좀 있냐?
형이 이번에 사업을...

#36. 태수 과거. 경찰서(낮)

“내 돈! 내 돈!”, “아이고...” 곡소리 들리는 아수라장.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에게 몰려들어 소리치고 있다.

태수, 형사에게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끼어들지만 틈이 없다.

“제 돈... 제 돈은...” 억지로 끼어보지만 금세 밀려난다.

#37. 태수 과거. 공터(밤)

퍽! 퍽! 서너 명의 건달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태수.

건달 돈을 빌리셨으면, 갚으셔야죠. 이 씹새야!

웅크린 채 아무 저항도 못 하는 태수.

태수(E) 오르는 길은 한참이었는데... 떨어지는 건 순간이더라.

#38. 태수 과거. 버스(밤)

피투성이 얼굴로 창에 기대어 앉은 태수. 모든 게 무기력하다.

옆에서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 “안녕안녕안녕! 유하나예요!”

태수, 고개 돌리면 옆자리 모자 쓴 남자가 유튜브 보고 있다.

화면 속 밝은 모습의 하나. “음, 한 달 수입은 오천?”

태수, 물끄러미 보는데...

남자 (영상 보며 무심히) 세상 참 불공평해요.

이런 애들 없으면 살기 좁나으려나...?

태수, 창밖으로 고개 돌린다. 전광판. ‘20대 인플루언서 흥기에 찢려 사망’

자막 나오는 뉴스 보도.

#39. 현재. 지하방(저녁)

깜빡깜빡, 카메라 녹화 불빛.

태수 (어두운) 세상이, 너무 잔인하잖아. 나한테만.

하나 (보다가) 그게 무슨 배 터지는 소리예요?

세상은, 모두한테 잔인한 거야. 비겁하네... 아저씨.

태수 (체념한 듯 웃는) 그래.

너같이 쉽게 돈 버는 애들한테는 그런가 보다.

그때 하나 휴대폰 울린다. 태수, 주머니에서 꺼내보고는.

태수 (하나 보여주는) 계속 전화 와. 니네 엄마.

하나가 입술을 꼭 깨문다. 받을 생각이 없다.

요란하게 울리던 벨소리가 뚝, 끊긴다.

태수 너야말로, 비겁하네.

카메라 녹화 불빛이 꺼진다. 태수, 일어나 카메라를 확인한다.

‘용량 부족’ 버튼 누르면 바로 데스크톱 폴더로 동영상이 전송된다.

하나 그 사람들,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어요?

태수, 하나를 돌아본다.

#40. 식당 단칸방(저녁)

전화 걸던 하나 엄마. 받지 않자 휴대폰 내려놓는다. 착잡하다.

앞에는 단출하게 차려진 생일상. 미역국 보면서 포옥... 한숨 쉬는 엄마.

#41. 지하방(저녁)

띠링—! 하나 휴대폰 문자 온다. 태수, 문자 확인하더니 하나에게 보여준다.

생일상 사진과 함께 엄마가 보낸 문자.

엄마(E) 딸, 내년에는 더 맛있는 거 차려줄게. 엄마가 미안해.

고개 돌리는 하나. 눈물을 참는다.

태수 (하나 보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깨끗하고 정직하게. 너처럼 내 부모 버리면서까지 거짓말로 살지 않았다고. 너같이 거짓으로 먹고사는 애가 평평거리면서 사는 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하나 ...아저씨, 내가 질문 하나 할까?
그렇게라도 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군 거 같아요?
아저씨야, 나야? 더 행복한 건요?

태수 (흔들리는 눈빛) 넌... 행복해?

#42. 몽타주. 하나 과거

— 고등학생 하나. 친구들과 하교하는데 고급 세단에 오르는
같은 고복 입은 여자아이. 하나, 보다가 다시 친구들과 웃고 떠든다.

하나(E) 우린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 평범하게.
사실, 뭐가 평범의 기준인지도모르지만.

— 콜센터에서 일하는 하나. “아가씨 말귀 못 알아들어?” 화내는 상대와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난처한 얼굴의 하나.

— 명품매장에서 첫 명품백을 사는 하나. 직원이 보여주는 가방을 보며
좋아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 찰카! 가방 사진 찍는 하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려다가
자기 인스타 사진들을 쪽쪽 내린다. 컵라면 사진, 네일아트 받은 사진 등
우후죽순의사진들. 팔로워 50명 남짓. 하나, 과감하게 계정 삭제.

하나(E)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번뜩해요. 평범한 게 아니라 구질구질하다...

— ‘유하나’ 적힌 새로운 계정. 하나, 명품백 사진 올린다.

#43. 하나 과거. 하나 원룸(낮)

휴대폰 유하나 인스타그램 화면. 어느새 팔로워가 만 명을 넘고,
게시글도 200여 개. 휴대폰 보다가 모니터, 유튜브 채널 확인하는 하나.
‘유하나 TV’ 구독자 20만을 넘었고, 동영상 썸네일의 자극적 제목들.
‘백화점 천만 원 쇼핑’, ‘신상 명품 쓸어 담기’, ‘오천만 원 쇼핑 하울’ 등.

#44. 하나 과거. 백반집(낮)

모자 쓰고 혼자 김치찌개 먹고 있는 하나. 옆 테이블 말이 들려온다.

여자1 요새 유하난가? 개 봤어?

여자2 아, 명품으로 처바르는 애? 판 방송 보니까 개네 집이 외교관에
변호사라던데?

여자1 어쩐지... 그 정도 되니까 돈을 그렇게 쓰지.

여자2 그런 집 애들은 이런 오천 원짜리 백반, 안 먹어봤을라나?

여자1 (웃으며) 야, 이게 제일 맛있어. 안 먹어본 게 손해지.

하나, 모자 눌러쓰고 조용히 나간다. 거의 먹지 못해 남은 찌개와 밥.

하나(E) 사람들은 내가 살아오지도 않은 인생을 만들어냈어요.
구질구질했던 고미옥을 버릴 수 있도록.

#45. 하나 과거. 하나 원룸(낮)

하나, 동영상 편집 중. 멍뚱— 문자 온다.

보면, ‘GOOxxx... 7,200,000원’ 유튜브 수익 입금.

#46. 하나 과거. 은행 ATM(낮)

하나 엄마, 통장 정리하고 통장 보는데 ‘고미옥 3,000,000원’ 입금.
위로 쪽 똑같이 하나가 보낸 입금 내역.
엄마, 하나에게 전화 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안내 음성뿐.

#47. 하나 과거. 하나 원룸(낮)

하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보다가... 하나씩 다 지운다. 텅 빈 연락처에
‘엄마’만 남는다. 고개 들어 모니터 위 카메라 보며 촬영 시작한다.

하나 여러분, 안녕안녕안녕! 유하나예요!
 여러분 덕에 구독자 50만을 넘었습니다!

 활짝, 웃는 하나.

#48. 현재. 지하방(저녁)

하나, 태수를 본다. 실밥 빠져나와 너털너털한 웃... 안스럽다.

하나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래 살 거 같아요?
 괜히 엄한 사람 잡아다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 사기꾼을 잡아
 죽치든지, 잊어버리든지 그게 낫지 않아요?

태수, 묶인 밧줄을 풀어준다.

하나 ?

태수 니 말대로 영상 올리고, 진짜 돈 들어오고... 그게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살아볼게. 제대로... 다시 시작해본다고.
 (의자를 책상 앞에 놓고) 로그인해.

하나 (말없이 앉아 로그인한다.)

그제야 모니터로 시간을 확인한 하나. 7시가 넘었다.

하나 (속상한) 여섯 시 칼로드, 놓쳤네...

태수, 마우스를 이어받고 폴더 열고, 동영상 찾고.
다른 쪽 모니터를 멍하니 보는 하나.
뉴스 속보가 나온다.

아나운서 폴링스타 챌린지에 참여한 윤 모 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 스피커 볼륨을 올린다.

아나운서 SNS에 컨셉 사진을 올렸던 윤 모 씨가 오늘 오후 세 시부터
 종적을 감춘 채 지인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하나, 이상하다는 듯 태수를 본다. 태수, 집중해서 뉴스 보고 있고.

아나운서(E) 연쇄 살인범에 의한 납치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하나, 뭔가 생각한다.

INSERT

하나가 지하방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현재까지 빠르게 복기.
처음 모니터 화면 시계 ‘오전 10:00’
태수가 들어오고, 하나가 발버둥 치고... 일련의 과정에서...
— 하나, 모니터 시계를 본다. ‘오후 7:40’
턱! 태수의 팔을 잡는 하나.

하나 너, 살인범 아니지?

띠링! 동영상이 업로드된다.

#49. 경찰서 안내데스크(밤)

무료한 얼굴의 데스크 직원.
휴대폰 알림 뜬다. 휴대폰 보는데, '유하나를 납치했다' 동영상.

직원 ???

#50. 경찰서 강력반(밤)

수사본부 안으로 다급히 들어오는 형사와 데스크 직원.
뭐야? 싶은 듯 보는 형사들.

형사1 팀장님, 이거 보세요.

데스크 직원이 휴대폰 보여준다.
방금 전 동영상 클릭하는데 재생이 안 된다.

직원 (당황) 어? (형사1 보며) 삭제됐는데요?

팀장 (뭔데? 보는)

형사1 유하나라고, 지금 유튜브 계정에 영상이 하나 떴어요.
납치범이 직접 자기가 납치했다고.

팀장 유하나가 누군데?

형사1 그 돈 자랑 사진, 그거 올렸어요. 이 여자도.

팀장 (!) 삭제된 영상 조회하고, 아이피 따 와.

직원 (다시 휴대폰을 보여주며) 근데...

팀장 ?

직원 영상이 일 분도 안 돼서 삭제됐다고, 다들 주작 아니냐고...

팀장, 난감한데 다른 형사가 들어온다.

형사2 팀장님! 용의자 CCTV 잡혔습니다!

#51. 폐창고(밤)

모니터 화면. 트위터를 통해 재생되는 하나와 태수의 납치 영상.
실시간 채팅창에는 '유하나 납치 영상' 동영상 링크가 퍼지고 있다.
한쪽 벽면에 붙은 여자 사진들. 앞선 피해자 '1차 최은지', '2차 정아름',
'3차 강보라' 사진과 이름에 붉은색 x 표시.
이어서 '5차 유하나', '6차 윤지수' 나란히 붙어 있는 사진.
누군가, 윤지수 사진에 커다랗게 붉은 x 표시 하는 데서 화면 내려가면...
결박된 채 쓰러져 있는 윤지수. 마스크라 다 번진 얼굴에 입을 막은
청테이프. 읊음... 공포에 질린 눈, 얼굴은 피투성이.
누군가, 책상 위 칼을 들고 윤지수에게 다가가면...
윤지수, 살기 위해 버둥거린다. 눈물범벅에 도망치려는 듯 꿈틀거리려지만,
퍽! 윤지수의 등에 꽂히는 칼.
서서히... 바닥에 번진 피가 웅덩이를 만든다.

#52. 지하방/밤

태수 (하나 팔 잡는) 야! 그걸 왜 지워! 미쳤어?

마우스를 다급히 누르고 있는 하나. 태수를 뿌리친다.
모니터에는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하나 아저씨야말로 미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람 개고생시키고!

태수 돈은? 돈 벌게 해준다며?

하나 그런 거 올리면 내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알아요?

아저씨, 세상 쉽게 살려고 하지 마요. 다 힘들어.

다 힘든 세상이라고!

태수 (씩씩대고 두리번)

태수, 노끈 집더니 의자 위에 올라가 전등에 노끈을 묶는다.

노끈을 목에 감는 태수. 목매달려고 발버둥.

하나, 태수를 끌어 내린다.

하나 (짜증) 아, 제발! 쯤!

태수, 서랍에서 종이 꺼내 던진다.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
하나, 내려다보면 신체포기각서다.

태수 돈 없으면 난, 어차피 내일 죽어. 이거야말로 개죽음 아냐?
하나 (하... 머리 아프고)
태수 잊지 마. 니 고백 동영상, 나한테 있어. 딱 오천이야.
내 빚 오천만 갚으면 깨끗하게 다 지울게.
하나 (짜증 나고. 미치겠는)

#53. 경찰서 CCTV 확인반(밤)

모니터 확인하는 형사들.
강보라의 외제차 사고 상황이다.

형사2 강보라가 죽기 며칠 전에 스토키 신고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강보라 사는 빌라가 연예인이며 재벌들 사는 곳이라 경비가
삼엄해요. 외부인이 절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팀장, 들고 있고. 화면에는 차에서 내린 강보라가 자기 차 확인하고,
부딪힌 차량에 가서 뭐라뭐라 이야기하고.

형사2 근데 그 전에 차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팀장 조회했어?
형사2 렌터카예요.

#54. 태수 지하방 대문 앞(밤)

검은 점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남자, 피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아낸다.

#55. 지하방(밤)

하나, 결심한 듯.

하나 알았어요. 내가 일단 집에 가서 다른 영상 하나 올릴게요.
퍼진 동영상부터 수습하고...

그때, 푹푹.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놀라서 서로를 보는 하나와 태수.

태수 (나직이) 너... 신고했어?
하나 (고개 젓는)

태수가 각목을 집어 든다. 문 뒤쪽으로 몸을 옮기는데,
끼이익— 문 열리고.

성필 (고개 내밀며) 하나 누나, 여기 있어요?
하나 (문으로 뛰어가는) 살려주세요!

성필, 안으로 들어서면 동시에 붕—! 성필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태수.
성필, 몸을 숙여 간신히 각목 피하는데,
파지지지직—! 태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쓰러진다.
태수 옆구리에 테이저건을 쓴 성필.

성필 (바들바들 떠는 하나 부축) 누나! 괜찮아요?
하나 (쓰러진 태수 보며 끄덕끄덕)
성필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연락을 왜 안 받아,
(갑자기 돌변! 하나 목 움켜쥐면서!) 이 씨발년아!
하나 (컱!) !!!

#56. 경찰서 CCTV 확인반(밤)

팀장 (짹짹한) 그게 다야?
 형사2 (화면 바꾸라는 듯 눈짓) 강보라 말고 다른 몇 명한테도
 접촉했더라고요.

화면에는 다른 차 사고 현장. 2차 피해자 정아름이 차에서 내리면,
 다른 차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내린다.

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형사2 오늘 실종된 윤지수도 차 사고가 났었구요.
 팀장 (화면 보며) 얼굴, 얼굴…

용의자 얼굴이 점차 확대되는데… 성필이다!
 옆에 있던 형사1, 전화 받더니 표정 어두워지는.

형사1 팀장님… 윤지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팀장 !!
 형사1 …시신에 손가락이 잘려나갔대요…

다들 참혹한 표정으로 바뀌고.

#57. 지하방(밤)

성필, 의자에 앉아 바닥에 각목을 쿵쿵, 내리찍고 있다.
 앞에는 정신 잃은 태수와 겁에 질린 하나가 손이 묶인 채 앉아 있다.
 태수, 정신이 돌아오는지 천천히 눈을 뜨는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성필.
 네일아트 되어 있는 윤지수 손가락이다!

하나태수 !!!
 성필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야?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성필. 태수, 보는데… 아는 얼굴이다.

태수 너…?!

#58. FLASH CUT

#38 버스
 유하나 유튜브 보고 있는 검은 모자 쓴 남자.

남자 세상 참 불공평해. 이런 애들 없으면 살기 좀 나으려나…?

태수가 남자를 물끄러미 보면, 고개 드는 남자. 성필이다.
 태수 보고는 씨익— 웃는.

#59. 현재. 지하방(밤)

성필 (태수에게) 그쪽 때문에 일이 다 꼬였잖아. 그 동영상은 뭐야?
 나 따라 한 거야?

태수 …

성필 이딴 식으로 끼어들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돼. 말해봐. 주작이야?
 관심 끌려고? (하나 보며) 유하나가? 아니, 고미옥이?

하나 (덜덜 떠는) 아니에요… 나도 이 사람한테 끌려온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성필 (짜증 난다는 듯 태수 보고) 아저씨 때문에! 윤지수가 죽었어.
 개는 유하나 다음이었거든? 근데 아저씨가 유하나를 채가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눈앞 윤지수 손가락 보는 하나. 차마 더 볼 수 없어 고개 돌린다.

성필 (각목으로 하나를 쿡쿡 찌르며) 근데 보니까 애는 잡아 올 필요도
 없더만. 애 그지야, 완전 상그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인상 쓰는) 아, 씨... 구린내. 비위 상하게.

벌레 보듯 하나를 보는 성필.

하나 (부들부들. 수치심, 모멸감 참지 못하고) ...야! (하는데)
태수 (끼어들어) 너야말로 구린내 진동이야!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냐?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서 죽였어?
성필 (어이없고)
태수 (머리로 성필을 들이박는!) 이 비겁한 새끼!!

뒤로 나자빠지는 성필. 주머니 속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진다.
하나, 간신히 일어나 테이저건을 방구석으로 멀리 차버린다.
성필, 일어나 태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는다. 퍽! 나가떨어지는 태수.

성필 미친놈아! 넌 관심 받으려고 사람 죽여?
그래서 이년 손가락 하나 못 잘랐냐?

성필, 하나 머리채를 잡아채서 책상으로 끌고 간다.
하나 손에 묶인 줄을 풀고, 한쪽 손을 책상 위에 붙잡아놓는다.

성필 잘 봐, 이 씨발놈아. 사람 죽이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야.

성필이 연장을 집어 하나 손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태수 이 미친 정신병자야!!!

퍽! 성필 뒤통수를 망치로 찍어버리는 태수!
성필이 바닥에 쓰러지자 태수가 주먹을 내리꽂기 시작한다.

태수 이 미친놈. 사람 죽이는 게 (퍽!) 자랑이야?
(퍽, 퍽) 어? (다시 퍽!) 말해봐! 말해보라구!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필에게 주먹질하는 태수. 처음 보는 살기 띤 눈빛!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두려움에 그 모습을 보는 하나.
하나, 이내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밖으로 도망친다.

#60. 골목(밤)

편의점 앞에 형사들이 탄 차가 멈춘다. 형사들, 내린다.

형사1 여기서 한 시간 전에 신용카드 기록 조회됐고,
주변 CCTV 잡았습니다.
팀장 다음 동선은?
형사1 없어요. 재개발구역이라 다른 골목 CCTV는 다 깡통이에요.
팀장 일단 뒤져. 뒤지면 나오겠지.

흩어지는 형사들.

#61. 골목(밤)

우당탕! 대문을 빠져나온 하나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한다.

하나 (헉, 헉)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하나, 안도감과 함께 힘이 빠지는데... 번뜩, 스치는 생각!

하나 (서는) 동영상...!

INSERT #32 지하방
하나가 찍은 “여러분 저 할 말이 있어요...” 고백 동영상 틀어놓은 태수.

태수 내 영상 올리고 수익 들어올 때까지, 저건 내 거.

INSERT #52 지하방

태수 잊지 마. 니 고백 동영상, 나한테 있어.

— 하나, 일그러지는 얼굴. 천천히 지하방을 향해 돌아선다.

#62. 지하방(밤)

하나, 조용히 안으로 들어간다.

피투성이가 된 성필 쓰러져 있고, 태수도 정신을 잃은 듯 누워 있다.

하나, 조심조심 둘 사이를 헤치고 컴퓨터로 향하는데...

하나 !!!

덱석! 하나 발목을 잡은 태수.

하나,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한다.

하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태수 (일어나 앉고. 주머니에서 USB 꺼내는)

하나 (눈 반짝!)

태수 이게 그렇게 중요해? 니 목숨보다?

하나 (끄덕... 끄덕) 이제, 음식 쓰레기에 밥 말아 먹던

고미옥은 없어요...

사람들은 잘난 부모 둔 유하나밖에 기억 못 해.

가난한 집 고미옥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태수 싫다면?

하나 ... (차가워지는) 지금 여긴, 너랑 나 둘뿐이고. 난 아직까지 부자라는 이유로 납치된 희생자일 뿐이야. 넌 연쇄 살인범이랑 공범인 사이고 루저고.

피식, 웃는 태수. 컴퓨터 앞에 앉는다.

태수 니 말처럼 나도 새 삶을 좀 살아보려구. 첫판부터 확, 뜨려면 자극적이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꼭 올려야겠어. 그치?

태수, USB를 연결한다. 다급해진 하나, 두리번, 두리번.

결국 각목으로 태수를 내리친다. 퍽!

하나 안 돼! 안 된다고!!!

태수 억! (막아보려는데)

하나 (계속 내리치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퍽!) 서너 시간 자면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얼굴 칭칭 감고 중고샵 다니고, 누구한테 들킬까 봐 잠도 못 자고! (퍽!)

바닥에 쓰러지는 태수. 이미 정신 잃었다.

동시에 우당탕, 삼각대도 넘어가고.

하나 (이성 잃은. 계속 내리치며) 근데 니가 그랬잖아! 니가 나 납치했잖아! (눈물 주르륵) 니가 가만히만 뒀으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왜! 약해 빠진 건 니들이면서! 왜 나한테!

하나, 얼굴에 핏방울이 튀어 오르고... 눈을 질끈 감는.

점차 안정을 찾는다. 피투성이가 된 태수를 내려다보는.

하나 (스윽— 눈물 훔치고. 멍한)

하나, 두리번. 책상 위를 싹 밀어버린다.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컴퓨터.

USB 집어 발로 몇 번이고 밟아버리는 하나.

눈물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휴대폰 들고 밖으로 나가—

#63. 골목(밤)

하나,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온다. 달린다. 살았다. 이제 진짜 살았다는 안도감이 깃들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풀썩, 쓰러진다.

하나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줄음이 몰려오는데... 또록, 또록, 쉴 새 없이 알림음 울린다....
화면을 보는 하나. 유튜브 구독자 숫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80만에서 90, 95... 100만!
동영상이 재생되면.
“음식 쓰레기에 밥 말아 먹던 고미옥은 없어요.
사람들은 잘난 부모 둔 유하나밖에 기억 못 해.
가난한 집 고미옥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구.”
하나 목소리 나온다.

#64. 지하방(밤)

방금 전.
쓰러진 태수가 천천히 눈을 뜬다. 눈앞에 마주 보이는 카메라.
깜빡, 깜빡. 녹화 불빛이 반짝인다.
태수, 손을 뻗는다. 액정을 누른다. 녹화가 중지된다.
“영상을 업로드하시겠습니까?”, ‘YES’ 누른다.

#65. 골목(밤)

시끄럽게 울리는 알림음과 함께,
“죽었어? 죽인 거야?”, “둘 다 죽었어?”, “대박” ...뗏글 소리가 겹치는
가운데, 하나의 시야가 흐릿해지고...
“팀장님! 여기요!” 형사들의 발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온다.

#66. 몽타주. 거리 곳곳(낮)

— 대형 전광판. 뉴스 흐른다.

아나운서 SNS에 올린 사진으로 부를 과시하는 재벌들을 노린
폴링스타 챌린지의 유력한 용의자가 강남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당한 유튜브 스타 유 모 씨의 소행으로 보고...

뉴스에는 관심 없는 듯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 TV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

아나운서(E) 자신을 부유층 자제로 속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유 모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워...

부장 저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며?
직원1 우리 층 김 대리도 한다잖아요. 회사 몰래.
부장 나도 해볼까?
직원2 부장님, 뭐로 하시게요. 저것도 엄청 힘들대요.
부장 에이, 직장인보다 힘들겠어?

“근데 오늘 회의 준비는...”, “상무님이 오후에”, 수다에서 멀어지면서...

#67. 어딘가

덩그러니 놓여 있던 하나 휴대폰. 지잉— 진동 울린다.
액정 ‘엄마’. 끝내 받지 않는 휴대폰 화면에서—

끝.

초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정 버전을 내고 보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좀 더 과감한 수정을 해볼 걸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가 단순히 SNS가 만들어낸 괴물로만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한 하나와 태수가 현시대를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고자 하지만, 매번 누군가에게 글을 보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부끄럽지 않은 대본을 쓰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대본을 매만졌습니다.

‘대본을 쓰는 일은, 작가의 마음속 화단에서 꽃 한 송이 피워내 꺾어 누군가에게 주는 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제야 겨우 한 송이를 피워내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지일 센터장님, 오픈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제 곁을 떠난 나의 기둥 할아버지와 나의 가족들. 고맙습니다.

심리학과 신비학

임윤성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상처로 마음이 문드러졌을 때 우리는 이곳에 간다.
정신과 아니면 점집.
정신과에서 환각이라 하면, 점집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점집이 많아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 두 업종이 다르다면 한 곳 차이 정도 아닐까.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결국 그 사람을 잘 살게 하려는 두 남녀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예견하는 점쟁이고, 여자는 약을 지어주는 의사다.
골인 지점은 같지만 출발선은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당신은 마음이 아플 때 누굴 만나러 가는가, 의사가냐 점쟁이인가.

등장인물

주예지(33세, 여) 정신과 전문의

대학병원 시스템과 자신의 치료방식에 갇히 있어 대학병원을 박차고 나와
개업했다. 그랬더니 병원에 파리만 날린다. 그럼에도 자신의 치료방식을
고수한다. 약 처방은 최소한으로, 상담은 길~고 디테일하게, 최대한 친구처럼.

나해석(30대, 남) 역술가

어릴 때부터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세상에 신물 냈고, 그래서 염세적이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싫은 것도 마주 봐야 하니까 일찍이 사주와
주역 공부를 했다.
실력 있는 역술가로 이름을 막 날리려는 참이다.

주영지(30대 후반, 여) 아나운서

예지의 언니. 신뢰도 높은 아나운서로 손꼽히며 본인 이름을 건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을 뽑아 먹는
동생에게만은 악랄 그 자체. 동생이 자신의 기준에 맞는 철든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고병수(20대 후반, 남) 예지의 환자

동거녀의 자살을 목격한 후 심리적 외상과 내상을 고루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외

정하나(간호사), 최광현(50대 남, 환자), 작업반장, 인부들, 형사, 소영, 선배 등

줄거리

part1. 정신과 옆 철학관

철학관 남자가 말했다.

“비슷한 업종인데 잘해 봐요, 우리.”

정신과 여자는 대답한다.

“비슷? 사이비 자격증이랑 의료인이 어디가 비슷해요?”

신경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예지는 환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소위 ‘착한’ 의사다. 약물 처방보다는 상담으로 치료하는 것을 추구해서 치료가 더딘 것이 흠이라면 흠.

그래서인지 예지의 병원을 찾는 환자는 이제 아내의 과도한 잠자리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 광현과, 죽은 애인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병수, 둘만 남았다. 간호사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로 병원 사정이 좋지 않은 마당에 하필 옆 사무실에 철학관이 개업을 한 것이다.

part2. 제발 망하게 해 주세요

예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예지의 말에 간호사가 답한다.

“그런 거 따질 때예요? 환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예지는 해석의 철학관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다. 저런 미신 따위에 사람들이 휘둘리니까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신 같은 사람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달랑 두 명뿐이던 환자 중에 광현마저 해석의 철학관 앞에 줄을 서버리고… 광현은 해석의 점괘를 듣고 그동안 앓던 병이 씻은 듯 나은 것처럼 개운해한다. 예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린다.

“내 환자까지 뺏어가셨다? 오케이, 전쟁이다.”

한편, 그런 예지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영지(예지의 언니)는 예지를 망하게 하려 애쓰는 중이다. 뻘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망해가는 병원을 차려놓고 특하면 손 벌리는 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다.

“개가 하는 병원… 망하게 하는 부적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을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라니… 해석은 예지가 안쓰럽다.

part3. 그 사람이 납치 미수범?

그러나 예지도 해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안 그래도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병수가 병원을 뛰쳐나가더니 전화 한 통만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소정이 따라가려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지는 병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걱정이 돼 그를 찾아 나서려는데, 경찰에서는 병수가 초등학생을 납치한 약취유인 미수 용의자라며 그를 뒤쫓고 있다 한다. 병수가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예지.

그런데 병수의 점괘를 본 해석이 한다는 소리가…

“자살은 무슨, 형살에 해살에 남을 죽이면 죽였지 저는 안 죽는 사주야.”

“아니거든요?”

“아님 감옥살이해서 겨우 면피하거나인데… 그래봤자 살인자…”

“아니라구요!”

예지는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는 환자가 납치에 살인누명까지 쓰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혼자서라도 병수를 찾아 그의 자살을 막고, 그가 살인자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지를 붙잡는 해석.

“어디 갈려고요. 가지 마요. 가면 안 돼요.”

해석의 점괘가 불길하다.

part4. 심리학 vs 신비학, 과연 승자는?

해석은 그동안 미운 정이 들었는지 예지를 혼자 보내지 못하고 결국 함께 병수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찾아낸 병수는 옛 여자 친구와 닮은 다른 여자를 납치해 범죄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병수 씨 나 믿죠? 그 사람 소정 씨 아닌 거 병수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니!! 왜 나만 끔찍한 기억에서 살아야 되는데!!”

병수는 더 이상 예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데...
과연 정신과 의사와 철학관 역술가 중 병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구일까?

심리학과 신비학 임윤성

#1. 정신과 외경(낮)

지어진 지 40년은 넘어 보이는 오래된 빌딩 2층에
‘마음편한 정신과’ 간판 붙어 있는.

광현(E) 하루가 다르게... 점점 무서워져요 선생님.

#2. 정신과 진료실(낮)

건물 외경과는 정반대로 우드톤의 세련되고 안락한 인테리어.
의사 가운 입은 예지(33세, 여), 광현(50대 남, 대머리)과
마주 앉아 상담 중이다.

광현 해만 떨어졌다 하면 씻고 나와서 (후우... 생각만 해도 살 떨리는) 나를 요렇게... (게슴츠레한 눈빛으로 예지 보며) 요렇게 보면서 엉겨 붙고 쿡쿡 찢러대는데 그때마다 발바닥까지 소름이 돋는다니까. (부르르 떨면)

예지 (과몰입 중인, 같이 부르르 떨고)

광현 요즘은 하루도 안 거르고 애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회사 다니는 애들이 늦게 들어오지 일찍 오겠어요?

예지 ...늦죠 아무래도...

광현 그럼 이 여자가 콧노래 부르면서 안주를 만든다고. 나 술 맥일라고. 술 맥여서 덜칠라고.

예지 (덩달아 화나는) 약속 있다고 나가거나... 잠깐 모면하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광현 해봤죠. 근데 핸드폰 다 뒤져보드라고, 바람피냐고. 그러니 내가 살겠어요? 집에 들어갈 생각 하니까 벌써 숨도 막 안 쉬어지고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거 같고... (호흡곤란 밀려오는데)

이때, 벽 쪽에서 광! 망치로 내려치는 소리 난다.

광현 (놀라서 보고, 가슴 부여잡는데 심장 조여오는 듯) 아우...
예지 (소리 난 벽을 짝 째려보다가) 상담 시간엔 안 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하는데)

뒤이어 드르르륵 드릴 돌아가는 소리,
위잉 철근 절단하는 소리 등 소음들 쿵쾅거린다.

광현 이러다 판것도 아니고 복상사로 죽지 싶어...
남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 하겠고...
(눈물이 핑 돌고, 코피가 주룩 흐르는데 뒷말 공사소음에 묻히고)
예지 (티슈 뽑아 건네며 광현에게 바짝 다가가 앉는)

#3. 빌딩 2층 복도+정신과 옆 호실 안(낮)

예지, 정신과를 나와서 옆 호실 찌릿 보면, 너털너털해진 피부관리실
스티커 붙은 문 보이고. 다가가서 광! 열어젖히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인부들, 예지를 보고 동작을 멈춘다.

#4. 정신과 옆 호실(낮)

예지 (이 바드득 갈며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상담 시간에는 멈춰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저번에.
반장 어제 아니었어요? 어제 두 시부터 세 시. 고뎨 딱 멈췄는데.
예지 오늘이었거든요?!
반장 그랬나...? 몇 번 되지도 않아서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날짜를 착각했네 내가.
예지 반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 달랑 두 번! 근데 그걸
못 해주세요? 상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번인데?!
반장 아, 미안해요. 내일이면 공사 끝나니까 쯤만 참아요.

최대한 빨리 할게.
근데 어째?... 병원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이거까지 들어와서...
예지 (!) 뭐가 들어오는데요?
반장 철학관... 몰랐어요?
예지 (황당, 반감 확 밀려드는) 철학관이요?!

#5. 빌딩 2층 복도(낮)

정신과 옆 호실에 있던 피부관리실 흔적들 싹 다 벗겨지고, '21C철학관' 현판
붙는 데서(CG) 카메라 zoom아웃하면 기막힌 표정으로 보고 있는 예지.
정신과와 철학관 번갈아 보는 위로
타이틀. <심리학과 신비학>

#6. 정신과 대기실(낮)

예지 들어서면, 접수대 안에서
벽걸이 TV 보고 있는 하나(20대, 여, 간호사) 보인다.

하나 (예지에게 흘깃 눈길 주고 다시 TV에 시선 고정하며)
어때요? 구려요?
예지 구리지 그럼. 이름부터 구려, 21세기 철학관이 뭐야? (하는데)
해석(E) 오프라인에서 철학관도 운영하고 있어요. 21세기 철학관이라고.
예지 ! (그 소리에 TV 보면)

INSERT
TV 화면.
영지(30대, 여, 아나운서), 해석(30대, 남)을 인터뷰하고 있다.
해석, 슈트 차려입은 패셔너블한 모습이다.

해석 요즘 같은 시대에 장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 상담소 하나쯤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지 그만큼 자신만만하단 얘기 같은데요?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 보죠?

해석 (씩 웃고, 여유로운) 역술가야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비법 아닌가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 저는 사주 관상뿐 아니라 주역까지 다루니까 차별점이 있긴 하죠.

영지 주역이요?

해석 쉽게 말하면 인간의 DNA 속에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런 무의식에 쌓여 있는 정보를 초지성주의적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역이 바로 이런 초월적 지식이자 정보체계인 거죠.

예지, 기막힌 표정으로 보고 있고
하나, 점점 빠져드는 듯 인스타그램 열어서 해석의 계정 팔로우한다.

예지 재 뭐래니? 초지성 뭐?

하나 저 사람, 201호에 들어오는 점쟁이 맞죠?
(휴대폰 보며) 팔로워 20만 넘는 거 봐.
얼굴 빨인가? ...온라인 상담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지 (하나가 못마땅한) 채널 돌리자. 클래식으로.

하나 (빠죽하며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는) 환자도 없고 잠깐 보는 건데...

예지 (찌릿 보고)

하나 아니 원장님 언니가 진행하는 거라 내용도 믿을 만하고, 경쟁업체일 수도...

예지 (O.L.) 경쟁은 무슨. 저런 급 낮은 사이비랑 우리랑 어떻게 경쟁이 되니? (하며 진료실로 들어가면)

하나 (채널 돌리는 척하다 시사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볼륨 줄이고 보는데)

INSERT
TV 화면.
영지, 스튜디오에서 혼자 멘트한다.

영지 무속인 50만, 역술가 30만 시대. 시장 규모는 어림잡아 수조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허상뿐인 샴머니즘에 기대야 하는 걸까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예지, 문 확 열고 나와서 하나에게 눈빛 쏘는데

하나 (리모컨 꺾꺾 누르며 시치미) 이게 왜 안 되지...

예지 정 간... 미안하다.

하나 (그럼 그렇지) 그쵸? 이 정돈 봐도 되는데 너무했다 싶죠?

예지 그게 아니라 월급... 며칠만 좀 미루자.

하나 (표정 굳고) 아 뭐예요 진짜~

예지 진짜 미안. 며칠 있다 꼭 줄게.

하나 두 달 치 한 번에 들어오는 거죠?
두 달은 버텨도 석 달은 못 버텨요 저.

예지 응... (착잡하게 문 닫고 들어가는)

#7. 진료실 안(낮)

예지, 앉아서 쌓여 있는 미납고지서들 보다가 한숨 푹 쉬고...
휴대폰 꺼내 '주영지' 검색해서 통화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지 아, 몰라. 손 벌린 게 뭐 하루 이틀이야?
(눈 질끈 감고 통화버튼 누르는) ...진짜 최악이다.

#8. 교차. 방송국 로비+정신과 진료실(낮)

영지, 걸어 나오는데 울리는 휴대폰, 보면 예지다.

영지 (반고, 떨떠름한) 왜.
예지 (통화) 저기... 바빠?
영지 바쁘니까 본론만 말해.

예지 아니 집에서도 통 못 보고, 살아 있나 해서.
 영지 생존 확인 됐으니까 끊어도 되지? 다른 용건 없고?
 예지 ...어... 딱히 용건은 없는데... 이따 저녁때 뭐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영지 왜, 내 카드로 장 봐서 요리하고 돈 꺾 달라고 아부하게?
 예지 (들켰다) 아니거든! 언니 넌 사람 성의를 맨날 그렇게 무시하드라?!
 영지 너야말로 레퍼토리 넘 뻥한 거 아냐? 좀 참신하게 패를 깔든지.
 너한테 꺾 줄 돈 없으니까 끊어. (톡 끊으면)

로비 일각에서 영지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던 해석, 다가온다.

해석 다시 보니 반갑네요. 나 알죠? 그 허상뿐인 샴니즘.
 흑세무민하는 잡학? 또... 뭐랬더라, 수천 년간 이어진 사기?
 영지 아, 방송 보셨구나? 잘 나왔죠?
 해석 내 얼굴만 정직하게 나오고 다른 건 약속이랑 너무 다르던데?
 주역을 심층으로 다룬대서 인터뷰했더니,
 4천 년 된 신탁서를 아주 똥으로 만드시고.
 영지 그거 따지러 오셨어요 설마? 미래를 점친다는 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어머, 난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죠. (비웃고 가려는데)
 해석 (불잡고) 내가 사사로운 일엔 점을 안 쳐서. 속은 건 억울한데 내
 업보라고 생각할게요. 공덕 쌓아 풀어야지 어찌겠어. 궁금한 거
 있음 한번 와요, 잘 봐줄게. (핸드백에 명함 넣어주며 씩 웃고,
 가려다가) 아! 인터넷에 생년월일 있어서 봤는데 조만간 크게
 쪽팔리는 일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손 흔들며 가는)
 영지 (별꼴이라는 듯 보고)

#9.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병수(20대, 남, 환자) 상담 중이다. 병수, 연신 목 주변을 긁어대면

예지 (병수 관찰하다가 제 목을 볼펜으로 툭툭 치는)
 병수 (그제야 인지하고 그만두는) 아... 요즘 괜찮았었는데...

어제부터 또...

예지 대신할 수 있는 제스처 생각해봤어요?
 병수 음... 숫자 세기...? (목 굽던 손가락 하나씩 꼽는)
 예지 목이 조이거나, 간지럽거나, 그날 일이 떠오르거나 하면 앞으론
 그렇게 하기에요. 지난주는 좀 어땠어요?
 병수 (덤덤) 별로였어요. 친구랑 술 마시고,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
 안 취했는데 취한 척 길길거렸어요.
 예지 그러면 좀 어때요, 술 마셨잖아요.
 병수 유람선에서 불꽃놀이 본 적 없는데, 봤다고 했어요.
 소정이랑 하기로 했던 건데... (피식피식 웃는)
 예지 ... (안타깝게 본다)
 병수 (정색하고) 웃긴 얘기 아닌데 웃는 거 이상한 거죠?
 예지 방어기제예요. 병수 씨가 아직 슬퍼할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병수 웃을 자격 없는데 자꾸 웃으니까 그것도 싫어요.
 예지 웃을 자격 없는 사람이 어딴어요.
 병수 근데 선생님, 만약에 소정이가 보이면요? 저한테 보이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 맞죠?
 예지 (내심 놀란) 소정 씨가... 보였어요?
 병수 (안심시키려는 듯 웃고) 아, 그게 그러니까... 소정이 죽었던 건
 알죠... 매달려 있던 소정이 내린 사람도 나고, 촉감도 아직도
 생생한데... 다 아는데... 그래도 보였어요... 꼭 눈 뜨고 꿈꾸는
 것처럼.
 예지 ... 어디서... 봤어요? (걱정으로 보는데)
 이때, 벽을 광광 치는 망치 소리.
 예지 병수, 동시에 벽 보면 잠잠하다 이내 다시 시작되는 망치질.
 예지 (짜증 나는데 누르고) 공사 다 끝났었는데... 잠깐만요.
 (일어나 나가면)
 병수 (초조한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잘근거린다)

#10. 철학관 안(낮)

해석, 의자 위에 올라가 박힌 못에 액자(역학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걸고 있는데 문 광 열리며 예지 들어오는.

해석 (당황) 어? ...정식 오픈은 내일인데... (의자에서 내려오며
맞은편에 앉으라는) 이왕 오셨으니까 봐드릴게요. 서비스로.

예지 (씩씩, 책상에 있는 망치 보며) 저... 정신과에서 왔거든요? (입고
있는 가운 펼쳐 보여)

해석 요즘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 안 가리고 다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쑥스러워 말고 오세요.

예지 그게 아니라 (다가가서 망치 들어 보이며) 저, 옆에,
마음편한 정신과 의사라구요.

해석 아... 반갑습니다. (약수하자 손 내밀며) 비슷한 업종인데
잘해 봐요, 우리. (짱긋하며 웃으면)

예지 (뭔가 싶고, 기막힌) 비슷...해요? 뭐가요? (벽에 걸린 자격증,
회원증 등 망치로 가리키며) 저런 사이비 자격증이랑 의료인이
어디가 비슷해요?

해석 (기분 나쁜, 손 거두고) 하긴,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갖다 붙였다 싶긴
했어요. 그쪽보단 이쪽이 확실히 더 크고 넓고 깊은 학문인데.

예지 와... 하! (너무 기가 막혀 소리 내 웃어버리는) 그냥 비슷한 걸로
하죠. 근데도 굳이 굳이 여기에 개업하신 그쪽은 상도위가 없는
결로 하고.

해석 상도의... 실은 내가 그 상도위를 발휘해서 그쪽 병원 자리까지
얻으려다가 만 건데... 뭐, 벽 너머부터는 풍수적으로 트기도 했고
자리가.

예지 트긴 뭐가 터요! 병원 잘만 되거든요?!

해석 (의미심장하게 보며) 아닐 텐데...? 내기할까요?

예지 ...됐거든요?! 그런 실없는 얘기 하자고 온 거 아니구요.
부탁 하나만 하죠? 업무시간에 못 같은 거 박지 말고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업무방해로 고소하기 전에. (망치 광 놓고 나가는)

해석 (떨떠름하게 보며) 부탁 한번 살벌하네.

#11. 정신과 대기실(낮)

예지, 분이 가지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접수대에서 계산하고 서둘러 나가는 병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예지의 어깨를 치고도 그냥 가는데

예지 아직 상담 안 끝... 병수 씨! (하는데)
하나 누구 만나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간대요.
예지 ...안 되는데... (바로 쫓아나가고)

#12. 도로(낮)

병수 손목시계 보며 빠르게 달려가고,
예지, 한참 뒤에서 달려온다.
병수, 깜빡거리는 횡단보도 건너가면 신호 빨간불로 바뀌고.
뒤쫓아가던 예지, 지나가는 차들에 막혀 길 못 건넌다.

예지 (안타깝게 병수 뒷모습 보며 종종거리는)
이번엔 약 먹어야 되는데...
막막해하는 데서 짧은 FADE OUT

#13. 빌딩 앞(낮)

FADE IN 다음날.
출근하는 예지. 빌딩 앞까지 길게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보인다.

예지 뭐야, 무슨 일이야?

#14. 빌딩 2층 복도(낮)

예지, 줄 선 사람들 신기한 듯 보며 오는데,
철학관 앞에서 늘어선 줄이다.

예지 (줄 선 사람에게) 저기요, 여기 왜 이렇게... (하는데)
손님 이 집 여섯 시까지 선착순이거든요.
예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요?
손님 얼른 줄 서세요. 안 그럼 오늘 안에 못 볼걸요?
예지 아... 저는 여기 말고 (정신과 가리키며) 저 옆에 불일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거 왜 봐요? 고민 있고 힘든 일 있음 정신과 가요 그냥.
그 편이 심리분석에는 더 낫지 않나?
손님 (기분 나쁜) 저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해석(E) 뭐하는 짓입니까? 상도덕 운운하신 분이?
예지 (보면 해석이 서 있고) 내, 내가 뭘요?
해석 내 손님들한테 호객하지 말고 갈 길 가시죠.
(휘이휘이 손짓하고 철학관 문 열고 들어가는)
예지 (어이없어 서 있는데)
해석 (다시 나와서 쿠폰 한 장 예지에게 쥐여주는) VIP 20프로
할인쿠폰. 이웃사촌이니까 아무 때나 와요. 그쪽은 6시 넘어도
특별히 봐줄 테니까. (또 찡긋하며 웃는데)

줄 선 사람들, 부러운 눈길로 예지를 보고

예지(E) (심장이 쿵 하며 얼굴 붉어지는) 뭔데 저거? 왜 저따위로 웃어?

#15. 정신과 대기실(낮)

하나,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예지, 얼빠진 얼굴로 들어온다. 손에는 철학관 쿠폰 든 채로.

하나 왜 그래요? 못 볼 거라도 봤어요?

예지 (아직 멍한) 아니...
하나 근데 고병수 씨요, 핸드폰 연락 안 되는데...
다음 상담일자 어떡해요?
예지 ...수요일로 잡아.
하나 아니,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예지 (정신 번쩍 드는) 아... 그래? ...내가 해볼게. (진료실로 가려는데)
하나 잠깐만요! (다가와서 예지 손 들어보고)
뭘예요? 원장님 혼자 가서 점 보고 왔어요?
예지 아니야.
하나 아니긴... 얼굴 보니까 무슨 소리 듣고 왔는데 뭘. 실물은 어때요?
진짜 잘생겼어요?
예지 아니이?! (하는데)

FLASH BACK #14

찡긋하며 예지 보고 웃는 해석.

예지 하... (괜히 짜증이 치밀고, 곰곰 생각하는 얼굴인데)
하나 안 좋은 소리 들었네, 들었어.
(예지 입가에 귀 바짝 갖다 대며) 뭔데요.
예지 (밀어내는) 아니라니까.
하나 (예지 손에 있는 쿠폰 채가며) 그럼 이거 제가 써도 되죠?
예지 (그래 너 실컷 해라 하는 눈으로 보다가) ...정 간,
내가 할인쿠폰 만들어서 주면 나한테 상담받을 거야?
하나 아뇨! 네버.
예지 왜?!
하나 우리 사이에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난 익명으로 떠드는 게 좋다고요.
예지 이름 석 자 좀 알면 어때서? 친근하고 얼마나 좋아?!
(삐죽거리며 들어가는)

#16.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컴퓨터로 병수 차트 보며 유선전화로 전화 거는.
직장란에 카센터와 연락처 적혀 있다.

예지 (통화) 네, 거기 정비기사님 중에 고병수 씨라고... (듣고)
언제 그만두셨는데요? ...두 달 전이에요...?! ...알겠습니다.
(끊고 착잡한데)

하나 (혈레벌떡 뛰어와서) 원장님 원장님!!

예지 왜!!

하나 옆에 줄 선 거 보셨어요? 완전 대박...
우리도 홍보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지 (난 또 뭐라고) 하잖아. 블로그.

하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원장님 언니한테 부탁해서 티브이 출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예지 하나야. 미셀 오바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하나 그런 거 따질 때예요? 우리 환자까지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 대머리 아저씨도 줄 서 있다고요 지금!

예지 누구? 최광현 씨?!

#17. 빌딩 2층 복도/철학관 앞(낮)

예지, 정신과 문 열고 나오는데 줄 첫 번째에 서 있던 광현,
예지를 보고 두 번째 자리로 가서 최대한 벽에 붙어 몸을 숨긴다.

예지 (광현 앞으로 다가가서) 최광현 님? 여기서 뭐 하세요?

광현 아니, 그게... 내 문제가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닌 거 같더라고...
갈라서든 어떻게 하든 결단을 내려야겠어서...

예지 그래서요? 부적이라도 쓰라면 쓰시게요?

광현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예지 저 믿고 12주만 따라와달라고 했잖아요. 절 그렇게 못 믿으세요?

광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어서 그런다니까... (하는데)

해석 (철학관 문 열고 나와서) 다음 분~ (하는데)

예지 (눈빛으로 붙잡아보겠다는 듯 광현을 뚫어져라 보는데)

광현 (슬그머니 손들고 해석 따라 들어가는)

#18. 철학관 안(낮)

해석과 광현, 마주 앉아 있고

해석 (광현 관상 살피며) 돈 때문도 아니고, 사업 때문도 아니고,
마누라 때문에 왔네.

광현 (놀라운) 어떻게 아셨어요?

해석 얼굴에 써 있어. 생년월일시. (사주 풀이할 준비 하는)

#19. 정신과 진료실 안(낮)

예지, 벽에 붙어서 청진기 대고 엿듣는다.

해석(E) 그러니까, 아줌마는 수기운이 강하고 아저씨는 화기운이
약하다 이거야. 수극화. 물이 아저씨를 잡아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돼? 죽겠지.

하나 (들어와서 예지하는 양 보고) 뭐 하세요?

예지 췌...

하나 (벽에 귀 대고 듣는) 그냥 들어도 들리는데.

예지 (큼... 계속 듣는데)

#20. 철학관 안(낮)

광현 저 진짜 이러다 마누라한테 잡아먹힐 거 같다니까요.
저 좀 살려주십쇼 선생님.

해석 죽고 살고를 내가 어떻게 해? 하늘이 하는 거지.
(옆에 있던 함 열어서 서죽¹ 꺼내 점을 친다.
50개비 중 한 개비를 꺼내 내려놓고 나머지 개비를
양손에 갈라 쥐었다가 또 각각 나누며 사영²하는)

CUT TO

점을 다 치고, 흩어져 있는 서죽을 한데 모으며 말하는 해석.

해석 화뢰서합에 육이라... 꼭 깨물어 씹는 상이로다.
불과 우리가 만나면 친지를 진동하고, 씹어서 멍치게 되리라.

광현 (이해 안 되고) 그게 무슨...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는...

해석 뭐, 이혼하자고 소송 가면 아저씨가 이기긴 하는데 하지 마.

아저씨 혼자 살면 길에 나앉아 살 팔자거든.
그냥 같이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라 이 말이야,
참지 말고. 요즘 뭐 못하는 말이라도 있어?

광현 (침 꿀꺽 삼키고) 밤마다 마누라가 하자고 덤비는데...

싫다고 하기가 뭐해서... 밀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해석 싫으면 싫다고 해! 혼자 하라고 하든가.

광현 거절하면... 후폭풍이 무서워서...

해석 이 괘를 얻으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대를 깨물어도 아저씨한테 아무도 손가락질을 안 한다고.

왜? 옳은 소리 하니까. 오늘부터 가서 큰소리쳐.

아줌마 수기운이 좀 잠잠해지게. 그 담부턴 둘이 괜찮을 거야.

광현 (언제 아팠냐는 듯 얼굴에 생기가 돌고) 지, 진짚니까?

해석 진짜지 그럼. 속고만 살았어?

#21. 철학관 앞(낮)

문 열고 나오는 광현, 신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동동거리며 복도를 건다가 점프하고 좋아죽겠는.
일각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 예지의 표정, 눈에서 칼날이 번쩍인다.

예지(E) (광현을 보다가 철학관을 훑 보며) 내 환자까지 뺏어가셨다?
오케이, 전쟁이다!

#22. 진료실 안(낮)

예지, 살기 어린 얼굴로 앉아 노트에 '옆집 돌팔이를 내쫓는 법' 쓰고
고민한다. '호객? 진료비 할인? 무료 심리테스트? MBTI 분석? 비만클리닉
겸업?' 썼다가 종이 뚫릴 정도로 지우고는... 머리 쥐어뜯으며 고민하는데

하나 (노크하고 들어와서) 원장님, 고병수 환자요...

예지 (산발인 상태로) 어!

하나 전화 문자 다 답이 없고 연락이 전혀 안 돼요.

예지 (걱정스러운) 그래?

하나 근데 그 환자, 환시 보이는 거 맞죠? 이대로 뒹도 돼요?

예지 ... 일단 기다려보자. 연락 올 거야. 힘들어지면... 나 찾을 거야.

하나 네... (나가는데)

이때, 벽 너머에서 나는 끼익- 끼익- 하는 소리.

예지 (소리에 얼굴 구겼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화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CUT TO

예지, 진료실 가운데 라테스민턴(줄 달린 공이 돌아오는 실외스쿼시)
세팅하고 비장한 자세로 벽을 보고 선다. 핫 돌 핫 돌! 가열차게 공을 쳐대는.

예지, 리턴볼 받아치다가 강하게 스매싱 날리는데 그대로

1. 주역점 치는 도구. 기다란 댓개비 50개.

2. 점을 치는 과정.

벽이 짹 소리 내며 약간 금이 간다. 놀라서 굳는데...

하나 (문 벌럭 열며) 원장님 뭐 하세요?!
예지 어? 암것도 안 하는데? (라테스민턴 꾸러미 발로 툭툭 밀어 넣는)
하나 (다 보이고, 고개 흔들며 나가는)

#23. 정신과 앞(낮)

예지,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해석.

예지 뭐죠? 정신과에 불일이라도 있으신가?
해석 아니, 아까 그 소리요. 벽에다 뭘 계속 치는 것 같던데?
예지 제가요? (전혀 모르겠다는, 어깨 으쓱) 저 암것도 안 했는데요?
누구처럼 못 박거나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해석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직접 들어가서 봐야 믿을 거 같은데.
벽에 아무 짓 안 했다고 장담합니까?
예지 ...차, 사람을 뭇로 보시고.

#24. 정신과 진료실(낮)

해석, 매의 눈으로 진료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벽에 던질 만한 물건이 있는지 뒤진다. 라테스민턴 세트는 온데간데없고.
예지, 벽에 금 간 곳이 눈에 살짝 띄자, 얼른 근처로 가서 가리며 선다.

예지 봤죠? (벽 가리키며) 깨끗하잖아요. 벽에 하긴 뭘 했다 그래요.
못 하나 없이 깨끗하기만 한데.
해석 암튼... 앞으론 뭘 하든 6시 이후에 해주셨음 좋겠네요.
상담에 심히 방해가 돼서.
예지 진짜 암것도 안 했다니까 그러시네. (하는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끼익- 끼익- 하는 소리.

예지 저거! ...저쪽에서 나는 소리, 지금 들었죠?
나야말로 저 소리 땀에 미쳐버리겠거든요?
해석 (모르쇠) 무슨 소리요? 내 귀엔 안 들리는데?
예지 하, 나도 가서 확인 한번 해야겠는데요.
해석 (손목시계 보며) 제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짱긋 웃고 가려는데)
예지 (해석 확 붙잡고) 그렇게 웃지 말죠? 엄청 신경 쓰이는데?
(짱긋짱긋 따라 해 보이면)
해석 그냥 습관인데, 뭐 잘못됐습니까?
예지 습관 아니잖아요. 틱이잖아요.
해석 (!)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지 정신과 의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사짜가 아니라고요.
해석 ... (예지가 다르게 보이고, 충격에 가만히 서서 본다)
예지 (진료실 문 열고) 불일 끝났음 나가주시죠.

#25. 진료실 앞(낮)

해석, 떠밀리듯 나오면 진료실 문 광 달리고. 얼떨떨한데...
진료실 문 옆에 붙어 있는 예지의 사진과 이력이 적힌 아크릴
패널이 보인다.

해석 (패널의 예지 사진을 물끄러미 보다가 감탄했다는 듯 피식 웃는데,
울리는 휴대폰 진동, 보면 '방송국 놈' 떠 있다)

#26. 카페(밤)

해석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으면
구석에 선글라스 쓴 채 앉아 있는 영지 보인다.

해석 (맞은편에 가서 앉으며) 내 말대로 쪽팔린 일 당해보니까
 믿음이 좀 갔나 봐요?
 영지 (선글라스 벗고 눈 부라리며) 누가 당했대요? 쪽팔린 일?
 해석 팔로워들이 알려주던데.
 (휴대폰 꺼내 SNS DM으로 받은 동영상 보여주는)

INSERT

SNS 동영상.

영지, 카페에서 커피 받아 들고 의자에 가서 앉는데,
 의자 받침이 빠지며 의자 프레임에 엉덩이가 낀 채로 주저앉는다.
 영지, 그 상태로 핸드백에서 얼른 선글라스 꺼내서 쓴다.

영지 (포커페이스로) 저 아니에요. 닭은 사람이네.
 해석 선글라스까지 똑같거든요?
 영지 큼...!
 해석 뭐... 기든 아니든, 사주는 뭐 하러 보시게? 출장비용은 따따블인데.
 영지 (핸드백에서 생년월일시 적힌 종이 꺼내 건네는)
 해석 무진생 용띠? 딱 봐도 그쪽은 아닌 거 같고.
 영지 동생이에요. 애가 사업한다고 난린데, 영 삭수가 안 보여서.

CUT TO

사주 풀이한 종이 보고 있는 해석.

해석 하고 싶은 일 해야 먹고살기는 하는데 뭘 해도 안 풀려.
 이상은 크고 현실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주는 혼자
 사업하면 안 되고 어디 소속돼서 해야 돼. 그게 나아.
 영지 하... 내 말이요. 여기저기서 같이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아주 미치겠다니까요?
 개가 하는 병원... 망하게 하는 부적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해석 잘 되게가 아니라 망하게?
 영지 망해야 정신 차리고 딴거 해서 돈을 벌 거 아녜요.
 해석 가만히 있어도 손 안 대고 코 풀겠는데
 뭐, 보채지 말고 기다려보시죠?

영지 망할 때까지 쓸데없이 돈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좀 도와줘봐요! 사례할게요.
 (해석이 준 명함과 예지의 명함 나란히 꺼내 보이며)
 주소 보니까 같은 건물이던데.
 해석 (!) ...

#27. 영지 집(밤)

영지, 들어오는데 주방에서 요리 중인 예지.

예지 (얼른 나와 보며) 왔어? 내가 청소랑 빨래도 싹 다 해놨어.
 손 씻고 와.
 영지 안 먹어. 그리고 안 먹혀 니 생쇼.
 예지 그러지 말고 성의를 봐서 좀 봐주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
 영지 (O.L.) 마지막 마지막 하고 돈 받아간 게 너 몇 번인 줄 알아?
 전문의 따고 이제 돈 좀 버나 싶었는데 바로 대학병원 박차고
 나왔지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1년 안에 자리 잡아서 빚 다 갚고
 내 집에서 떳떳하게 나간다고 했어. 기억 안 나?
 예지 나...
 영지 근데, 왜 아직 내 집에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니 학비까지
 대느라 썩고생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배울 만큼
 배운 게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살 건데에!
 예지 ...뭐 나라고 맨날 손 벌리는 게 좋겠어? 큰소리 평평 쳐놓고
 아무것도 못 한 나는 마음 편하겠냐고. 그래도 좀만 더 믿어주면...
 영지 지켜워. 그 믿어달란 소리. 니 얼굴 보는 거, 맨날 손 벌리는 거,
 아직도 내 집에 영겨 붙어 사는 것도 다 지켜워 죽겠다고. 어떻게든
 빌붙어볼 생각 할 시간에 제발 니 앞가림 좀 하고 살아!
 예지 ...그래... 미안하다, 짐 돼서. 지금이라도 나갈게. 됐지?
 (방에 들어가 대충 꾸린 짐가방 들고 나와 나가는)
 영지 (너무 심했나? 싫어 나간 문 보다가) 아 몰라. (방으로 들어가는)

#28. 정신과 진료실(밤+낮)

바닥에 깔아놓은 침낭 안에서 잠을 청하려는 예지.
 안 그래도 바닥이 배겨서 잠을 못 자겠는데
 거기다 더해지는 끼익— 끼익— 하는 소리의 컬래버. 미쳐버리겠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가, 누웠다가, 뒤척였다가 생소를 하는데 날이 밝고...
 침낭에서 허물 벋듯이 나오는 예지.
 다크서를 내려와 있다.

#29. 빌딩 2층 복도/화장실 앞(낮)

예지, 수건 들고 세수하려고 나오는데 철학관 앞에 이미 길게 늘어선 줄. 해석,
 말끔한 모습으로 출근하다가 예지를 맞닥뜨리고,
 음산한 모습에 움찔한다.

영지(E)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좀 도와줘봐요! 사례할게요.
 해석 (도리가 아니지... 싶어 고개 내젓는데)
 예지 왜요, 왜 고개 흔들어요? 그쪽도 나 우스워요? 그쪽은 뭐
 잘났다고? 아침부터 사람들 줄 세우는 게 자랑이에요? 당신 시간은
 금이고 저 사람들 시간은 똥이야? 그렇게 살지 마요 진짜. 예약을
 받든 번호표를 주든 하지! 줄 세워서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쫓! 혀 차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해석 (땡—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CUT TO
 예지, 세수 마치고 나오는데 해석, 포스트잇에 적은 대기 번호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번호표 받은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를 뜬다.

해석 30번까지만 받을게요. 번호표 못 받은 분들은 다음에 와주시고...
 받으신 분들은 번호 아래 시간 적혀 있거든요? 그 시간 맞춰 오심
 됩니다. (마지막 번호표까지 나눠주고, 예지 보며 찡긋 웃는데)
 예지 (도끼눈 뜨고 해석을 보며) 하지 말랬죠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면서?! (가려는데)

해석 (예지 앞을 휘 가로막고 서서) 아인데, 난 못 참겠던데.
 재채기처럼 아무 때나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아요?
 예지 잘 생각해봐요. 재채기랑 다를 거니까 분명. (해석 치고 가려면)
 해석 (다시 붙잡고) 그쪽이 고쳐주면 되겠네 그럼.
 예지 ...내가 미쳤...! (하다가, 아니지) 고쳐주면? 철학관 뺄 거예요?
 해석 아뇨?
 예지 그럼 그냥 그렇게 쪽! 사시든가요!
 (해석 떼내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해석 (예지의 등에 대고) 거 이쁘게 좀 봐줍시다.
 따지고 보면 나도 환잔데!

#30.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탁상거울 보며 로션 바르는 중인데, 손동작 점점 느려지며

예지 (생각해보니 해석 말이 맞는) ...그치, 너도 환자지.
 근데 환자가 어떻게 상담을 해, 그럼 안 되는 거 아냐?
 안 되지 암. (자문자답 끝에 결연한 얼굴로 앞머리에 헤어틀을
 말고 맹렬하게 화장을 시작한다)

#31. 스크린 골프장(낮)

누군가 골프채를 휘두르면 '딱!' 소리에 이어
 스크린 안에서 쪽쪽 뺨어나가는 골프공.
 예지,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해서 보다가 공이 on green 되면.

예지 (열과 성을 다해) 사장님 나이스샷~!!! (열렬한 박수와 환호)
 광현 (떨떠름하게 골프채를 들고 예지의 하는 양을 지켜보다가)
 내가 여기 사장 맞고 나이스샷도 맞는데... 그러지 마요.
 부담스러워. 마누라 다음으로 무서워질라 그래.

예지 아 왜요~
 광현 나아말로 아 왜요~ 여기까지 왜 왔는데요.
 (근처 테이블에 앉으며 자리 잡으면)
 예지 아니 그 점쟁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확 피셨는데요?
 광현 궁금해?
 예지 궁금하죠 그럼! 그 사람 어디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상담 내용도 별로 좋을 거 같지도 않은데.
 광현 (가까이 오라는 손짓)
 예지 (바짝 다가가서 귀 기울이면)
 광현 선생님도 정 힘들면... 한번 가봐. 엄청 용해!
 예지 최광현 님!
 광현 아유, 안 바빠요? 나는 한창 바쁠 시간이라.
 (주섬주섬 장비 챙겨서 일어나는)

#32. 정신과 진료실(낮)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와서 털썩 앉는 예지.
 열쇠로 잠긴 서랍 열어 라테스민턴 꾸러미를 물끄러미 본다.

예지 ...그는 저급해도 나는 품위 있게 가자 주예지. (서랍 탁 닫고)

CUT TO

헤드밴드까지 하고 마치 스퀘시장에 온 것처럼 가열차게 라테스민턴 치는
 예지. 벽에 금이 점점 더 가는 것도 모른 채 습습후후- 땀까지 뻘뻘인데...

#33. 철학관(낮)

공 소리에 맞춰 벽에 걸린 액자들 흔들리고,
 상담 중인 고객 무섭다는 듯 보면...

해석 어허... 벽에 귀신이 들렸나... (화 꺾꺾 누르고 사주 풀이하다가)
 잠시만요. (하고는 복합기 가져와 벽에 붙여놓고, 복사 999장
 누른다)

끼걱 끼걱 소리를 내며 빠져나오는 21세기철학관 홍보전단지.

#34.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라테스민턴 삼매경인데 끼걱- 쿵, 끼걱- 쿵, 박자가 조화롭다.

하나 (문 벌럭 열고 들어와서 보다가 라테스민턴 줄 가위로 잘라버린다)
 예지 (놀라, 헉헉거리며) 정 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 (벽 가리키며) 저거 무너지면, 물어낼 돈은 있으세요?
 예지 없지...
 하나 정신 차려요 원장님. 총체적 난국인 건 알겠는데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병수 환자 전화 왔다고요.
 예지 진짜? (뛰어나가는)

#35. 정신과 로비(낮)

접수대로 뛰어 들어가 전화받는 예지.

예지 (통화) 병수 씨?! 고병수 씨! 괜찮아요?
 병수(F) 선생님... 내일모레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예지(E) 내일모레? (달력 보고, ON) 알죠 그럼! 소정 씨 기일이잖아요.
 ...일단 나랑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어디예요?
 병수(F) 다 틀렸어요... 다 내 탓인데... 이대론 못 살겠어요. 미쳐버릴 거
 같아요. 그냥... 소정이 따라가려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톡 끊는)
 예지 병수 씨! 병수 씨!! (놀라서 병수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보는데)
 안내음(E) 고객의 전화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예지 (망연자실해 머리 감싸 쥐는데)
 하나 왜요? 뭐라는데요?
 예지 자살예고...
 하나 (놀라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한다) SNS도 다 삭제됐어요. 신변정리까지 한 걸까요?
 예지 (초조하게 고민하다가 휴대폰 꺼내 112 누르고, 통화) 경찰이죠? 자살예고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모레란 거 말고 확실한 건 없어요 아직. 휴대폰은 꺼져 있구요... 네? (듣고, 실망한 얼굴로) 그 사람이 휴대폰 안 켜면요?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불안해지는데)

#36. 철학관 앞(낮)

예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민이 깊은 얼굴이다.
 결심이 섰는지 '후우~' 숨을 가다듬고는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해석이 문을 확 열고 나온다.
 해석과 예지, 서로를 보고 잠시 굳어서 선다.

예지 아, 저기... 그러니까...
 해석 고민 있는 얼굴이네.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비켜선다)

#37. 철학관 안(낮)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나오고 있는 복사용지.
 예지, 복합기를 한 번, 해석을 한 번 쳐다보면

해석 (얼른 복사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중고로 샀더니... (민망해 복합기를 한 대 툭 친다. 아무렇지 않은 척 보며) 무슨 일입니까?
 예지 ... (다가와서 종이에 적은 생년월일을 내밀고) 이 사람 언제까지 사는지... 그런 것도 나와요?
 해석 수불언. 명리학자는 수명을 말하지 않는 게 덕목이라.

예지 ... 그럼 말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전부 말해주세요.

CUT TO

해석, 사주 풀이 끝낸 종이 보고 있는데, 쉽게 입이 안 떨어지는.

해석 (심각한) 이 사람 누구데요?
 예지 그냥 좀 아는 사람인데요.
 해석 그쪽 사주랑 합이 든 게 없으니 애인일 리는 없고.
 예지 그쪽이 내 사주를 어떻게 알아서요?
 해석 (! 둘러대는) 내가 사주했어요? 관상. 관상이 그렇다고. 암튼 만나지 마요. 내가 이 공부한 지 20년 됐는데, 이런 사주는 처음 봐.
 예지 (답답) 아 뭐가 어떤데요! 이 사람 자살... 같은 거 해요?
 해석 자살은 무슨, 형살에 해살에 남을 죽이면 죽었지 저는 안 죽는 사주야.
 예지 (!) 아, 아니거든요?
 해석 아님 감옥살이해서 겨우 면피하거나인데... 그래봤자 살인자...
 예지 (O.L.) 아니라고요! 불충분한 억제가 아니라 과도한 억제가 문제인 사람인데!
 해석 (?) 한국말로 해줄래요?
 예지 (화가 치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사회적이거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통에 너무 민감해서 타인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구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해석 환자구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면 굳이 이걸 왜 봅니까? 그쪽도 확신이 없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예지 아뇨!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티끌만 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팔이한테 물어본 내가 미쳤지!
 (화나서 나가버리는)

#38. 진료실(낮)

눈물 그렇그렇해서 안절부절못하는 예지.

예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제 머리 탁탁 치다가 컴퓨터로 병수의 차트 클릭해 열어본다)

INSERT

과거.

진료실. 병수가 예지 앞에 앉아서 얘기한다.

병수 (수척한) 제가 미치겠는 건요 소정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눈빛으로 봐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죽인 거라고...

현재.

예지 (마우스 다루는 손길이 바쁘고)

INSERT

과거.

진료실.

병수 (명랑하게) 카센터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문이 닳도록 다녔어요. 저녁도 케이크로 때우고. (미소 지었다가 이내 지우고) 거기 가면 소정이가 아직도 있을 거 같아요.

FLASH BACK #9 정신과 진료실

병수 근데 선생님, 만약에 소정이가 보이면요?
저한테 보이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 맞죠?

현재.

예지 (곰곰 생각하다가 가방 챙기는)

#39. 정신과 접수대(낮)

예지, 퇴근 차림으로 진료실에서 바쁘게 나오는

예지 정 간, 우리 예약 없지?

하나 없죠 당근...

예지 (메모 내밀며) 그럼 이거 고병수 씨 집주손데... 집에 있는지 가서 한번 봐줄 수 있어?

하나 제가요?

예지 있으면 나한테 전화만 좀 해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난 다른 데부터 가보려구. 부탁 좀 할게. 응?

하나 (마지못해) 네...

#40. 카페(밤)

예지, 구석 자리에 앉아서 초조하게 문만 쳐다보고 있다.

사람 들어오면 병수인가 싶어서 엉덩이 뺐다가, 다시 보면 아니고...

어느새 예지 앞의 음료 잔이 텅 비었다.

화장실 참느라 죽겠는지 들썩거리는 예지.

화장실 표지판을 노려봤다가, 문을 노려봤다가 눈만 굴리다가

못 참겠는지 일어나서 쩍싸게 화장실 가는데

CUT TO

예지, 손에 물기 닦으며 돌아와서 앉고,

주변 둘러보는데 병수는 안 보인다.

이때, 옆 칸막이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여대생1 진짜요? 저 스튜어디스 해도 된다고 나와요?

해석 다 타고나는 거라니까, 올해하고 내년엔 운대가 맞으니까 동쪽에 있는 회사에 원서 넣으면 될 거야.

여대생1 대박 신기... 저 원서 넣은 회사 동쪽에 있는데.

진짜 되려나... 복채 얼마 내야 돼요?

해석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5천 원만 줘.
 여대생2 싸다! 저도 볼래요. 저도 봐주세요. (하는데)
 어느새 칸막이 너머로 얼굴 들이밀고 노려보는 예지. 예지의 머리카락이 칸막이 아래로 내려오자 깜짝 놀라 소리 지르는 여대생 1,2, 해석.

해석 뭐, 뭐니까? 나 스토킹합니까?
 예지 그쪽이야말로 나 따라온 거 아니구요?
 해석 착각인지 자백인지 몰라도 아니구요. 만난 김에 (손바닥 보이며) 아까 먹튀한 복채나 내시죠. 천기누설한 값은 받아야 해서.
 예지 하... (지갑에서 5천 원 꺼내 건네는데)
 해석 그쪽은 5만 원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의료인이시라. (5천 원 치우고 손 내미는)
 예지 (지갑 열어보면 5만 원 달랑 한 장 있다. 5천 원 넣고 5만 원 꺼낼까 하다가 멈칫하고) 내가 왜요? 그쪽 점사가 맞아야 값을 치르죠.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 해놓고 돈만 받아가려구요?
 해석 그쪽은 병원비를 환자 완치되고 후불로 받나 보죠?
 예지 (스스로가 쪼잔하다 싶고, 옳다 5만 원 꺼내 건네는)
 해석 (보다가) 헛돈 쓰기 아까워 죽겠단 얼굴이네, 그렇게 싫음 내기하든가요 그냥.
 예지 무슨 내기요!!
 해석 나는 내 사주 풀이 백 프로 확신하거든요. 내 말이 맞으면 그때 값 치러요, 그쪽이 병원 접는 걸로.
 예지 (!) 하자면 못할 거 같아요? 그 사람 살인자 아니면요? 그쪽이 철학관 접을 건가?
 해석 쿨.
 예지 쿨! (자리에 다시 털썩 앉는데 말린 것 같아 기분 나쁜, 이때 지나가는 종업원 붙잡고 무언가 귓속말을 하는)

종업원, 토끼 눈 뒤편이 너머 해석의 테이블로 간다.

종업원(E) 여기서 이런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가주시겠어요?
 예지 (회심의 미소)

해석 (일행과 쫓겨나가며 눈 가늘게 뜨고 예지를 보는)
 CUT TO
 예지의 앞에 빈 음료 잔 여러 개와 케이크 접시 놓여 있다. 지쳤는지 테이블에 엎드린 채 문만 노려보는 종인데

종업원 (다가와서) 저희 마감 시간인데요.
 예지 네에... (물먹은 숨처럼 일어나 앉는)

#41. 거리(밤)

축 쳐져서 걷고 있는 예지. 휴대폰 울린다.

예지 (보고 얼른 받는다) 응 정 간! 만났어?
 하나(F) 아뇨. 기다려도 안 오길래 초인종 눌러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두 달 전에 이사 갔대고...
 예지 두 달... 전? (한숨 푹 나오고) ...고마워 늦게까지 고생했네... 보너스까지 챙겨서 넣지 당연히... 응. (끓고 걱정에) 어딴는 거야 진짜...
 예지, 다시 걷는데 버스 정류장에 붙은 철학관 홍보 전단 보인다.
 해석(E) 아님 감옥살이해서 겨우 면피하거나인데... 그래봤자 살인자...
 예지 (전단지 쪽 떼어내며) 누가 나가는지 해보자고 어디.

#42. 빌딩 2층 복도(밤)

예지, 오는데 손에 뜯어낸 전단지 수북이 들려 있다.
 철학관을 지나 정신과로 가려는데
 그때 들리는 끼익- 끼익- 하는 소리...
 철학관 보는데 불 꺼진 채 캄캄하고...

예지 ...이 밤에 웬 프린트... 잠 설치게.
(전단지 뒤로 숨기고 문 두드리며)
저기요! 프린트 좀 낮에 하죠, 네?!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지만, 가웃하고 정신과로 가는데 복도 불이
팻 꺼지는... 예지, 엄마! 하며 움츠러들고 프린트는 계속 끼걱-거리는...

예지 ...건물이 오래되니까 진짜... 별... (휴대폰 꺼내 플래시 모드
작동시키고 주변 보는데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 철학관으로
가서 두드리는) 저기요... 이봐요... 좀 나와 보죠?... (대답 없어
돌아서는데 눈앞에 서 있는 검은 형체!) 으아아악!

예지, 기겁하며 주저앉으면, 일으켜주는 손, 해석이다. 전단지 얼른 등
뒤로 획 감추는 예지. 해석, 예지에게 점점 다가가고,
끌어안을 듯 가까워지면 예지 등 뒤 벽에 있는 스위치를 탁 누르는.
복도에 불이 들어오고, 해석을 보는 예지.

해석 가끔 합선 있다더니. 고쳐야겠네.

예지 (얼굴이 붉어진다)

해석 (예지 뒤로 손 뻗어서 전단지 뺏아서 보며) 이건,
내일 새로 뽑아줄 테니까 원상복귀 해놓으시고...

예지 (당황해) 아무 데나 그런 거 붙이는 거 불법 아닌가?

해석 널부터 지정된 장소에 붙일려고요. 장소도 정해줄게요.
(짱긋 웃고 들어가려는데)

복도 불이 다시 깜빡깜빡하고...

예지 (해석을 확 붙잡는) 3분만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불 돌아올 때까지만.

CUT TO

예지와 해석, 철학관과 병원 사이 벽에 나란히 앉아 있다.
복도의 불 깜빡임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예지 그런 기분 알아요? 물 위에 등등 떠서 사는 기분.

해석 ...? (보면)

예지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서 어릴 때부터 친척 집 전전하면서
살았거든요. 불도 내 맘대로 못 끄고, 내 맘대로 못 켜고...
항상 조심조심... 숨 한번 잘못 쉬면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 편하게
해주려고. 그쪽은... 어찌다 그렇게 웃게 됐어요?

해석 뜬금없이 뭐예요?

예지 내 애길 해야 상대도 하니까.

해석 ...지금 나 치료해 주려는 거예요? 설마?

예지 뭐, 그냥... 시간도 남겠다, 검사검사.

해석 ...왜 이렇게 웃는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조절이 되는 건지도 얼마 전에 알았고.

복도 불이 완전히 켜진다.

예지 (불빛 올려다보고) 생각해 봐요 언제, 어떨 때 그러는지.
그쪽... TV 인터뷰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일어나는)

해석 (!)

#43. 정신과 진료실+철학관(밤)

벽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모습이 각각 보인다.

예지, 진료실 바닥에 깔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

해석, 온라인으로 의뢰받은 사주 보면서 채팅하고 있는데

‘끼걱’ 소리를 내며 종이를 뺏어내는 복합기.

해석, 얼른 복합기 앞으로 다가가면 ‘당일 대출’이라 쓰인 대출 스펀덱스다.

해석, 서둘러 콘센트에서 복합기 코드를 뽑는데...

반동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들 치는 바람에 우당탕 물건들 떨어뜨린다.

순발력 있게 몇 개는 잡고, 몇 개는 놓치는

놀라서 잠시 굳었다가 정신과 쪽 벽에 귀 대본다.

예지, 뒤척이다가 이내 평온하게 잔다.

#44. 정신과 진료실(낮)

다음 날. 예지, 탁상 달력 들어서 어제 날짜에 x자 치고 보면
오늘이 병수가 자살 예고를 한 디데이다.

예지 오늘 안에 찾아야 되는데... 아... (컴퓨터로 차트 뒤지며)
 뭔가 놓친 게 있는데... 분명 뭐가 더 있을 건데... (하는데)
하나 (들어와서) 원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형사 (따라 들어와) 서부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신분증 내보이는)
예지 (기대감에 들떠서) 고병수 씨, 위치 추적 됐어요?!

형사 위치 추적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애먹고 있어서... 고병수가
 훔쳐 탄 차량에서 이 병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 병원 환자
 맞습니까?

예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형사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지금 추적 중입니다.

예지 네?

형사 (휴대폰으로 CCTV 영상 재생해서 건넨다)

예지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 받아서 보는데)

INSERT

CCTV 영상.

OO초등학교 앞. 성인 여성이 학교에서 나와 걷는데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차량 한 대.

그러던 중, 길을 건너려는 초등 저학년 여자아이가 차량 앞으로

급히 뛰어들고, 급정거한 차에서 운전자가 내린다.

초등생에게 다가가 무언가 얘기를 하더니 아이를 끌듯이

강압적으로 데려가 차에 태우는 운전자, 병수다!

경찰(E) 초등학교 앞에서 애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가 놔줬어요.
 다행히 애는 봉변을 면했는데, 고병수는 흔적이 없네요.

예지 (!!) 그럴 리가요. 잘못 아신 걸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납치 같은 거 할 여력 없어요.

경찰 차에서 고병수 지문도 나왔고, 무서운 아저씨였다는 아이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협조 좀 해 주시죠. 병원 진료기록 있습니까?

예지 있어도 못 보여드리죠, 의료법상! 정 필요하심 영장 가지고 오세요.
형사 (답답하다는 듯 보며 한숨)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믿으실 건가 보네.

예지 (발끈) 다들 왜 이래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살인범이니
 납치범이니, 대체 왜들 그러냐구요! 제가 그 사람 주치의예요! 그럴
 사람 아닌 거 제가 안다구요! 아시겠어요?

형사 (말 안 통하겠다는 판단 섰고) 후우, 영장 가지고 다시 오죠.
 (명함 꺼내서 놓고) 혹시 맘 바뀌면 연락 주시고. (나가면)

진료실 열린 문밖에 서 있는 해석, 전단지 프린트물 든 채 들고 있다.

예지 (해석 보고 날 선) 왜요, 그쪽도 무슨 할 말 있어요?

해석 (고개와 손 동시에 내저으며 물러나는)

예지 (답답해서 머리 헝클어뜨리고)

#45. 곱창집(낮)

테이블에 탁! 내리꽂히는 술잔.

예지, 빈 잔에 다시 술을 따르려는데 마주 앉아 있던 선배가

예지의 손을 잡아 말린다.

선배 낮부터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예지 선배. 사람들이 다들 왜 그럴까? 정신과 진료받는다고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에 안 오고 이상한
 점집이나 다니잖아. 안 그래?

선배 내 보기엔 너 지금 환자에 대한 카운터가 심한 거 아닌가 싶다?

예지 아니거든! 선배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카운터³래.

선배 막말로 너 그 환자가 계획적으로 너 이용한 거면 어떡할래.

3. 역전이. 환자에 대해 치료자가 좋거나 혹은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예지 무슨 계획?
 선배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진료 기록 만들어논 걸 수도
 있잖아. 감형 받으려고. 너 정신과 의사가 진짜 사람 머릿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
 예지 아니! 난 머릿속 아니고 맘속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선배 요즘... 안 되겠네. 너 아직도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할래.
 그렇게 사니까 병원 망하는 거 아냐. 고생 그만하고 우리 병원...
 예지 (O.L.) 하아... 듣기 싫다. (술 따라서 원샷하고 일어나는)
 남은 거 선배 다 마셔. 계산도 잘나가는 선배가 하고. (나가는)

#46. 철학관(낮)

해석, 팔짱 끼고 앉아서 생각 중이다.

FLASH BACK #44 정신과 진료실

예지 (발끈) 다들 왜 이래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살인범이니
 납치범이니, 대체 왜들 그러냐구요! 제가 그 사람 주치의예요!
 그럴 사람 아닌 거 제가 안다구요! 아시겠어요?

현재.

해석, 서쪽함에서 서쪽을 꺼내 사영한다.

화면 2분할 되며 두 가지의 점을 보는 해석의 모습.

화면에 '정신과 vs 철학관'이라는 CG가 떠오른다.

해석이 사영하는 손길에 따라 화면 양쪽으로

패 모양이 아래부터 갖춰지고 해설이 씌어진다.

—정신과 쪽, 화산려 궤의 6호가 깜빡거리며

: 새가 동지에서 불태우는 상이도다.

전 재산을 날리고 목숨까지 잃을 것이다.

—철학관 쪽, 뇌산소과 궤의 6호가 깜빡거리며

: 지나칠 수 없으니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래도 이 고통을 견디며 자기 사람을 챙겨야 한다.

분할 화면 하나로 합쳐지면

해석 (서쪽 내려놓는 손 가늘게 떨리고, 걱정스러운)

#47. 정신과 대기실(낮)

예지, 들어오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하나 원장님... 저거 고병수 씨 얘기 같은데.

예지 (TV 보는데)

INSERT

뉴스 화면. 형사가 예지에게 보여줬던 CCTV와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앵커 어제 낮 인천에서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훔친 차에 어린이를
 태워 도로를 질주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료실로 들어간다)

#48.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책상 위를 뒤져서 형사가 놓고 간 명함을 찾으며.

예지 조현병은 무슨. 지들 마음대로 진단 내리고 뉴스 내고, 미쳤나
 봐 진짜. (드디어 손에 명함이 잡히고, 바로 휴대폰 번호 누른다,
 상대방 받은, 통화) 형사님 저 주에집니다! 네 그 정신과 의사요!
 (화나는데 꼭 누르고) 다른 게 아니라 고병수 씨... 이사 갔던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사(F) 개인 정보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고병수 곧 수배 내려질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예지 그 사람 조현병 아니에요. (눈물이 핑 도는) 제가... 최대한 협조할게요. 만나면 자수하라고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기다렸다가 불러주는 것 받아 적는) 네, 감사합니다. (끊고 서둘러 나가는데)

해석 (들어오다 마주치는) 어디 가요?

예지 (말도 없이 나가면)

하나 (와서) 고병수 환자 뉴스 보더니 갑자기...

해석 (예지를 쫓아 급히 따라 나간다)

#49. 거리(낮)

예지, 택시 잡으려는데 '예약' 표시등 켜진 택시를 썩하니 지나가고.
해석, 차 끌고 와서 예지 앞에 서고, 내린다.

해석 (예지 붙잡고) 어디 갈려고요. 가지 마요. 가면 안 돼요.

예지 오늘 못 찾으면... 고병수 씨 죽을 수도 있어요.
소정 씨 기일이란 말이에요.

해석 그 사람 안 죽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인다고 몇 번을 말해!
가면 그쪽이 다친다고.

예지 그놈의 사주 얘기 좀 그만해요! 이럴 시간 없대구요.
(택시 잡으려면)

해석 (예지 끌고 차 태우려는)

예지 (안 가려 버티고) 뭐하는 거예요?! 봐요. 이거 놓으라고!

해석 같이 가면 되잖아. 내가 가지 말래도 갈 거니까 그쪽은,
그니까 같이 간다고 내가.

예지 (왜 이러나 보곤, 한풀 꺾여 차에 타고)

#50. 병수 집 골목+집 문 앞(낮)

차에서 내리는 예지와 해석.

해석 저 집인 거 같은데. (가리키면)

예지, 해석이 가리키는 집 보면
오래된 주택 1층에 자리한 낮은 단칸방 문과 앞에 쌓아 둔 짐 보인다.

CUT TO

예지, "병수 씨!" 부르며 병수 집 문 두드리는데 안에서 기척이 없고...
해석, 문밖에 내어놓은 짐 상자들 들춰 보는데 병수와 소정의 사진 액자 등이 들어 있다.

예지 (보고 씩씩한) 이 집 맞나 봐요. 병수 씨랑... 소정 씨네요....

INSERT

예지의 회상. 진료실.

예지 이사... 가 보는 건 생각해 봤어요?

병수 (눈물 툭 흘리며)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 집에서 소정이랑 2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사 못 가겠어요. 짐 정리도 못 하겠고... 꼭 살아 돌아올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현재.

예지 이사 못 가겠다더니... (그동안 속은 건가... 한숨 나오는데)

해석 (짐 상자 뒤적거리며) 기다린다고 올라나... 경찰도 못 찾았는데...

예지 제가 좀 볼게요. 어디 갔는지 단서 될 만한... (하며 뒤져 보려는데)

여자(E) 지금 뭐 하세요?

예지, 해석 (보면, 소정이다)!

해석 (사진과 여자 얼굴 번갈아 보고 주춤 물러나며) 주, 죽었다면서요.

예지 (놀라서 해석의 옷자락 붙잡고) 소정... 씨?

여자 아... 저는 소영이, 쌍둥이 언니예요. 소정이 알았던 분들이세요?
예지, 해석 (안도하고)

CUT TO

소영, 소정의 짐 챙겨 들었고 예지와 해석, 소영을 보고 있다.

소영 그 남자가 엄마한테 전할 했대요. 소정이 짐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달랄 때는 안 주더니 1년 만에 갑자기...

예지 (명함 건네며) 저기... 이거 제 연락천데, 혹시라도 고병수 씨한테
다시 연락 오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소영 네, 뭐... (명함 받곤, 짐 상자에 대충 넣는)

소영, 그대로 짐 들고 걸어가면, 그 모습 지켜보고 있는 예지와 해석.

그리고 일각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검은 복장의 병수.

#51. 해석 차 안(낮)

예지 멍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고, 해석 빵 사 들고 와서 탄다.

해석 (빵 봉지 뜯어서 앙 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지 (보면)

해석 왜 이렇게까지 해요? 경찰한테 맡겨 두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환자 걱정하는 의사는 그쪽밖에 없을걸요?

예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걱정은. 그래서 나라도 하려고요.

해석 (빵 먹다가 목이 탁 막힌다. 예지를 물끄럼 본다. 이 여자 좀
멋있다) 나... 생각해 봤어요.

예지 (?)

해석 언제... 그렇게 웃는지.

예지 언젠데요?

해석 ...누군가한테 미워 보이기 싫을 때, 그리고 잘 보이고 싶을 때?

예지 ...?

해석 그쪽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아무래도.

예지 (무슨 뜻인가... 눈만 깜빡거리는)

해석 (웃고) 어릴 때부터 나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쌍한 애가... 울면 안 돼요. 울면 더 미워 보여. 웃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챙겨주거든. 그래서 웃기 싫을 때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나 봐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지 뭐하러 고쳐요? 보기 좋기만 한데!

해석 (? 눈썹을 한껏 올리고 보는데)

예지 (빨은 말 후회막심해 입술 깨물고, 반대편 창에 머리 박는)

#52. 주택가 골목(낮)

소영, 짐 상자 들고 걸어가는 중인데...골목에서 튀어나오는 병수,
소영에게 다가가 뒤에서 면포로 소영의 입을 막는다.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짐 상자를 놓치는 소영. 병수, 소영을 부축해 옆에 세워 둔 차에 실는다.

#53. 해석 차 안(낮)

차 안 공기, 아직 어색하고...

해석, 다 먹은 빵 봉지 접어서 버리는데...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친다.

해석 아... 우유 사 오는 걸 깜빡했네... (내리려는데)

예지 (짜려보곤) 내가 사 올게요, 내 것도 좀 사고!

고병수 씨 얼굴... 알죠?

해석 (끄덕이면서)

예지 잘 지켜요. (내려서 가는데)

#54. 주택가 골목(낮)

예지, 편의점 향해 가는데 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짐 상자 보인다.

소영이 들고 갔던, 익숙한 상자다.
예지, 뛰어와서 상자 살펴보면, 자신의 명함도 들어 있는
소영의 짐이 확실하고. 주변 둘러보는데 소영은 흔적이 없다.

예지 (불길한 느낌에 불러 보는) 소영 씨... 소영 씨...?!
(소영을 찾아보려 일어나는데 발에 밟히는 소형 앨범)

예지, 앨범 들어 펼쳐 보면 각종 영화표, 공연표, 폴라로이드 사진 등이 들어
있는 티켓 앨범이다. 예지, 짐 상자 챙겨 들고 왔던 방향으로 다시 뛰어간다.

#55. 해석 차 안+밖(낮)

예지, 급히 차 문 여는데 해석, 서쪽 들고 사영하던 중이다.

예지 고병수 씨 왔다 간 거 같아요! 그 여자분... 데려간 거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전혀 짐작이 안 돼요.

해석 (서쪽 탁 말아 쥐고) 그럼 나 한번 믿어볼래요? 서쪽 방향 물가에
그 사람이 갈 만한 데 있어요?

예지, 곰곰 생각하고

FLASH BACK #9 정신과 진료실

병수 유람선에서 불꽃놀이 본 적 없는데, 봤다고 했어요.
소정이랑 하기로 했던 건데...

현재.

해석, 예지가 가져온 박스 뒤지다가 티켓 앨범 꺼내 넘겨 보는데
각종 티켓의 마지막 장에 미사용 유람선 티켓이 두 장 들어 있다.

해석·예지 (동시에) 유람선!

#56. 도로/달리는 해석의 차 안(낮)

해석, 운전 중이고 예지는 초조해 손톱만 매만지고 있다.

예지 아직 안 쓴 티켓이니까... 거기 간 거 맞겠죠? 소영 씨를
소정 씨로 착각해서... 생긴 일이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그쵸?

해석 (걱정스레 예지를 보고)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57. 도로(낮)

질주하는 해석의 차가 부감으로 보이는 위로

예지(E) 형사님, 고병수 환자 죽은 여자 친구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납치됐을지도 몰라요. 여자 친구랑 마지막으로 가려던
장소가...

#58.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해 질 녘)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예지와 해석, 주변을 둘러보는데 병수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예지 (해석에게) 저쪽부터 봐줘요. 난 이쪽부터 찾을게요.

해석 (끄덕이고 가면)

해 질 녘 노을이 바다에 반사돼서 예지의 얼굴을 비춘다.

병수(E) 유람선 타러 가기로 해 놓고 헤어지자고 해서 죽은 거 같아요...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가기로
해 놓고... 나중에 가 봤더니... 죽어 있었어요.

예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살핀다)

예지, 인파를 헤치고 병수와 비슷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보는데
아니고... 다시 두리번거리는데 목을 굽고 있는 남자 보인다.
휠체어에 소영을 태우고 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예지 (긴가민가 싶어서 보는데)
남자 (목 굽던 손 내리고, 숫자를 하나씩 꼽기 시작하는)
예지 (병수가 맞다!) 병수 씨! 고병수 씨!! (달려가는데)
병수 (휠체어를 밀고 배에 오르고)

뿌우— 출발 신호를 알리는 뱃고동. 예지, 뛰어서 배에 오르려는데,

직원 (예지를 막으며) 표 주세요.
예지 잠깐만요. 사람 한 명만 찾을게요. (막무가내로 타려면)
직원 (온 힘으로 예지를 막고)
해석 (뛰어와서 표 두 장 내민다) 여깁어요. 표.

예지와 해석, 가까스로 배에 오르면 출발하는 유람선...

#59. 유람선(밤)

해가 더 낮게 떨어지고, 어둠이 깔렸다.
예지와 해석,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 헤치며
병수를 찾으려 안간힘 쓰는데 안 보이고.

CUT TO

일각, 난간에 기대 놓은 휠체어 옆에 꿇어앉아 뭔가를 하는 병수,
자세히 보면 소영의 손발을 묶고 있다. 다 묶었는지...
일어나 소영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소영 (몽롱한 상태로 눈을 뜨는데, 병수를 보고 놀라 그대로 굳고)
병수 (소영의 옆구리에 칼을 갖다 대고 속삭이는) 췌... 니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왜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지... 다 알아... (하는데)

소영 (겁나서 떨며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예지해석 (반대편 갑판에서 달려오다 병수를 발견하고 멈추는)
예지 병수 씨!
병수 (예지를 보고 눈빛이 흔들린다)
예지 병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소영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석 (일각에서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 주세요. (하고는
사각지대로 돌아서 병수에게 갈 수 있는지 동선을 체크한다)
병수 다 끝났어 이제. (소영 보며) 니가 원하는 대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줄게.
소영 저, 소... 소정이 아니에요. 소정이 언니예요... 김소영...
병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정은 언니 같은 거 없다고!!
예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병수 씨... 나 믿죠? 그 사람 소정 씨 아닌
거... 병수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소정 씨는 죽었잖아요.
병수 (고개 흔들며) 아니... 아니, 아니!!
(가방에서 생수통 꺼내 휘발유를 몸에 붓고 허공에 소리치는)
왜 나만 끔찍한 기억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니가 죽은 장면을
계속 봐야 되는데!! (라이터 찾는 듯 주머니 뒤지는데)
예지 병수 씨! (가까이 가려는)
병수 (칼 휘두르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주머니 계속
뒤지면 라이터 나온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소정이가 날
얼마나 괴롭히는지... (환청 들리는 듯 귀 문지르며) 얼마나 내가
죽길 바라는지...
예지 (겁먹은 마음 다잡으며 다가가는데)
병수 에이씨! 오지 말라고!! (하며 칼을 고쳐 잡고 예지에게 달려드는데)
해석 (병수 뒤에서 나타나 병수를 덮친다)

지켜보던 사람들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해석과 병수 몸싸움하며 바닥을
구르는데 해석, 병수가 들고 있던 칼에 복부를 찔린다... 병수,
놀라서 칼 떨어뜨리는데... 해석,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병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뺏으려고 다시 달려든다. 병수, 해석을 떼어 놓으려 난간에 기댄 채
피해 보는데, 돌연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며 난간 아래로 몸이 꺾인다.
병수, 해석을 붙드는데,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물에 빠지는 두 사람.

예지 !! (놀라 동공 커지고,
떨리는 걸음으로 가 난간 너머 바다를 보면)

물거품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해석과 병수.
그대로 주저앉는 예지.

INSERT

바닷속. 끝없이 가라앉는 해석의 모습 위로.

FLASH BACK #46 철학관

서쪽 내려놓는 손 가늘게 떨리는 해석의 모습 겹쳐지는

해석(E) 지나칠 수 없으니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래도 이 고통을 견디며
자기 사람을 챙겨야 한다. ...이 효를 받은 사람은 운이 쇠하고
진퇴가 궁하여 재앙이 몸에 닥칠 상황에 처한다.

현재.

(E)해경 사이렌 소리 울리고...

#60. 바다(밤)

불 밝힌 채 수색 작업 중인 해경 보트 부감으로 보이며
FADE OUT

#61. 빌딩 2층 복도(낮)

FADE IN

예지 힘없이 복도를 걸어오고...

철학관 앞, 굳게 닫혀 있는 문을 굳은 얼굴로 한참 보다가 지나간다.

#62. 정신과 진료실(낮)

예지, 침착한 표정으로 박스에 짐 싸며 정리하는.

하나 (열린 문에 노크하고 들어오는) 진짜... 이대로 그만두실 거예요?
예지 응...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꺼내서 건넨다)
월급. 너무 늦어서 미안. 뽀너스도 넣었어.
하나 병원 보증금 뺐 거죠 이거... 이제 어디로 가시려구요.
예지 글썄... 내가 의사를 계속해도 되나 싶네...

하나, 착잡한 얼굴로 예지 지켜보는데 예지의 등 뒤로 벽에
금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로 뺨어 있는 것 보인다.

예지 정 간, 수고했어.
(나가는 하나 보는데, 문 앞에서 서 있는 영지 보이고)
영지 드디어 항복하는 거야?
예지 ... (불쾌한, 말없이 짐만 싸고)
영지 (들어와서 진료실 둘러보며) 그러게 진작 말 좀 듣지,
결국 이렇게 될걸. 니네 선배 개업한다며, 거기 들어가게?
예지 아니.
영지 왜 아니래? 그만한 자리가 어딴다고?
예지 의사 그만둘 거야.
영지 미쳤니?! 너 의대 보내느라 든 돈은, 뒷바라지한 내 돈은!
예지 값으면 되잖아! 달마다 꼬박꼬박 값을 테니까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고 꺼져줄래 줘? (영지 밀어내고 문 광 닫는데)

쩍! 와르르... 문 닫는 충격에 금 간 벽이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아 땡 뚫린다.
40년 넘은 시멘트 벽돌이 들성들성 드러나 있다. 예지, 벽 보고 놀랐다가,
되는 일이 없구나... 한숨 나오는데, 벽 너머로 해석의 빈 의자에 시멘트
먼지가 쌓인 것 보인다.

#63. 진료실 밖+안(낮)

영지, 안 가고 문에 붙어 서 있는

영지 (황 하는 소리 들었고) 다 때려 부셔라 그래! (달래는)
 그렇게 해서라도 풀고, 선배한테 가서 써달라고 해. 어?

진료실 안 예지, 그대로 주저앉는데 답답하고 비참해 눈물이 비죽비죽 나고

영지 가만 보면 옆방 점쟁이 말이 딱 맞아, 너 좀 내쫓아 달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더라? 그래도 오래 버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웬걸, 그 걱정 왜 했나 싶어. 옆방 점쟁이한테도 밀리는데 다시는
 사업 생각 하지 말고... 어?

예지 ? (울다가 저게 무슨 말인가... 눈물 닦고 의아한, 얼른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영지 없고)

하나 가셨어요.

예지 (충격 받은 눈이 분노로 변한다)

#64. 병원 입원실(낮)

간호사, 칼에 찔려 꿰맨 해석의 복부 드레싱 한다.

간호사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아직. (하고 나가면)

해석 (조심조심 환자복 상의 다시 걸쳐 입는데)

예지 (들어오는)

해석 (반가운) 어? 매정하게 한 번을 안 오나 했는데... 설마...
 빈손이에요?

예지 병문안 온 게 아니라서.

해석 (의아하다는 듯 보면)

예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언니가... 그쪽한테 부탁했어요?
 나 내쫓아 달라고?

해석 ...하긴 했는데...

예지 (O.L.) 그럼 나한테 일부러, ...다 계획적이었던 거겠네?

해석 뭐가요.

예지 좋지도 않은데 찡긋거리면서 웃은 거... 진 사람이 사업 접자고
 내기한 거... 걱정되는 척 고병수 씨 찾는 거 도와준 거... 다.

해석 ...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예지 (O.L.) 해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병원 뺄 거고, 그쪽이랑
 나랑 무슨 사이인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확인했으니까 됐어요.
 (나가면)

해석 이봐요! 주예지 씨! (슬리퍼 찾아 꿰신는데 배가 땡긴다)

#65. 입원실 복도(낮)

예지, 밀려드는 배신감에 눈물 차오르는데
 해석, 배 움켜쥐고 쫓아와서 예지 돌려세우는.

해석 그쪽이 왜 나가는데, 우리 비긴 거 아닌가?
 그 사람 살인자도 아니었고, 자살도 안 했으니까.

예지 (눈물 차오르고 눈길 피하는)

해석 나 믿었죠. 그래서 배신감 느끼죠 지금.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너무
 멋대로 결론 내는 거 아닌가? 그쪽 언니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거지
 내가 예스 한 건 아닌데.

예지 (긴가민가 의심 거두지 않고, 해석 보면)

해석 나도 고병수 씨처럼 좀 믿어줘요.
 실력 있는 의사가 이렇게 사람 맘을 몰라요?

예지 그러지 마요, 실력 있다고 착각할 거 같으니까.

해석 착각 아닌데. 내가 아픈지 아닌지 한 번에 보고 알았잖아요.

예지 ...

해석 나... 아무한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리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좀...
 알아주면 안 돼요? (웃는데... 찡긋한다)

예지 하지 마요. 딱해 보이니까. 딱한 거 딱 싫어해요 나.
 그런 거 못 지나친다구요.

해석 그럼 안 지나치면 되겠네. (천천히 다가가서 예지를 품에 안는)
예지 (마음이 저릿하고, 안도감에 눈물 차오르는)

#66. 빌딩 2층 복도(낮)

‘마음편한 정신과’ 간판 떨어져 나갔고...
안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 들리는...

#67. 정신과 진료실 안(낮)

#4의 인부들, 내부 수리 중이다.

인부1 (들어오며) 복도에 전기 합선 손봤어요.
반장 야, 근데 이걸 막아야 되냐, 부숴야 되냐. (땀 뚫린 벽 가리키면)
인부1 (어깨 으쓱하고 나가는)
반장 그 참... (어딘가로 전화 걸고, 통화) 예, 여기 보니까 벽이 다 뚫려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아... 그래도 돼요? 예. (끊고)

반장, 망치 들고 벽 내려치는데, 별 무리 없이 쉽게 부서지는 벽.
해석의 철학관 풍경이 시원하게 드러나는데, 집기들 흰 천에 덮인 채
한쪽에 정리돼 있다.

#68. 구치소 접견실(낮)

예지, 플라스틱 창 너머에 앉아 있는 병수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예지 덩썩. 지낼 만해요?
병수 너무 더워요. 사람들 말이 여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럽대요.
예지 왜요?

병수 정신과 다녔으니까 집행 유예 받아서 빨리 나가지 않겠냐고...
예지 (해맑게 말하는 병수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선배(E) 그 환자가 계획적으로 너 이용한 거면 어떡할래.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진료 기록 만들어는 걸 수도
 있잖아. 감형 받으려고.
예지 재판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병수 (O.L.) 아니요 선생님. 저 그냥 벌 다 받을 거예요.
 그니까... 증인도 서지 마시고... 제 의료 기록도 내지 마세요.
예지 어떻게 그래요. 병수 씨 이렇게 된 거... 내 탓도 있는데.
병수 그런 생각할까 봐 나온 거예요. 제가 속였잖아요. 술에 기대면
 안 된겠는데 술 먹고... 회사도 맘대로 그만두고... 약도 안 먹고...
 그니까 선생님 탓 아니에요. 자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지 그래도...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병수 (아니라고 고개 젓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 사건 말이에요...
 그건 진짜 나쁜 짓 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지 알아요. 애가 경찰서에 울면서 다시 왔대요. 착한 아저씨였다고.
 넘어진 거 보고 병원 가야 된다고 태워준 거라고...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 신고해야 된다고 했다고.
병수 (սսսս하게 웃고)
예지 (안타깝게 보다가, 마주 웃는)

#69. 빌딩 2층 복도(낮)

카메라, 2층 복도를 따라 비추는데
철학관이 있던 입구와 정신과가 있던 입구 모두 벽으로 막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커다란 양개 도어.
‘21세기 마음편한 상담소’라고 적혀 있다.

해석(E) (계단 올라오는 듯 목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그거 알아요?
아인슈타인은 생애 말년에 주역에 심취했고, 정신 분석학의 대가
칼 융도 무의식과 주역을 연관시켜서 연구한 거? ...융이 인간의
성격 유형을 여덟 개로 나눈 것도 다 8괘 때문이라니까?

해석, 계단 다 올라왔고,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뒤쳐져서 오는 사람 연신 쳐다보는

해석 신기하죠. 그 시절에 서양에 주역을 전파한 사람이
정신 분석학자라니. 빨리 좀 와요.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
(기다리면)
예지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낸다)

#70. 상담소 앞+안(낮)

‘21세기 마음편한 상담소’라 새겨진 입구.

서비스 내용에

— ‘동양 심리상담(주역, 사주)’

— ‘일반 심리상담(정신과 전문의 출신)’이라고 써어 있다.

해석 (뿌듯하다는 듯 예지 보며 서비스 내용 가리키는) 짜잔~ 죽이죠?
동서양의 만남.

예지 (보고) 내가 동업 안 한다 그럼 어떡하려고 미리 써 놨어요?

해석 아 이거... 스티커예요. (글자 긁어내는 시늉 하며) 떼면 돼요.
떼요?

예지 (웃으면)

하나 (안에서 문 벌컥 열고) 왜 이제 와요. 예약 벌써 꽉 찼거든요?

예지, 열린 문으로 들어서면 예전 정신과 인테리어 가구와 철학관 가구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원래 한 공간이었던 것처럼.

끝.

작가 후기

오픈 4기 동기들이 해 준 리뷰를 길잡이 삼아 ‘수정’을 하던 중
저는 ‘센터장님과 의 면담’이라는 토네이도를 만나게 됩니다.
작품뿐 아니라 작가로서 부족한 역량까지 날날이 들리게 되고
카운터편치를 얻어맞은 복서처럼 쓰러져 펀치드링크에 취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는 정신을 붙잡고 자기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
수정이 아닌 ‘다시 쓰기’를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안다고 믿던 예지와 해석을 과연 다 아는지 자문해 보고
그동안 캐묻지 않았던 그들의 속내까지 더듬거려 보기도 하고
낮모르는 이들을 만들어 예지와 해석이라 이름 붙여 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살아 있는 정신과 의사와 역술가에게 욕을 얻어먹진 않을까 눈치를 보며
직업적 본질까지 건드려야 하나 머리를 싸매 보기도 했습니다.

마감 땀 제 손엔 세 가지 버전의 대본이 들려 있었고

그중 예지와 해석의 속내를 더듬거려 본 버전을 책에 새겨 넣기로 했습니다.

투닥거리다가 ‘사랑 비슷한 거’나 하고 있는 엔딩이지만

훗날 돌이켜 보았을 때 조금 부끄러워도 괜찮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있을 수많은 ‘수정의 시간’에

저는 ‘센터장님과 의 면담시간’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조언들이 앞으로의 이정표가 되고, 체크리스트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보조 바퀴를 떼고 두발자전거에 앉은 아이 같은 처지인 저희들을,

넘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봐 주시는 오픈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글 한 줄로나마 마음을 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스포일러

홍은주

영문 모르고 당한 이별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밤을 잊어서,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오조 오억 번 외운 걸 금세 까먹어서,
우린 또 사랑하고 증상을 입는다.
번지점프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듯 우리 다 살자고 하는 사랑인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사랑유통기한을 알 수 있다.’
이거라면, 가드 내리고 마음껏 치고 받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본다.

등장인물

윤서울(33세, 여) 현대무용단 안무가

늘 사람이 끊이지 말라고, 그래서 외롭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런 서울의 사랑이 진로도 퇴로도 막혀버린 건 러브스포일러 때문이다.
헤어지자는 연인을 붙잡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자고 약을 쓰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김영훈(34세, 남) 사운드 엔지니어

연인에게 러브스포일러를 이유로 대차게 차였다.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단다.
바람? 그런 대자연이 내 유전자에 있다고? 억울하다.
세상의 모든 스포일러를 혐오한다.

남유진(37세, 남) 아트센터 음향감독

유전병이 있어 러브스포일러를 하면 상대를 막론하고 ‘0일’이 나온다.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유통기한을 모르는
클래식한 연애가 낫다고 자신한다.

이호원(39세, 남) 사운드 엔지니어

잠수이별을 당한 충격에 연애 은퇴선언을 했다가
러브스포일러 등장과 함께 복귀.
유통기한 100일 이하인 여자만 만나 상처받지 않는 연애만 한다.

전영신(36세, 여) 러브스포일러 직원
러브스포일러 유통기한이 수명보다 긴 남자를 만나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것이 목표.

김대일(23세, 남) 현대무용단 단원

박다인(23세, 여) 현대무용단 단원

정이현(29세, 여) 영훈의 전 여자친구

안도경(45세, 남)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박사

그 외

남관중(20대), 형사(50대, 남), 안티1(40대, 남), 안티2(20대, 남),
안티3(30대, 여), 편의점 남(20대), 기사(50대, 남), 아트센터 직원(20대, 여),
전문의(30대, 남), 간호사(30대, 여)

줄거리

유전자검사로 사랑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러브스포일러가 연인의
필수 관문이 된 오늘.

영훈은 러브스포일러 검사 결과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67일을 남기고 연인에게 차인 후, 인생에서 연애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린다.

바람둥이 유전자를 눈 감아 줄 여자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서울은 유통기한이 0일인 연인, 유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유진이 가진
유전병으로 둘은 유통기한조차 알 수 없지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둘의 유통기한은 언제고 0일이며, 따지 않은 통조림은 상하지 않으므로.

러브스포일러에 상처받은 서울과 영훈.

두 사람은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에서 처음 만난 날, 러브스포일러 개발자
안도경 박사에게 우발적 복수를 한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다.

러브스포일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두 사람은 안티 러브스포일러를
결성한다.

서울과 영훈은 서로의 위로 속에서 러브스포일러가 남긴 상처가
아무는 걸 느꼈다.

영훈의 전 연인, 이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현은 유통기한에 대해 알려줄 게 있다고 한다.

러브스포일러는 관성처럼 서울과 영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조금 가까워져놓고 많이 멀어져버린 두 사람.

잇을 만하면 좁혀오는 러브스포일러의 사정거리를,

서울과 영훈은 벗어날 수 있을까?

#1.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외경(낮)

건물 한쪽 벽 광고판에는 마주 보고 웃는 남자와 여자.
각자의 손에는 DNA키트 들려 있다.
'러브스포일러 DNA키트로 사랑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사랑은 확인하는 거예요.'

#2. 교차. 현재+과거. 러브스포일러 연구소/로비(낮)

현재.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북 카페 분위기의 로비 곳곳에 '유전학 박사 안도경의 DNA와
로맨스 첫 번째 시간' 포스터 붙어 있다.
층층 계단에 자유롭게 앉은 젊은 사람들. 노년, 중년의 커플도 몇몇.
콘솔박스 앞의 영훈(34세, 남),
헤드셋 끼고 작은 무대 위 마이크를 든 안도경(45세, 남)을 주시한다.
호원(39세, 남)도 영훈 옆에 앉는다.

도경 중세 유럽 무도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얇게 자른 사과를 겨드랑이에
끼워뒀다가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미소)
관중 (야유와 환호 섞인)
도경 체취 속에 담긴 mhc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구애행위인
거죠. mhc유전자가 상반될수록 상대방의 체취를 섹시하다고
느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러브스포일러가 있어서
겨드랑이에 사과를 끼워둘 일은 없겠죠?
관중 (웃음소리)
도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러브스포일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러브스포일러는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사랑의 유통기한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훈(E) 정이현 님과 김영훈 님의 유통기한은... 67일 남았습니까??

과거.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자막 - 182일 전

한적한 실내. 구석 자리 테이블.

영훈의 손에 들려 있는 서류. '정이현 님과 김영훈 님의 러브스포일러 결과'
넘겨 보는 영훈의 헛웃음과 앞에 앉은 정이현(29세, 여)의 결연한 얼굴.

영훈 67일은... 말이 안 되잖아! 잘못 나온 거 아냐?

이현 왜 이런 결과가 나온 줄 알아? (서류 넘겨 가리키며) 이게 문제야.
DRD4 유전자.

영훈 DRD... 뭐?

이현 바람둥이 유전자! 오빠 이 DRD4 유전자 3번
엑손에 48개 뉴클레오티드가 열다섯 번이나 반복되잖아.
이 정도면 상위 10프로 바람둥이래.

망연한 영훈의 얼굴 위로, (E)빠- 마이크 하울링.

현재.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관중 모두 귀 틀어막고 인상 찌푸린다.

허둥대는 호원.

영훈이 콘솔박스 조절하자 하울링 멈춘다.

도경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관중 둘러보다가 한쪽 가리키며)
저기, 분홍색 티 입은 남성분!

남관중 (마이크 받아들고) 제가 얼마 전에 차였거든요? 유통기한이
더 긴 남자가 있거나 뭐라나... (헛웃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유통기한이 길면 길다고 차여, 1년이면 애매하다고 차여.
러브스포일러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도경 여러분들은 러브스포일러 왜 하세요? 갑작스러운 이별,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이별... 그런 게 지겨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을 뿐인데, 제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영훈 (코웃음)

과거.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이현 아... 이제 알겠다. 내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그게 다 바람둥이 유전자 때문이었네.

영훈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한테 불친절한 게 이상한 거지!

그때 이현 뒤로 하이힐 신은 미니스커트의 여자가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진다.
영훈, 순간 시선이 가는데...
이현, 획 돌아보고는 실망의 눈빛.

이현 대단하다... 이 순간에도 여자를 안 놓치고. 대단한 유전자네!
영훈 (답답하다) 이게 유전자랑 무슨 상관이야!
이현 오빠네 부모님 이혼... 아버지 바람기 때문이었다며.
영훈 (당황) 그건...
이현 (울먹) 난 바람둥이 자신 없어. 67일도 아까우니까, 오늘로 끝내.

러브스포일러 결과지 구기는 영훈.

도경(E) 여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현재.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윤서울(33세, 여)이 먹통인 마이크를 손톱으로 툭툭 치고 있다.
마이크 볼륨 올리는 영훈.

서울 박사님의 모든 연애는 러브스포일러 유통기한대로 끝났나요?
도경 네. (어깨 으쓱) 안타깝게도 100퍼센트의 확률로요.
서울 12시 땡, 하면 폐기처분 되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연애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웅성대는 관중. 그러면서도 모두 안도경의 입술을 주목한다. 영훈마저도.

도경 (정중한 어투로 비아냥) 러브스포일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사과라도 쳐드랑이에... 아, 농담입니다.
관중 (웃음소리)
서울 (모멸감에 마이크 든 손 떨린다)
도경 네, 폐기처분 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러브스포일러가 가진 궁극의 목적은,
이별의 고통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영훈 (여분의 마이크 연결하고 볼륨 최대로 올린다) 이별의 고통은,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았을 때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관중 (목소리의 정체 찾으려 두리번댄다)
영훈 자 쏟을게, 하고 쏟으면 덜 아픈니까? 러브스포일러에서 진짜 나쁜
건 스포일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려달라고 했냐고요...
(점점 흥분)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것도! 절름발이가 범인인
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다, 내가 직접! 알아낼 거니까!!!

서울, 웃을 듯 말 듯... 후련한 얼굴로 영훈을 본다.

#3.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골목/봉고차 안(낮)

봉고차 트렁크에 음향기기 실는 호원과 영훈.

호원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지?
영훈 두 명.
호원 대표는 몇 명이고?
영훈 두 명.
호원 그럼 다 합쳐서 몇 명일까?
영훈 두 명.
호원 어? 알고 계셨네요, 김영훈 대표님?
영훈 그럼요, 이호원 대표님.
호원 애초에 나는 영업하고 너는 예술하기로 하고 차린 회사잖아? 그럼
영역 침범은 말아야지. 내가 힘들게 물어온 일을 이렇게 날리나?
영훈 안 한다고 했어. 여기,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호원 하지만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넌 여길 왔고, 그랬다면 그 마이크를

들지 말았어야 했어. (멀리 쪽 보더니) 뭔가를 들고 싶었다면
저 여자처럼 화끈하게 석유통을 들든가.

멀리, 주차된 하얀색 세단 뒤에서 석유통 빨간 겔뚜껑을 돌리고 있는 서울.

영훈 뭐 하는 거야?

호원 모르겠어? 자기 겨드랑이에 사과를 끼워주려 했던 자상한 안도경
박사 차에 불을 지르려는 거겠지.

영훈, 운전석으로 가서 경적 울린다. 서울이 멈춰서서 본다.
떨어뜨린 겔뚜껑 바닥에서 굴러가고.

영훈 (고함) 그거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요!!

서울, 속뚜껑 따려고 안간힘. 속뚜껑 위로 튀어 오르는 순간,

차에 올라타 문도 채 닫지 못하고 액셀 밟는 영훈.

그대로 돌진한 봉고차가 세단 뒷바퀴를 들이받는다.

찌그러져 툭 열리는 트렁크.

영훈, 핸들에 파묻었던 고개를 들자 서울이 얼빠져 이쪽을 보고 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경보음.

아직도 어딘가로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빨간 뚜껑 위로

타이틀. <러브스포일러>

#4. 경찰서(밤)

고개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영훈.

팔짱 끼고 앉아 있는 도경.

서울은 조서 쓰는 중이다.

형사(50대, 남), 키보드 바쁘게 두드리고 있다.

서울 윤서울입니다.

형사 서울 사는 윤서울...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서울 현대무용단 안무가입니다.

형사 김영훈이 본인의 봉고차로 주차된 안도경의 차를 충돌한 것은,
윤서울의 방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 진술에 동의하세요?

서울 아뇨.

영훈 (대답에 놀라) 아뇨...?

형사 가만... 1년 전에도...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에서 소란 피워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받으셨네요?

영훈 (서울 본다)

서울 벌금 일시불 완납, 했는데 뭐가 문제죠?

형사 남자친구와의 유통기한이 0일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안도경에게 항의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0일이... (도경 본다)
나올 수도 있어요?

도경 윤서울 씨의 남자친구는 헌팅턴이라는 불치의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막론하고 0일이 나옵니다.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거죠.

형사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혀를 차며) 어휴... 어찌나...

서울 지금, 혀 차셨어요? 왜요? 유통기한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린 아직도 잘 만나고 있다고!

형사 아니 그럼 불은 왜 지르려고 했어요!?

서울 그게 아니라!

영훈 저기요.

서울형사 (본다)

영훈 제가 이제야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요...

서울 (영훈 본다)

영훈 (한숨) 제가 들이받고 싶어서 들이받았어요.

안도경 말하는 게 재수 없어서.

#5. 경찰서 정문(밤)

피곤한 얼굴로 나오는 영훈과 서울.

영훈이 목 주무르는 거 보고 서울이 쭈뼛쭈뼛 옆에 가서 선다.

서울 피곤하죠...? (미안하고 화도 나고) 그러게 왜 끼어드셔서...

영훈 그러게요. 처음 보는 사람이 불을 지르든 끄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착한 놈도 아니면서.

서울 (발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훈 다 봤는데 뭘.

서울 (새침) 사실 제가 뭘 부으려던 건 맞는데요. 그게 석유가 아니라... (귓속말하고 수줍게 웃는다)

영훈 (뒤로 슬쩍 물러나며) ...까... 까나리액젓...을 왜...

서울 인터넷에 '복수하는 법' 쳤더니, 까나리 부으면 냄새 때문에 폐차해야 된다고 해서... (괜히 웃어 보인다)

영훈 (서울의 웃는 얼굴이 안쓰럽다) 우리가 러브스포일러를 아무리 미워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서울 (미소 걷힌다) 변하지 않을 거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가만있으면 약 올라 죽겠는데.

영훈은 여전히 서울을 안쓰럽게 본다.
서울, 등 돌리고 멀어져 간다.

#6. 편의점(낮)

계산대에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내려놓는 호원.
영훈은 음료수 내려놓는다.

여알바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원플러스원이에요.
호원 오, 득템.

호원, 하나 더 들고 와 계산한다.
영훈 바지 뒷주머니에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끼워 넣는 호원.
영훈이 곧바로 빼서 호원 셔츠 주머니에 넣는다.

호원 (홀려보고는) 너 지금 이러는 거 결국엔 러브스포일러로 극복될걸?
나처럼 유통기한 100일 이하만 만나서 상처 없고 쿨한 신인류의 사랑을 하다 보면...

영훈 아트센터 오늘부터지? (음료수 따서 마시고)

호원 (짜려보고) 응. 넌 면허가 정지됐으니 내가 장비를 날라야겠지?

영훈 (끄덕)

호원 대체 그 여자, 왜 그런 거래?

영훈 ...

도경(E) (#4) 윤서울 씨의 남자친구는 헌팅턴이라는 불치의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막론하고 0일이 나옵니다.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거죠.

호원 조심해. 다시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고. (편의점 나가고)

영훈, 휴대폰으로 포털에 '헌팅턴 병' 쳐본다.

영훈 헌팅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100프로 병에 걸린다. 부모 중 한 쪽이라도 유전자가 있으면 자식이 헌팅턴에 걸릴 확률은 50프로다. 헌팅턴은 치료도 예방도 없고, 결국엔 조기에... 사망한다.

#7. 아트센터 전경(낮)

#8. 아트센터/공연장

무대 뒤쪽의 스피커를 객석에 가깝게 옮기고 있는 영훈.
유진(37세, 남), 무대로 뛰어 올라와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영훈을 고깝게 본다.

유진 그걸 왜 옮겨요?
영훈 (보지도 않고) 일하는 중입니다.
유진 스피커 출력이 높아서 굳이 무대 앞쪽으로 세팅 안 해도 될 텐데요?
영훈 (그제야 허리 펴고) 출력 높은 스피커를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하울링 생깁니다.
유진 아아... 그렇겠구나. 하울링이 왜 안 잡히나 했네.

영훈 (한숨) 뭐 하는 분이세요?
 유진 (악수 청한다) 아트센터 음향감독 남유진입니다.
 영훈 (떨떠름하게 악수) 이번에 나가신다는?
 유진 네. 방금 전 일 때문에 실력이 안 좋아서 잘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훈 (훑어본다) 그러시겠죠.
 유진 무용단 연습 시작해야 되니까 세팅 빨리 끝내주세요.

무대 내려가는 유진 보다가 다시 스피커 옮기는 영훈.

CUT TO

여기저기서 몸 풀고 있는 무용수들.

무대는 비어 있고 콘솔박스 앞의 영훈이 마이크 든다.

영훈 다음 팀 준비하세요.

무대에 오르는 대일(23)과 다인(23).

콘솔박스 옆 스피커 앞에 한 여자의 뒷모습 보인다.

음악 틀어지고, 무대 위 대일과 다인의 춤 연습이 시작된다.

동시에 스피커 앞의 여자도 그들을 따라 몸을 휘적대기 시작한다.

영훈 (홀깃) 스피커 앞에만 서면 왜 다 녀을 놓는 거야.

그 순간 턴 하는 여자, 서울이다.

서울과 영훈의 눈이 마주친다.

#9. 아트센터/복도

자판기 앞에 선 서울과 영훈.

서울 뭐 드실래요?

영훈 (술있 음료 가리킨다)

서울 (멈칫, 뿔아서 건네며)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영훈 (무슨 뜻인가 보는)

서울 생각할수록 착한 놈 아니라던 그 말, 거짓말 같아서요.

합의 보셨다고 형사한테 들었어요. 착한 놈처럼 굴지 마시고,

(영훈 손에서 휴대폰 빼낸다. 번호 찍어 내민다) 연락해요.

반평을 하든지 하게.

유진(E) 저랑 취향이 같으시네요.

영훈 (유진 보고는 음료 본다) 아, 네.

유진 두 분, 인사는 나누셨어요? (영훈 보며) 윤서울 안무가. (서울 보며)

새 음향감독 올 때까지 맡아주실, 사운드 엔지니어 김영훈 씨.

서울 새 음향감독이라뇨. (놀라서 유진 올려다본다) 그만뒤요?

유진 네.

서울 (얼굴 굳어) 감독님, 얘기 좀 하죠. (먼저 정문 향해 나간다)

유진, 영훈에게 눈인사하고 서울 따라간다.

영훈은 폰에 서울의 번호 저장한다. '소울'로.

정문 유리문 밖으로 서울과 유진이 마주 보고 대화 나눈다.

심각한 서울의 표정 보며 음료수 따서 마시는 영훈.

#10. 지하철(밤)

지하철 문 열리고 영훈이 자리에 앉는다.

문 닫히기 직전, 서울이 어깨 날을 날렵하게 밀고 들어온다.

영훈, 서울 보고 반가워 웃는데 서울은 뚱하게 보며 자리 띄워 앉는다.

한참을 어색하게 정면만 보는 영훈과 서울.

영훈, 휴대폰 꺼내 '소울'에게 메시지 남긴다.

서울, 휴대폰 본다. '김영훈입니다.'

영훈 우리 이름, 좀 비슷하죠?

서울 김영훈이랑 윤서울이요?

영훈 외국인들 귀에는 서울이 소울로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제 이름은 '영훈'으로 들리거든요.

서울 (휴대폰에 '영혼'으로 저장하며) 그러니까 영혼 있게 말씀해보세요.
 합의금 총 얼마예요? 반뎡? 더 원해요?
 영혼 왜 나한테 돈 못 쥐 안달이에요?
 서울 짹짹해서요. 러브스포일러에서 처음 만난 것부터,
 나 대신 안도경 차 들이받은 것도... 경찰서에서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도 거슬리고...
 영혼 돈으로 내 기억을 지워버리겠다?
 서울 (픽 웃는다)

지하철 멈추고 사람들 탄다.

영혼 다른 건 어때요?
 서울 다른...

서울과 영혼 사이에 앉으려던 남자가 멈춰한다.
 서울, 남자 눈치 보더니 영혼 옆자리로 옮겨 앉는다.

영혼 (다른 사람 들을까 나지막이) 안티 러브스포일러 결성해요, 우리.
 서울 (미간 찌푸린다. 혐오의 눈빛)

“이번 정거장은...” 방송 나오자 일어나는 서울. 영혼도 따라 일어난다.
 서울이 왜 따라 내리냐는 눈으로 영혼을 보면.

영혼 저도, 여기서 내려요.

#11. 골목/편의점 앞(밤)

나란히 골목을 걷는 영혼과 서울.

서울 그런 걸... 왜 해야 하는 건데요?
 영혼 그런 것까지 해야 진짜로 찌질해지는 거예요.
 까나리 같은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서울 (짜려본다) 하수?
 영혼 (진지) 러브스포일러에 대한 기억... 지울 수 없으니,
 안고 가자는 거죠.
 서울 (영혼의 옆얼굴 본다)
 영혼(E) (#2) 러브스포일러에서 진짜 나쁜 건 스포일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려달라고 했냐고요...
 서울 러브스포일러한테, 어떤 걸... 스포당했어요?
 영혼 (얇은 한숨)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대요. 할 말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알아주는 바람둥이거든요. 결혼 세 번 이혼도 세 번.
 그게 다 외도.
 서울 아... (훑어본다)
 영혼 훑어보니 어때요? 바람둥이 같아요?
 서울 (뜨끔) 아뇨!! 키도 유전이라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겠어요.
 영혼 네 억울해요. 저희 어머니 젓가락 손가락 양손으로 잡는 것도 못
 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억울한가... 윤서울 씨는
 팬찮아요?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서는 서울. 오른쪽을 가리킨다.

서울 전 이쪽.
 영혼 전, (왼쪽 가리킨다)
 서울 조심히 가세요.
 영혼 안티 러브스포일러, 해야 돼요 우린.

서울은 말없이 뒤돌아 걷고, 영혼도 발길 돌려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진다.

#12. 아트센터/공연장(낮)

애프 설치하는 호원과 영혼.
 그때 호원 뒷주머니에서 툭 떨어지는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영혼, 주워서 보면 '강남역, 정예지' 적혀 있다.

영훈 이걸 뭐야 또.
 회원 강남역을 지나던 정예지 씨가 마음에 들어서 키트를 내밀어줬지.
 영훈 그러다 뺨 맞아.
 회원 응, 뺨 맞고 받은 거야. 뺨을 먼저 착, 날리시더니 입안을 싹 훑어서
 착! 내미시는 거 있지…. 성격의 음역대가 아주 넓어.

서울, 대일, 다인이 함께 들어온다.
 어색하게 목례하는 서울과 영훈.
 회원, 서울 보더니 영훈 뒤로 숨는다.

회원 저 무서운 여자 여기 왜 있어?
 영훈 아트센터 안무가.
 회원 이것은 인연인가, 악연인가. (가방에서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꺼낸다) 하나 있다. 필요하면 써.

회원의 손 툇 밀쳐내는 영훈.

#13.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접수 데스크(낮)

‘강남역, 정예지’ 적힌 러브스포일러 DNA키트 내려놓는 회원.
 영신(36세, 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괜히 시간 끌며 회원의 눈치를 보는 영신.

영신 이호원 고객님.
 회원 네?
 영신 혹시… 강남역 정예지 씨한테 첫눈에 반하셨어요?
 회원 (웃는다) 네. 늘 그렇듯.
 영신 첫눈에 반했다는 건… 상대의 유전자 정보를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건데, 그런 상대하고는 유통기한 100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서…
 회원 그래서요?
 영신 (용기 내서) 그러니까요! 저처럼 오래, 자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과 러브스포일러를 해야… 100일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지르고 눈 질끈 감는다)

회원 그러게요? 러브스포일러 자주 왔지만, (명찰 보고) 전영신 씨
 이름도 몰랐네요. 좋아요. (가방에서 DNA키트 꺼내 내민다)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키트 열고 면봉으로 입안 훑는 영신.

#14. 아트센터/공연장(낮)

무대 위. 대일과 다인이 춤을 멈춘다.
 대일이 양손 들어 영훈에게 엑스 표시.
 영훈, 음악 끄고 무대 가까이로 간다.
 의자에 앉아 있던 서울도 일어선다.

서울 왜?
 대일 음악이 안 들려요. 볼륨 올려주세요.
 영훈 심장 쿵쿵 울리는 클럽 스피커 아닙니다.
 대일 아저씨. 공연하는 사람한테 좀 맞춰주죠?
 영훈 청각은 늘 더 큰 자극을 원하는데, (아주 작게)
 이러다 공연 때 관객들이 락 페스티벌로 착각하면요?
 다인 ? 뭐라고 하시는 거야?
 대일 (성큼 다가와) 아저씨 욕했죠!
 영훈 봐요, 작게 말하니까 가까이 오잖아요. 관객들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절해놓은 거니까, 믿고 연습에 집중해요.
 서울 (영훈의 새로운 모습이 낯설어 힐끗 보며) 10분 쉬자.

대일과 다인, 무대에서 내려와 공연장 나간다.

영훈 (의자에 털썩) 나 재 무서워요. 어른도 때려요?
 서울 대일이 원래 순둥인데… 연습이 힘든가?
 영훈 아, 그거네… 공작새가 암컷 앞에서 막 깃털 자랑하는 것처럼.

서울 잘 보이려고. 하여간 수컷들이란... 너무 본능적으로들 산다니까.
 영훈 바람둥이 필터가 있으시네. 재네 그냥 친구예요.
 서울 (어깨 으쓱) 오늘 끝나고 약속 있어요?
 영훈 (왜 묻나 보는)
 서울 없으면 나랑 (턱으로 앰프 가리키며) 앰프 좀 같이 날라요.
 영훈 제가... 왜요?
 서울 면허가 정지돼서 택시로 옮겨야 하는데, 혼자선 무겁기도 하고...
 영훈 (한숨) 그냥 돈을 받지 그래요?

#15. 7080라이브/입구(밤)

‘폐업’ 딱지 붙은 허름한 가게 지하 계단을 앰프 들고 내려가는 영훈과 서울.
 영훈 발 조심해요.
 서울 여기서 투잡 뛰어요?

#16. 7080라이브/홀(밤)

동그렇게 모여 앉은 스무 명 남짓의 사람들이 무대 위 서울과 영훈을 본다.
 무대 스크린에 ‘안티 러브스포일러 서울 모임’
 서울, 뒤돌아 스크린 보고는 놀라서 앰프 톱 떨어뜨린다.
 나가려는 서울의 팔을 영훈이 잡는다.
 영훈 모임 끝나고 앰프 다시 아트센터로 옮겨야 돼요.
 서울 (이 악물고) 난 이것만 옮기는 거예요.
 구석 소파에 털썩 앉은 서울.
 영훈, 앰프 설치한다.
 CUT TO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은 영훈.

속연한 분위기 속에 안티1(40대, 남)이 눈물 흘린다.

안티1 10년을 살아놓고 유통기한이 1500일 지났다는 걸 알자마자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지... 일곱 살 아들이 잠결에도 엄마를 찾는데 어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는 애를 깨워서 그랬어요. 네 엄마 사랑 찾아 떠났으니까 그만 찾아!! (왈각)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알아... 아니까 아빠 화내지 마... 알긴... 어린 게 뭘 안다고... 러브스포일러 간 날이, 우리 열 번째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멀찍이 소파에 등 돌리고 앉아 있던 서울, 소매로 눈물을 쓱 닦는다.

CUT TO
 안티2(20대, 남), 마이크를 들고 망설이고 있다.
 영훈, 메시지 보면 ‘소울. 끝나고 연락해요. 나가 있을게요.’
 서울, 가방 들고 일어난다.

안티2 저는 유통기한이... 0일이 나왔어요.

서울이 고개를 획 돌려 안티2를 본다.
 사람들 웅성대는 소리. “왜 0일이 나와...” “병이 있으면 그렇게 나온대요.”

안티2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거든요.

사람들의 낮은 탄식에 이은 정적.
 영훈, 멈춰 선 서울을 본다.

안티2 종족번식 못 한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을 알 수 없다? 웃기지 않아요? 아무 여자나 붙잡고 러브스포일러 해서 수십 년이 나오면 뭘해요. 거기에 사랑은 없는데. 러브는 무슨 러브...

서울 저도 0일이에요.

사람들 시선 서울에게 향하고.

서울 0 두 개를 붙이면,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한대 그리며)
무한대잖아요. 우리 0일은 잇고,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안티2 (끄덕이며 문득) 누나는 어찌다... 0일이 나왔어요?

CUT TO

영혼 옆에 앉은 서울, 어느새 마이크 들고 있다.
안티3(30대, 여), 턱 괴고 집중한다.

서울 끝내자는 말에 정말 끝났는지 러브스포일러로 확인시켜달라고
했어요. 0일... 몇 번을 해도 0이란 숫자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유전병이 그렇대요. 병은 병이고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지...
화가 났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몰라도.
우린... 여전히 잘 만나고 있어요.

안티3 (탁자 광) 헤어지자는 말까지 듣고 만나고 있다고요?
자존심도 없어요?

서울 핑계죠! 자기 병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질까 봐
미리 차버린 거죠.

안티2 (눈물 또르륵) 그 병... 일찍 죽는 병이잖아요. 어떡해요 누나...

서울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얼굴)

영혼 (서울 마이크 빼앗아) 저는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대요. 그것도 상위
10프로에 들 만큼 강력한. 바람둥이 감당할 자신 없다면선 남은
유통기한 67일도 못 채우고 끝났어요.

안티3 (눈 가늘게 뜨며) 맞아 저 눈빛... 바람둥이 눈빛!

서울 저기요... 바람둥이라고 아무한테나 눈빛 발사하는 줄 알아요?

안티3 (축 쳐져) 전 남친도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유통기한도 다 됐고 그 사람도 떠났는데. 난 안
끝났거든... 참 나빠...

서울, 안티3의 손등을 토닥인다.

CUT TO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맥주병. 취한 사람들.
어깨동무하고 백지영의 <사랑 안 해> 부르는 서울과 안티3, 안티2.

영혼이 서울의 열창을 덩덤히 지켜본다.

#17. 대로변 (밤)

영혼은 택시 잡아보지만 잡히지 않고,
앰프에 걸터앉은 서울은 취해서 까딱까딱.

서울 러브스포일러 때문이 아냐... 바보들.

영혼 (서울 넘어가지 않게 등 뒤에 가서 무릎으로 등받이 만든다)
그럼요?

서울 어차피 다 상처받을 사람들이었다고... 어떡하면 헤어질까...
구실 찾던 권태기 부부에, 인정은 못 받고 손가락질만 받는
동성커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유전병으로 보내고 혼자 남겨질...
나까지. 가만 놔둬도 다... 알아서 상처받을 사람들이었다고...
바보들이야 다.

영혼 상처받은 바보들한테 공공의 적이 필요하니까!
일어나요. 갈 데 있어요.

서울 (벌떡 일어나며) 거 참 그냥 돈으로 줄게! 되게 부러먹네!

영혼 (앰프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따라와요.

서울 (또 졸졸 따라가며) 한 손으로 드네... 무겁다며. 혼자 못 든다며.

#18. 러브스포일러 연구소/건물 광고판(밤+낮)

서울과 영혼의 웃음소리.

앰프 위에 올라가 광고판에 낙서하는 서울.

영혼은 깨금발로 광고판에 낙서 중이다.

서울이 들고 있던 매직 떨어뜨려 자기 얼굴에 점 찍히고,
위를 보던 영혼의 얼굴로 매직 찍 곳고 떨어진다.

서울 이게 까나리보다, 더 재밌어!

영혼 (매직 주워주며) 형량도 낮아요.

서울 복수할 때 누가 형량 계산을 해요! 복수는 그냥 막 휘두르는 거지!
영훈 그래서... 막 휘두르니까 어때요?
서울 까나리액젓 한 통에 45000원이거든요? 매직은 한 세트에 4400원.
가성비 완전 좋아... 히히...
영훈 복수는 가성비지.
서울 복수는 가성비다!!

서울, 앰프 흔들리는 바람에 휘청대다
영훈의 머릿통을 끌어안고 중심 잡는다.
가만히 있다가 양손 내미는 영훈.

영훈 숨 막혀요. 손 잡아요, 손.

서울, 영훈의 머리 놓아주고 손을 잡는다.
비틀대며 내려와 앰프에 걸터앉는 서울.
서로의 얼굴에 매직 찍히고 그어진 것 보고 배 잡고 웃는 두 사람.

시간 경과. 낮.
안도경이 광고판을 올려다본다.
광고판에 마주 보고 웃고 있는 만신창이의 남자와 여자.
각자의 손에는 매직으로 그려진 권총이 들려 있다.
‘러브스포일러 DNA키트로 이별(사랑 지우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사랑은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19. 아트센터/공연장(낮)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오던 대일과 다인, 영훈과 마주치고 깜짝 놀란다.
영훈 얼굴엔 지워지지 않은 매직 자국.
대일과 다인, 영훈 지나쳐 들어오는데 고개 들며 웃는
서울의 얼굴도 엉망이다.

#20. 아트센터/비상구 계단(낮)

메이크업 리무버를 화장 솜에 적셔 영훈 얼굴에 올려놓는 서울.
그리고 자기 얼굴에도 올려놓는데, 삐딱하다.
영훈이 고쳐 올려준다.

서울 (어색해서) 아니 왜 유성매직은 사가지고...

영훈 서울 씨가 골랐잖아요.

서울 ... (화장 솜으로 쓱쓱 닦는데, 엉뚱한 데 닦는다)

영훈 쥐요. (서울 얼굴에 묻은 매직 닦아준다)

서울 (얼굴 가까이 오자 눈 감는다) 범인은 범행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던데... 첫 러브스포일러에서 바람둥이 딱지도 붙었잖아,
거기 갈 일 없겠어요?

영훈 첫 러브스포일러에서 유통기한도 못 알아봤으면서.

서울 (아무렇지 않은 척) 1819년에 북극 탐험대가 가지고 갔던 통조림이
92년 뒤에 발견됐는데, 먹어봤더니 맛에 이상이 없었대요. 그
사람이랑 난 따지 않은 통조림처럼 유통기한이 무의미한 사이예요.

영훈 (깨끗해진 서울의 얼굴을 보며) 1819년에 만든 통조림을
왜 먹어요. 통조림도 최근에 만든 게 맛있는 건데.

서울 (눈 뜨는데, 영훈이 너무 가까워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힌다)

영훈 (얼굴 앞으로 내밀며) 나도 닦아줘야죠.

영훈 얼굴의 매직 자국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서울.

영훈 지금 연습 중인 작품 제목이 뭐예요?

서울 운동화요.

#21. 아트센터/공연장(낮)

콘솔박스 앞의 영훈.
서울은 스피커에 기대어 앉아 있다.
음악 흐른다.

서울이 발끝으로 박자 맞추며 반응한다.

영훈 한 컬레 운동화가 사실 사랑하는 사이였다,
라면 이 톤이 맞는 거 같은데. 어때요?

서울, 일어나 음악에 안무 맞춰본다.
완벽을 기하기보다 리듬감 있게.
영훈, 서울의 춤을 보며 불륨 천천히 올린다.
턱을 괴고 서울의 춤을 감상하는 영훈.
대일과 다인 들어온다.

대일 음악 뭐예요?
다인 쌤, 공연 음악 이걸로 체인지?
서울 (춤 멈추고) 어떤 거 같아?
다인 (대일 보며) 박자도 같네. 난 좋아.
대일 난 해봐야 알아.

대일, 다인 등 밀며 무대로 오른다.
눈빛 주고받고 무용 시작하는 대일과 다인.
서울과 영훈이 만족스럽게 둘을 본다.

서울 좋다.
영훈 전에 음악은 뭐랄까... 사랑이 끝난 느낌이랄까?
서울 (멈칫) 끝난 느낌?
영훈 (끄덕인다)
서울 (허탈하게 웃으며) 그럼 안 되는 건데.
영훈 (갑자기 식어버린 서울의 표정을 살핀다)
서울 그럼 안 되죠. 사랑이 끝나면. (표정 감추며 웃는다) 바뀌야겠다.

#22. 지하철(밤)

만원 지하철. 서울과 영훈이 가깝게 붙어 서 있다.

사람들에게 밀려 영훈에게 더 가까워진 서울.
영훈의 입김에 서울의 머리카락이 훑날린다.

영훈 서울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 알아요?
서울 (고개 가로짓는다)
영훈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보느라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사람들도,
한강 지날 때는 다들 고개 들고 노을을 본대요.

멀리 노을이 닿은 면면 반짝이고 있는 한강 보인다.
마침내 지하철이 그 위를 지날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한강을 보며 신기한 듯 웃는다.
영훈의 시선은 서울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다.
“이번 정거장은...” 방송 나오자 서울이 가방 고쳐 메다가
영훈과 눈이 마주친다. 피하지 않는 영훈.

서울 (헛기침) 저... 오늘은 여기서 내려요.
영훈 어디, 가요?
서울 그 사람 만나러.
영훈 아...

지하철 문 열리고. 내리고 타는 사람들에 치여 제자리걸음 하는 서울.
영훈,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하며 몸으로 길을 터준다.
서울, 영훈 뒤를 따라 내리고. 영훈은 다시 지하철에 오른다.
문 닫히고. 영훈, 경황없이 서 있는 서울을 향해 손 흔든다.
서울이 손 흔드는 순간 지하철 출발한다.
창에 불이 놀리도록 바짝 대고 서울 모습을 오래도록 보는 영훈.

#23. 오피스텔 앞(밤)

화단에 걸터앉아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살피는 서울.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원하는 사람은 없다.

서울, 체념하고 일어서는데 멀리 유진이 보인다.
유진, 못 본 척하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는데.

서울 남유진... 눈 마주친 거 다 안다.
유진 (가까이 와서는 발 구르며) 워!
서울 ...뭐야 방금?
유진 비둘기는 이르면 도망가던데, 넌 꿈쩍도 안 하네.
서울 (늘 받던 홀대다. 더 뻥뻥하게) 다음 생에 비둘기도 안 되겠다.
네가 워! 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24. 과거. 유진의 집/방(밤)

2년 전.
침대에 누워 있는 유진. 서울은 유진의 배를 베고 누워서
영수증으로 날개 달린 하트 잡고 있다.

유진 너랑 나, 다음 생에도 만날까?
서울 또 사람으로 태어나리란 보장은 없어. 아스팔트로 태어날 수도
있어. 플랑크톤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유진 그럼 나도 플랑크톤으로 태어날게.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놀자.
운 좋게 배설물에 섞여서 배출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어.
서울 자긴 뭐로 태어나고 싶어?
유진 거북이. 우리 알 많이 낳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서울 (유진 양쪽 눈에 하트 올려놓으며) 나 알 낳기 싫은데...
유진 (서울 끌어안으며) 그럼 뭐로 태어날 거야? 얘기해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서울 음...

#25. 현재. 오피스텔 앞(밤)

서울 그때 못한 대답 해줄까? 나는 다음 생에 너랑...

유진 이제 환생 안 믿어.
서울 그래 그럼...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어줄게.
유진 봐... 있어주다니. 이려고도 동정이 아니라고 우기겠지.
서울 그때, 러브스포일러 왜 했어?

#26. 과거. 아트센터/공연장(밤)

무대에 걸터앉은 서울과 유진.

유진 우리, 끝내는 게 좋겠어. 너랑 나랑은 이제 할 거 다 한 거 같아.

서울, 몸에 힘이 풀려 무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진다.
유진, 놀라서 뛰어내려 서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킨다.

유진 괜찮아?
서울 봐... 이렇게 걱정하면서 어떻게 헤어지려고.
유진 사랑은 끝났어. 이건 의리고.
서울 확인시켜줘. 정말로 끝났는지.
유진 ...
서울 (일어선다) 가자, 러브스포일러.

유진, 가방에서 러브스포일러 봉투 꺼내 내민다.
잠시 멍해서 내려다보더니 거칠게 뜯어보는 서울.
'남유진 님과 윤서울 님의 유통기한은 0일 남았습니다.'

서울 0일이... 어떻게 나와?
유진 미리 말 못 해서 미안해. 유전병이 있어, 나한테. 그럼 그렇대.
서울 ...응?
유진 아...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헤어지자는 건 아냐. 눈치게임 하고
있었잖아, 너랑 나. 누가 헤어지잔 말 먼저 꺼내서 악역을 맡을까.
서울 (안 들린다. 머리 쓸어 넘기며) 0일... 0일 왜... 0일... 직접
확인할래. (유진의 머리카락 뽑는다) 직접.

#27. 현재. 오피스텔 앞(밤)

유진 다 알아버리면 쉽게 단념할 거 같았거든. 몰랐던 거지.
이렇게 연민이 가득한 애라는 걸.

서울 (머리 마구 헝클이며) 그놈의 연민, 동정... 지겹다.

유진 난 어땠겠어. 윤서울, 내 인생은 남들보다 짧아. 네 인생이
장편영화라면 난 단편영화라고. 동정해줄 사람 말고,
사랑해줄 사람이 여주인공이면 좋겠어.
(사이) 사실 캐스팅도 끝났고.

서울 거짓말.

유진 이제 쉬면서 내 여주인공이랑 엄청 야한 영화 찍을 거야.

서울 야!!

유진,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허망한 얼굴로 선 서울.

#28. 편의점 앞(밤)

파라솔에 앉아 목을 빼고 골목을 내려다보는 영훈.
도시락, 샌드위치, 우유 등이 담긴 폐기박스 내놓는 편의점 남.
편의점 안 벽시계, 12시를 조금 넘겼다.

FLASH CUT #1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로비

서울 12시 땡, 하면 폐기처분 되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연애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박스 보다가 일어나는 영훈.
영훈이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감추자 서울이 오르막을 올라온다.
폐기박스 보고 멈춰 서는 서울.

#29. 영훈 사무실(낮)

가방, 휴대폰 챙기느라 분주한 호원.
영훈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

호원 일어나, 가다가 아트센터에 내려줄게.

영훈 ...러브스포일러 가는 거야?

호원 어. (조심스럽게) 넌 이제 러브스포일러 안 하나?

영훈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누가 좋아해, 바람둥이 유전자들.

호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바람둥이 유전자 있다고 무조건
유통기한이 짧게 나오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어?

#30.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접수 데스크(낮)

영신, 결과지 내민다.

영신 여기, 강남역 정예지 님과의 결과요.

‘정예지 님과 이호원 님의 유통기한은 12809일 남았습니다.’
확들짝 놀라 결과지 던져버리는 호원.

호원 와씨! 깜짝이야... 백년해로 할 뻔.

영신, 자신과의 결과지 내민다.
‘전영신 님과 이호원 님의 유통기한은 100일 남았습니다.’

호원 (영신 보고 웃는다) 100일?

영신 (끄덕) 네. 딱, 100일.

호원이 영신에게 악수 청한다.
영신, 악수하면서 호원이 던진 결과지를 구둣발로 밟는다.

#31. 아트센터/공연장(낮)

대일과 2인무 추던 다인이 멈춰 선다.
 서울이 의아한 얼굴로 영훈 보면, 음악 끄는 영훈.
 다인,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대 끝에 걸터앉는다.

다인 못하겠어요.
 서울 뭐가 문제야.
 다인 아니... 감정이 이해가 안 돼서요.
 서울 사랑하는 사람이 흠투성이에 만신창이야. 보고 있으니깐 안쓰럽고,
 마음 아프고, 그런 건데...
 다인 사랑하는데 왜 안쓰러워요?
 서울 사랑하니까 안쓰러운 거라고!
 다인 (답답하다) 흠투성이면 털어주면 되고,
 만신창이면 안아주면 되잖아요.
 서울 ...다인아, 사랑하면...
 다인 (대일 보며) 넌? 흠투성이에 만신창인데 불쌍하다며 우는
 사람이랑, 묻은 흠 털어주고 안아주는 사람.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
 대일 (서울과 다인 번갈아 보며 고민하다가) 안아주는...
 다인 그치? 안무 수정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다인, 공연장 나가버리고. 대일도 눈치 보다가 따라 나간다.
 서울이 의자를 짚고 앉다가 영훈과 눈 마주치고 어색한 미소 보인다.

영훈 서로 용기 없어서 고백도 못 하는 모태솔로 둘이,
 연애 고수한테 사랑을 막 가르치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서울 (힘없이 웃는다)
 영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안 되겠네.
 내일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32. 도심 대로변(밤)

영훈이 서울의 손을 잡고 달려온다.
 '서울시티투어' 팸말 들고 호루라기 부는 기사(50대, 남)

#33. 시티투어 버스(밤)

서울과 영훈이 창밖의 남산타워 본다.

기사 찌쪽에 남산타워가 보이죠? 연인들이 남산타워 철조망에 자물쇠를
 달মন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전설이 있죠? 그거 다 뺑이예요.
 우리 아들이 자물쇠를 몇 개를 달았나 몰러. 죄 쫓났어!
 승객들 (웃음소리)

서울과 영훈도 웃는다.

CUT TO

한강 지나고 있는 버스.

기사 옆에 한강이 최악 보이죠? 이쁜 집들도 강 따라 쪽 있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 알아요? 나는 이놈 잡히면 꿀밤 한 대
 맥이고 싶어 기냥. 한강 보이는 집이 얼마나 비싼디 즈이 엄마랑
 누나 속상하게 말여... 철이 없어도 여간 없는 게 아녀요. 정신을
 빨리 차렸음 쓰것는다...

승객들 웃음소리.

서울과 영훈도 웃으며 한강을 바라본다.

기사 다음은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 감상이 있겠습니다.

#34. 다리 위(밤)

승객들 사진 찍고, 한강 야경 본다.

영훈, 서울도 말없이 한강 본다.

영훈 서울 참 예뻐요. (서울 보며) 윤서울.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서울 네. 곁에 머무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셨대요.
서울처럼 낮에는 생기 넘치고, 밤에는 외롭지 말라고.
(피식) 참 이름값 못하고 살고 있죠?

영훈 네. 모태솔로한테 무시나 당하고...

서울 (한숨) 영훈 씨도 내가 사랑이랑 동정도 구분 못 하는
멍청이 같아요?

영훈 둘 다 착한 건데, 뭐든 어때요.

서울 (그 말에 놀라 영훈을 본다) 맞아! 둘 다 착한 건데 왜들 그래요?
사랑은 착한 거고 동정은 나쁜 것처럼.

영훈 (조심스럽게) 0일... 그 사람이 그래요?

서울 (얇은 한숨)

영훈 정말 내일까지 데리고 있어야겠다.

서울 (눈 가늘게 뜨고 흘겨본다)

영훈 뭘 그렇게 봐요. 우리가 구해줄 애들 있잖아요. 12시 땡.

#35. 편의점(밤)

편의점 남이 유통기한 다 된 상품들

‘폐기’ 박스에 따로 빼놓고 계산대로 간다.

서울과 영훈이 뛰어 들어온다. 시계 11시 57분. 안도의 한숨 내쉬는 두 사람.

폐기 박스에서 도시락, 샌드위치, 우유를 꺼내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편의점 남 이거 유통기한 다 돼서 빼놓은 건데? 이거 말고 진열된 거 사세요.

저기, 오늘 들어온 거...

영훈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서울 아직 12시 안 지났잖아요. (웃어 보인다)

편의점 남 네. (서울과 영훈을 번갈아 보며 계산)

#36. 편의점 앞(밤)

도시락, 샌드위치 나눠먹는 영훈과 서울.

서울, 영수증으로 날개 달린 하트 만들어 테이블에 던져 놓는다.

도시락 아래 깔린 서울의 머리카락을 발견한 영훈.

호원(E) (#29) 바람둥이 유전자 있다고 무조건 유통기한이
짧게 나오는 건 아니래...

서울 몰래 머리카락 잡아 빼내는 영훈.

서울이 던져놓은 하트에 머리카락을 끼워 주머니에 몰래 넣는다.

테이블 위 놓인 영훈의 휴대폰에 불 들어온다. 발신자 ‘67’일.

서울이 먼저 본다.

서울 전화 왔어요.

영훈 네? (보고는 표정 굳는다)

서울 67일... 전 여자친구죠?

영훈 ...네.

서울 (가방 들고 일어선다) 가야겠다.

영훈 왜요...

서울 편하게 받아요, 전화.

서울, 걸어가다 뒤돌면 전화 보며 망설이는 영훈.

#37. 아트센터/복도(밤)

음료수 뽑는 유진.

서울, 유진 발견하고 멈춰서 본다.

유진이 오라고 손가락 까딱까딱.

서울, 자판기에 몸을 기댄다.

음료수 따려고 애쓰다가 포기하고 서울 손에 음료수 올려놓는 유진.

유진 요즘 손이 더 말을 안 들어.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고...
너 요즘 뜸하더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서울 기억력 아직 괜찮네 뭐. 나, 기다렸어?
유진 전혀.
서울 (발끈) 전혀? 넌 왜 고마운 줄을 몰라?
누군 내가 뭘 해도 착하다는데.
유진 누가 너보고 착하대? (사이) 그거, 동정이야.
서울 뭐?
유진 사랑하다 동정하긴 힘들어도, 동정하다 사랑하긴 쉽거든.
쉬운 거 해. 힘든 거 말고. 너 착한 거 알아봤음 그 사람도 착하겠네.
서울 (생각해본다) 너보단 다 착하지.

#38. 아트센터/복도 다른 일각(낮)

모퉁이 벽에 기대 유진과 서울의 대화를 듣고 있는 영훈.

유진 그 사람 꼭 잡아.
서울 나 치워버릴 타이밍이다 싶어?
유진 어어? 말 돌리지 말고.
서울 시끄러워.

#39. 아트센터/공연장(밤)

서울, 공연장 안을 둘러보지만
대일과 다인이 짐 챙기는 모습만 보이고 영훈은 보이지 않는다.

#40. 골목(밤)

터덜터덜 걷는 영훈.

영훈 잡으라는데, 어?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건다가 갑자기 뒤통다.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41. 아트센터/복도(밤)

어두운 복도. 덜컹거리는 소음이 복도를 울린다.
솔잎음료 계속 눌러 뽑아대는 영훈.

FLASH CUT #9 아트센터 복도.

유진 저랑 취향이 같으시네요.

영훈 (음료 보고) 아, 네.

음료수 바닥을 굴러다니고, '폼질' 볼 들어왔는데도 계속 버튼 누르는 영훈.

#42. 아트센터/공연장(낮)

음악 소리. 대일과 다인, 연습 중이다.

영훈, 앉아서 공연 팸플릿 보고 있다.

팸플릿 표지 - 현대무용단 세 팀의 '청춘예찬' 시리즈.

영훈 넘겨보면 서울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페이지.

'무울의 안무가 윤서울의 작품 설명'

서울, 영훈 옆에 와서 선다. 영훈은 알면서도 시선은 돌리지 않고.

서울 어제 일찍 갔던데...

영훈 (건조하게) 네.

서울 (반응 이상하다 싶지만 괜히 장난) 저 사진 잘 나왔죠?
영훈 작품 제목이 이래서 운동화였구나.
(소리 내 읽는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대일과 다인의 춤 위로,

서울(E)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제게,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은지 물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땐 그 질문이 괜히 벅차서 대답을 못하고, 며칠을 생각해서 일기장에 적었어요... 나는 너랑 한 켄레 운동화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걷고 뛰고 싶어. 같이 세제에 담기고, 같이 햇볕에 널리고 싶어. 한 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화가, 청춘이 갈구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훈이 팸플릿을 콘솔박스 위에 툇 내려놓는다.
유진이 웃으며 다가온다.

유진 팸플릿 나왔어요?
영훈 (건네며) 보세요. 작품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유진 그래요? (받아 들다가 떨어뜨린다)
서울 (얼른 주워준다)
유진 고마워요. (손에 쥐기도 전에 또 흘러내린다)
서울 (주워서 유진 손에 꼭 쥐어주고는 한참을 놓지 않는다)

유진, 괜히 영훈 향해 웃어 보이고는 팸플릿 들고 공연장 나간다.
서울, 불안한 얼굴로 따라 나가려는데...

영훈 남 감독님이랑, 오래 일했어요?
서울 네? 네...
영훈 어떤 사람이예요?
서울 음... 좋으신 분이죠.
영훈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서울 (뭘 이런 걸 묻나... 본다)

영훈 (떼쓰듯)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요?

공연장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 비명 소리.
서울, 소리 듣자마자 달려 나간다.

#43. 아트센터/복도(낮)

서울, 공연장 문 열면 자판기 앞 의자에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유진.
유니폼 입은 직원(20대, 여)이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다.
유진에게 달려가는 서울. 영훈도 달려 나온다.
유진의 발등으로 똑똑 떨어지는 피. 유진이 베인 엄지를 꼭 쥐고 있다.
입고 있던 티셔츠 벗어 유진의 손가락 동여매고 민소매 차림으로 지혈하는 서울.

서울 왜 이래! 어찌다 다쳤어!
유진 (웃으며) 잘 따지는 음료수가, 오늘은 품질이 됐네...

의자에 엮어져 있는 탄산음료 캔. 뚜껑에 피 묻어 있다.
자판기 솔잎 음료 버튼에 '품질' 불 들어와 있다.
영훈, 낮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인다.

영훈 (직원에게) 아트센터 차량 이용할 수 있죠?
직원 네! 모시고 정문으로 나오세요. (달려가고)
서울 (유진의 손 꼭 쥐 채로) 너는 왜, 캔도 못 따...
유진 (영훈 눈치 보며) 많이 놀라셨나 봐요.
서울 (울떡울떡) 너는 왜... 혼자서 캔도 못 따...
유진 (서울의 손을 조용히 다독인다. 정문 보더니) 차 왔네요.
다니는 병원 근처니까 혼자 갈게요.
서울 (눈물 닦으며) 같이 가.
유진 그 차림으로 어딜... 가요.
영훈 (셔츠 단추 풀며) 가요, 같이. (셔츠 벗어 서울의 어깨에 둘러준다)

영훈, 먼저 달려가 유리문 열어준다.
서로를 부축하듯 걸어오는 서울과 유진의 모습.
영훈은 외면하듯 밖을 본다.
영훈 옆을 스쳐 지나가는 유진과 서울.

#44. 병원/응급실(밤)

유진은 베드에 눕고, 서울은 여전히 잡고 있는 유진의 손을 놓지 못한다.
영훈, 둘의 모습 보다가 응급실 나간다.
전문의(30대, 남), 유진 앞에 의자 끌어다 앉는다.

전문의 상처 좀 볼게요.

전문의, 유진의 손가락을 감쌌던 서울의 티셔츠 풀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간호사(30대, 여) 튀어나온다.
간호사, 달려와 대뜸 유진의 머리를 감싸 안는다.

간호사 선생님... 안 아프게 살살 해주세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서울의 피 묻은 티셔츠.
서울, 저도 모르게 돌에게서 비켜선다.

서울 여주인공...

#45. 병원/응급실 입구(밤)

영훈,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데 서울이 나오자 놀란다.

영훈 왜 벌써 나왔어요?

서울 ...

응급실 문 열리고, 유진과 간호사가 애뜻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다시 문 닫히고.

서울 나 없어도 될 거 같죠?

영훈 네. 이제 좀 편하게 지내요.

서울 ...편하게?

영훈 0일의 남자, 지금 무지 좋아 보이니까.

서울 ...알았어요?

영훈 (끄덕. 서울의 어두운 표정 살핀다) 괜찮아요?

서울 (괜히 어깨 편다) 좀 쪽팔린 거 빼곤, 괜찮아요.

영훈 (서울 손등에 묻은 피를 손가락으로 쓱쓱 문지른다) 그러면 이제...
(어렵게 입 펜다) 동정이든 사랑이든 다 나랑 해요, 나랑.

서울 (미소가 스친다. 영훈의 손 쳐낸다) 버려진 여자... 공략하기 쉽죠?
바람둥이라 본능으로 아는 건가...

영훈 (한숨) 넘어올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요. 바람둥이도 상처
받으니까. (머리 쥐어뜯어, 빠진 머리카락 서울의 손에 쥐여주며)
러브스포일러 해보든지.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0일보단 많이 나오겠지.

영훈, 화난 걸음으로 사라지고.

혼자 남은 서울, 손바닥 펼쳐 영훈의 머리카락을 본다.

바람에 머리카락 하나 둘 날리고...

한 가닥 남았을 때 서울이 주먹을 꽉 친다.

#46. 아트센터/공연장(밤)

연습 중인 대일과 다인.

객석에 앉은 서울. 시선은 무대를 향하지만

온 신경은 뒤에 앉은 영훈을 향한다.

영훈 (마이크) 여기까지 할게요.

가방 챙기면서도 영훈을 힐끔힐끔 보던 서울, 영훈에게 가려는데...
유진, 공연장 문 열고 들어온다. 왼쪽 손에서 팔까지 봉대 감겨 있다.
장비 정리하는 영훈 옆에 서는 유진.

유진 아트센터 오늘 회식인데 같이 식사하러 가세요.
어제 일, 인사도 드리고 싶고.
영훈 네, 술 한잔 해야겠네요. 가시죠. (먼저 나간다)

나가는 영훈과 유진의 뒷모습 보는 서울.

#47. 식당(밤)

식사 중인 아트센터 직원들 사이에 마주 앉은 유진과 영훈.
영훈이 자기 잔과 유진 앞에 놓인 잔에 소주 따르고 두 잔을
내리 털어 놓는다.
그렇게 묵묵히 몇 번을 마신다.

캐스터(F) 지금 이 시각 서울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영훈 (놀라서 TV 본다)
캐스터(F) 낮부터 하늘을 뒤덮었던 구름이 걷히면서
서울은 맑은 밤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영훈 내가 사는 서울은 지금 잔뜩 흐려요. 비가 막 쏟아질 거 같아요.
감독님 사는 서울은 어때요?
유진 네? (영훈의 잔에 소주 따라준다)
영훈 감독님 이 노래 아세요? (노래 부른다 <서울의 찬가>)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으렵니다아~
유진 (귀엽다는 듯 웃는다) 노래 잘하시네요.
영훈 나요... (소주 마시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유진 서울 참 살기 좋죠?
영훈 그게 아니라아... 서울에서 혼자! 나 혼자 살고 싶다고요!
유진 (당황) 혼자 어떻게...

영훈 나갔음 좋겠어요. 다 나가줬음 좋겠어요!
이제... 좀 나가면 안 돼요?
유진 (나지막이) 그 착한 놈...

유진, 영훈의 빈 잔에 소주 가득 따라준다.

#48.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정문(낮)

비 오는 날. 서울, 수첩 펼치면 짧은 머리카락 끼워져 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돌아서다가 멈추는 서울.
새로 걸린 광고판에 시선이 멈춘다.

FLASH CUT #18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건물 광고판.
서로의 얼굴에 매직 찍히고 그어진 것 보고 배 잡고 웃는 두 사람.

서울, 정문으로 들어선다.

#49. 아트센터/복도(낮)

젖은 우산 접으며 걸어오던 서울,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유진을 본다.

유진 신기하네. 진짜 비가 막 쏟아지고.
서울 날씨를 기가 막히게 맞추네?
서울 응?
유진 착하더라, 김영훈 씨.

유진,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데 점점 가까워오는 발소리.
서울, 뒤돌면 영훈이 걸어오고 있다.
서울을 그대로 지나쳐 자판기 앞에 서는 영훈.
솔잎 음료 누르려다 말고 콜라 뽑는다.
묘한 정적 속에 영훈의 콜라 들이켜는 소리만.

#50. 아트센터/공연장(낮)

무대에 앉아 물 나눠 마시는 대일과 다인.
영훈은 장비 정리하고 있다.
서울이 무대 앞으로 간다.

서울 대일이네 자기 속도가 있는데,
다인이는 대일이 따라다니기 바쁜 것처럼 보여.
대일 너 나 좋아하나? 참아라!
다인 야, 완전 잘 참아지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 김대일, 문제는 너야 너. 다인이가 턴 하고 멈춰야 할 곳에 가서
기다려줘야 다인이라도 방향 잡고 안정적으로 턴 할 수 있지.
서로 자주 봐, 어디까지 와 있나.
대일 네!
영훈 (가방 메고 서울 뒤로 지나가며) 그렇게 잘 알면 자기나 잘하든가.

영훈, 공연장 나가고.
적막 속에 서울의 눈치 보는 대일과 다인.
서울, 가방 들고 급하게 영훈 따라 나간다.

#51. 아트센터/정문(밤)

영훈, 우산 펼치려는데 서울이 달려나온다.

서울 어디 가요! 동정이든 사랑이든 하자더니.
영훈 넘어올 것도 아니면서 그 애긴 왜 꺼내요.
서울 (가방에서 러브스포일러 봉투 꺼내며) 내가 영훈 씨 붙잡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요?
영훈 (서울에게 한 발 내딛는데)
이현(E) 오빠!

영훈, 뒤돌면 이현이 비 맞으며 서 있다.

영훈, 이현과 서울을 번갈아 본다.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는 서울.

이현 (그저 반가워 웃으며)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영훈, 망설이다 우산을 펼친다.
이현에게 달려가는 영훈.
영훈, 이현에게 우산 씌우더니 몇 마디 주고받는다.
둘의 뒷모습을 보다가 센터로 들어가는 서울.
영훈, 뒤돌아보면 서울은 이미 없다.

#52. 지하철 역 입구(밤)

서울, 우산 접으려는데 앞 사람이 우산 접으면서
서울에게 빗물 뒤집어씌운다.
얼굴에 튄 빗물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서울.

#53. 커피숍(밤)

이현의 머리카락에 맺힌 빗물이 똑똑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
해맑게 웃고 있는 이현과 덩덤한 얼굴로 커피 마시는 영훈.

이현 왜 말이 없어? 오빠랑 다른 남자랑 결과가 바뀐 거라고!
오빠랑 나 67일 아니라니까?
영훈 그래서 그 남자랑은 67일 만에 헤어졌고?
이현 응! 이상해서 러브스포일러 갔더니 머리카락이 바뀐 거였대.
빨리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잖아.
영훈 나랑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났던 너는 DRD4 유전자 3번 엑손에
48개 뉴클레오티드 몇 번이나 반복된대? 상위 몇 퍼센트래?
이현 오빠도 나도, 바람둥이 유전자는 없어. (히죽 웃는다)
완전 잘 됐지? 그리고 오빠랑 나랑 진짜 유통기한은...

영훈 그건 안 궁금하고. 나 정말 바람둥이 유전자 없는 거야?
 이현 응!! 진짜 다행이지!
 영훈 그래 다행이다 정말. (일어선다)
 이현 ...아직 화났구나. 내가 바보다 그치? 사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영훈 아냐, 나 지금 너한테 엄청 고마워. 그리고 너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확실하게 말해줄게. 세상에 너랑 나 둘만 남았다? 그럼 혼자 살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현 ...지금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훈 내가 왜 사랑을 포기해. 그 좋은 걸.

#54. 대로변(밤)

영훈의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물웅덩이 신경 쓰지 않고 달리기 시작하는 영훈.

#55. 편의점(밤)

벽시계 11시 57분.
 서울, 벽시계 보고 문밖을 본다.
 58분 되자 장바구니에 도시락 담는다.
 그때 서울의 시야에 다 젖은 운동화가 보인다.
 서울, 고개 들면 영훈이 땀 흘리며 웃고 있다.
 서울이 영훈의 턱 끝으로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쓱 닦아준다.
 영훈, 서울의 손을 잡는다.

영훈 아까 하려던 말, 계속 해봐요.
 나 붙잡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요?
 서울 뻘어요... 다른 여자 우산 씌워주려고 달려간 남자한테 무슨 말을 해.
 영훈 (괜히 건들대며) 바람둥인데 이해 좀 해줘요.
 서울 (기가 차서) 이런 사람을 내가...

영훈 나, 바람둥이 유전자 없대요.
 서울 (눈 동그래 보다가 폭 생기 않는다)
 그래서 그 여자 다시 만날 거예요?
 영훈 (손가락으로 서울 가리키며) 이 여자 만날 건데.

서울, 영훈 모르게 안도의 한숨 내쉰다.
 그때 영훈과 서울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린다.
 전화 받는 두 사람.

#56. 경찰서(밤)

나란히 앉은 서울과 영훈.
 형사가 모니터로 CCTV 영상 보여준다.
 모니터 - 영훈과 서울이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광고판에 낙서하는 모습.
 형사, 화면 정지하고 서울과 영훈을 매서운 눈으로 번갈아 본다.

형사 이 사람들 상습범이네 아주... 이제 하다하다 재물손괴까지!!
 이건 대체 누가 주도했어요?
 서울-영훈 (동시에 손든다)
 형사 쿵쾅, 쿵쾅... 아주 그냥... 둘 중에 누구! 아휴, 빨리 정해요!
 영훈 저요. 범죄 모의, 제가 했습니다.
 서울 범행도구는 제가 샀어요. 유성매직.
 형사 (둘을 한심하게 보며) 천생연분이다...

#57. 경찰서/정문(밤)

머리 헝클어져 피곤한 듯 눈 비비는 서울.
 영훈, 서울의 머리 손 빗질 해준다.

영훈 뭘 다 혼자 했다... 안티 러브스포일러는 내가 하자고 했는데.
 서울 나 위로하려고 하자고 한 거잖아요.

영훈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서울 동정하는데 누가 몰라.
 영훈 (억울) 내가 동정만 했어요? 동정만?
 서울 뭐 어때요. 둘 다 착한 건데.

손 내미는 서울. 영훈이 병병한 얼굴로 보다가 손을 잡는다.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서울과 영훈.

#58. 지하철(밤)

영훈, 지갑 열어 머리카락 감긴 하트 보여준다.

서울 뭐예요?
 영훈 윤서울 머리카락.
 서울 ...나 몰래, 러브스포일러 하려고 했어요?
 영훈 서울 씨가 계속... 물러서면요. 바람둥이 유전자 있다고
 유통기한이 짧게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누가 그래서.
 서울 나도 사실...

가방에서 러브스포일러 결과지 꺼내 영훈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 서울.
 실링락스로 밀봉된 '윤서울 님과 김영훈 님의 러브스포일러 결과'

영훈 왜 안 열어봤어요?
 서울 보고 싶으면 봐요. 난 이제 사랑유통기한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뜯을까 말까 망설이는 영훈.

CUT TO

손잡고 내리는 영훈과 서울.

영훈이 머리카락 감긴 하트 들면, 서울이 머리카락 잡아당긴다.

영훈이 서울 손바닥에 놓인 머리카락 후 붙면 허공에 날리는 머리카락.

딩 빈 지하철.

의자 위에 놓인 밀봉된 러브스포일러 결과지.

#59. 에필로그 1. 러브스포일러 연구소/접수 데스크(낮)

안도경이 데스크에 기대 영신의 표정을 살핀다.

안도경 100일... 지났죠?
 영신 네.
 안도경 유통기한이 수명보다 긴 남자 만나는 게 목표라면서,
 왜 100일짜리 연애를 한 거예요?
 영신 그렇게라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어요.
 안도경 로맨틱하네, 영신 씨...

멀리서 차 경보음 들린다.

안도경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달려나간다)

호원, 데스크 앞에 선다.

영신, 표정 변화 없이 사무적으로 호원을 대한다.

영신 DNA키트 가져오셨어요?
 호원 100일만 만날 건데 평생 사랑할 것처럼, 왜 그랬어요?
 그렇게 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냐고.
 영신 (얼떨떨해서 본다)
 호원 우리 만나요.
 영신 엇그제 헤어졌잖아요...
 호원 오늘부터 만나요, 다시.
 영신 (처음으로 웃는다)

#60. 에필로그 2. 러브스포일러 연구소 앞 골목(낮)

안도경, 달려나오다가 코를 막으며 주춤한다.

안도경의 하얀 세단에 까나리액젓을 통째로 붓고 있는 한 여자.

안도경 뭐,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여자, 뒤돌아보면... 이현이다.

이현, 빈 까나리액젓 통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안도경 째러본다.

#61. 에필로그 3. 유실물 센터

선반에 놓이는 러브스포일러 결과지.

유실물 센터의 불이 꺼진다.

끝.

작가 후기

저의 작가됨을 진정으로 원하셨던 단골 마사지숍 원장님에게 오픈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축하와 함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은주야, 소고기 같은 드라마 말고 삼겹살 같은 드라마 써줘.

소고기는 더 시키려면 눈치 보이고 부담스럽잖아.

삼겹살은 ‘오늘은 내가 살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해.

드라마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 말에 왜인지 속이 후끈거렸는데, 센터장님과의 첫 면담에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각박한 주머니 사정에도 소고기 같은 드라마를 쓰려 했던 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러브스포일러〉의 수정 방향은 ‘삼겹살’이었습니다.

느낌과 느낌 사이를 메우려 무리해서 가져온 설정들, 켜켜이 쌓인 대사들을 버리고 바로바로 집어 먹기 좋은 설정과 감정으로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수정을 거듭할수록 잘 드러나지 않던 주제가 부표처럼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써야 할 미니시리즈의 방향을 잡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해준 오픈 4기 작가님들과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선화
꽃잎
물들기까지

신시우

추락 직전의 비행기 안에서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말을 적는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겨진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삶의 종말이 다가오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말을 적는 심정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글에는 얼마나 솔직한 진심이 담겨 있을까?

여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수조차 없는 소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조차 듣지 못한 선생님이 있다.

어긋난 두 사람이 만나 어긋난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선생님은 소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글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듯,
소년은 어머니에게 시를 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선생님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나는 괜찮으니 부디 슬퍼하지 말라고.

등장인물

차선화(19세, 남) 소년교도소 복역수

‘시인이 되고 싶은 반항아’

살인죄로 17살 때부터 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소년이다.
성범죄 피해자인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가해자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
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선화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삶을 끝낼 각오를 했으니 후회도 없다고.
교도소에서 삶의 종말 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재경을 만난다.
재경은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지난날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재경의 복수를 도우며 선화는 차츰 깨닫는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재경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재경(41세, 여) 소년교도소 문예부 선생님

‘살인자가 되고 싶은 선생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딸이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은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재경은 몇 년간 범인을 찾아 헤맸다.

그 끝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년이 소년교도소에 있음을 알게 된다.

딸의 복수를 위해 재경은 칼을 숨기고 소년교도소의 선생님이 되어간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위해 살인자가 되어 복역 중인 소년 선화와 만났고,

재경은 선화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선화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복수를 멈출 수가 없다.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리니까.

김윤숙(46세, 여) 선화의 어머니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되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은 없었다. 배움은 내 아이가 울고 있었으니까.

젖도 떼지 못한 선화를 등에 업고 미싱을 돌려 생계를 연명했다.

아들에게는 매일 챗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자신의 인생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초라해지지 않게, 뺨뺨이 고개를 들고 살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선화는 지금 살인자가 되었다. 그것도 자신 때문에.

강창우(19세, 남) 소년교도소 복역수

절도죄로 소년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보다 더한 범죄를 숨기고 있다.

살인을 하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완전 범죄라고 철저히 믿었다. 선화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박 교도관(38세, 남) 소년교도소 주임 교도관

어머니를 위해 살인자가 되어 7년형을 선고받은 선화가 안쓰러워 잘해준다.

정이 많고 따듯한 사람.

이대철(51세, 남)

선화가 죽인 남자이자 트라우마.

선화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형체가 되어 나타난다.

그 외

교도관과 소년수들

줄거리

어머니를 위해 살인자가 되어 7년형을 선고받은 소년 선화.

자신이 살해했던 남자를 보는 환각에 시달릴 만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삶의 종말 같은 시간을 보내던 때, 그의 앞에 재경이 나타난다.

딸을 잃고 복수를 결심하여 소년교도소에 선생님이 되어왔다는 재경.

범인으로 추정되는 창우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며 선화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선화가 살해했던 남자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돈이 필요했던 선화는 재경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재경의 계획을 돕고, 그녀의 감정을 느끼며 선화는 점차 깨닫는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니가 너무도 괴로워했고,

재경 역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재경 역시 바라게 된다.

선화가 자신의 진심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기를.

더는 괴로워하지 않기를.

재경은 선화에게 시를 써볼 것을 제안한다.

살인자 소년수는 시를 쓰기로 결심한다.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닮은 재경을 위해서.

#1. 교도소 외부 주차장(낮)

교도소가 보이는 외부 주차장. 세단 한 대가 들어선다.

#2. 재경의 차 안(낮)

운전석, 세련되고 단정한 옷차림의 재경(41세, 여).
조수석에 놓인 박스에서 칼을 꺼낸다. 이미 손잡이와 날이 분리된 칼.
재경은 단화를 벗어 밑창을 뜯고,
안에 칼날을 넣어 본드로 단단히 고정한다.
다시 신발 신고, 룸미러 보며 화장 점검 후 심호흡하고 차에서 내린다.

#3. 교도소 정문(낮)

박스를 들고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가는 재경의 뒷모습.
파란 간판에 쓰인 글귀가 보인다.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4. 검문소(낮)

교도관1(30대, 여)에게 검문받는 재경.

교도관1 귀걸이나 반지는 다 빼주시겠어요?
재경 네.

반지를 빼서 떨어뜨리는 재경. 금속 탐지기 게이트 안으로 반지 굴러간다.
게이트 통과해도 아무 소리 나지 않고.

교도관1이 급히 주워 재경에게 건네준다.

재경 죄송해요. 요즘 살이 빠져서 반지가 잘 빠지네요.

교도관 미소만. 반지 받아 들고 검수 상자에 넣는 재경. 귀걸이를 빼며.

재경 그런데 금속만 들어갔을 땐 소리가 안 나네요?
교도관1 아, 네. (멋쩍게) 수용자 통과가 감지돼야 작동을 해서요.
교체 신청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바뀌주네요.

재경 외부에는 알리지 말아주시겠어요? 곧 교체할 거라서...
그럼요.

재경의 시선이 노후된 금속 탐지기 게이트를 훑는다.
귀걸이를 다 뺐 재경이 금속 탐지기 게이트를 지나면, 삐 소리 울린다.
교도관1이 핸드형 금속 탐지기로 재경 훑는다. 흔들림 없는 재경의 표정.
신발 부근에서 탐지기가 울리고, 교도관이 재경의 단화 금속 장식을 본다.

교도관1 신발 한 번만 벗어보시겠어요?

재경이 신발을 벗고, 교도관1이 신발을 살펴본다.
그 순간, 검문소 문이 열리고 박 교도관(38세, 남)이 들어선다.

박 교도관 빨리 오셨네요, 선생님.

교도관1, 별다른 의심 없이 바닥에 신발 놓는다. 신발 신으며 답하는 재경.

재경 네. 차가 안 밀려서요.

박 교도관 다행이네요. 교도소 좀 둘러보시겠어요? 교무실도 보시고요.
재경 (웃으며)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죠.

#5. 운동장(낮)

운동장 외곽 걷는 박 교도관과 재경. 박 교도관이 재경의 상자 들고 있다.
운동장 가운데서는 소년수들이 체조 중이다.

박 교도관 소장님께 문예반 프로그램 먼저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재경 아, 네. 제가 원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요.
박 교도관 대단하시네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가르치시던 학생들과는 많이 다를...

(E)팩! 소리가 나서 돌아보면,
운동장 가운데 창우(19세, 남)가 나자빠져 있다.
그 앞에 선화(19세, 남)가 주먹 말아 쥐고 서 있다.
곧 뒤엉켜 싸우는 두 사람.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가 두 사람을 제지하지만,
거친 주먹질이 오간다. 엉망이 된 두 사람의 얼굴.
제지되는가 싶더니, 다시 선화가 달려들어 창우의 얼굴 때린다.
재경이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곳을 주시한다.

박 교도관 저놈들 또 저러네...
다시 걷는 박 교도관. 재경이 따라오지 않아 돌아보면.

박 교도관 선생님?
재경 아, 네. 갈게요. (나란히 걸으며) 저 친구들은 자주 싸우나 봐요?
박 교도관 네. 좀 거친 놈들이어서요.
재경 거칠다면...
박 교도관 여기서도 유독 죄질 높은 애들이거든요. 살인죄인 놈도 있고...
뭐 재들도 여기 있으면 그냥 사람이지만요.
재경 (침묵 후) 사람의 범주가 참 넓긴 하죠.
박 교도관 네?
재경 아니에요. (웃으며) 교무실은 어디죠?

#6. 재경 교무실(낮)

교무실로 들어서는 재경과 박 교도관.
박 교도관이 테이블 위에 박스를 올려놓는다.

박 교도관 청소한다고 했는데, 쾌적하지는 않네요.
재경 이 정도면 괜찮아요. 상담하기도 좋을 것 같고.
박 교도관 수업 말고 상담도 하시나요?
재경 네. 문학 심리 상담이라고, 요즘에는 글을 읽고 쓰는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교도소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더 필요한 일이고. 소장님께서도 환영하시더라고요.
박 교도관 수감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재경 아, 혹시 수감자들이 지내는 방도 제가 볼 수 있나요? 지내는
환경을 보면 나중에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려울까요?
박 교도관 소장님 허가가 있어야 해서요.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상담
때문이라면 아마 긍정적으로 답하실 거예요.
재경 감사해요.

상자에서 책과 머그컵 등의 집기를 꺼내 정리하는 재경.

재경 아까 싸우던 친구들 있잖아요. (박 교도관이 보면)
문예반으로 데려오면 어떨까 싶은데.
박 교도관 네? 어...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재경 데려오는 데 뭐 문제 있나요?
박 교도관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그 애들은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재경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왔겠어요. 제가 원래 도전정신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정도는 되어야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박 교도관 하하.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 놈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재경 (쳐다보면)
박 교도관 자살시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7. 화장실(낮)

거울에 물이 끼얹어진다. 물 흘러내리고 나면, 대걸레질하는 선화 비치고.
 상처투성이 선화, 두통이 일어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인상을 쓴다.
 신경질적인 모습에 청소하는 소년수들이 흘끔 눈치를 본다.
 대걸레질하는 선화의 뒤로 사복을 입은 남자의 다리가 언뜻 보인다.
 선화가 허리를 펴고 몸 돌리면, 구석에 있던 남자의 모습 온전히 드러난다.
 이대철(51세, 남). 죄수복 아닌 평상복 차림,
 배에 자상을 입어 피가 흘러내린다.
 무표정하게 선화의 행동을 주시하는 대철. 대철을 보다 시선 돌리는 선화.
 소년수들 중 누구도 이대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 교도관, 선화 보며.

박 교도관 인마, 얼굴이 그게 뭐냐?
 선화 (얼굴 만져보고)
 박 교도관 평소엔 얌전한 놈이 왜 강창우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선화 시비는 항상 개가 먼저 걸어요.
 박 교도관 말을 말자. 너 문예반 들어갈 생각 있어?
 선화 문예반이요?
 박 교도관 이번에 심성 치료 프로그램 새로 시작했는데, 초빙한 선생님 꽤 유명하신 분이야. 대학교수인데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거 같은데, 너는 소장님이 개인 상담 받아보라고 하셨어.
 선화 ...안 하면 안 돼요?
 박 교도관 안 되지.
 선화 (불만스러운 표정)
 박 교도관 아까 너네 싸우는 거 보시더니 직접 케어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좋은 기회니까 너도 그냥 해봐.
 선화 (못마땅) 네.
 박 교도관 사고 그만 치고 너도 적응해야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박 교도관이 선화 어깨 툭툭 두드리고 나간다.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로 선화의 시선 떨어지고.

웅덩이에 비치는 자신의 어두운 낮빛을 가만히 응시하는 선화.
 대철에게서 흘러나온 핏물이 섞여 웅덩이가 점차 붉어진다.
 흘러내리는 핏물 따라 시선 들면, 뚫어져라 선화를 보는 대철이 서 있다.

#8. 재경 교무실(낮)

재경이 절연 테이프를 뜯는다.
 펜 네 개로 손잡이를 만들어 칼날과 함께 칭칭 감아 고정한다.
 칼을 바라보다 서랍에 넣어두고, 책상의 서류철을 넘긴다.
 선화와 창우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나란히 두고 한참 바라본다.

#9. 강의실(낮)

선화와 창우, 소년수들이 앉아 있는 문예반 강의실. 재경이 들어온다.
 숙덕이는 수강자들을 말없이 둘러보는 재경, 잡음 찾아지자 입 연다.

재경 교도소에서 쓰는 말들 한번 말해볼까요?

망설이던 소년수들, 재경이 기다리자 몇몇이 손을 들고 말한다.

소년수1 교도관님이요.
 소년수2 배식!
 소년수3 6번 번호 끝!
 소년수4 가슴이요!

소년수4가 이쪽거린다. 소년수4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이 터진다.
 제재하는 교도관들.

재경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해자가 사용했던 단어들은 기억하시나요?

일동 침묵에 잠긴다.

재경 피해자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고통일 텐데,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고통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내장을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는 건 느껴지는 깊이가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피해자들의 언어를 습득했으면 합니다.

표정 굳히고 소년수들 바라보는 재경.

재경 그리고 그 고통을 실감하세요.

강의실 내부가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재경 분위기 바꾸듯 웃으며.

재경 가벼운 것부터 해볼까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을 오감을 사용해서 작성해보세요.

각자 종이에 글을 적는 수감자들.

낙서하는 수감자, 글 쓰며 훌쩍이는 수감자, 옆드려 자는 수감자들 보인다.

창우는 제 패거리와 떠돌고 있고, 선화는 백지만 가만히 응시한다.

#10. 재경 교무실(낮)

책상 앞에 앉은 재경이 수감자들이 쓴 글을 본다.

노크 소리에 고개 들면, 박 교도관의 인도를 받고 선화가 들어선다.

재경의 맞은편 의자에 앉는 선화. 재경이 문 앞에 선 박 교도관 보며.

재경 상담은 둘이서만 해야 해서요.

박 교도관 아, 네. 그럼 밖에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선화 (심드렁하게) 상담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재경 그건 네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선화 그럴 자유도 없어요?

재경 범죄자한테도 자유가 있니?

선화 (헛웃음) 우리 가르치겠다고 온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담히 종이만 보던 재경 고개 들고.

재경 저번에 친구랑은 왜 싸웠니?

선화 누구요?

재경 강창우.

선화 친구 아닌데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재경 뭐 이해는 해. 살다 보면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선화,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면, 재경이 진지하게 선화 시선 받는다.

재경 나도 죽이고 싶은 사람 있거든.

선화 (인상 쓰며) 지금 내가 사람 죽였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재경 시비는 아니고 순수한 궁금증. 사람 죽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서.

선화 상담하기 참 쉽네요. 이판 식으로 돈도 벌고, 선생님 소리도 듣고.

재경 어머니 때문에 죽었다면서.

선화 (표정 굳고)

재경 너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한 일이겠지만, 너희 어머니 인생은 참 비참해지셨더라.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 교도소에서 썩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떠실까.

선화 (인상 일그러지고)

재경 죽고 싶을지도 모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선화. 책상 위에 있는 집기들을 옆으로 밀친다.

우당탕 떨어지는 집기들. 선화가 위협적으로 재경을 바라본다.

급히 들어서는 박 교도관. 선화를 제지한다.

박 교도관 (재경 향해) 괜찮으세요? (선화 보며) 너 뭐 하는 거야?

재경 (평온하게 미소) 괜찮아요. 애기 중이었어요.

나가 계셔도 괜찮아요.

박 교도관 아니 그래도….

재경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 교도관의 제지에 선화가 자리에 앉지만,
재경을 향한 시선 여전히 매섭다.
망설이던 박 교도관이 재경의 고덕임을 보고 밖으로 나간다.

재경 너희 어머니 소송당하셨다더라. 네가 죽인 그 남자 가족들한테.
선화 (놀라서 보면)

재경 징역 7년이 과한 형벌이라고 홀로 시위하시다 그렇게 됐다더라고.
넌 몰랐겠지만.

선화 (당황스럽고, 흔들리는 선화)

재경 소송에 따르는 비용, 어머니 생활비 내가 다 지원해줄게.
선화 뭐라고요?

재경 너 같은 범죄자가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거 같아?
감옥에서 썩고 나간 후에도 어머니 인생 책임지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니?

선화 (화 참으며 조용히) 교도소에서 죽어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면
그 입 닥치지 그래요.

재경 죽는 게 두려웠으면 너 같은 살인자한테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선화 (기가 막혀서)

재경 부탁할 게 있어.

선화 …?

재경 너랑 싸웠던 강창우, 죽어야 해.
선화 (황당해서) 당신 미쳤어?

재경 네가 도와줘.

선화 (헛웃음) 내가 살인까지 했다고 청부 살인 업자라도 된 줄 알아?

선화,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선화 무슨 개수작인지 모르겠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다시는 나 불러들이지 마.

밖으로 나가는 선화. 선화가 나간 문을 응시하다 한숨 쉬는 재경.

#11. 5호실(밤)

잠들어 있는 선화. 안색이 좋지 않고,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있다.
악몽을 꾸는 듯 한참 뒤척인다.

#12. 회상. 선화의 집(밤)

좁고 단출한 선화의 집.
거실에 선화의 어머니 윤숙(46세, 여)과 대철 서 있다.

윤숙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다가가는 이대철과 몸부림치는 윤숙.
그때 교복 입은 선화가 집으로 들어선다.
급히 대철과 윤숙 떼어놓고, 대철과 몸싸움 벌이다 밀려 넘어진 선화.
분에 차 주먹을 그러진다. 그런 선화의 시야에 들어선 부엌의 칼.
빠르게 일어서 칼을 가지고 와 순식간에 대철의 배를 찌른다.
대철이 쓰러지고, 칼을 놓은 선화.
피가 흥건한 자신의 손을 망연히 바라본다.

#13. 5호실(밤)

번쩍 눈을 뜬 선화. 거칠게 호흡하다 몸을 일으켜 앉아 식은땀 뺀다.
구석에서 이대철 발끝 발견하고, 신경질적으로 토로한다.

선화 당신 같은 사람 죽인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

눈빛 흔들리는 선화.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며 깊은 한숨 내쉰다.

#14. 강의실(낮)

재경이 수업 중인 강의실.

책상에 반쯤 엎드려 들어오는 햇살만 보고 있는 선화.

재경 글을 쓰기 위해서는 쓰는 것만큼 많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낭독 한번 해볼까요?

낮간지럽다는 반응의 소년수들.

그때 손을 든 소년수1이 인쇄물 들고 시 읊는다.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장난스러운 목소리의 소년수1.

소년수1 별 헤는 밤.

소년수1의 목소리에 질타가 이어진다. 곳곳이 시 읊는 소년수1.

소년수1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시 들고, 엎드려 있던 몸 천천히 일으키는 선화.

윤숙(E)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15. 회상. 선화의 집(낮)

거실에 앉아 있는 윤숙과 교복 입은 선화.

윤숙이 시집 읽어주는데, 설렁설렁 들으며 핸드폰 게임하는 선화.

윤숙(E)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선화 보고) 집중 좀
해보라니까?

선화 아, 이기고 있었는데. (핸드폰 놓고) 다 낡은 시집을 왜 들고 다녀?

가방만 무겁게.

윤숙 시 좋잖아. 예전에 엄마 시인 되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

선화 시인?

윤숙 응. 엄마 왕년에는 상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다?

선화 진짜? 거짓말.

윤숙 애가 엄마를 뭘로 보고. 같은 반 애들이 편지 좀 대신 써달라고
줄을 설 정도였다니까?

선화 에이, 못 믿겠는데.

윤숙 애가 진짜.

윤숙이 선화를 타박하고, 방 안에 웃음 번진다.

윤숙 (시집을 들고) 보기만 해도 위안이 되는 시들이 있잖아.
그걸 보면 글에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지.

#16. 강의실(낮)(#14 연결)

소년수1 보다 다시 엎드리는 선화. 창밖 보며 나른하게 눈만 깜빡인다.
시간이 흐르고, 수업 끝난다. 교도관 인솔에 따라 밖으로 나오려는 선화.
강의실 밖에서 박 교도관이 선화를 따로 부른다.

박 교도관 접견 요청 왔다.

#17. 접견실 앞 복도(낮)

박 교도관과 접견실로 향하는 선화. 접견실에 들어서기 전, 머뭇거리다.
정신 차리려는 듯 고개 젓고 문 여는 선화.

#18. 접견실(낮)

선화가 접견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크릴 벽 너머 의자에 앉아 있던
윤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윤숙 쳐다보지 않고 맞은편에 앉는 선화.
의자 끄트머리에 걸쳐 앉아 선화를 바라보는 윤숙.
헐쭉하고 초췌한 모습이다.
마주 앉아 침묵하는 두 모자. 선화가 먼저 무겁게 입 연다.

선화 시위하다 소송당했다며.
윤숙 (놀라서) 그걸 네가 어떻게... (표정 굳히고) 별일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야.
선화 제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윤숙 선화야. 그러지 말고 재심 청구하자. 응? 네가 반성문이라도
지속적으로 보내면...
선화 뻘대니까, 나 그 새끼 죽였던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윤숙 그럼 계속 여기서 살겠다고? 너 곧 있으면 성인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낼 거야?
선화 ...
윤숙 그러게 네가 왜 나섰어, 왜!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선화 (발끈해서)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었어? 엄마 이대철만 봐도
벌벌 떨었잖아. 그 새끼는 짐승 같은 짓 해놓고도 우리 집
들락거렸어. 엄마 꽃뱀으로 몰아놓고, 태연하게 집적거렸잖아.
내가 그걸 그냥 뒀어야 해?
윤숙 그렇다고 네가 그럴 필요까진 없었어!
네 인생을 왜 네 손으로 망가뜨려!

손바닥에 얼굴 묻고 흐느끼는 윤숙. 그 모습 보며 참담한 선화.

선화 엄마, 엄마가 뭘 하든 사람들 우리 말 안 믿어.

윤숙 고개 들면, 눈물에 젖은 얼굴 보인다.

선화 이대철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든, 엄마는 그냥 이대철한테
여지나 준 꽃뱀이고, 나는 그냥 머리 비어서 살인까지 저지른
아들이야. (한숨)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그만하고 엄마 인생 살아. 어?
윤숙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어떻게...
선화 ...그럼 내가 엄마 자식 안 할게.
윤숙 (놀라서)
선화 엄마도 내 엄마 아니고, 나도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면 똥잖아. 그냥 없는 셈 치고 엄마 인생 살아.
윤숙 선화야.

자리에서 일어서는 선화. 덩달아 윤숙도 일어서 간절히 선화 바라본다.

선화 면회 다시 오지 마. 와도 안 받을 거니까.
윤숙 선화야. 선화야!

단호하게 등 돌리고 밖으로 나가는 선화. 홀로 남겨진 윤숙, 눈물 쏟는다.

#19. 재경 교무실(낮)

건조한 얼굴로 창밖 바라보던 재경. 테이블 위의 핸드폰이 울린다.
핸드폰 화면에 뜨는 '전남편' 한숨 쉬고 전화 받는 재경.

재경 왜.
전남편(F) 당신 진짜 교도소 간 거야? 어찌려고 이래?
재경 출소까지 몇 달 안 남았다고 말했잖아.
전남편(F) 개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한 상황도 아니잖아!
제발 일 저지르지 말고 차분히 좀...
재경 당신 그 어설픈 태도가 애 죽인 거야. 알아? 당신이 나현이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썼어도 우리 애 그렇게 안 됐어!
전남편(F) 그러는 당신은 잘했어? 당신도 바쁘다고 애한테 신경 잘 못

재경 (짜꿨잖아!
(말문 막히고)
전남편(F) 이제 그만 좀 하자. 대체 몇 년째 이러는...
재경 신경 끄고 새 가정에나 신경 써.

단호하게 전화 끊는 재경. 깊이 한숨 내쉰다.

#20. 회상. 강변(밤)

강변의 풀숲. 경찰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흰 천으로 덮인 시신 보인다.
차에서 내린 재경이 흘린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시신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앉는 재경. 경찰관들이 재경을 부축한다.
참담한 표정의 재경.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21. 재경 교무실(낮)

눈 감고 호흡을 고르는 재경. 눈을 뜨고 서랍에서 칼을 꺼내 본다.
날카로운 칼끝을 바라보다 코트 주머니에 넣고 교무실을 나서서 재경.

#22. 강의실 앞 복도(낮)

강의실에 가기 위해 교도관을 따라 일렬로 줄지어 오는 소년수들.
재경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가온다.
마주 오는 소년수들 속 선화, 안색 좋지 않다.

FLASH CUT #12, #18
선화가 이대철을 살해하는 장면과 윤숙이 우는 모습 반복되며 떠오른다.

인상 쓰며 머리 짙는 선화. 복도 기트머리에 있는 발끝 발견하고 고개 든다.
이대철을 본 순간, 날카로운 이명이 반복된다. 살짝 비틀거리고.

마주 오는 재경, 선화를 지나치고 창우와 가까워진다.
코트 주머니 속 재경의 손이 파르르 떨린다.

FLASH CUT #20
딸이 죽은 장면 떠올리는 재경.

창우가 완전히 근접했을 때, 재경이 주머니 속에 든 칼을 꺼내 들러 한다.
반쯤 칼날이 나온 순간, 재경 뒤에서 걸던 선화가 쓰러진다.
몰려드는 교도관들. 급히 칼날을 숨기는 재경.

박 교도관 어? 야, 차선화!

#23. 의무실(낮)

의무실로 조심스레 들어서는 재경.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문 닫는다.
긴장한 표정으로 병상에다가 다가가 커튼 거두면, 누워 있는 선화 보인다.
입술 거스러미 뜯으며 초조해하던 재경.

선화 안부 물어온 건 아닐 테고.

선화가 스르르 눈을 뜨자, 재경이 흠칫 놀란다. 몸 일으켜 앉는 선화.

선화 내가 뭘 본 건지 확인하려고요?

재경 (눈빛 흔들리고)

선화 칼은 왜 가져온 거예요?

FLASH CUT #22
선화가 쓰러지는 순간, 선화의 시야로 재경이 보인다.
코트 주머니 밖으로 반쯤 나온 칼을 급히 넣는 재경. 눈 마주치는 두 사람.

선화 강창우 찌르려던 거죠?

재경 ...

선화 진심이었어요? 강창우 죽여달라던 거.

재경이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는다.

재경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선화 그럼 선생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재경

선화 왜 죽이려고 하는데요?

재경 개가 내 딸을 죽였거든.

선화 (놀란 눈) 죽었다고요? 개는 절도죄로 여기 온....

재경 강변에서 익사한 채로 딸이 발견됐었어.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고.
(말 잇기 버겁고) 그럴 애가 아니어서 계속 알아봤는데,
쫓아다니던 애가 있었다더라고.

선화 ...경찰 쪽에 얘기는 했어요?

재경 (조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더라고. 발견이 늦어 부검도
소용없었고... (한숨 후, 심각한 선화 보며) 너라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야. 억울한 심정은 나만큼이나 잘 알
테니까. 지금 얘기도 남한테 했으면 안 믿어줬겠지.

선화가 재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깊은 침묵 흐르고.

선화 실패했을 거예요.

재경 (선화 보며)

선화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체구의 사람이
강창우 같은 놈을 찔러 죽일 수는 없어요. 상처 내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찔러 넣는 일에 생각보다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설픈
사람은 손에 상처만 생길걸요.

선화가 제 손바닥 바라보고는, 다시 담담히 재경을 본다.

선화 뼈가 있는 질긴 고기를 한 번에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경 (눈에 띄게 표정 굳어지고)

선화 그런 표정인 거면 아직 각오 없는 거 아니에요?

재경

선화 내가 도와주면, 저번에 말했던 거 정말 들어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배상액, 생활비 다 지원해준다는 거.

재경, 살짝 놀라 바라본다. 시선 공유하는 두 사람.

재경 약속할게.

선화 어떻게 믿어요?

재경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살인을 계획한다고 알려도 돼. 네가
쓰러지던 순간에 내가 칼을 꺼내는 게 CCTV에 찍혔을 테고.

선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좋아요. 뭐부터 하면 되는데요?

#24. 수감실 복도(낮)

수감실이 늘어진 복도를 걷는 재경과 박 교도관.

재경 소장님이 허가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박 교도관 네. 사실 볼 건 딱히 없지만요.

재경 그래도 상담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살고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상담자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재경, 6호실이라 쓰인 방을 바라보다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박 교도관 보고 웃으며.

재경 안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재경(E) 교도소 내부를 구경시켜주기로 했어.
강창우의 방에서 반지를 찾아야 해.

#25. 회상. 의무실(낮)(#23 연결)

선화 반지요?

재경 내 필체로 각인해뒀던 반지야. 딸이 발견됐을 때 반지만 없었어.

선화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면, 재경이 괴로움을 참으며 인상 쓴다.

재경 경찰 쪽에서는 단순 분실일 거라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선화 교도소에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팔았거나.

재경 나현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창우가 절도죄로 체포됐어. 개가 지내던 곳 인근의 금은방, 전당포, 심지어 인터넷까지 몇 년 간 찾아봤지만 없었고. 체포 당시에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선화 가지고 들어왔으면 검문소에서 걸렸을 거예요.

재경 그건 내가 확인했어. 금속 탐지기에 물건만 지나가게 하면 반응을 안 해.

FLASH CUT #4

금속 탐지기 게이트 안으로 일부러 반지 떨어뜨리는 재경.

재경 다른 교도소 수감자들이 물건을 반입할 때 쓰던 방식이야.

강창우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선화 그래도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재경 그 없는 가능성 찾아서 강창우인 거 알아낸 거야.

네가 도와주면, 찾을 수 있어.

#26. 화단 앞(낮)

일렬로 이동하는 소년수들, 가장 뒤에서 걷고 있는 선화.

주머니에서 건전지와 잘라둔 은박지 꺼낸다. 미리 테이프로 붙여놓은 은박지를 건전지에 연결하고, 화단 위 낙엽을 모아놓은 더미에 던진다.

머지않아 은박지에서 불이 붙고, 낙엽에 옮겨붙으며 연기가 난다.

#27. 교도관 사무실(낮)

일하던 교도관2. 창밖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급히 밖으로 나간다.

#28. 6호실 앞 복도(낮)

재경과 박 교도관이 6호실 안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교도소 전체에 소방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직업훈련을 가지 않은 몇몇 수감자들이 놀라 소란을 떠난다.

소년수3 뭐야, 불났어?

소년수4 우리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지는 소년수들을 본 박 교도관. 다가가서 진정시킨다.

박 교도관 안 죽으니까 다들 진정해.

교도관들이 와서 수감실의 문을 열고, 복도에 소년수들을 일렬로 세운다.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년수들. 그 틈을 타 재경이 6호실 안으로 들어선다.

#29. 6호실(낮)

비좁은 6호실 안, 재경은 닥치는 대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불장, 서랍장 등 마구 뒤진다. 그러나 반지는 보이지 않고.

#30. 화단 앞(낮)

불이 번진 화단, 교도관2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불이 꺼진다. 자욱한 연기 올라서고, 교도관2가 발로 화재 흔적을 뒤적인다. 무언가 걸려서 보면, 불에 타 비틀어진 건전지다.

교도관3 그게 뭐니까?
 교도관2 건전지랑 은박지. 요즘 수감자들 이런 식으로 머리 써서
 담배 태운다더니….

#31. 6호실(낮)

계속해서 반지 찾고 있는 재경.

박 교도관(E) 불길 진압되었다니까 다들 들어가.

바깥의 소리에 흠칫 놀라는 재경. 근접한 발소리에 다급해진다.
 마구잡이로 뒤져보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앉은뱅이책상 서랍 구석에서 구겨진 사진을 발견한 재경.
 즉석 사진 자판기로 찍은 나현과 창우의 사진이다.
 재경의 얼굴에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 붉어진다.
 그때 6호실 문 열리고, 급히 일어서며 코트 주머니에 사진 넣는 재경.
 돌아보니 창우와 6호실 소년수들이 서 있다.
 창우를 보다 다급히 6호실을 나서서 재경.
 창우의 의아한 시선이 재경 쫓는다.

#32. 재경 교무실(낮)

자리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는 재경. 두통에 머리를 짚는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선화가 들어와 재경의 맞은편에 앉는다.

선화 표정 보니 못 찾았나 보네요.
 재경 …반지 말고, 이걸 찾았어. (사진 내밀면)
 선화 애가 딸이에요?
 재경 (고개 끄덕) 사진에 반지까지 찾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전에는 같이 찍은 사진, 연락 기록….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

선화 찾을 수 있겠어요? 체포돼서 가던 중에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재경 꽤 값나가는 반지였어. 알아봤으니 흠쳐 간 거겠지. 굳이 버리진
 않았을 거야. 분명 이 안에 있을 텐데….

재경, 초조한 얼굴로 엄지손톱 거스러미를 연신 긁는다.
 정돈이 잘 된 나머지 손톱에 비해 피가 고여 있는 손톱.
 선화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재경의 손을 향하는데, 번뜩 고개 드는 재경.

재경 여기 오자마자 사고를 쳐서 독방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
 혹시 독방은….
 선화 거긴 한 평도 안 돼요. 나도 가봤지만 물건 숨겨둘 만한 곳도 없고.
 재경 (한숨)
 선화 다른 곳도 찾아볼게요.
 재경 …그래. 일단 책 펴.
 선화 (책 펼치고) 구실도 참 그러네요. 살인 도와달라고 해놓고
 치료 상담을 하고.
 재경 그건 그거고.
 선화 (심드렁하니 어깨 으쓱인다)
 재경 오늘은 뭐라도 써보자.
 선화 뭘요?
 재경 그냥 아무거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선화 귀찮은데….
 재경 그래도 시 수업은 열심히 듣는 편이잖아.
 선화 제가 언제요?
 재경 그때만 안 자고 듣고 있잖아.
 선화 (민망해서 머리만 긁적)
 재경 저번에는 아예 백지로 냈던데, 이번에는 뭐라도 적어봐. 음….
 선화 그래. 마지막으로 봤던 어머니 모습 적어볼래? 오감을 사용해서.
 선화 …왜요?
 재경 심리 치료는 뭘 두려워하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
 선화 근데 왜 엄마 모습을 적어요?
 재경 지금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머니일 테니까.

선화, 연필 쥐었지만 머뭇거리다. 한참 망설이다 재경 보며.

선화 왜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재경 (갑자기?) ...그러는 너는?

선화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남편은 없고, 애는 있는 아줌마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떤 애기가 도는 줄 알아요? 외로워서 그랬겠지. 저도 언질을 쫓겠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성범죄를 젊은 사람들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새끼도 죄책감은 전혀 못 느꼈고.

재경 (안타깝고)

선화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계속 생각하긴 했어요. 그 새끼가 안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겠다고.

재경, 설블리 입을 열지 못한다.

선화 선생님은 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재경 (생각에 잠겼다가) 어머니까.

선화 ...

재경 그 애 엄마인 이상, 하루라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FLASH CUT #18

윤숙이 우는 모습 떠올리는 선화.

긴 침묵이 흐르고, 고개 숙인 선화가 사각사각 연필을 움직인다.

한참 후, 선화가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잇는다.

선화 칼, 저 주세요.

재경 (고개 들고)

선화 선생님은 못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햇살이 들어선다. 가만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재경이 무겁게 입 연다.

재경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너한테 그런 일 시키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 (침묵 후) 그냥 너는, 반지 찾는 것만 도와줘.

시간 경과. 선화가 나간 교무실. 재경이 선화가 글을 적은 종이를 집어 든다.

선화(NAR) 어깨는 움츠려 있었고, 싸구려 분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절망스러웠다. 내 입안은 찢고, 손끝은 차가웠으며, 가슴은 내내 아팠다.

종이 한참 바라보는 재경. 쓴웃음 짓다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33. 강의실(낮)

수업 끝나가는 분위기. 책 접는 재경.

재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인사하는 소년수들. 재경이 앞문으로 나가려 하는데, 떠들썩한 소년수들 속에서 창우 목소리 들린다. 우뚝 걸음 멈추는 재경.

창우 아 그니까, 기집애들은 꼭 지가 먼저 좋다고 해놓고 잘 때 되면 내뺨다니까?

창우 패거리1 미친 새끼. 너 좋다는 애들이 있긴 있어?

창우 와, 개 무시하네. 존나 많았거든? 너 그 성오여중 아냐?

재경, 숨도 못 쉬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창우 거기가 너네 같은 꼴통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학콘데, 내가 거기 아는 애가 있었거든.

창우 패거리2 이 새끼는 입만 열면 구라야.

창우 아니라니까 이 새끼들아! 내가 거기 다니던 애랑 만났었다고. 얼굴도 개 이쁨.

창우 패거리1 오~ 어디까지 갔는데.

창우 아 당연히 잤지. 것도 밖에서.
창우 패거리1 미친 대박!

고스란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경. 꼭 말아 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린다.
떨고 있는 재경의 모습 선화가 목격하고.

#34. 회상. 재경 교무실(낮)(#32 연결)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선화와 재경.

선화 그래서, 언제 하려고요?

재경 (대답 없이 책만 보고)

선화 할 자신 없으면 칼 주라니까요.

재경 솔직히 자신은 없어.

선화 (재경 보면)

재경 이따금 분노가 치솟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 찌르는 건 다른 문제긴 하더라.

선화 그러니까….

재경 (말 끊고) 곧 나현이 생일이야. 시간이 참 빨리 가.
그 애가 열다섯 생일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슬퍼져.

침묵 흐르고, 선화 무슨 말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재경 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선화 …뭘요?

재경 견딜 수 없어지는 순간을.

선화 ….

재경 네가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순간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인지도 없이, 슬픔만 앞서는 그런 순간을.

#35. 강의실 앞 복도(낮)(#33 연결)

여전히 떨고 있는 재경.

이야기 끝난 창우 패거리가 복도로 나서면,
재경 시선이 창우 뒷모습에 닿는다.

재경 강창우.

나지막한 목소리에 반쯤 돌아선 창우.

재경이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칼을 꺼낸다. 급히 다가가는 선화.

창우 패거리의 이목이 달기 전, 선화가 재경을 막아선다.

시야를 가린 채 손으로 칼을 쳐내자 칼이 복도 가운데까지 날아간다.

발견한 교도관들이 선화 제압하고, 선화 머리를 거칠게 짓누른다.

칼에 베어 손에서 피 흐르는 선화. 재경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36. 교도관 사무실(낮)

선화와 창우, 박 교도관과 교도관2가 소파에 앉아 있다.

손에 봉대가 칭칭 감겨 있는 선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

박 교도관 대체 칼은 어디서 난 거야?

선화 제 거예요. 죽을 생각이었어요.

창우 개소리하지 마. (박 교도관 보며) 저 새끼가 나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박 교도관 조용히 해. 너도 아직 혐의 벗은 거 아니니까.

창우 하, 참. 출소 몇 달 안 남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칼부림을 해요?

박 교도관 (한숨 쉬고 선화 보며) 너 혼자서 칼 들인 건 아닐 거 아니야.
누가 도와준 거야?

선화 저 혼자 계획한 거예요.

박 교도관 그게 말이 돼?

너,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이번 일 그냥 넘어가기 힘든 거 몰라?

박 교도관, 선화 바라보며 대답을 재촉한다. 선화, 끝내 말하지 않는다.

#37. 재경 교무실(낮)

창밖을 보고 있는 창백한 얼굴의 재경. 노크 소리 후 선화가 들어온다.

돌아선 재경이 봉대를 감은 선화의 손을 본다.

재경 …왜 막았어?

선화 (대답 없고)

재경 네 칼이라고 거짓말은 왜 했고. (선화 침묵에 답답하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너한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야 하니, 지금? (깊이 한숨 내쉬고) 네 상황도 안 좋아질 거야. 괜한 짓이었어. 대체 어찌려고….

선화 솔직히요.

재경 (쳐다보면)

선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경 …뭘.

선화 알잖아요. 반지 찾는 거야 억울하겠지만 싶으니 도운 거지만, 살인까지 도울 생각은 없었어요. (한숨) 사람 죽이면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날에는, 피를 흘리는 남자가 나타나요.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인다고요. 내가 죽었던 그 순간, 그 눈동자로 나를 쳐다본다고.

재경 …사람 죽인 마음도 괴롭겠지만 자식이 죽은 마음에 비할 건 못 될 거야.

선화 강창우 죽인다고 선생님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랬어요. 죽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줄까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나는 그냥 여기서 머물게 됐잖아요. 오히려 더 망가지기만 했다고요.

재경 ….

선화 자식 죽은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었다면 우리 엄마도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날 위한

일이에요?

재경 (눈 흔들린다)

선화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난 괴로울 거 같아요.

재경 (울분 치솟아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선화 저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재경 ….

선화 그냥 그래주세요. 살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재경, 붉어진 눈시울로 선화 바라본다.

#38. 도로(밤)

도로를 달리는 재경의 차. 복잡한 표정의 재경.

#39. 납골당(밤)

작은 꽃다발을 든 재경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납골함에 다가선다.

납골함에 재경과 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꽃다발을 올려놓는 재경.

애써 미소 짓지만, 금방이라도 울 듯하다.

재경 나현아. 너도 엄마가 그런 마음 먹으면 괴로울 거 같아?

웃고 있는 사진 속 나현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물 흘리는 재경.

#40. 강의실(낮)

소년수들뿐인 강의실. 선화가 벽시계와 문 번갈아 보며 재경을 기다린다.

늦어지는 재경에 소년수들이 쑥덕거릴 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재경.

선화가 허리를 펴고 재경의 얼굴을 살피지만, 시선 주지 않는 재경.

재경 수업 시작하죠.

#41. 재경 교무실(낮)

마주 앉아 각자 책을 보고 있는 선화와 재경.

선화가 책을 보다 말고 흘끗 재경의 눈치를 본다.

선화 (조심스레) 괜찮은 거예요?

재경 너 같으면 괜찮겠니?

선화 말을 해도….

재경 (고개 들고) 너는 내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선화 (생각 잠기다) 가르쳐줬잖아요.

재경 뭘?

선화 시 수업 재밌었어요.

갑자기 웃음 터뜨리는 재경. 선화가 영문 모르고 바라본다.

재경 (웃으며) 애쓴다, 너도.

선화 (불만스레) 진짜예요.

선화 바라보던 재경이 서랍 속에서 서류철 꺼낸다.

종이 꺼내 선화에게 건네주고, 받아서 보면 #32에서 선화가 썼던 글이다.

질색하고 부끄러워하며 종이 뒤집어놓는 선화.

재경 시 한번 써볼래?

선화 뭘 쓰라고요?

재경 시.

선화 (약간 기대) …설마 제가 잘 써서 그러는 거예요?

재경 그럴 리가. 초등학생도 이거보다는 잘 쓸걸?

선화 (실망) 그럼 왜요.

재경 내가 전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시켜봤었는데,

감정에 대해 쓴 게 너밖에 없더라.

선화 (영문 모르겠고)

재경 난 오감만 쓰라고 했잖아.

선화, 재경을 보다 제가 쓴 글귀 바라본다. ‘가슴은 내내 아팠다.’

재경 글 잘 쓴다고 시인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 감성이 있어야 시인이 되는 거지. 네가 나한테 선생님의 역할을 바란다면, 그 정도는 가르쳐줄 수 있어. 어때, 써볼래?

FLASH CUT #15

시집 든 채 말하는 윤숙을 떠올리는 선화.

재경 바라보다 고개 젓는 선화.

선화 시 쓴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경 나아지지는 않지. 그래도 직시할 수는 있어.

선화 네?

재경 자기 마음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글 쓰는 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네가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알면, 부딪혀볼 수는 있지 않겠어?

재경, 책꽂이에서 국어사전을 꺼내 선화의 앞에 놓는다.

재경 할 생각 있으면 이거 다 읽어 와.

선화 이걸 다요?

재경 응. 처음부터 끝까지.

#42. 5호실(밤)

모두가 잠든 5호실 감방. 이따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얇은뱅이책상 앞에 앉아 심드렁한 표정으로 사전 펼치는 선화.
'ㄱ' 파트부터 천천히 읽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 곳이나 펼치는데. '고통'이란 단어 눈에 띈다.

선화(NAR) 고통, 몸 혹은 마음이 건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거나 아픔.

다른 페이지 펼쳐 보는 선화.

선화(NAR) 죄책감,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을 느끼는 마음.

다시 다른 페이지 넘기고.

선화(NAR) 하늘, 땅과 바다 위로 해와 달, 무수한 별이 있는 무한대의 공간.
(사이) 사랑,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위하며 소중한
여기는 마음.

사전에 집중하는 선화의 뒷모습에서.

#43. 재경 교무실(낮)

교무실로 들어서는 피곤한 얼굴의 선화. 충혈된 눈 보며 재경 놀란 표정.

재경 얼굴이 왜 그래?

선화 누구 때문에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요.

재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면, 책상에 두꺼운 사전 툇 내려놓는 선화.

재경 다 읽은 거야?

선화 다 읽어 오라면서요.

재경 대충 읽은 거 아니지?

선화 대충 읽었으면 제 눈이 이리졌어요?

기가 막힌다고 웃는 재경. 의외의 반응에 왜 그러나 싶어 뺨히 보는 선화.
재경이 이전보다 한층 밝아진 얼굴로 고개를 든다.

재경 앞으로 뭐든 많이 읽고, 많이 써봐.

#44. 5호실(아침)

5호실 감방에 기상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잠에서 깬 선화.

비몽사몽 손을 더듬어 수첩을 찾아 펼친다.

연필을 들었지만 적지 못하고 고민한다.

INSERT (#43 연결)

선화 뭐든요?

재경 그래. 완성형 문장으로 된 거면 뭐든. 상관없어.

선화 뭐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경 아무거나 상관없어. 밖의 날씨를 보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그게 모이면 시가 되는 거고.

재경의 말 떠올리다 수첩에 끄적거리기 시작하는 선화.

#45. 운동장(아침)

아침 체조하는 소년수들. 그 속에서 머릿속으로 시 떠올리는 선화.

선화가 시 구절 말하면, 공중에 선화 글씨체로 시가 쓰인다.

선화(NAR) 마당의 봉선화가 만개하면,

엄마는 늘 새끼손가락에만 물을 들였다.

선화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 '새끼손가락에만'에 죽죽 그어지는 선.

‘새끼 손끝에만’으로 고쳐진다.

집중하여 혼자 다른 방향으로 체조하는 선화.

멀리서 창우가 어처구니없다는 듯 선화를 바라본다.

#46. 식당(낮)

밥 먹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선화. 공중에 선화 글씨체로 글씨가 적힌다.

손가락에서 국물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다.

선화(NAR) 왜 열 손가락이 아니냐 물으니,
봄은 금방 사라진다고 고개를 저었다.

#47. 직업훈련소(낮)

소년수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직업훈련소.

선화가 주머니에서 종잇조각을 꺼내, 작업대 밑으로 글씨 적는다.

선화(NAR) 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오기까지
엄마의 손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48. 봉제 공장(낮)

집중해서 미싱을 돌리고 있는 윤숙.

새끼손가락에 봉선화 물을 들였지만 오래되어 색이 흐릿하다.

선화(NAR) 미싱 바늘이 활귀고 간 손톱이,
메마른 실로 뭉개진 손끝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나면 봄이 되었고,
엄마는 다시 봉선화 물을 들었다.

#49. 운동장(낮)

교도소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는 선화. 두통이 일어 머리를 문지른다.

멀리서 이대철의 잔상이 보인다.

이대철 처다보다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 고적거린다.

선화(NAR) 내게는 봄을 물들이고,
엄마의 봄은 늘 새끼손가락에만 머물러 있었다.

수첩을 놓고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선화. 잠시 눈을 감는다.

다시 눈을 뜨고 종이에 글 적으려 하는데, 이상한 느낌 들어 고개 든다.

이대철이 보이지 않고. 선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대철은

나타나지 않는다.

#50. 재경 교무실(낮)

선화가 집중해서 글씨를 적고 있다. 제목 ‘꽃게’ 라고 적는다.

재경이 옆으로 다가가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선화.

재경 어린 마음 끌어안아 바다로 가자.
흔들리는 육지를 던고 바다로 가자.

재경이 말하자 화들짝 놀라는 선화. 종이를 손으로 덮는다.

재경 끌어안‘아’ 바다로 가자보다는

끌어안‘고’ 바다로 가자가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

선화 (부끄럽고, 말 돌리며) 화장실에는 반지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재경 …그래. (선화가 쓰는 것 보면) 열심히 좀 써봐.

선화 (투덜) 쓰기는 맨날 쓰거든요.

재경 시 잘 쓰게 되면 어머니한테 편지라도 보내봐.

표정 굳어진 선화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재경.

선화 저번에 면회 왔을 때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연 끊자고 하면서.
재경 (놀라서) 뭐? 왜.
선화 나 때문에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 같아서요.
(쓴웃음)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오는 우리 엄마도 독하긴 하지만.
재경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참 몰라.

선화, 의아하게 바라보면 재경은 고개 젓기만 한다.

#51. 지방법원 앞(낮)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법원의 정문 앞.
윤숙이 목에 피켓 걸고 1인시위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의 형을 줄여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 나눠주지만, 금세 버려진다.
그 모습 멀리서 바라보는 재경의 모습.

#52. 몽타주. 가을에서 한겨울로

— 5호실. 아침에 눈 뜨는 선화. 졸린 눈으로 수첩을 꺼내 글씨를 적어본다.

선화(NAR) 교도소 안에 있으면 꼭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 재경 교무실. 선화가 글씨를 쓰고 있고, 그 옆에 앉은 재경이 선화의 문장을 지적해준다. 선화가 툭툭거리지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사람.
— 납골당.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딸의 사진 보는 재경.

선화(NAR)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하루는 시간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 교도소 운동장. 축구하다가 골대 앞에서 패스받는 선화. 골 안 넣고 갑자기 수첩 들고 시 쓴다. 그사이에 다른 팀에 공을 뺏기고, 소년수들이 질타한다.

— 교도소 운동장. 소년수들과 함께 낙엽 쓰는 선화. 쌓인 낙엽은 어느덧 눈으로 바뀌고, 두꺼운 옷 입고 눈을 삼질하는 선화로 바뀐다.

선화(NAR) 그래서 나는 간과했다.
쳇바퀴처럼 굴러 제자리로 돌아와도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을.

— 교도소 운동장. 삼질로 눈을 푸는 선화. 삼질 다 하고 수첩 꺼내 든다.
눈이 내리는 교도소 배경이 펼쳐진다.

선화(NAR) 나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엄마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 봉제 공장. 창밖으로 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미싱 돌리고 있는 윤숙,
안색이 좋지 않다. 한참 돌아가는 미싱 기계.
일자로 드러난 실이 박히더니 어느덧 갑자기 어긋나 실이 튀어나온다.

선화(NAR) 나는, 간과했다.

— 봉제 공장. 옆으로 쓰러지는 윤숙. 화면 어두워지며.

#53. 교무실(낮)

노트북 화면 보는 재경. ‘김천시 문예지 당선작’이라 쓰인 글씨 아래,
가작 ‘봉선화 꽃잎 물들기까지’라고 적혀 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무실 나서는 재경.

#54. 교도관 사무실 앞(낮)

교도관 사무실로 급하게 온 재경. 교도관2가 문 앞에서 있다.

재경 혹시 선화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교도관2 아, 선생님. 마침 안에 있긴 한데... (난감한 시선)

#55. 교도관 사무실(낮)

재경이 사무실로 들어서면, 박 교도관에게 간청하고 있는 선화 보인다.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선화.

선화 저 지금 나가야 돼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박 교도관 네가 모범수가 아니어서 외출권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도 못 얻고. 미안하다. 소식 들어오면...

두 사람의 대화 지켜보던 재경, 박 교도관 앞으로 다가선다.

재경 귀휴 심사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 교도관 그게, 점수가 되는 수감자들만 해당되는 거여서...

재경, 핸드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박 교도관에게 보여준다.
놀란 박 교도관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선화.

재경 이번 프로그램 끝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박 교도관 예... 그랬었죠.
재경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수업과 상담 때 성실하게 임했고, 과제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선도 됐고요.
선화 (놀라 재경 쳐다보며) 당선이요?
재경 귀휴 심사 기회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나요?

#56. 재경 교무실(낮)

재경이 앉아 있는 교무실. 노크 소리 후 박 교도관이 들어선다.
조심스럽게 책상 위로 신문을 올려놓는다.
'살인자의 시, 김천시 문예지에 오르다'라고 적힌 헤드라인.

박 교도관 오늘 기사 보셨어요?
재경 (예상한 듯 받아 든다)
박 교도관 선화가 살해했던 가해, 아니, 피해자 가족들이 문예지 주최
측에 항의한 모양이에요. 시를 내리지 않으면 주최 측에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고요. 몰랐는데 이미 선화 어머니 쪽은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두면 선화나 선화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을 거 같은데...

재경 (깊은 한숨) 선화는 이 사실 알아요?
박 교도관 여기도 소문이 빨라서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재경이 심란한 표정으로 신문을 본다.

#57. 운동장(낮)

운동장 외곽 의자에 홀로 앉아 있는 선화.
각자 운동하던 소년수들, 안 보는 척하지만 흘끗 선화 보며 쑥덕거린다.
선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손톱 거스러미만 뜯는다.
그때, 멀리서 선화를 바라보던 창우, 다가선다.

창우 야. 너 고소당하게 생겼다며?
선화 (쳐다보고) 곧 출소하는 새끼가 왜 시비야. 여기 더 있고 싶어?
창우 야, 너한테 걱정도 다 받고 좋다. 그러게 헛짓을 왜 하나.
너 같은 새끼가 무슨 시를 써.
선화 (날카롭게 쳐다보지만, 화 참고 일어서서 돌아선다)
창우 (약간 다급하게) 니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뚱 멈춰 서는 선화.

창우 저 좋아고 즐긴 일에 아들이 나대서 사람까지 죽였잖아.
선화 (주먹 꽉 그러쥐고 참는데)
창우 지 엄마 창녀인 줄도 모르고.

빠르게 돌아선 선화, 창우에게 주먹을 날린다.
 엇치락뒤치락 싸움이 거세진다.
 뒤로 쓰러진 창우에게 연신 주먹질하는 선화.
 다시 때리려던 때, 창우의 얼굴이 이대철의 얼굴로 바뀌어 있다.
 행동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대철을 바라보는 선화.
 선화가 흠칫하는 사이, 창우가 몸을 일으켜 선화에게 주먹을 날린다.
 저항도 못 하고 맞는 선화.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온다.

#58. 독방 앞 복도(낮)

선화와 창우를 데리고 가는 교도관2와 박 교도관.

교도관2 넌 출소 앞둔 놈이 왜 싸움을 걸어?
 창우 아 저 새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박 교도관이 선화 독방으로 데리고 가면, 창우가 멈칫한다.

창우 뭐야, 저는 독방 안 가요?
 교도관2 네가 먼저 때린 거 아니라며. 빨리 걸어 인마.
 창우 (교도관2에게 끌려가며, 낭패라는 표정)

#59. 독방(밤)

기억, 독방 문 달히는 소리와 함께 선화가 안으로 들어온다.
 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하고 좁은 방.
 희미한 빛이 선화의 얼굴에 닿는다.
 빛이 비치는 반쪽 얼굴은 피멍이 들어 울긋불긋하다. 입가 역시 터져 있고.
 어두운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자리에 주저앉는 선화.
 옷 속에서 꼬깃꼬깃한 수첩과 짤아진 몽땅 연필을 든다.
 글씨를 적다가 그냥 수첩 던져버리는 선화. 좌절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때 똑똑 소리가 들려 바라보면, 문 앞에 박 교도관 서 있다.

#60. 재경 교무실(밤)

박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재경 교무실로 들어서는 선화.
 자리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벽만 바라본다.
 상처 난 선화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재경,
 일어서서 손수건으로 닦아주려 하는데, 선화가 재경의 손을 밀어낸다.

재경 귀휴 심사 안 보기로 했다며. (한숨) 흔들리지 말고,
 주변 반응도 신경 쓰지 마. 어머니 한 번은 뵙고 와야지.
 네가 이럴수록 어머니가 더 힘들어져.

선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한참 침묵 후, 선화가 천천히 입을 연다.

선화 여린 마음 끌어안아 바다로 가자.
 재경 (의아한 얼굴)
 선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보더라구요. 맞춤법 틀리는 거
 하나만 보고 시는커녕 한글도 모르는 애.

재경 ...
 선화 끌어안아를 끌어안고라고 쓰는 멍청한 애. 그냥 주먹이나
 휘두르는 구제불능인 놈. 내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구요.

무거운 침묵이 찾아든다.

선화 그냥 나는, 한 번쯤은 끌어안아를 끌어안고로 고쳐보고 싶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등신같이 내가, 고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깊은
 한숨) 근데 이제 알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선화, 책장 앞을 주시한다. 피가 똑똑 떨어지고 있다.
 시선을 위로 올리자 배에서 피가 흐르는 이대철이 선화를 보고 있다.

선화 아무것도.

#61. 독방(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고요한 독방. 비좁은 자리에 길게 눕는 선화.
한참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보며 느리게 눈 깜빡인다.
그때, 문득 선화의 시야에 무언가 걸린다.
천장의 전등 나사가 헐거워져 있다.
한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난 선화. 나사를 응시한다.

FLASH CUT #32

재경 여기 오자마자 사고를 쳐서 독방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
혹시 독방은….

기억 떠올리고 주변 두리번거리는 선화.
얕은뱅이책상을 가져와 밟고 올라간다.
손을 뺀어 전등 나사를 풀어보지만, 잘되지 않아 연필을 부러뜨린다.
절단된 면으로 나사를 풀어내고, 급하게 전등을 내려 손을 뺀다.
먼지 쌓인 전등 쇠붙이 안쪽, 무언가 손에 걸린다. 작은 형겅 주머니다.
주머니 열어보는 선화. 5만 원짜리 몇 장과 시계 등의 금품이 담겨 있다.
안쪽을 뒤져보자 금반지가 나온다.
창문 빛에 비춰보면, 날카로운 각인이 새겨져 있다.

#62. 독방 앞 복도(밤)

졸고 있던 박 교도관, 광광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선화 방 앞으로 간다.
선화가 방문 앞에 딱 붙어서 소리친다.

선화 교도관님! 한재경 선생님 지금 뵈 수 있어요?

박 교도관 이 밤에? 갑자기 왜.

선화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 교도관 시간이 몇 신데 인마. 퇴근하셨지. 급한 일이면 내가 전화로…

선화 (초조해하며) 전화로 안 되는 일이에요.

박 교도관 금토일 다 쉬셔서 전화로 연락해야 돼.

선화 (애가 타서 안절부절못하다가) 아! 저 귀휴 심사 불게요.
그럼 나갈 수 있잖아요.

박 교도관 심사 안 본다고 했다면?

선화 불 거예요!

박 교도관 허, 참.

선화 근데 그 새끼, 아니. 강창우는요?

박 교도관 개는 왜? 출소 준비 중이겠지 뭐.

#63. 재소자 입소 사무국(아침)

출소 준비 중인 창우. 교도관이 창우의 소지품 박스를 전달한다.
불안해 보이는 표정의 창우.

교도관2 너는 출소하는 놈 표정이 왜 그래?

창우 (곤란한 듯 머리 헝클린다) 차선화 그 새끼는요?

교도관2 선화는 왜? 고새 미운 정이라도 들었냐?

창우 아, 정은 무슨… 독방 나왔대요?

교도관2 나왔지.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귀휴 심사도 본다던데.

창우 귀휴 심사요?

#64. 문예지 주최사(낮)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재경과 주최사 직원.

재경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쭙보려고 왔어요.

혹시 당선 취소하실 생각은….

직원 저희도 아직 논의 중이어서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재경 사연이 안타까운 애예요. 어머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저지른 범법인데, 7년 형이나 선고받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고요.

직원 그 애긴 들었어요. 저희 쪽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법이 이 모양이니 합당한 범죄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문예지 실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피해자 가족을 너무 생각 안 했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재경 잘 생각해서 결정해주세요. 분명한 건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보장해요.

#65. 심사처(낮)

박 교도관과 심사관이 앉아 있는 자리.
 안으로 들어선 선화가 자리에 앉는다.

심사관 법정에서도 죄를 저지른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던데, 반성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선화 (입만 삐금거리다 말 잊지 못하고)
 심사관 반성문 한 장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반성할 의지는 있는 건지 묻고 싶네요.

한참 머뭇거리던 선화, 천천히 입을 연다.

선화 솔직히, 아직까지도 후회는 없어요.

박 교도관, 초조해 보이고, 심사관이 살짝 인상 쓴다.

선화 그 당시에 엄마는 괴로워하고 있었고, 충동적이긴 했지만 그 방법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다)
 그래도... 그래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도관 (놀란 표정)
 선화 그렇다고 이대철의 잘못까지 없던 일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태 저는 가족을 잃는 심정은 잘 몰랐던 거 같아요.

FLASH CUT #37
 눈시를 뒤흔어주는 재경의 모습.

선화 여기 와서는 어렵듯이 느끼고 있어요.
 심사관 ...
 선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저를 잃은 저희 엄마한테도.

#66. 교도소 정문(낮)

교도소 정문 쪽,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창우.

창우 못 찾았다고? 제대로 봤어? 전등 안쪽에 뒀다니까?
 아 씨 진짜, 돈 안 가져오면 형들이 나 죽인다고 그랬다고!

그때 교도소 정문 열리고, 사복 차림의 선화가 밖으로 나온다.
 창우가 벽 뒤쪽으로 몸을 숨긴다. 급하게 전화를 거는 선화.
 초조하여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찬다.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는 재경.

선화 선생님!
 재경(F) (놀라서) ...선화야? 어떻게 전화한 거야? 이 번호 뭐데.
 선화 저 귀휴 심사받았어요. 일단 만나요. 어디예요?
 재경(F) 곧 도착할 거 같은데, 왜 그러는데?
 선화 반지 찾았어요! 독방에 있었어요.

선화의 말에 흘깃 놀라는 창우.

#67. 교도소 외부 주차장(해질녘)

교도소 외부 주차장으로 향하는 선화.
 인적이 드문 주차장, 서서히 날이 어두워지며 구름 드리우고, 비가 내린다.
 재경과 통화하며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하는 선화.

선화 얼른 오세요. 주차장 쪽에 있을...

그때 벽 뒤에서 튀어나오는 손.
창우가 선화를 벽으로 밀어내며 목덜미에 풀딩 나이프를 겨눈다.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핸드폰. 끊기지 않고 통화 중이다.

창우 반지 내놔.
선화 너, 뭐 하는 거야?
창우 전화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 반지 내놓으라고!

#68. 도로(해질녘)

차 몰며 통화 중이던 재경, 선화의 목소리가 끊기자 이상하게 생각한다.

재경 무슨 일 있...
창우(F) 모른 척하지 말고 빨리 반지 내놓으라고! 죽고 싶어?!

재경 표정 굳히고, 곧바로 전화 끊어 박 교도관에게 전화 건다.

재경 박 교도관님, 저예요. 주차장으로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속도 높이는 재경의 차.

#69. 교도소 외부 주차장(해질녘)

창우가 목에 겨누는 나이프로 선화 목에 상처 생긴다.
긴장된 대치 이어지던 때, 재경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난다.
창우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칼을 뺏으려 하는 선화.
몸부림치다 저 멀리 날아가는 나이프. 창우가 집기 전, 먼저 막는 선화.
엎치락뒤치락하며 몸싸움하는 두 사람.

창우 너 그 여자한테 놀아나는 거야 등신아!
우리 같은 범죄자 새끼 이용해 먹으려는 거라고!

다시 붙는 두 사람. 싸움이 거칠어질수록 어두워지는 선화의 시야.
호흡이 거칠어지고, 창우의 모습과 이대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FLASH CUT #12

대철이 윤숙을 잡는 장면 떠오른다.

창우에게 맞아 넘어진 순간, 선화의 눈앞에 칼끝이 보인다.
선화가 칼을 집어 대철이 된 창우를 찌르려던 때.

재경 차선화!

멈칫하는 선화, 재경 보다 칼을 떨어뜨린다.
교도관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창우를 제압하는 교도관들.
재경이 선화에게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접고 앉는다.
선화의 상처 난 뺨 닦아주는 재경. 닛 나간 선화.

선화 왜 그랬어요?
재경 (의아하게 보면)
선화 원하던 거였잖아요. 저 새끼 죽는 거.
재경 ...네가 나한테 선생님이라며.
그럼 나한테는 네가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선화의 손을 잡아주는 재경.

재경 가자, 어머니 뵈러.

#70. 병실 앞(밤)

머뭇거리는 선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며 긴장된 모습.
재경이 괜찮다는 듯 등을 다독여주자 안으로 들어선다.

#71. 병실(밤)

누워 있는 윤숙의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 쓸어내리다 조심히 다가가는 선화.

인기척 느끼고 눈 뜨는 윤숙. 선화를 보다 팔을 뻗어 안아준다.

시간이 흐르고, 윤숙이 앉아 있는 침대 앞, 간이 의자에 선화가 앉아 있다.

선화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꺼내 윤숙에게 보여준다.

윤숙 이게 뭐야?

선화 (민망해서 눈 피하며) 내가 쓴 거.

윤숙 (놀란 듯 보다가 웃으며) 그럼 네가 읽어줘야지.

쑥스러워하는 선화. 한참 머뭇거리다 이내 입을 연다.

선화 봉선화 꽃잎 물들기까지.

애뜻한 모자의 모습 멀어지고,

그 모습 지켜보는 재경. 희미한 웃음 머금은다.

선화(NAR) 현실적이지 않은 일과 현실적인 일이 근접하게 일어났다.

#72. 교도소 정문(낮)

사복을 입은 선화가 밖으로 나온다. 눈부신 햇빛에 눈 찡그리는 선화.

선화(NAR)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내가 감형을 받았다는 것이고.

햇빛 보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며 선화의 앞에 두부가 내밀어진다.

고개 앞으로 하고 보면, 재경이다.

선화(NAR) 현실적인 것은, 강창우의 죄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창우에게 적용된 죄는 그날 칼을 휘두른 흥기협박죄뿐이었다.

선화 (두부 받아 들며) 재미없게 두부가 뭐예요.

재경 원래 클래식이 제일이야. 두부 먹고 새사람 되라고.

불만스레 재경 보는 선화. 선화 보며 웃다가 걷는 재경.

선화가 그 옆을 따른다.

선화 괜찮아요?

재경 뭐가.

선화 강창우, 그 정도로 풀려난 거요.

재경 안 괜찮지 괜찮겠어.

선화 (할 말 잃고)

재경 근데 예상은 했어. 겨우 반지 찾는 걸로는 증거 적용

안 될 거라는 거.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선화 (안타깝고)

재경 (웃으며) 앞으로 뭐 하면서 살 거야?

선화 몰라요. 죽기나 하겠어요.

재경 시는 안 쓸 거고?

선화 시 쓰면서 먹고살 수는 없잖아요.

재경 (헛웃음) 이제 성인이라 이거지.

다들 머리 크면 글 같은 건 안 쓰려고 하더라.

걸음 멈춘 재경. 선화를 바라본다.

재경 나 상담센터 열 건데 너도 와.

선화 (돌아보고) 네?

재경 언론 시끄럽게 만들어줄 사람이 직원으로 오면 좋겠어.

너도 아직 그날의 트라우마 털어내지 못했으니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고.

멈춰 서서 마주 보는 두 사람. 선화 다시 걷는다.

선화 생각해볼게요.

재경 (기가 막혀서) 네가 지금 뭐 가릴 처지니?

선화 스카우트하시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설득에는 재주 없잖아요.

티격태격하는데, 멀리서 윤숙의 모습 보이자 급하게 달려가는 선화.
흐뭇하게 지켜보는 재경. 선화가 윤숙과 얘기하다 말고 재경 보며.

선화 빨리 오세요, 선생님.

화기애애한 세 사람의 뒷모습에서.

끝.

작가 후기

글을 쓴다는 것은 번번이 피로하고, 고되고, 버거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마냥 쉽기만 했다면 즐거움이나 뿌듯함을 느끼지도 못했겠지요.

버거운 만큼이나 저는 이 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버거움이 실력과는 비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영성한 대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넘어 수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봉선화 꽃잎 물들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고는 지금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주가 되는 서정적인

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과 면담 후, 캐릭터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며

점차 소재를 다루는 마음도 무거워져 극의 분위기도 다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대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인공들이 느낄 슬픔이나 분노에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본을 읽으실 분들에게도 그 감정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작가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겨운 과정일 듯합니다.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저를 성장시켜주는

‘글’이라는 것을 사랑하며 잘 견뎌보려 합니다.

제가 뭘 하든 응원하며 지탱해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리 감사합니다.

또 제 인생에서 글만큼이나 소중한 인연이 될 오픈 동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로그인에
실패
하였습니다

문지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의에 대해 고민한다. ‘죄’를 가운데에 놓고 등을 맞대고 서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앞에 있다면, 이 나라가 법치주의 사회이니까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일까. 아님 피해자가 용납할 때까지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정의일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지부터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 정말로 남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든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나의 불행이 아닌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여기며 2차, 3차 피해를 양산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된 적은 정말 없었는지를.

이 이야기는, 입시학원 인기 강사 양아름과 수업 조교 민치우가, 학원에서 자살한 우등생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파헤치면서 그 죽음에 얽힌 비밀에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이다.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정의에 입각해 움직이는 수호자가 함께 만들어낸 삼각의 트라이앵글이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과연, 삼각형 안의 어떤 꼭짓점에 서 있습니까?”

등장인물

양아름(26세, 여) 영어 강사

수강생들과의 최소 나이 차와 깔끔한 강의력을 무기로 어린 나이에 원내 인기 강사가 되었다. 유학과라는 것도 한몫한다. 틈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민 상담까지 해주지만 영업 전략의 일부일 뿐이다. 평소엔 계산적이고 똑 부러지는 성격. 아름 수업의 얼굴마담이었던 유준이 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지만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유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까도 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사건들과 마주하면서 점점 흔들린다.

민치우(24세, 남) 수업 조교

동영상 강의 촬영부터 교재 편집까지, 웬만한 일을 도맡아 하는 필수 인력.

아름의 조교다. 큰 키에 넓은 어깨로 복사기에 걸린 종이를 빼내는 치우의 뒷모습을 보면 누구나 잊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막상 치우와 대화를 나눠본 학생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남자를 좋아하네, 결혼을 했네... 별 소문이 다 따라다닌다. 휴학생이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사건 이후 상처받았을 다현이를 위해 조금 알아본다는 게, 엄청난 비밀에까지 다가가버린 것만 같아 당황스럽다.

강해준(26세, 남) 강유준의 형

강의실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된 유준의 형.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 수 없어 방황한다.

이다현(18세, 여) 학원 수강생

남자친구인 유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다.

차마 밝힐 수 없는 비밀을 끌어안고 고민한다.

최재원(18세, 남) 다현의 동급생

다현과 유준 사이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강유준(18세에 사망, 남) 학원 우등생

학원 강의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채로 발견되는 비운의 인물.

그 외

다현의 부모, 형사, 학원 원장과 강사들, 학원 수강생들

줄거리

입시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우등생 강유준이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된다. 유준의 시체를 발견한 건 유준과 사귀는 사이였던 고등학생 다현. 유준의 시신 옆엔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뜬, 학원 인강 사이트가 화면에 띄워진 태블릿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유준의 죽음은 순식간에 언론에 도배가 된다. ‘입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런데 엉뚱하게도, 유준이 죽은 이유가 아름의 조교 치우와 관계있을 수도 있다는 역측이 등장한다. 다현이 유준을 만나는 동안 치우와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이다.

학원의 라이징 강사이자 유준의 전담 강사였던 아름은 수업의 홍보대사나 마찬가지로였던 애제자 유준이 죽자 충격을 받지만, 다현이 더욱 신경 쓰인다. 더러운 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협박 메시지까지 받은 다현이 결국 발작을 일으키는데, 마음을 가다듬은 다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다. 유준이 죽기 직전 다현의 상반신을 벗겨 몰카를 찍었고 그 사진을 유포하려고 했다는 것!

다현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치우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얻어 유준을 신고하려 했던 것이지만, 치우와의 관계가 악의적인 소문이 되어 퍼지자 그 얘기를 들은 유준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치우가 누명을 벗은 건 다행이지만 지금으로선 다현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의문의 인물, 유준의 공범일 수도 있는 상황...!

유준의 형 해준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유준의 잘못이 밝혀지자 급히 유준의 장례를 치르고, 유준의 죽음 역시 자살로 마무리된다. 아름은 장례식장에서 유준의 죽음을 비웃는 재원이라는 학생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현을 찾아가 물어본다. 아름은 재원과 유준이 친한 사이였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다현의 말을 듣고 치우와 함께 재원을 찾아간다. 죽은 유준을 조롱하던 재원은 ‘유준보다 더 나쁜 놈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다.

치우는 재원의 말을 토대로 유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형 해준의 출신 학교를 찾아, 해준이 중학교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 아름과 공유한다. 그때 다현이 없어졌다는 연락이 오고, 아름과 치우는 유준의 공범일 수도 있는 해준이 다현을 해코지했을 것이라 생각해 급히 달려간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마지막 증거, 다현이의 상반신 탈의 사진이 다현이의 손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해준의 손에서 잘못될 수도 있었던 다현을 구해내고 해준을 경찰서에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인데.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아름도 치우도 다현도 일상을 되찾는다.
하지만 치우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든다. 유준이 죽던 시각,
유준의 인강 아이디가 마침 사이트 로그인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매일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을 리도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유준의 태블릿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던 그때, 치우에게 사진 한 장이
전송된다. 치우는 그제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 문지은

#1. 입시 학원가(밤)

늦은 밤, 열 시 정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원가의 전경.

#2. 해찬학원/복도(밤)

강의실에서 나와 삼삼오오 떠들며 귀가하는 수강생들의 모습.
‘대치동 라이징 아름 쌤의 수능문법 4주 클리어’ 포스터가 푸욱 붙어 있고,
귀가 중인 아이들이 지나쳐가는 복도 게시판에 걸린 홍보용 태블릿에서
유준과 다현이 주인공인 학원 홍보영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5회 연속 내신 전교 1등을 쟁취한 강유준 군,
수강 후 한 달 만에 1등급 신화를 이뤄낸 이다현 양’의 인터뷰가 한창인 영상.
소리 없이 자막만 있는 영상이지만 유준과 다현이 공부한 노트를 들고
보여주며 환하게 웃는 장면, 그 옆에 선 아름이 웃으며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유준 밑에 ‘양아름 선생님 커리큘럼만 잘 따르면 1등급은
금방이죠’라는 자막이 깔린다. 화면 속의 아름, 유준, 다현과 사이좋게
대화한다.

#3. 해찬학원/어느 강의실(밤)

해찬학원의 일부이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강의실.
쓰지 않는 듯 불도 모두 꺼져 있고, 사람도 없다. 밖에서 들어오는 인공 불빛에
의해 강의실 안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신발을 신은 발로 보이는 것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 힘이 빠진 채로. 그 바로 앞 책상에... ‘강유준’이라고 쓰인 교재,
노트 등이 널브러져 있다.
유일하게 불빛을 뿜고 있는 건 화면이 켜져 있는 유준의 태블릿 PC다. 화면은
해찬학원 인강 사이트. ‘로그인에 실패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경고를 하듯이

팝업으로 떠 있다.

아름(E) 지금 보시는 자료가 바로, 강유준 군과 이다현 양이 제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4. 해찬학원/대형 강의실(밤)

아름이 깔끔한 차림으로 강의실 교단에 서 있고, 그 뒤 스크린에 유준과 다현의 스터디 플래너가 떠 있다.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나눠서 체크한 형식이다. 교단 뒤엔 ‘양아름 수능문법 클래스 수강설명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고, 강의실 안에는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와서 아름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아름 제 수업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플래너. 저와 제 조교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직접 개발했습니다. (강의실 뒤를 가리키며) 그중 한 분이 뒤에서 지금 홍보영상을 촬영 중이신데... 어때요? 잘생겼죠?

치우 (뒤에서 영상 찍다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 숙이면)

관중들 (뒤를 두리번거리는데)

아름 그러니까 여러분 제 수업 들으시면, 저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아름의 말에 학생들과 학부모들 긴장이 풀려 즐겁게 웃고, 치우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멧쩍은 표정으로 촬영에 집중한다.

#5. 해찬학원/복도(밤)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 듣고 나온 다현, 자습실 쪽으로 걸어간다. 그 옆의 대형 강의실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아름의 마이크 소리가 들린다.

#6. 해찬학원/대형 강의실(밤)

아름이 마지막으로 ‘수능문법 4주 클리어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 중이다. 강의실 뒤에서, 당당한 자세로 수업의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아름의 모습과 설명회의 밝은 분위기가 다 마음에 든다는 듯 원장이 뿌듯하게 보고 있다. 그 옆에 서 있는 다른 강사들은 아름을 부러워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표정.

#7. 해찬학원/라운지(밤)

설명회 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의실에서 우르르 나오면 문 앞에서 치우가 설명회 사은품을 일일이 나눠주며 인사하고 있다. 긴장 풀려서 이제야 물 한 잔을 마시던 아름 옆으로 원장이 다가온다.

원장 양 쌤, 너어무 고생 많았어요. 아주 영업능력까지 출중해.

아름 원장님이 설명회 준비 끝내주게 해주신 덕분이죠.

원장 (좋으면서) 무슨. (벽에 짝 붙은 아름 수업 포스터를 보며) 확실히 모델 덕도 있고.

아름 그럼요. (뿌듯하다) 유준이 다현이가 모델로 서준 후에 학부모님들 문의가 더 많아요. 최상위권이 보장하는 수업이니까 신뢰한다면서.

원장 이 아이디어, 민치우 씨가 냈죠?

(치우 보며) 아예 채용하면 좋을 걸.

아름 저도 매일 애긴 하는데요, 이대로 눌러 앉아줄 수 없냐고. 근데 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니까 더 붙잡기도 뭐하네요.

치우 (마침 다가오면)

아름 오늘 고생했어요, 치우 씨.

치우 감사합니다. (남은 브로슈어 챙겨서 교무실로 들어가고)

아름과 원장, 뿌듯하게 치우 보는데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 끝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며 아름에게 와 살갑게 인사한다. 학생들과도 화기애애한 아름.

#8. 해찬학원/자율학습실(밤)

다현, 자율학습실 지정 좌석에 앉으며 여태 꺼져 있던 핸드폰을 켜다.
친구들에게 메신저 등이 와 있는 걸 확인하는데, ‘해찬학원 인강사이트.
로그인에 5회 이상 실패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다.
다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옆 분단 책상을 바라보면, ‘강유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지정 좌석이 텅 비어 있다. 메신저를 열어 유준에게 ‘아직
안 갔어? 위층에 있어?’라고 보내고 한참을 쳐다보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다. 고개를 가우뚱하는 다현.

#9. 해찬학원/복도(밤)

아름,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1·2와 막간의 수다 떨고 있다.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까서 쥐여준다.

아름 (학생1의 고민 얘기 중이었다) 헛갈리게 하는 놈은 안 돼.
사귀기 전에 벌써 이러면 사귀 담엔 어떨 거 같아?
학생1 (시무룩하다) 그래도... 코노 가서 진도도 뺏단 말예요.
아름 벌써? 그놈은 노답.
학생2 나도 개 극혐. (사랑에 빠진 표정으로) 치우 쌤만큼은 생겨야지.
아름 뭐어?
학생1 (학생2 흘기고 아름에게) 쌤 재는 미쳤어요. 미자 주제에.
아름 (웃으며) 치우 쌤이 너희들 상대도 안 해주는데, 그렇게 좋아?
학생2 잘생겼잖아요!

아름, 학생들의 동동거림에 웃다가,
복도 끝 자율학습실에서 다현이 나오는 걸 본다.

아름 (반갑게) 다현아! (남은 아이스크림 흔들며) 이거.
다현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흔들고)
아름 (팬찮다는 듯 웃어주고)

다현, 아름에게 꾸벅 인사하고 계단 쪽으로 나간다. 그런 다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학생들과 다시 하하호호 대화 나누는 아름.

#10. 해찬학원/계단(밤)

다현, 핸드폰 하나 들고 계단으로 나와서, 위층 가는 계단을 바라보고
서 있다. 위층 복도는 아무도 없고, 그저 컴컴한 어둠뿐이다. 유준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위층으로 조심히 올라가는 다현.

#11. 해찬학원/위층 복도(밤)

아무도 쓰지 않아 사람의 흔적이 없고 복도에 책걸상만 가득 쌓여 있다.
다현은 층의 구조를 잘 아는 듯 플래시만 켜고 강의실로 다가가간다.
강의실 몇 개를 지나 한 강의실 앞에 서는 다현. 인기척도 없고 불빛도 없다.

다현 당연 갔겠지. (돌아서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다현, 강의실 뒷문으로 다가가간다. 플래시로 강의실 유리창 안을 비춰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점점 뒷걸음질 치는 다현.

다현 아아악!

#12. 해찬학원/복도(밤)

퇴근하기 위해 교무실에서 가방을 챙겨 나오던 아름, 순간 다현의
비명이 들리기라도 하는 듯이 몸을 획 돌려 복도 끝을 바라보는데.

(E)경찰차,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이렌 소리.

#13. 해찬학원 앞 거리(밤)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고, 시민들, 학생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다.
강사들과 아름, 치우, 원장이 낮빛이 노래진 채로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학원 건물 안에서 유준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온다. 강사들과 원장,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데... 아름도 마찬가지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유준의 부모는 기절 직전이고, 유준의 형 해준이 들것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서럽게 운다.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 출발한다.
아름, 그 상황을 참담하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면, 울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다현과 다현 모가 경찰과 이야기 중인 것이 보인다.

다현 (경찰에게) 제 인강 아이디어를 유준이하고 같이 쓰는데, 로그인에 실패해서 인증을 다시 하라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직 위층 강의실에서 인강 듣고 있나 싶어서...

다현, 계속 설명은 하는데 두려움에 차 있는 얼굴이다.

#14. 경찰서 안(밤)

아름과 치우, 원장과 강사들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중이다.
형사(여)가 학원 계단과 복도를 찍은 CCTV 영상을 재생하면, 유준이 가방을 메고 위층 복도로 들어와 강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후 한참 빨리 감기를 하지만 중간에는 아무도 드나든 사람이 없고 열 시가 넘은 시간애야 위층 복도에 나타난 치우의 모습이 보인다.

아름 (놀랐지만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치우를 바라보는데)

치우 (별 미동 없고)

형사 (치우 보며) 순찰 도는 동안 이상한 점 전혀 없었습니까?

치우 네. 위층 강의실은 안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복도만 체크합니다.

원장 맞습니다. 소등 확인하는 건 내가 시킨 일이에요.

애들이 가끔 올라가서 노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 그럼, 위층 강의실이... (강의실 사진을 보면서) 리모델링 예정이라 비워두셨는데, 학생들이 무단으로 종종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름 보며) 담당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다현 학생 말로는 강유준 학생이 거기서 인강을 주로 들었다던데.

아름 (긴장되지만 애써 진정하며) 애들이 가끔 올라가서 쉬다 온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준이처럼 오랫동안 있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줄은 몰라서, 별다른 조치를 한 적은 없었구요...

말을 이어가는 아름의 모습을 긴장한 얼굴로 바라보는 원장과 치우, 강사들.

#15. 경찰서 앞(밤)

원장과 아름, 강사들이 경찰서 안에서 나온다. 치우, 별말도 없이 인사만 꾸벅 하고 가버리면 원장이 그런 치우를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강사 (입이 근질거려 죽겠다는 듯이)

그 소문, 사실이에요? 아까 애들이...

강사2 (강사1 옆구리 확 찌르고 급히 인사하며)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사들 급히 돌아가고, 원장과 아름만 남았다.

원장 민치우 씨가 이다현이하고 소문이 좀 있었다면서요? 학교에서.

아름 그게 무슨.

원장 (말하기도 싫다는 듯) 아, 왜 있잖아요.

사귄다는... 그니까, 원조교제!

아름 (당황스럽고) 네?

원장 아까 경찰이 말하드라구. 다른 학생들이 그런 증언을 했대구요.

뭐 그렇다고 민치우 씨가 유준이를 어쨌다는 건 아니고...

경찰에서도 자살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던데. 아무튼 양 쌤.

그냥 깔끔하게 내보내면 좋겠네요, 민치우 씨.

아름 원장님,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요...

원장 (O.L.) 막말로, 뭐. 직원도 아니고. (태도가 바뀌었다) 그냥 양

선생님 수업에 끼여 있는 알바생 아닙니까?
 이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학원 사람이 소문에 끼여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아름 아무리 알바생이어도 이렇게는 못 내보내요.
 원장 크흠.
 아름 (단호하게) 전 일단 다현이 케어에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소문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마침 경찰서 앞에 택시 한 대 들어오더니 해준 내린다. 통통 부은 얼굴.

원장 (해준 쪽 보고) 유준이 형 아니세요?
 아름 (해준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상담 때 뵈었죠.
 해준 (고개 들어 아름 알아보고 꾸벅)

아름, 감당 안 될 슬픔이 차 있는 해준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16. 다현의 집 앞(밤)

치우, 다현의 아파트 앞에 와서 위를 쭈욱 올려다본다. 다현에게 메시지 보낸다. ‘다현아, 괜찮니? 잠깐 볼 수 있을까?’라고 보내놓고,
 다현이의 집 입구가 보이는 놀이터 그네에 앉는다.
 계속 메시지 확인해보지만 다현이는 여전히 읽지 않는다.
 치우, 착잡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아가려는데, 마침 아름이 온다.

아름 치우 씨. 나도 다현이 걱정돼서.
 치우 (보면)

JUMP
 아름과 치우, 그네에 나란히 앉아 있다.

아름 (치우 눈치 살피며)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요.
 치우 ...관둬야 한다면 관두겠습니다. 선생님께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름 아니 그런 말 말구. 치우 썬 내 조교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다현이 걱정을 엄청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치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름 사실이 아닌 얘기들은 언젠간 잠잠해져요. 상처야 남겠지만...
 치우 (그제야 아름 얼굴 보며) 저보다도,
 다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 그런 치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17. 아름의 꿈. 어느 장소(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중학생 아름의 뒷모습.
 아름, 그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서럽게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18. 아름 자취방(새벽)

아름, 번쩍 눈 뜬다. 실제로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숨이 가빠 숨을 들이쉰다.
 최소한의 시간만 있는 자취방. 집에 귀가한 상태 그대로 불도 안 켜고,
 침대 옆에 꾸그러 잠들었던 것. 아름, 과호흡 증상이 계속되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 관자놀이를 감싼다. 서랍에서 신경정신과 약을 꺼내 얼른 먹고 옆으로
 쓰러지듯 눕는 아름. 누우면서 옷소매가 올라가자 팔 언저리에 큰 화상 자국이
 보인다. 한참 호흡을 다듬어보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모습인데.

조금 진정된 후, 서랍장 위에 얹어두었던 액자 하나를 가져다가 바라본다.
 유준, 다현 비롯한 담임반 아이들과 생일파티 하면서 찍은 사진.
 아름의 한쪽 옆엔 유준이, 한쪽 옆엔 다현이 서 있다. 사진을 보고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 차오르는 아름.

#19. 몽타주

— 뉴스 화면.

사회 파트 사건사고 소식이다. 화면에는 아름 수업의 홍보 포스터와 홍보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떠 있고, 하단에 ‘한 고등학생, 입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이라고 적혀 있다. 앵커가 “대치동의 입시 전문학원에서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학생의 가정환경과 교우관계 등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일 것이라고 추측을...”이라고 말 이어나간다.

— 학교 일각.

유준의 죽음을 추모하는 추모 벽이 설치되었고, 그곳에 붙은 유준의 사진과 명찰 앞에 국화를 놓고 묵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 하교하는 학생들의 버스 안.

학생들이 손에 쥔 스마트폰 위로 SNS 화면과 메신저 말풍선이 동동 떠다니는데, 추모와는 거리가 먼 이중적인 반응들. “강유준 자살했다는 거 실화?”, “헐, 무서워”, “이다현이랑 싸우고 그런 거 아냐? 원조교제 양다리였다며.” 유준의 죽음, 다현과 유준의 관계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학생들, 버스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수군거린다.

#20. PC방 일각(낮)

낮인데도 별이 하나도 들지 않고 어두컴컴한 PC방. 편을 나눠 정신없이 게임하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덩그러니 앉아 SNS 화면을 켜놓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디가 불편한 것처럼 안절부절못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등,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다.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판에 손을 얹고 타자를 치기 시작하는 남자.

#21. 다현의 방(낮)

암막 커튼을 꼼꼼히 친 방. 스탠드 하나를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있는 다현.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핏색하다. 다현, 험탁에 얹어놓은 핸드폰을 벌레라도 되는 듯이 뵈히 보다가 힘들게 집어 올려 전원을 켜다. 켜자마자 미친 듯이 들어오는 메신저 알림음, 문자 알림음, 부재중 전화 알림... 그때 SNS 다이렉트 메시지 알림이 뜬다. 눌러보고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공포심에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다현. 그러다가 핸드폰을 놓친다.

#22. 해찬학원/라운지(낮)

게시판에 걸려 있는 학원 수업 시간표를 바꿔 붙이는 누군가의 손. 다시 게시판 보면, 시간표에 ‘입시 휴강’이 여기저기 추가됐다. 라운지를 이용하는 학생 수도 적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선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강사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가득하다. 그때 출근해서 학원으로 들어온 아름, 데스크로 다가와 출석부를 챙긴다.

데스크 알바 (아름에게 복도 끝을 보라고 눈짓하며) 선생님, 저기.

아름, 알바의 말에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는데.

#23. 해찬학원/복도(낮)

아이들의 사물함이 늘어서 있는 복도. 해준이 가방을 하나 들고 와 유준의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고 있다. 그 옆으로 아름이 다가온다.

아름 짐 챙기러 오셨어요...?

해준 (초췌한 몰골로) 네, 죄송합니다.

아름 유준이 형님이 왜요.

해준 학원에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슬픔에 젖어 있긴 하지만

예의 바르고 깎듯한 태도로) 유준이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해준이 가방 싸서 아람에게 꾸벅 하고 가려는데, 그때 강사2가
급히 달려온다. 해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강사2를 바라보고.

강사2 양 선생님, 잠깐만.
아람 (보면)

#24. 병원/복도(낮)

아연실색한 아람과 치우가 복도를 달려오면, 다현 모와 부가 미리 온
형사와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인다. 아람과 치우,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한다.

다현 모 다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연락받고 놀라셨죠? 죄송해요,
선생님. 다현이가 선생님들을 찾아서요.

다현 모, 딸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는지 목이 잠긴다.

#25. 병실 안(낮)

1인실 병실. 다현이가 파리한 안색으로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고
침대 한쪽에는 다현과 다현 부모, 아람이 서 있다. 마주 본 쪽에는 형사와
치우가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다.
다현이가 막 내민 스마트폰 속에는... 다현이의 탈의 된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또다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띄워져 있다. 다현 부모와 아람, 형사는
당황했지만 치우는 덤덤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엔 다현이 화면을
바꾸어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를 보여준다.

형사 (다현의 핸드폰 가까이 가져가서 보며) ‘강유준과의 일,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나 사진 바로 학교 SNS에 뿌릴 거야.’ 이게 무슨.

(얼른 이것저것 눌러보고는) 대포 계정이네요.
메시지 전송 후 바로 평 뒀어요.

다현 모 저 있었던 일이라는 게...
다현 (침착하게) 제 사진을 찍은 건 강유준이고... 이건 제가 강유준
태블릿에서 발견한 사진을 제 폰으로 찍은 거예요. 치우 쌤은 제
고민 상담을 해주신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디엠을
받아서.
아람 (순간 분노가 확 차오르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마음이 아프다) 다현아.
다현 강유준을 먼저 좋아한 건 저였는데, 다가온 건 강유준이었어요.

INSERT

학교 뒤편에서, 포근한 표정으로 다현을 꼭 끌어안아주는 유준.

다현(E)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고. (감정을 추스르며) 언젠가 같이
시험공부를 하려고 스터디룸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26. 다현의 회상. 스터디룸(낮)

프라이빗한 분위기로 꾸며진 스터디룸.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다.
책상에 마주 앉아 다현과 유준이 앉아 각자 시험공부를 하다가, 다현이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하면 유준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도 한다. 책상 위에는
테이크아웃 음료가 놓여 있다.

JUMP

다현이 의자 두 개를 붙여놓고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다. 잠깐 조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모양새다. 다현이 먹던 테이크아웃 음료
컵이 거의 비어 있고 유준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공부
중이다. 다현, 스르르 눈을 뜨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감싸 친다. 다현의
교복 블라우스 옷매무새가 잘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게 보이고.

다현(E) 강유준 말로는 제가 조니까 의자를 붙여서 절 눕혔다고 했어요.
깬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몸살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이 쏟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27. 다현의 회상. 카페(낮)

함께 앉아 빵과 음료 등을 먹고 있는 다현과 유준.
새로 산 유준의 태블릿을 다현이 구경하고 있다.

다현 (부러운 듯) 화면 미쳤다.
유준 (이때만 해도 상냥하고 장난기 가득한 태도다)
아무거나 누르다가 고장 내지 마라.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다현 (웃으며 끄덕이고) 걱정 마.

유준이 화장실에 간 뒤, 태블릿을 이리저리 만져보던 다현의 표정이 굳는다.
갤러리에서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가 된다면서 사진이 동기화되고 있는데,
썸네일로 사진 미리보기가 보인다. 그런데, 다현의 상반신이 벗겨진
탈의 사진이다. 다현, 놀라서 입을 확 막으며 태블릿을 내려놓는다.

#28. 다현의 회상. 해찬학원 건물 뒤(밤)

아이들이 학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모습이 멀리 보이고.
큰길에 바로 보이는 골목에서 다현, 유준을 불러서 마주 보고 섰다.

다현(E) 혼자 해결해보려고 사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유준 (표정 싹 바뀌며) 아, 씨발. 어떻게 알았는데? 너 내 핸드폰 뒤졌냐?
다현 (팔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거, 범죄잖아. 나한테 나쁜 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사진만 지워줘. 안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유준 (다현을 때릴 듯이 팔을 들어 확 위협하며)
다현 약! (방어적으로 뒤로 물러서는데)
유준 야, 이다현. 잘 들어. 너 개 같은 짓 하면 죽여버린다. 경찰이나

부모한테 까봤자 너만 더러운 애 되는 거야. 동시에 니 사진,
학교 애들한테 다 오픈될 텐데 괜찮겠어? 어?

다현 (공포스럽고) 강유준...

다현(E) 그때부터 대놓고 폭력적으로 굴었어요. 여친 행세 계속하라고
협박하고.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자기 인생이 망하니까 닥쳐야
한다면서, 기분 좋을 땐 잘해주고.

#29. 현재. 병실 안(낮)

다현, 의외로 담담하게 말 이어가고 있지만 다현의 모가 실신 직전이고,
다현 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병실을 나간다.
다현보다 더욱 서럽게 울고 있는 건... 아름다.

다현 하루 종일 감시하니까 경찰서에도 못 가겠고, 부모님한테는 더 말
못 했어요. 친구나 여자 쌤들한테도. 근데 치우 쌤이 경찰공무원
준비하신다는 소리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치우 바라보고)
쌤이 도와주시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치우 (역시 안쓰럽게 다현 바라보는데)

#30. 다현의 회상. 해찬학원/자율학습실(밤)

유준과 다현, 지정 좌석에서 나란히 공부하고 있는데 치우가 유준에게로
다가온다. 치우가 '내신 시험범위 체크'라고 쓰인 포스트잇을 보여주고 잠깐
나오라는 시늉을 하자 유준이 그대로 치우를 따라나선다. 치우, 나가면서
다현을 슬쩍 보면 다현이 치우와 눈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치우 나간 거
확인한 다현, 유준의 자리로 가서 동영상 강의가 재생 중인 태블릿을 조작해
갤러리에 들어가 본다.

다현(E) 쌤이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라고 해서,
사진부터 찾아서 쌤하고 같이 신고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까진 찍었는데.

갤러리를 한참 뒤지다 이전에 봤던 자신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찾아낸다.
손이 떨리는데... 얼른 그 사진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고는 유준의 태블릿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리에 앉는 다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1. 다현의 회상. 학원 근처의 카페(밤)

강의가 다 끝난 늦은 시간에 다현이 치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다.
다현이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데, 다현이 괴로워하자 치우가 휴지를 쟁겨준다.
얼핏 보면 다정하다. 테이블 뒤쪽에서 다현과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다현과 치우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여기저기에 연락을 돌린다.

다현(E) 쌤이랑 얘기하는 걸 학교 애들이 보고 이상한 소문을 냈나 봐요.
강유준은 그걸 듣고 화를 냈고... (울먹이며) 그래서 사진 찾고
나서도 신고를 못 했어요. 강유준이 자, 자살한 상황에서...
쌤이 그렇게 한 거라고 누명 쓸까 봐. 그런데 오해까지 생기고...

#32. 현재. 병실 안(낮)

다현이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다들 감정을 억지로 참는 분위기다.

형사 다현아, 그만 얘기해도 괜찮아.
다현 (핸드폰 다시 보며) 이 말... 강유준이 예전에 했던 말 하고
똑같아요. 사진 퍼져도 괜찮냐는...
형사 다이렉트 메시지는 내가 바로 조사해볼게. 괜찮지?
다현 (끄덕하고) 치우 쌤한테 사과는 꼭 하고 싶어요. 아름 쌤도 저
걱정된다고 계속 연락해주셨는데 제가 무서워서 답장도 못 했고...
죄송해요. (말을 잊지 못하고 운다)

형사, 치우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치우 보고. 치우는
오히려 속 시원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다현을 바라본다. 미안함에 눈물을
쏟아내는 아름을 오히려 다현이 다정히 손을 잡아 위로한다.

#33. 병원/복도(낮)

형사와 아름, 치우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다.

형사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다현이 생각해서 비밀유지 부탁드려요.
특히 학생들에겐.
아름 그럼요. 그런데... 대체 누가 저런 메시지를.
치우 공범일까요? 하지만 지금 그쪽에서 다현이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유포해봤자 자기 존재 드러내는 꼴밖에
더 안 되는데.
아름 (치우의 푹 부러지는 말에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 바라보면)
형사 (동의를 의미로 입술 꼭 다물다가) 저도 지금으로선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긴 하네요. 말씀처럼 자기 무덤 파는 꼴이니... 다현이와
유준이의 사이를 안 누군가가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을 했을 확률이
가장 높죠. 그렇다면 다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연락을 계속 취할 테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름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형사가 인사하고 먼저 간다. 아름과 치우, 반은 안심이라는 표정,
반은 걱정이라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34. 병원/로비(낮)

아름과 치우, 로비를 걷고 있다. 아름이 걸음을 멈추고 치우를 바라본다.

아름 왜 애길 안 했어요. 이 큰 문제를 혼자서...
치우 소문은 사실이 아니면 금방 잠잠해진다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잖아요.
아름 하긴. 쉽게 말 못 꺼냈을 거 같네.
치우 근데... (마음이 무거워진다) 제가 의심받는 거 때문에
다현이가 저렇게 괴로워할 수 있단 것까진 생각 못 했어요.
아름 (일부러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진짜 사람 한나 잘 본다.

치우 학생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조교가 어딴어. 치우 씨 꼭 경찰 돼요.
(그제야 긴장 풀려 피식 웃으면)

아름도 웃긴 웃지만 다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던 것의 여파가 남은 듯
심호흡을 길게 한다. 그런 아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치우인데.

#35. 경찰서 안(낮)

형사, 해준과 앉아 있다. 유준이 다현에게 했던 짓을 모두 설명했다.

해준 (당황하면서) 유준이가... 자기가 한 행동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사 정황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어서며) 그럼.

형사가 자리를 뜨고, 해준은 그대로 혼자 남아 괴로운 마음이다.

해준 (혼잣말로) 대체 왜, 니가 왜...

#36. 장례식장 안(낮)

꽃으로 꾸민 제단 가운데에 유준의 영정사진이 곱게 놓여 있는 장례식장.
상주 석에는 유준의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서 있고, 해준은 없다.
“유준이 형은?”, “부모보다 정신을 더 못 차린다네. 둘이 그렇게 살갑더니
충격이 크겠지” 하는, 앞서 인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신발을 벗고 있는 아름의 귀에 들린다. 아름, 그들을 슬쩍 본다.

JUMP

원장과 강사들, 그리고 아름이 단체로 인사하고 일어서나.

유준의 부모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 나오는 아름 일행.

강사1 (강사2에게 속삭이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장례를 치러요?

조사 중인 거 아니었어요?

강사2 (낮은 소리로) 유준이가 혼자 그런 걸로 결론 났잖아요.
하긴 당연히 혼자 그랬겠지, 누가 굳이 몫쓸 짓을 했겠어요.

강사1과 2가 수군대며 자리 뜨고 원장과 치우, 아름이 그 뒤를 따라
나가려는데, 그 뒤로 들어오는 유준의 친구들. 훑찍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재원
혼자만 호기심이 가득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
아름, 그런 재원이 신경 쓰여 뺨히 뒷모습을 바라본다.

#37. 장례식장/복도(낮)

아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복도로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재원 나온다.
조금 전 재원의 눈빛이 떠올라 괜히 재원을 유심히 본다. 재원, 분향소 옆으로
길게 늘어선 조화를 쭈욱 바라보더니...

재원 (국어책 읽듯 감정 없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폼.

아름 (재원의 웃음에 놀라고)

재원 (조화 옆을 천천히 걸어 복도를 지나가면서)
명복을 빌긴 뭘 빌어. 똤져도, 싸지.

아름, 재원의 혼잣말에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서 있다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린다.

#38. 학원가 전경(저녁)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바쁘고 번잡한 학원가 풍경.

#39. 해찬학원/복사실(저녁)

아름, 수강생들 나눠줄 유인물을 복사하고 있는데, 낮에 본 재원이 자꾸

떠올라 집중력이 흩어진다. 유인물은 줄줄 나오는데 생각에 빠져 있는 아름.

INSERT

‘죽어도 싸다’며 죽은 유준을 비웃었던 재원의 모습.

아름 (쩍쩍하다) 분명 뭔갈 알고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마음이 복잡한데, 복사실 밖의 복도에서 학생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학생3(E) 강유준 발견한 게 이다현이라며.

학생4(E) 대박. 이다현 이제 어떻게 사냐.

(속삭이듯) 둘이 진짜 가까웠잖아, 19급으로.

학생3(E) 미친! 그런 거 어떻게 알아?

학생4(E) 그렇게 티를 내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서로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색기 줄줄.

아름, 가만히 듣고 서 있다가 복도로 나가 학생들의 앞을 막는다.

학생들, 아름 보고 당황한다.

아름 (무표정하게 학생들을 빨리 보다가) 쉬는 시간 끝나간다.

얼른 강의실로 들어가.

학생3과 4, 대답하는 등 마는 등 하고 획 돌아서서 가버리면 아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숨을 내쉰다.

#40. 해찬학원/강의실(저녁)

아름이 무거운 표정으로 강단에 서 있고, 아이들 역시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아름이 뒤에서 카메라 켜려는 치우에게 신호 보내자 치우가 카메라

켜지 않고 대기한다.

아름 애들아.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는데)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쌤이 한마디만 할게.

학생들 (고개 들어 아름 바라보면)

아름 다들 혼란스럽고 힘들 거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입시 스트레스...

이런 얘기가 너희들 모두의 일이니까.

학생들 (가만히 듣고)

아름 하지만 우리, ‘이 일로 멘탈이 나가서 공부 못 하면 어떡하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그냥... 먼저 떠난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자.

그걸로 너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그제야 여기저기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훌쩍이는 학생들이 생긴다.

아름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추모한 뒤에 현실로 돌아와도 늦지 않아.

쌤은 언제나 너희들 편이니까.

눈물 고인 눈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아름의 얼굴에서.

#41. 병원/복도(밤)

아름, 달달한 케이크를 사 들고 다현의 병원을 찾아왔다.

진료도 끝나고 면회 시간도 끝나 한적한 병원 복도를 뚝뚝뚝 걷는데,

다현이 병실에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병원 밖을 내다보고 있다.

아름 다현아! (반갑게 케이크 흔들어 보이면)

다현 (표정 어둡다가 아름 보고 환해지며) 쌤.

아름, 다현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42. 병원 앞 산책로(밤)

아름과 다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아름 정말 안 추워?
 다현 네, 여기가 좋아요. 병실 답답해요.
 아름 퇴원은 언제 할 수 있대?
 다현 ...사실 아픈 데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좀 더 있었으면 하세요.
 집에 저 혼자 놔두기 불안하다면서.
 아름 (그런 다현이가 찡해 손을 꼭 잡아주고) 기분이 좀 어때.
 다현 (울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지만 눈물이 금방 고인다) 그냥,
 그냥 아직은 마음이 답답해요.
 아름 ...당연해. (조심스럽게) 그 뒤론 이상한 연락은 안 왔고?
 다현 (끄덕이고) 그냥 누가 장난... 쳤나 봐요.
 아름 (잠시 생각하다가) 짐작 가는 사람은 없어? 혹시 니 상황을 알고
 있다거나, 유준이랑 네 관계를 알고 있다거나...
 다현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혹시 강유준이... 아, 최재원.
 아름 최재원?
 다현 작년까지 강유준하고 친했던 앤데 최근에 썸 까진 했거든요.

아름이 다현을 바라보면, 다현이 말을 잇는다.

#43. 버스(밤)

아름,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다.
 습관적으로 소매를 걷어 속의 화상 자국을 만지작거리는 아름.

#44. 병원 앞 산책로(밤)(#42 연결)

다현 이상한 일로 싸우는 걸 한 번 봤어요. 그땐 강유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던 때라, 저랑 사이가 좋을 때였거든요.

#45. 다현의 회상. 고등학교 분리수거장(낮)

청소 시간에 밖으로 나온 다현, 폐휴지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다가가는데
 수거장 안에 서 있는 유준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옆엔 재원이 있다. 다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자 다가가지 않고 나무 뒤에 가만히 선다.

유준 니가 뭔데 하라 마라야.
 재원 (결렁대는 스타일이지만 말투는 단호하게)
 이러다 니 인생 조진다고. 그 개 같은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유준 (재원의 코앞으로 한 발 다가가며)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새끼.
 재원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다가서는데) 이렇게 더럽게 사는 거
 니네 부모도 알아?
 유준 뭐? 씨발, 진짜. 말이면 단 줄 아나.

다현, 유준과 재원의 대화를 듣고 차마 아는 척은 못 하고 돌아선다.
 그러다가 들고 있던 폐휴지를 죄다 놓치자 얼른 주위 벽 뒤로 숨는데.

#46. 병원 산책로(밤)(#44 연결)

아름과 다현, 벤치에 앉아 있다.

아름 (다현이 한 말을 곱씹는데, 묘한 표정이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고...
 다현 지금 생각해 보면 최재원이 뭔갈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다고 개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지만...
 아름 다현아, 혹시 개 사진 있어?

다현, 핸드폰 뒤적여 재원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데,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학생이 맞다. 뭔가 짝이는 표정으로
 재원의 사진을 보는 아름.

#47. 현재. 버스(밤)

버스에 앉아 있는 아름,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핸드폰 꺼내서
치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48. 고등학교 앞(낮)

하교가 한창인 아이들이 교문으로 쏟아져 나온다. 아름과 치우,
교문 옆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다 확인하고 있다.
아이들 다 나오고 숫자가 점차 줄어들자 초조해지는데.
그때 멀리서, 재원 나온다. 재원을 보고 눈빛을 교환하는 아름과 치우.

#49. 학교 근처(낮)

재원이 벤치 옆에 삐딱하게 서 있고, 그 앞에 아름과 치우가 섰다.

재원 (반항기가 섞였지만 호기심 가득한 조로) 그러니까, 모른다구요.
 치우 (재원을 뻔히 바라보기만 하는데)
 아름 듣고 왔어, 다현이한테. (급히 지어내며) 유준이가 너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게 후회된다고, 그런 얘길 한 적이 있다던데?
 재원 그런 거 없구요. (씨익 웃으며) 혹시 그렇다 해도 그쪽들한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왜 이런 거 물어보고 다녀요?
 학원 강사면 선생도 뭣도 아니잖아.
 치우 (재원의 말투에 올라오는 화를 참으며) 너한테 책임 묻거나
 그러려는 거 아니야. 우리 유준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재원 (O.L.) 그 새끼 똤어져도 싸요.
 아름 (표정 굳으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재원 저기요, 그 새끼가 이다현한테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캐보려고 온
 거 같은데. 그럼 핀트 나갔어요, 지금. 진짜 빌런은 따로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데에.

재원, 아름과 치우가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말 끝내고 가버린다.
치우가 재원 뒤따르려 하자 아름이 치우 앞 막아서며 고개 젓고.
치우, 그제야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 팍 내쉰다.

#50. 거리(낮)

아름과 치우, 나란히 걷고 있다.

아름 저 친구 태도 보니까, 공범이 있는 것도 맞고,
 저 친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도 맞네요.
 치우 가까운 곳이라면... 친구일 수도 있겠어요.

그 순간 아름,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여 휘청한다.

치우 (아름 붙잡는데 소매가 올라가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름 (화상 자국이 보이자 얼른 소매 내리고 바로 선다) 아... 괜찮아요.
 치우 너무 신경 쓰셨나 봐요.
 아름 먼저 갈게요. 이따 학원에서 봐요.

아름, 걱정하는 치우에게 당황한 표정을 들릴까 봐 빨리 앞서 걷는다.

#51. PC방 일각(저녁)

예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자, 해준이다.
 해준, 학원 강사들에게 보였던 수수하고 슬픔에 잠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불안한 모습으로 웹클라우드를 급히 포맷하고 있다.
 포맷되는 자료는... 다현이는 물론 온갖 여학생들을 도촬한 사진들.
 해준, 누군가 사진을 보기라도 할까 봐 포맷 버튼을 누르고 창을 축소한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포맷이 끝나길 기다리다가 전화가 오자 받는데.

해준 네, 엄마. ...네? 아뇨, 유준이 책상 그냥 두시라구요.
치위도 제가 치울 테니까. 물건 막 만지지 마세요.

해준이 통화를 이어가려고 잠시 자리를 뜨자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해준의 자리를 넘겨다본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쓰고는 포맷되는 클라우드 화면을 뚱히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이다!

아름 (차가운 목소리로) 예상대로... 니가 맞구나.

아름, 감정이 과하게 담긴 듯도 하고 하나도 담기지 않은 듯도 한 섬뜩한 표정으로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를 끝낸 해준이 다시 들어오자 서둘러 후드를 더욱 깊게 눌러쓰고 자리를 뜬다. 좁은 통로에서 해준과 서로 스치지만 해준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52. 아름 자취방(저녁)

아름, 집으로 들어오면서 검은 후드를 벗는데 얼굴이 발갱게 달아올라 있다. 싱크대로 다가가 찬물로 세수를 하는데 싱크대로 핏물이 번진다. 아름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다.

#53. 아름의 회상. 어느 중학교/운동장(오후)

아름이 다녔던 중학교의 운동장이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앞 신에서 물에 퍼진 아름의 코피와 연결되듯 운동장 물웅덩이에 검붉은 피가 퍼지는 것이 보인다. 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다. 학생들, 그 모습을 보고 건물 사방팔방에서 쏟아져 나와 비명을 꺽꺽 질러대는데, 그 틈을 비집고 달려온 한 여학생은... 중학생 아름이다.

어린 아름 안 돼, 안 돼... (넋이 나가 있다)

아름이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말린다.

아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악을 쓰며 그들에게 매달려서 온다.

#54. 아름의 회상. 어느 병원/영안실(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름의 뒷모습. 지난번 꿈에 나왔던 기억의 연장선이다. 아름이 서럽게 울면서 바라보고 있던 건 안치대에 누워 있는 친구의 시신이다. 가슴께까지만 시트를 덮었다. 시신 옆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은 아름, 친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서럽게 운다.

#55. 아름의 회상. 어느 중학교/운동장(낮)

얼굴이 썩한 중학생 아름, 잔뜩 주눅이 든 채로 하고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주변의 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몸이 움츠러든다. 그때부터 주변에 서 있던 학생들이 다 아름을 바라보고 중얼거리는 듯한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재 몸 팔았다며. 더러워”, “개 죽었는데 학교 어떻게 다녀?” 같은 소리들. 아름,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들자 괴로워하며 귀를 틀어막는다.

#56. 아름의 회상. 경찰서 앞(낮)

아름, 비쩍 마르고 초췌한 몰골로 경찰서 주차장을 서성거리고 있다가, 중학생 해준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게 보이자 얼른 차 뒤로 몸 숨긴다. 출가분한 표정인 해준과, 그 어린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차에 타고 있다가 형을 보겠다며 해맑게 달려나온 동생 유준까지.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마치 수학여행을 다녀온 아들을 반기는 듯한 가족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바라보고 있던 아름, 얼굴이 새하얗게 경찰서를 나온다. 잠시 걷는 듯하다가... 가로수 앞에서 구역질을 하며 눈물을 쏟아낸다.

#57. 현재. 아름 자취방(저녁)

그 어린 아름의 얼굴에서, 다시 현재, 세수하고 물기를 터는 아름의 얼굴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는 듯 수건으로 얼굴을 꾸욱 눌러 물을 닦는다.
그대로 한참 있다가 검은 후드를 벗고는 옷장을 여는데 노끈, 굵은 밧줄,
청테이프, 작은 칼, 마취 약품 등... 옷장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들어 있다.
그것들을 다 꺼내, 무슨 준비라도 하듯이 검은 가방에 쓸어 담는 아름.
그리고 후드를 밝은 옷으로 갈아입고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다.

#58. 병실 안(저녁)

다현의 병실. 다현 모, 물병 들고 나가자 다현이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본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수많은 도시의 조명을 바라보고 있는 다현.

#59. 해찬학원/라운지(저녁)

치우, 게시판에서 '전교 1등 강유준'의 얼굴, 이름이 붙은 포스터를 다 떼고
있다. 아름이 하는 수업의 새 포스터를 붙이며 게시판을 새 단장 하는 중이다.
홍보 태블릿에서 유준, 다현의 영상이 나오자 그 영상을 끄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이 유준이의 얼굴을 뵈히 바라보는 치우.
마침 수업을 하나 마친 아름, 피곤한 기색으로 강의실에서 나온다.

아름 치우 씨, 예비 고1 애들 단어 리스트 프린트 줘...
치우 (O.L.) 강해준이요.
아름 네?
치우 (아름 보며) 빌런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고 했잖아요.
형이요, 유준이 형.

치우, 반짝이는 눈빛으로 아름을 보는데.
아름,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60. 병실 안(저녁)

다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의 문을 드르륵 연다.
뒤를 돌아보는 다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듯 의문에 찬 표정이다.

#61. 카페(저녁)

아름과 치우, 음료를 시켜놓고 앉아 있다.

아름 무슨 일이에요?
치우 강해준 SNS에 들어가 보니 출신 학교가 적혀 있더라고요.
마침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학포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느냐고.
아름 그런데요...?
치우 유명했대요, 엘리트 범죄자로. 저도 그때 얼핏 소문 들었던
기억이 나요. 같은 동네였으니까.
아름 ...범죄자요?
치우 성범죄요. 그런데 처벌도 안 받았어요, 집안이 좋아서.
아름 (상 밑에 있는 손이 괜히 덜덜 떨리는데)
치우 유준이와 그런 짓을 같이한 사람... 강해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범죄에 발 한번 담그면, 절대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치우가 계속 설명하는데 아름은 식은땀을 흘리며 불편한 표정이다.
그때, 아름의 핸드폰이 울린다. 보면 '이다현 어머니'이다.
아름, 애써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는다.

아름 네, 어머니. 다현이는 잘 지내는... 네?

아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
치우도 따라 일어나는데.

#62. 택시 안(밤)

아름과 치우, 무거운 표정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치우 (본인이 긴장했으면서) 잠깐 근처에서 바람 쐬고 있을 거예요.

아름 (무덤덤하게 창밖 보며)

강해준이 다현이 일 공범일 수 있다고 했죠.

치우 그건 그냥 제 생각...

아름 (O.L.) 그럼 다현이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말이 돼요.

결과적으로 경솔한 짓이 되긴 했지만.

치우 (아름의 말뜻 이해하고) 증거를 없애야 처벌을 안 받을 텐데...

아름 마지막 증거는 다현이 손에 있으니까요. 다현이가 찍은 그 사진.

다현이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길 바랐을 텐데, 그 때문에 도리어 경찰까지 모든 걸 알게 될 줄은 몰랐던 거 같아요.

치우 후우.

치우, 핸드폰으로 다현에게 계속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아름, 오히려 마음을 다잡는 듯 침착해지는 표정인데.

#63. 병원 앞 산책로(밤)

예전에 아름과 다현이 대화를 나눴던 산책로를 뒤지고 있는 아름과 치우.

그때 건물에서 달려 나온 간호사가 아름과 치우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간호사 비상계단 CCTV 확인됐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찍혔대요.

아름 옥상이요?

아름, 얼른 건물 위를 바라보는데...

옥상 난간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듯하다.

INSERT

중학생 아름의 친구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지기 전, 난간에 올라섰던 모습.

친구를 잡으려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잡지 못하고,

친구가 훑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했던 중학생 아름의 절규하는 표정.

그때와 똑같은 표정의 아름, 병원 건물로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간다.

#64. 병원 옥상(밤)

누군가의 힘에 의해 다현이 옥상 난간으로 확 밀쳐지곤 간신히

중심을 잡는데! 다현이를 민 사람은, 해준이다. 악에 받친 표정과 눈빛.

다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먹이며 해준을 바라본다.

다현 대체, 왜, 왜 이러...

해준 (O.L.) 니가 뭔데. 내 동생 숨통 끊어놓은 걸로도 모자라서, 죽은 애 평판까지 조지려고 걱정했냐? 어?

다현 (겁에 질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해준 (다현의 어깨를 잡고 난간으로 더욱 밀치며) 니가 죽여놓은 강유준! 개가 내 동생이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다 파헤치니까 좋았냐? 좋았어? 그렇게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지. 경고할 때 들었어야지. 그 불쌍한 애를 왜... (동생 생각에 울먹이고)

다현 (해준의 손을 떼어내려 하며)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잘못된 건 강유준인데 왜 저한테...

해준이 더 이상 대꾸 않고 다현을 더욱 세게 밀자 다현의 얼굴 하얗게 질리는데, 그때 옥상 문 열리고 치우가 달려 들어와 해준을 제압한다. 뒤따라 들어온 아름이 다현에게 달려와 다현을 감싸 안는다.

아름 다현아, 괜찮아. 괜찮아.

다현 (그제야 눈물이 확 터지고) 쌤... 쌤...

아름 선생님이 다 미안해.

(같이 운다) 쌤이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해. 미안해.

뒤늦게 다현 부모, 병원 가드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현장이 정리되지만
아름만큼은 다현을 꼭 끌어안고 계속 달래준다. 마치 본인이 위로 받듯이.

#65. 몽타주

— 버스 안, 어떤 학생의 핸드폰 화면.

고등학교 익명 SNS가 유준과 해준의 얘기로 뜨겁게 달궜어 있다.
잘못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서 자살한 거라면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유준의 죽음을 조롱하는 학생들의 댓글이 가득하다.

— 고등학교 일각.

유준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가벽이 학생들의 우유 테러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학교 관리인들, 얼른 다가와 추모 벽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66. 카페(낮)

화창한 날씨의 어느 날. 아름과 다현 모, 카페에 마주 앉아 있다.

다현 모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현이 학교 그만두고 혼자 입시 준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끔찍 앓더니, 오히려 이렇게 다 밝혀지니
속 시원하다고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름 다현이가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힘낼 거예요.
진짜 도움 주신 분은 민치우 선생님이에요.

다현 모 안 그래도 인사드렸어요. 다현이는 좀 더 안정되면
꼭 선생님들께 연락드리겠다고 하네요.

아름 (미소 지으며) 어디서든 잘 지내라고만 전해주세요.

다현 모 네, 선생님.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 풀려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름 네?

다현 모 (착잡하게) 구속시킬 정도의 범죄를 입증할 수가 없다고. 현장에서
잡았는데도요. 강유준이라는 학생이 한 짓도, 이젠 공소권이
없어서 더 이상 조사를 못 한대요. 우리 다현이... 어떻게든 상처

달래줘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아름, 다현 모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다현 모의 말이 점점 에코로 들린다.

아름의 눈빛이 점점 멍해지고, 귓가에서는 주변의 소음이 일그러지며 소리가
웅웅거린다.

#67. 카페/여자 화장실(낮)

칸에 얼른 뛰어 들어온 아름,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한다.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얼른 삼키고는
변기 뚜껑을 덮고 간신히 앉는다.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꼭 감은 채로 몸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데.

JUMP

아름, 변기에 그대로 앉아 다현의 학교 익명 SNS를 다시 들어가 본다.
하루 만에 여론이 모조리 뒤바뀌어 있다. 대부분의 글이 유준을 향한
욕이다. 다현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댓글부터, 이때다 싶어 자기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는 식의 박쥐 같은 의견까지. ‘강유준 미친놈, 지가 쫓려서
죽었네’라는 댓글을 보던 아름의 눈이, 묘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바뀐다.

칸에서 나온 아름, 세면대 거울 앞에 선다. 웃는 것 같기도,
우는 것 같기도 한 듯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아름의 표정.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는 아름인데.

#68. 아름 자취방(오후)

유준이 죽은 직후 아름이 바라보면서 눈물 삼켰던 액자를 다시
보고 있는 아름. 이번엔 표정이 무미건조하다.

액자에서 사진을 주섬주섬 꺼내 유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그 부분만 파내어 잘라버린다.

아름이 이전에 싸두었던 검은 가방은 현관에 다소곳이 놓여 있다.

곧 들고 나가더라도 하려는 듯이.

#69. 해찬학원/데스크(오후)

아름,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교무실에서 가방을 챙겨 나온다.

아름 (데스크에 있는 치우에게) 먼저 갈게요. 마무리 부탁해요.
 치우 네, 들어가세요.
 아름 (원장실 안 들리게 소곤대며) 야간 수업 없으니까 좋네요.
 치우 (웃고)
 아름 (정말 즐거운 얼굴로) 바람 좀 쐬러 가려구요.
 물도 보고, 산도 보고.

아름이 나간 뒤 치우, 출석부 정리 중인데 학생2가 다가온다.

학생2 (잘생긴 치우 얼굴을 보러 일부러 왔지만 아닌 척) 쌤,
 저 인강 사이트 로그인 비번을 못 찾겠어요.
 다섯 번 틀렸다고 더 안 된대요.
 치우 인강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본인인증 다시 하고 비번 새로
 받으면 돼. 다음 쉬는 시간에 오면 해줄게.
 학생2 네! (혼잣말로) 우와, 치우 쌤이랑 젤 길게 말했다. (강의실로 가고)

그때 치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듯 움직임이 멈춘다.

INSERT
 죽은 유준을 발견한 직후, 경찰에게 유준과 인강 아이디를 같이 썼다고
 얘기하던 다현의 모습.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문자가 와서 유준을 찾아
 올라갔던 다현의 말.

치우 (의문스럽다) 인강 사이트는 매일 접속했을 텐데,
 비번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 왜 하필 그때 로그인에 실패했다는...

그때, 치우의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 받는 치우.

치우 도현아, 나 지금 근무 중이라...
 도현(F) (O.L.) 니가 그때 물어본 그 선배 있잖아. 강해준.
 치우 (다음 내용이 뭔가 불길한 느낌이고) 어, 그 사람 왜.
 도현(F) 그 사건 피해자... 한국 살고 있나 보더라. 최근에 동네에서 봤다는
 동창들이 있던데. 근데 그게...
 치우 그게 왜?
 도현(F) 사진 하나 보내줄 테니까 봐봐. 너네 학원 거 같아서.

치우, 통화를 종료하고 도현이 막 보내준 사진을 열어보는데.
아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아름의 수업 홍보 포스터다.

치우 뭐야? 이걸 왜...

그러다가... 그제야 아름에게 시선이 박힌다. 환히 웃고 있는 아름의 얼굴.

#70. 아름 자취방 건물 안(오후)

복도 계단을 올라오는 아름의 발. 아름, 현관문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71. 해찬학원/데스크(오후)

치우, 데스크톱의 인터넷 창을 열어 'OO중학교 소문', 'OO중학교 사건',
'OO중학교 유명한 일' 등을 검색한다. 몇 페이지 뒤져도 별 소식이 없다.

치우 (답답하다) 디테일, 디테일 기억하는 놈 없냐고.

마지막으로, 'OO중학교 피해자'라고 검색어를 바꿔 검색한다.
페이지를 몇 번 넘기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학교 평판에 대한 글이 보인다.
'OO중학교, 다들 명문인 줄 아는데 200X년에 엄청난 일 있었잖아.'

내가 옆 학교 다녀서 가해자 피해자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시작하는 글.

치우 (긴장한 표정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중학교 남학생이 바로 옆에 있던 여자 중학교 학생 둘을 건드린 사건. 절친인 여학생 둘을 협박해서 술 먹여서 집에 데리고 가서는...

#72. 게시글을 토대로 한 치우의 상상. 어느 공간(낮)

중학교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 어느 방의 침대에 걸터앉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는다.
누군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교복 상의가 뜯기듯 벗겨지고,
방의 다른 쪽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다른 여학생은 공포심에 울부짖는다.

치우(E) 강압적으로 덮친 거야. 남자엔 그 장면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기 동생을 시켜서 다 찍게 했고.

골방의 다른 쪽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애. 구석에서 울부짖는 여학생을 바라본다.

치우(E) 여자애 하나가 개들을 피하려다가 난로에 화상을 입었는데 영상에 그거까지 다 찍히는 바람에 신상이 털렸어. 다른 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런데 가해자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화상 입은 여자애는 수업 중에 발작하고 실려 나가서 그대로 유학 갔고.

#73. 현재. 해찬학원/데스크(오후)

치우 (멍한 눈으로 화면을 뺀히 보면서) 팔에 화상 자국, 미국 유학...

INSERT

— 해찬학원 교무실에서, 미국 유학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 대학에서는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한다'고 설명하던 아롬의 밝은 모습.

— 지난번, 아롬을 부축해주다가 팔에 있던 화상 자국을 봤던 치우.

치우, 급히 수업일지를 뒤져보는데,
사건 당일 아롬은 마지막 타임에 했던 수업설명회 말고는 다른 수업이 없었다.
그 앞의 시간이 쪽 비었다는 뜻인데.

치우 (다시 화면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마저 읽는다) 피해자들 성을 따서 이양스캔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것이었지. 그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인 건데.
그 형제가 강 씨였던 것까지 다 기억나. 최상위권이라 모르는 애들이 없었거든. 집안도 좋았고.

치우, 더 못 읽겠다는 듯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허공을 본다.

치우 (중얼) 이양스캔들... 이 씨하고, 양 씨. 그리고 강 씨 형제.

원장 (원장실에서 급히 나오며) 양아름 선생 어디 갔어?

치우 네?

원장 (아름이 두고 간 사직서를 흔들며) 이게 뭐야 대체!

#74. 아롬 자취방(오후)

노을이 들어오는 아롬의 자취방. 살림살이를 다 빼서 정리한 듯 집이 텅하다.
해가 쨍한 날씨에 검은 우의를 챙겨 입은 아롬이 옷장 앞에 서 있다. 옷장을 열어서 가장 구석에 걸려 있던 옷을 꺼낸다. 중학교 교복이다. 아롬, 교복을 꺼내서 소중하다는 듯이 바닥에 펼쳐놓는다.

치우(E) 도현이가 분명...

도현(F) 나도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학 간 여자애 이름은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리고 그 교복 주머니에 꽃힌, 중학생 아롬과 아롬의 친구가 함께 찍은 귀여운 사진. 그 사진과 교복을 소중하게 쓰다듬는 아롬의 모습.

아름이 펼친 교복에 달려 있는 명찰엔... ‘양주아’라고 써어 있다.

도현(F) 양주아라고.

#75. 해찬학원 앞 거리(저녁)

치우, 학원에서 텅기듯 뛰어나오며 ‘양아름 선생님’에게 전화 건다.

FLASH CUT

조금 전, 퇴근하면서 즐겁게 ‘바람 쐬다’던 아름의 모습.

치우 진짜 미치겠네.

치우, 허둥지둥 택시를 잡으며 ‘강유준 형’에게 전화 건다.

치우 여보세요? 네, 저 민치우, (다급하고) 아니, 그 해찬학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아니, 좀 뵈 수 있을까요? 유준이 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어디 가는 중이시라구요?

#76. 아름 자취방 앞(저녁)

어스름이 완전히 내려앉은 저녁. 검은 우의를 입은 아름이 간단하게 가방을 챙겨 들고 택시에 오른다. 반사된 빛에 잠깐 환히 보인 아름의 얼굴, 왠지 모르게 섬뜩하다.

#77. 강가(저녁)

서울 근교의 강가. 강가 옆으로 보통 크기의 나무가 여러 그루 질서 있게 서 있다. 수목장이다. 가장 최근에 관리된 듯한 나무 앞에 해준이 서 있다.

해준 (목이 잠긴 채로) 유준아, 형이... 어떻게든 더 이상 험한 꼴 안 보게 할게. 땅속에서 이게 뭐냐, 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훌쩍 떠났어... 형이 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해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유준의 나무를 붙잡고 울려는데... 그때 뒤로 다가온 검은 우의를 입은 아름, 수건으로 해준의 입을 막는다. 해준이 미친 듯 버둥거리서 남자와의 완력 싸움에 아름이 밀릴 때쯤, 마취된 해준이 몸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는다. 아름, 마취 때문에 평화롭고 무해한 표정으로 잠든 해준을 뺨히 바라본다.

#78. 해찬학원 앞 거리(저녁)

막 택시 잡아탄 치우, 기사에게 목적지를 얘기하자 택시가 출발한다.

#79. 강가(저녁)

택시에서 뛰어내린 치우, 어둠에 두리번거리며 나무 쪽으로 다가가자 나무마다 제각각으로 꾸며진 이름표가 달려 있는 게 보인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아름이 강물이 흐르는 모양새를 바라보며 서 있다.

치우 (다가가며) 저기...

아름 (뒤를 도는데)

치우 (얼른 근처를 살펴보는데, 해준은 없다. 천만다행이다 싶고) 선생님.

아름 (표정도 말투도 무미건조하다) 전화에 문자까지 난리를 치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진짜 왔네요.

치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다 안 거잖아요.

치우 씨도 그 동네 살았었으니까. (점점 격앙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데요. 아직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 새끼들 이름 말고, 나랑 내 친구 이름이.

치우 (아름의 서늘함이 무섭지만 침착하게) 유준이를...
 설마 선생님이 그러신 거 아니죠? 어떻게 그런...
 아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저질러지더라고요. 내가...
 (목소리가 떨려 온다) 이름까지 바뀌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왔는데. 내가 걔, 얼마나 힘들게 예뻐하는 척했는데.

#80. 과거. 몽타주

— 약 2년 전쯤, 해찬학원 원장실.
 첫 계약서를 쓰고 나오던 아름. 친구들과 웃으며 학원 데스크를
 지나가는 유준을 뺨히 바라본다.

— 해찬학원 교무실.
 수업 후에도 유준을 불러 따로 어려운 문제를 봐주며 친해지려는 아름.

— 학부모 상담 기간, 해찬학원 응접실.
 부모 대신 해준이가 와서는 “유준이 형입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자 아름,
 긴장한 얼굴로 악수를 받는다. 해준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자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아름의 눈빛.

#81. 아름의 회상. 해찬학원 뒤 골목(밤)

아름(E) 근데 칼을 갈고 돌아와 보니까... 나 같은 건 알아보지도 못해.
 심지어 그놈 동생은 자기 형하고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현이 유준을 불러 사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하던 그 순간,
 사실 아름이 근처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 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아름.

#82. 현재. 강가(저녁)

아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소매를 걷어 화상 자국을 보여준다.

아름 이 상처를 보면서, 심장 찢기는 기분을 몇 년을 느꼈어요.
 난 그 형제 새끼들이 얼마나 악마 같은지 알고 있거든요.

FLASH CUT

치우의 상상과 연결되는, 아름의 회상. 구석에서 울던 중학생 아름의 얼굴을
 재미있다는 듯이 들여다보던 어린 유준, 그리고 웃음소리.

치우 그날 그 시간에, 위층에는 문단속하러 간 저밖에 없었고 CCTV엔
 아무도 안 찍혔어요. 선생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아름 위층 강의실은 창문만 열려 있으면, 바로 옆 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요.

#83. 아름의 회상. 해찬학원/위층 강의실(밤)

사건 당일. 유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강의실에서 태블릿으로 여학생들을
 도촬한 영상들을 집중해 보고 있다. 귀에 무선 이어폰 꽂혀 있는데,
 교실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온다. 유준이 집중하고 있을 때,
 검은 우의를 입은 아름이 뒤로 다가와 손수건으로 유준의 입을 막는다.

JUMP

정신을 잃었던 유준이 눈을 뜬다. 사태를 파악하려는 듯 얼른 주변을
 살펴보면, 앉아 있던 의자에 그대로 유준의 몸이 늘어져 있는 상태다.
 유준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는데 그 줄은 천장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유준, 순간 공포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데, 줄이 확 당겨진다.
 줄이 팽팽해지자 까치발을 하고 간신히 일어난 상태가 된 유준, 발을 디딜
 의자나 책상을 찾지만 전부 강의실 뒤쪽으로 밀어져 있어 닿지 않는다.

유준의 목을 조인 줄은 창문 옆에 붙어 있는 완강기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다.
아름이 줄을 유준—천장—완강기 순으로 도르래가 되게 만들어놓은 것.
완강기 옆에 서 있는 아름, 공포로 얼굴의 모든 근육이 떨리는 유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표정하게 창밖을 내다본다.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다.

INSERT

창밖의 상황. 완강기 줄이 건물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따라가
보면... 옥상에 있는 환풍기 회전 모터에 팽팽 감겨 있다.
아름, 유준이 버둥거리며 줄을 풀려고 하자 환풍기 리모컨 버튼을 누른다.
순간 환풍기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줄이 서서히 당겨지고,
유준의 발이 점점 위로 떠올라 버둥거린다.

아름(E) 뭘 잘못했는지 묻는데 끝까지 안 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지만 다 얘기해줬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걸 빼앗아갔으니...
니네 형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아름, (음소거 된 채로)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는
유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리모컨의 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

아름(E) 이렇게라도 해야, 나와 다현이가...
그리고 멀리 떠나버린 내 친구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해서.

한참을 버둥거리는 유준의 발을 멍하니 쳐다보는 아름의 모습.

#84. 강가(저녁)

치우, 아름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메스꺼운 표정이다. 아름이
'강유준'이라고 이름이 쓰인 나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잇는다.

아름 도촬 영상을 보고 있다가 자살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떨린다) 개들한테 그게 세상 즐거운 일일 텐데. 그래서
학원 인강 사이트를 켜는데 비번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INSERT

유준의 숨이 끊어진 뒤, 책상을 원래대로 정리하고는 유준의 태블릿을
보는 아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도촬 사진들을 달는다.
그리고 해찬학원 인강 사이트를 켜서 로그인을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한다.
이내 포기하고는, 시계를 본 뒤 얼른 창문으로 다시 나간다.

아름 비번 계속 틀리면 문자 가는 것도 몰랐고, 다현이랑 아이디
같이 쓰는 것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 내가 진짜 허술했다...
(허탈하게 웃다가 눈이 발개지며) 그거 때문에 다현이가
유준이를 발견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다현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치우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경찰서 가세요, 저랑.

아름 (미동 없이 말을 잇는다) 다현이가 치우 씨한테 고민을
털어냈을 줄은 몰랐어요. 치우 씨까지 엮이게 해서 미안해요.

치우 (마음이 급하다) 그만 애긴 나중에, 하고요!

아름 치우 씨가 다현이 살렸어요, 알죠? 치우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약간 떨어진 차도에 택시가 와서 선다. 예약된 택시다. 치우,
아름이 도주하려는 걸로 알고 막으려는데... 아름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꾸욱 누른다. 피부 표피가 찢어져 피가 흐른다.

치우 지금 뭐 하는... (우뚅 멈춰 서서) 하지 마요!

아름 치우 씨, 저 택시 타요. 얼른.

치우 뭐라고요?

아름 이대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관없고, 모른 척해도
상관없어요. 그쪽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제발 가요.
(칼을 잡고 있는 손에 더욱 힘을 주고)

치우 (다급하게) 알겠어요, 갈게요. 그니까 그만해요. 피 나잖아요.
(안절부절못하며 택시로 가다가 뒤돌아서서) 선생님, 저 선생님
믿고 갈게요. 제발 내일... 멀쩡한 얼굴로 만나요, 제발.

치우, 찢찢하면서도 얼른 도망가고 싶은 표정으로 택시를 타고 떠난다.
아름, 그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풀이 울창하게

자란 수변으로 걸어간다. 수풀엔 마취된 해준이 누워 있다.
아름, 있는 힘을 다해 해준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서 강 중간까지 가서는
물속으로 해준을 힘껏 밀어 넣는다. 그 과정에서 아름의 몸이 강물에 젖고,
아름의 얼굴은 눈물로 젖는다. 그대로 강으로 들어갈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는 아름의 멍한 얼굴.

#85. 경찰서 앞(밤)

택시에서 내려 허겁지겁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는 치우.

#86. 강가(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강가에 안개가 자욱해 주변이 잘 안 보인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한데. 잔잔하게 물보라가 치는 강변에 시체 한 구가 떠올라
있다. 화면 움직이자 얼굴이 보이는데...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은 해준이다.
그 옆 수풀엔, 아름이 입었던 검은 우의가 젖은 채로 버려져 있다.

끝.

작가 후기

이 작품은, 작품에 무엇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첫 작품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이야기의 경중을 따지는 과정을
배웠으며, 마지막으로 버리는 법을 익히며 작품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정의 시간 동안 단막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의 덩어리인지, 또 쓰는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과서인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저에게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자식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이 작품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뽑아주시고,
그리고 완고를 볼 수 있게 이끌어주신 김지일 센터장님과 임고은 대리님을 비롯한
오픈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정히 수정 방향을 알려주신 황은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고난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준 오픈의 동기들과 완고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문제의 대본들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살겠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경험이 최고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의 원동력인 자매들, 언니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저의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이유인 부모님과 희동, 끝없이 사랑합니다.

학폭과의
전쟁:
삼촌들
전성시대

연조

예전에는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다는 말이 있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싸우면 학폭위가 열리고 공권력이 개입한다.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 싸움의 크기도 잔인무도해졌다.
일부 피해 아이 부모들은 심부름센터의 강패를 고용해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일부 가해 아이 부모들은 학폭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아이들을 지킨다.
이렇게 끔찍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고 학교와 공권력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멈출 줄 모른다.
그 이유는 뭘까?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

등장인물

형배(48세, 남)

한때 건달 세계에서 ‘형배’란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떠는 시기가 있었다.
15년 전, 조폭 간의 세력 다툼으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2년 전 출소 후에
심부름센터에서 가정전문(불륜) 뒷조사 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허나 큰 덩치 때문에 매번 발각되면서 일자리 잃을 위기에 처하고
삼촌패키지 알바에 뛰어들게 된다.

익현(63세, 남)

형배를 건달 세계로 이끈 장본인이다.
형배의 멀고 먼 큰삼촌으로 대부님이라고 불린다. 한때 부산시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나 비리 혐의로 잘리고, 형배를 내세워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세력을 확장했으나 형배가 수감 된 뒤에는 건달 세계에서 은퇴하고,
조폭들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고문으로 활동하다 도운의 할아버지로
형배와 맞닥뜨린다.

건우(14세, 남)

학폭 피해자다. 덩치가 커서 ‘돼지 콜레라’ 혹은 등에서 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등냄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성공을 지향하는 부모 영향으로 전교 1등을 한다.

도윤(14세, 남)

학폭 가해자다. 체구는 작지만 귀엽고 잘 꾸민다. 반 아이들과 주도해서 건우를 괴롭히며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사채놀이를 한다.

건우 부모(40대)

건우 부는 시청 재무국 계장으로 성공 지향적이고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건우 모는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도윤 부모(50대·40대)

도윤 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폭력성이 짙은 인물이다. 도윤 모는 가정주부로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

심부름센터 영호, 김 사장 등

줄거리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형배는 불륜커플 뒷조사 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데 큰 덩치 때문에 발각되면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에 심부름센터 사장인 영호는 불륜 뒷조사를 때려치우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등·하교와 증거 영상 수집 일인 삼촌패키지 알바를 시킨다. 가오가 떨어진다는 거부하던 형배는 먹고살기 위해, 돼지 콜레라라고 놀림 받는 전교 1등인 건우의 삼촌 행세를 하며 증거 영상을 찍어 건우 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가해 학생인 도윤과 무리들에게 참교육까지 한다.

형배한테 당한 도윤은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화가 난 도윤 부는 맞불 작전으로 또 다른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삼촌패키지를 의뢰하는데... 형배한테 당한 적이 있는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거절하고 대신 형배가 한때 모셨던 큰 형님인 익현이란 인물을 소개한다.

형배와 익현은 과거 한 조직의 일원이었고 먼 친척 사이기도 하다.

허나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조폭 간의 세력 다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배가 수감되면서 인연이 악연이 되고 삼촌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된다.

학폭과의 전쟁: 삼촌들 전성시대

연조

#1. 어느 모텔 앞(낮)

차량 대시보드 위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
모텔 주차장을 보고 있는, 마스크를 쓴 누군가의 매서운 눈.
안에서 나오는 40대 남자와 20대 여자,
진하게 선풍된 에쿠스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
프라이드 차 안의 운전자, 핸들에 손을 올리고 액셀을 밟는데...
그의 큰 손과 발 때문에 핸들과 액셀이 앙증맞게 보인다.

#2. 도로(낮)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에쿠스를 미행하는 프라이드.
직진 차선에 있던 에쿠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한다.
헐! 급하게 좌회전해서 따라가는 프라이드.
직진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난리도 아니다.
에쿠스를 놓친 듯 주변을 살펴보는 남자의 시선.
저 멀리 우회전하고 있는 에쿠스가 보인다.
그 뒤를 미친 듯 따라가는 프라이드.
우회전을 하자마자 공사장으로 통하는 한산한 도로가 보이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프라이드를 막아선다.
벤츠에서 내리는 다섯 명의 조폭들,
야구방망이를 들고 프라이드를 향해 걸어온다.
그제야 보이는 프라이드 운전자(형배).
큰 근육질 덩치 때문에 차가 작아 보인다.
프라이드 차체 위로 올라가는 조폭들,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숴대기 시작한다.
라디오를 트는 형배,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핸들 위로 발을 올린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어서 여러 각도로 조폭들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열이 받은 조폭들, 유리창을 미친 듯 부숴댄다.
바지직! 앞유리가 부서지며 조폭1이 야구방망이로
형배 얼굴을 내리치려 한다.
야구방망이를 퍽! 손으로 잡는 형배,
잡아당기자 조폭1이 차 안으로 달려 들어오고.
때마침 조폭2가 조수석 창문을 깨고.
형배, 조폭1을 조수석 창밖으로 던지는데
조폭2와 서로 부딪치게 하여 쓰러뜨린다.
운전석 창문을 깬 조폭3, 사시미 칼을 들어 공격하자,
발로 차 문을 차는 형배.
조폭3, 차 문과 함께 공중으로 나가떨어지며 비명을 내지른다.

형배 (문밖으로 나와서는) 애네들, 왜 이래?!

차 위에 있던 조폭4,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자 유연하게 몸을 피하는 형배.
조폭4, 야구방망이를 시멘트 바닥에 내리치고
두 손이 아파 비명을 내지른다.
아프겠네 하는 표정을 짓는 형배, 조폭5와 눈이 마주치는데...
뒷걸음질 치는 조폭5, 벤츠를 향해 달려간다.

형배 (조폭5를 보며) 야, 애들 델고 가! 야~! 야~!

엄청난 속도로 형배 옆을 지나치는 벤츠.
형배, 핸드폰을 들어서 벤츠 차량 번호를 찍고는 쓰러진 조폭들을 쳐다본다.

형배 싸움도 못 하는 것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퍽 아래로 내려간 마스크를 올려 쓰는 형배,
퇴로가 막힌 공사장 안쪽에 멈춰 선 에쿠스 차량을 향해 걸어간다.
겁에 질린 40대 남자, 112에 신고하려는데 카톡! 영상 파일이 전송된다.
재생해보면 모텔 안에서의, 누구나 짐작하는 그런 화끈한 영상파일이다.
헉! 하는 40대 남자와 울기 시작하는 20대 여자.

차 앞으로 온 형배 보는 남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십만 원 다발을 꺼내 들이민다.

형배 (남자 노려보다 여자 보는) 남자 보는 눈 더럽게 없네.
남자 저기요, 집사람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좀 지워주세요. 네?
형배 (남자의 통사정에 돈을 받고는) 지웠어. (뒤돌아가는)
남자 (휴~ 안심하는데)
형배 (가다 말고) 아가씨, 이 새끼 여자 더 있어.

학하는 남자.
뒤돌아 가는 형배 얼굴 위로 여자가 남자를 때는 소리가 들린다.

형배 (환하게 웃으며) 농담인데.

#3. 심부름센터 앞(저녁)

올블랙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여성(건우 모),
가화만사성 심부름센터의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다.

#4. 심부름센터 안(저녁)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우 모.
서너 개의 테이블이 보이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들어오는 30대 후반의 남자(영호), 헉 놀란다.
그새 건우 모가 의자에 꿇꿇이 앉아 있다.

영호 (손님처럼 자리에 앉으며)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건우 모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이 문제를 도와주신다고.
영호 (여러 팸플릿 중 하나를 건네며) 아, 삼촌패키지요.

팸플릿을 보는 건우 모.
'증거 수집 및 등하교 동반', '현금 완납 시, 가해 학생 참교육은 서비스!!'
2주 500만 원이란 금액에 숨이 탁! 막히는 건우 모.

영호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건우 모 아뇨, 할게요.
영호 후회 안 하시겠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건우 모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단 속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을이 없어요. 증거 수집은 확실한 거죠?
영호 네, 걱정 마십시오. (스케줄 표를 내밀며) 아이 일과표 적어주세요.

건우 모, 종이에 일과표를 한참을 적다가 건넨다.

이에 파일을 건네는 영호.

그 안에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 사진 아래 프로필,

무술 단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파일을 뒤적거리는 건우 모.

이때 안으로 들어오는 형배.

건우 모, 형배의 큰 체구에 놀라 뚫어져라 쳐다본다.

기분 나쁜 저 시선은 뭐야? 하며 밖으로 나가는 형배.

영호 마음에 드세요? 저분도 삼촌패키지 전문입니다.

(형배 파일을 보여주는)

건우 모 (형배 프로필을 쳐다보다) 근데... 학력은 안 적혀 있네요.

영호 그건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건우 모 네?

영호 뭐 쓰진 못해도 한국 말 못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건우 모 (헉! 하는)

#5. 형배 옥탑 마당(밤)

파자마 차림을 한 형배,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는지 손으로 쿵쿵 내리치며 작동시킨다.

영호 (계단을 올라오며) 형, 영상 죽이던데.
 형배 개들 누구야?
 영호 심부름센터나 경호업체겠지. 형 덩치 좀 어떻게 해봐?
 형배 덩치를 어떻게 해?!
 영호 불륜은 안 되겠어. 애들 말어.
 형배 (눈이 무지하게 커지며) 가오 떨어지게.
 영호 우리가 가오가 어디 있어? 불륜은 안 떨어져?
 형배 ...어쨌든 싫어.
 영호 애 등하고 시키고 증거 영상만 찍으면 돼.
 형배 다른 애들 시켜.
 영호 애들이 살벌해서 못 하겠대.
 형배 그래봤자 애들이지.
 영호 요즘 애들 깡패야. 깡패. 형, 뉴스 안 봐?
 형배 뉴슬 왜 봐?!!!
 영호 (잠시 말을 잃고) 애가 불쌍하더라고. 다구리로 당한대. 오죽했음 애엄마가 학교 선생인데 찾아왔겠어. 불쌍한 애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증거만 찾아. (형배가 대답을 않자) 불륜은 안 된다고. 잠복을 못하잖아. 몸을 반쪽으로 만들든가 다이어트를 하든가 해!
 형배 내가 뺄 살이 어딴어?!

영호 (잠시 말을 잃고 이때 전화 오는) 어, 자기야. 이제 갈 거야.
 (형배 보며) 하는 걸로 안다. (다시 통화하며) 어? 튼튼이가?
 딸기가 먹고 싶대? (사이) 이미 사다왔지. 딸기가 달어. 당신처럼.

영호 영호의 허 째은 소리에 비위가 상하는 형배,
 수돗가에 있는 호스 들어서 계단 아래로 물을 뿌려댄다.
 영호의 비명 소리. “아앗! 미쳤어? 다 젖었잖아.”

#6. 건우 아파트 안(오전)

서류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는 건우 부.

건우부 나 이번 달 계속 야근이야. (현관문을 나가는)

그가 나간 뒤에 카메라가 넓어지면 거실에 아무도 안 나와 있다.
 잠시 뒤에 안방에서 나오는 건우 모,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들긴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170센티미터의 거구 건우(14세)가 나온다.

건우모 앞으로 삼촌이 지켜줄 거야. 아빠한테 비밀인 거 알지?

건우 ...그냥 전학 가면 안 돼요?!

건우모 전학은 개들이 가야지.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건우 엄마...

건우모 (단호) 김건우.

건우 (고개 푹 숙이는)

건우모 나가면 입구에 삼촌이 기다릴 거야. 얼른 가.

#7. 몽타주. 건우 등교

— 아파트 현관 앞

의기소침한 얼굴로 나오는 건우, 형배의 큰 체구에 놀라 쳐다본다.

형배도 건우의 큰 체구에 놀라 쳐다본다.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사람.

건우, 꾸벅 인사하고 앞서 걷는다.

— 등굣길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아이들.

짜증 난 표정으로 건우와 한참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형배,

건우를 놀리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본다.

“돼지 콜레라다”, “웁는다. 빨리 가자!”, “살처분 언제 하나?”, “방역 불러라”

형배, 건우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의아한 표정이다.

학교가 보이자 점점 걸음이 늦어지는 건우, 어느새 형배와 가까워진다.

건우 아저씨?

형배 왜?

건우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형배 삼촌이라고 불러.
 건우 깡패잖아요.
 형배 (노려보는)
 건우 (후다닥 앞서 걷는)

— 교문 앞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우.
 잠시 뒤, 따라 들어오는 형배를 막아서는 경비.

경비 (겁을 먹고) 저기 저... 여기... 외부인... 출입금지인데요.
 형배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저 건우 삼촌인데요.
 경비 (그 미소가 더 겁나는) 건우요?
 형배 (앞서 걷는 건우를 가리키는)
 건우 (이를 들었는지 달려가는)
 형배 저 새끼가... 뒤질라고...
 경비 (겁을 먹은)

— 교실 안

창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이들.

아이1 야, 저 덩치 뭐야?
 아이들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는 형배 보는)
 아이2 건우 삼촌이래.
 도윤 건우 삼촌? 돼지랑 하마랑 잘들 논다.

까르르 웃는 아이들.

이 말을 들었는지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건우.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진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로 가는 건우.
 못되게 생긴 아이가 일부러 건우를 밀치며 지나간다.
 건우, 중심을 잃고 옆 책상에 앉은 여학생과 몸이 부딪힌다.

여학생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우는) 나 어떡해? 콜레라 옮았어.

달래는 여자아이들, 아무 죄 없는 건우를 찌러본다.

체구는 작지만 곱상하게 생긴 도윤이 건우를 쳐다보며 교실 밖으로 나간다.
 그 뒤를 여러 명의 아이들이 따라 나간다.

#8. 건우 중학교/화장실 안(오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우, 도윤과 아이들 앞에 공손히 선다.

도윤 좀 쉬었냐? (건우가 말을 않자) 전교 1등이 한국말 못 알아들어?
 잘 쉬었냐고?!

건우 (고개 끄덕이는)

도윤 (건우 뺨을 세게 때리는)

건우 (고개가 휙 돌아가는)

도윤 우린 좇 같았거든.

건우 ...암 말 안 했어.

도윤 근데 니네 엄마는 왜 좇나게 갑치고 다니냐?!

건우 넘어졌다 그랬는데...

도윤 그랬는데?

건우 ...

도윤 너 엄마랑 같이 씻냐?

무리들 오우!! (갑탄사 연발하며 지들끼리 색드립 치는)

도윤 (건우 아랫도리를 툭툭 치며) 이 새끼 좇나 음흉한 새끼네.

건우 (도윤 손을 피하는)

도윤 야, 우리도 구경 좀 하자.

무리들, 건우 바지를 벗기려는데 강하게 저항하는 건우.

그 힘이 세서 한 명이 넘어진다.

무안한 듯 일어서는 한 명.

도윤, 그 한 명을 무참히 발로 짓밟는다.

그 모습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떠는 건우.

도윤 (건우를 차갑게 쳐다보며) 얼마나?
아이1, 일수 수첩 같은 것을 펼쳐 드는데 그간 갈취한 액수가 꽤 된다.

무리1 이십만 오천백 원 되겠습니다.
건우 (주머니에서 이만 원을 꺼내 건네는) 다음에 채워 넣을게.
도윤 그러니까 이걸 제때 갚았어야지. 학골 빼먹고 안 나와선...
우릴 왜 나쁜 사람 만들어? 나머진 언제?
건우 최대한 빨리...
도윤 이 새끼가 쉬는 동안 개념을 상실했네.
받을 땐 신난다고 가져가 놓고선! 야, 애 묶어.

건우를 에워싸는 아이들, 건우 팔을 뒤로 꺾는다.
건우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도윤,
뛰어오며 건우를 향해 발차기를 하려는데,
변기 칸 안에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도윤 뭐야?
무리들, 변기 문을 확확 열어젖히는데 한 군데가 열리지 않는다.
아이2, 발로 변기 문을 세게 차는데...
캉!!!! 안에 있는 누군가가 더 크게 발로 찬다.
문 상단 나사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에 뒷걸음질 치는 도윤과 무리들.
이때 안으로 들어오는 선생님.

선생님 니들 뭐해? 수업 중 쳤는데?
후다닥 화장실을 나서는 도윤과 무리들.
선생님, 누가 봐도 학폭 당하고 있는 얼굴의 건우를 보고도
못 본 척 나가버린다.
건우, 잠긴 변기 문을 보고 밖으로 나간다.

— 변기 안

형배, 변기 밖을 촬영한 셀카봉을 정리하며,

형배 썩은 것들이... 못된 것만 배워갖고.

인상을 구기는 형배, 뭔가 몸 안에서 쑥 나오려는지 더 인상 쓴다.

#9. 여러 학원들(저녁)

영어, 수학, 논술 등 학원을 바빠 움직이는 건우.
그 뒤를 쫓아다니는 형배, 건우 학원 일과표를 보며 혀를 내두른다.
복도 의자에 앉은 형배 보며 놀라는 아이들과 강사들.

형배 건우 삼촌입니다. 삼촌. 건우라고요. 저기 안에 있는데 지나가세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건우 삼촌이에요. 삼촌이요.

자습하고 있는 건우,
밖에서 들리는 “삼촌! 삼촌! 삼촌!” 형배 말에 귀를 들어막는다.
강의실 안을 보는 형배, 귀 막고 공부하는 건우 보며,

형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하아... 처맛고도 공부를 다 하네.

#10. 건우 아파트 현관 앞(밤)

형배, 앞서 걷는 건우의 지친 어깨를 보다가...

형배 야, 쥐봐. (가방을 뺏어 메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애 뭐야 하는 표정을 짓는데)

건우 (가볍게 가방을 들쳐 메고는) 가세요.

형배 (건우 팔을 덥석 잡고는) 너 일로 와서 나 한 대 쳐봐.

건우 뭐하는 거예요?

형배 힘도 센 새끼가 왜 맞고만 있어? 아저씨가 싸움 가르쳐줄게.

건우, 형배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간다.
 그런 건우를 붙잡는 형배.
 덩치 큰 돌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밀치고 잡고 생소를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 뭐야 하며 겁먹고 피해 간다.

건우 (안 되겠다는 듯 형배를 와락 밀치며 폭발) 싸우면? 싸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저씨 맞아본 적 없죠? 맞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형배 그러니까 때리라고, 임마!
 건우 때리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할 건데요? 둘 다 공무원인데...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형배 (순간 당황)
 건우 전 재들도 싫지만 아저씨처럼 사람 꽤고 다니는 사람은 더 싫어요. 내일부터 좀 떨어져 걸어주세요. (쌍하니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형배 하아...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는)

#11. 건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밤)

엘리베이터에 탄 건우,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혼자 남는다.
 거울 속 잔뜩 움츠러든 자신의 모습이 싫은지 고개를 돌린다.
 땡땡! 11층 문이 열리는데 내리지 않는 건우,
 고개 꼭 숙인 채 가만히 서 있다.

#12. 건우 아파트 옥상(밤)

옥상 비상문을 열고 나오는 건우, 바람에 옷깃이 날린다.
 난간 끝으로 향하는 건우, 옥상 아래를 내려다본다.
 주차된 차들과 사람들이 작게 보이고 차에서 내리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에...
 바람 때문인지 슬픈 건지 눈가가 젖어드는 건우,
 아무렇지 않은 듯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이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온다.
 '엄마, 급한 일 있어 나가봐야 해. 문제집 풀고 자.'

하아... 한숨을 내쉬는 건우, 뒤돌아서 비상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벌컥 문이 열리며 나타나는 도윤과 무리들.
 겁에 질린 표정의 건우.

#13. 건우 아파트 안(밤)

거친 숨소리로 외출 준비를 마친 건우 모가 현관 앞으로 오면
 그제야 우두커니 서 있는 형배 보인다.

형배 (문 열고 나가는 건우 모 보며) 저 건우는...

딸깍! 문 닫히고 뭐야 하는 표정의 형배,
 센서 등이 꺼지며 어둠 속에 잠긴다.

#14. 건우 아파트 옥상(밤)

뒷걸음질 치는 건우, 어느새 난간 앞까지 왔다.

도윤 이 새끼, 이젠 머리를 다 쓰네. 11층에서 한참 기다렸잖아.
 건우 (뒤로 물러서는, 난간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도윤 야, 깎치지 말고 앞으로 와. 씨발 누구 인생 조질라고?!

난간 아래를 보는 건우, 차에 타는 엄마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부르고 싶은
 표정인데 쌍하니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엄마 모습에 망연자실 쳐다보다 도윤
 무리 본다.

도윤 앞으로 오라고.
 무리들 (건우를 난간 안쪽 방향으로 모는)
 도윤 오늘 화장실 니네 삼촌이지?
 건우 ...
 도윤 학교 오지 말라 그래. 알았어?

건우 어.
 도운 어?
 건우 네.
 도운 (건우의 뺨을 타다닥! 연속으로 때리며) 삼촌 있다고 까부냐?
 까부냐고, 지금?
 건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하지 마.
 도운 (건우의 가슴과 뺨살을 꼬집으며) 어쭈? 어쭈? 어쭈?
 건우 하지 말라고...
 아이들 하면, 하면 어쩔 건데?
 도운 야, 펜 쥐봐?
 아이들 (건우 옷을 벗기려는)
 건우 하지 말라고...
 아이들 (건우 말을 따라 하는 아이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흐느끼며 우는 건우를 따라 하며 장난치는 아이들.
 이때 비상구 문이 광! 열리면 형배가 서 있다.

형배 니들 그림 좋아하는구나. 아저씨가 좋은 데 아는데?
 도운 아저씨, 애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형배 니들이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지.
 건우 (걱정스레 형배 쳐다보는)

#15. 문신가게(밤)

어둡고 음침한 가게.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타투 도안과 사진들.
 여러 개의 침대에 옆드린 채 누워 있는 도운과 무리들.
 온몸에 문신한 남자들이 아이들 몸에 문신을 새기려고 한다.

형배 손모가지, 발모가지 빼고 다 그려.
 아이들 (울부짖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욧!!!
 형배 니들 한 번만 건우 몸에 손대면 평생 후회하게 만든다. 알았어?
 아이들 네.

형배 (도운이 대답을 않자) 너 대답 안 해?
 도운 (이미 콧물과 눈물범벅인 채로) 네.

밖으로 나가는 형배, 문 앞에 서 있는 건우 본다.

형배 봐, 안 꿩지? 아저씨, 사람 패고 다니는 사람 아냐.

건우, 형배를 좋아하진 않지만 약간의 고마움과 혹여나 때려서 문제가 생길까 하는 약간의 걱정 등으로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뒤돌아 걷는다.

형배 안 꿩잖아! (되게 유치하게 건우를 따라가는)

#16. 버스 안(밤)

버스에 타는 건우, 본인 교통카드만 푹 찍고 탄다.
 뒤따르던 형배, 저 새끼가 하며 쳐다본다.
 맨 뒤 오른쪽 창가 자리로 가 앉는 건우.
 맨 뒤 왼쪽 창가 자리로 가 앉는 형배.

형배 (건우 흘겨보며) 저 새끼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창밖을 보는 건우, 또래 아이들이 장난치며 노는 모습을 넋 놓고 쳐다본다.
 창가에 비치는 건우 표정에는 부러움과 외로움이 한가득이다.
 이를 보는 형배, 쌤통이다~ 하는 표정과 연민이 교차한다.

#17. 서울시 교육청 앞(오전)

충혈된 눈을 하고 차 안에 있는 건우 모, 핸드폰에서 9시 알람음이 들리자
 교육청 안으로 달려간다.

#18. 건우 중학교 교감실 안(오전)

전화를 받는 여자교감, 창백한 표정이다.

여자교감 민원이요? 건우 엄마가요? 증거 영상이요? 이런 씨!
 (전화를 끊고는 교무실로 전화하는) 1학년 3반 담임하고
 학폭위 이 선생 오라 그래. (사이) 수업 째고 오라 그래. (사이)
 아냐, 교무실에 선생들 다 소집해! 당장! (전화를 끊고 달려나가는)

#19. 건우 중학교 교무실 안(오전)

교감을 포함한 여러 선생이 모여 건우가
학교 화장실에서 맞는 영상을 보고 있다.
교감이 뒤편 수신호를 보내자 선생 중 하나가 영상을 정지시킨다.

여자교감 건우 어머니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학교가 학폭위
개최 요청을 무시하고 피해 학생을 방치했다는 내용이에요.
곧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가 실시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여자교감 뭐라고 말을 해봐요. 줘!
 학폭위선생 저... (다들 쳐다보는 가운데) 제가 총대를 메는 건 아니겠죠?
 여자교감 지금 본인의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소송 걸리면
학교 시스템이 마비가 돼요. 선생님들 전원 비상이에요. 비상.
당장 학폭위 여세요.
 담임 그... 도윤이 어머니가 학폭위 위원인데...
 여자교감 뭐랍니까?
 담임 도윤이가 맞으면 맞았지. 누굴 때릴 아이가 아니라는데요.
 여자교감 (한숨 쉬며) 도윤이 어머니는 학폭위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담임은
건우 어머니 찾아가서 민원 어떻게든 취소하게끔 만드세요. 교육청
학교평가 전까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셨죠?
 선생님들 네.
 담임 근데... 건우 어머니가 갑자기 증거 영상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다들 (그러게 하는 표정)
 담임 (축구 하는 애들을 보고 있는 형배를 보며) 혹시 저 사람이...
 여자교감 (창밖을 보며 놀란) 아니 왜 저런 사람이 학교에 있습니까?
 담임 건우 삼촌이러는데...
 여자교감 내보내세요, 당장!
 담임 누가... 요?
 선생님들 (형배의 덩치에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보는)

#20. 건우 중학교 운동장(오전)

형배, 축구 하는 건우 반 아이들을 보고 있다.
 건우와 도윤은 서로 다른 편이다.
 날쌔 도윤은 일부러 건우를 향해 공을 세게 뺨 차고.
 겁먹은 건우가 공을 피하면서 건우 편이 지게 된다.
 아이들은 건우 때문에 졌다고 욕설과 패드립을 해대며 비난하고.
 도윤은 안정환의 키스 세리머니를 하며
 아이들과 헝가래를 치며 난리도 아니다.
 형배, “저 새끼”가 하는 그때,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축구공을 본다.
 뺨! 힘차게 공을 차는 형배.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는 축구공.
 헉! 운동장 사람들, 교무실 안 선생님들 모두 축구공을 본다.
 한참을 날아오르던 공이 미사일처럼 도윤이를 향해 날아간다.
 누군가 “피해!”라는 큰 소리에 몸을 피하는 도윤, 공에 부딪힌 지면이
 움푹 파인 것을 보고 두려운 표정을 짓는다.

체육선생 (형배를 보며) 누구냐, 저분?
 아이들 건우 삼촌인데요.
 체육선생 (건우 보며) 년 멋진 삼촌을 뒀구나. (형배에게 인사하는)
 형배 (깁듯하게 인사하는)

건우, 형배를 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차갑다.
자존심 상한 도윤, 건우와 형배를 번갈아 때려본다.

CUT TO

딩 빈 운동장에 중년 아주머니들이 운동장 밖을 돌며 운동하고 있다.

건우에게 축구공을 빵— 차는 형배.

축구공의 위력에 몸을 피하는 건우,

형배가 날린 공에 몇 번 맞아서 울음 직전이다.

형배는 포기하지 않고 건우를 향해 축구공을 날린다.

건우 이거 감정 섞인 거 같은데... 저 안 할래요.
 형배 가르쳐달랴 팬 언제고. 암마, 축구공을 끝까지 봐야지.
 (공을 빵 차는)
 건우 (머리에 맞아서 주저앉는)
 형배 피하지 말고 보라고. 공! 공! 공!
 건우 저 그냥 공부할래요. (바닥에 내려놓은 가방을 메는)
 형배 공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공은 그냥 공일 뿐이야.
 김도윤이 김도윤인 것처럼!

축구공을 빵 차는 형배.

날아오는 공을 빵 차는 건우.

헐... 상상할 수 없이 높이 날아가는 공.

경비아저씨와 중년 아주머니들이 놀라 쳐다본다.

피웅! 학교 담장을 넘는 공. 학교 밖 도로에서 끼익!

경적음과 차들이 뒤섞이는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

놀란 건우와 웃는 형배.

#21. 학원 가는 길(저녁)

한적한 골목을 걷고 있는 형배와 건우.

불량한 차림의 꽤 건장한 체구의 중·고등학생이 걸어온다.

뒤를 돌아보는 형배, 침을 튜 뱉으며 걸어오는 남학생들을 본다.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는 십여 명의 남학생들.

한숨 쉬는 형배, 겁먹은 표정의 건우를 등 뒤에 서게 한다.

맨 마지막으로 비릿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도윤.

형배 아오! 말세다. 말세.

도윤 아저씨, 그러니까 애들 일에 끼는 거 아니랬잖아요.

형배, 웬만한 조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양한 연장을 든 애들을 쳐다보며,

형배 니들 떨어졌!!! 코로나 걸리면 어쩔라고?!

선배들 씨발, 미친 거 아냐? 좇나 짜증 날라 하네. 저 병신. (쌍욕을 하는)

형배 (건우에게 핸드폰 쥐여주며) 증거 영상 찍고 귀 막어.

형배, 도윤과 선배들을 향해 들도 보도 못한 욕들을 퍼붓는데

대부분 뼈—치리 된다.

간간이 내장, 간, 소장, 항문 등 장기와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

선배들 얼굴에 서렸던 살기가 두려움으로 바뀐다.

이는 건우도 마찬가지다.

형배 니들 이렇게 살면 아저씨처럼 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

선배1 병신 지랄하네.

각목을 치켜들고 형배에게 달려드는 선배1.

형배 팔에 맞은 각목이 두 동강 난다.

혁하는 도윤과 무리들, 선배들.

형배 (건우 보며) 나 암 것도 안 했다. 안 꿘어.

건우 (공손하게) 아저씨,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형배 (건우 째려보며) 아이씨, 왜 왔다 갔다야. (맞은 곳을 긁으며)

가려워 죽겠네. 고만하고 가. 아저씨 바빠. 애 학원도 델고

가야 되고. 집에 가서 손빨래도 해야 돼. 세탁기 고장 났어.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도윤, 대빵으로 보이는 선배를 쳐다본다.

싸우고 싶지 않은 선배, 허나 이대로 갔다가는 망신살이 뻗칠 게 분명하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형배에게 달려드는 선배.

그에 맞춰 다른 아이들도 형배에게 달려든다.

형배, 지형지물을 이용해 방어만 하는데 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컵을 먹은 도윤, 건우와 눈이 마주치자 센 척하며 바닥에 떨어진

각목을 들고 부들부들 떨며 형배에게 가는데, 형배가 밀쳐낸 선배와 부딪히고 넘어지며 기절한다.

형배 (도윤 뺨을 때리며) 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다른 남학생들이 달려들자) 건우야, 애 좀 봐.

건우, 도윤의 뺨을 때리는데 그간 쌓아두었던 분노 때문인지 손에 힘이 들어간다.

형배 (이를 보고) 깨우라고. 애 깨지 말고.

헉!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며 정신을 차린 건우, 도윤을 깨운다.

쓰러진 아이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형배.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서는데... 운전석에 탄 영호가 험하며 쳐다본다.

#22. 유흥가 뒷골목(저녁)

깡패들이 가게를 다니며 상납 안 한 가게 주인들을 처참하게 폭행하고 있다.

형배가 도윤과 무리들, 도윤 선배들을 끌고 와 보여주고,

건우는 멀리서 지켜본다.

형배 저게 상납이란 거야. (선배들 보며) 니들 재들한테 상납 받지?

선배들 (도윤과 무리들 보며 아무 말 않는)

형배 받지 마라. 그땐 나한테 상납 받게 될 거야. 알았어?

선배들 네.

형배 공부 열심히 하고.

모두 네.

형배 가봐.

후다닥 흩어지는 아이들.

형배를 물끄러미 보는 건우, 엄마에게 전화가 오자 표정이 굳는다.

형배 (전화 대신 받으며) 예, 어머니. 건우 지금 화장실 갔어요.
네. 네. 지금 학원이죠.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고요?
(전화를 끊고는) 아이씨. 클났다.

옆을 보는 형배, 이미 저만치 달려가는 건우 보고 뒤쫓아 간다.

누가 보면 떼인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두 사람.

행인들과 승용차, 버스 안 사람들도 쳐다본다.

건우는 바람에 머릿결이 날려 시원한지 웃고 있는데,

형배는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물처럼 흘러내려 오만상을 찌푸린다.

#23. 학원 안(밤)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우.

달리느라 삐끗했는지 다리를 저는 형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학원을

기웃대며 카운터 앞에서 학원비, 교재비 등을 물어보고

팸플릿을 받아 의자 앞으로 온다.

어라? 형배가 앉았던 의자 위에 마카롱 하나가 올려져 있다.

자식~ 강의실 안을 보는 형배, 마카롱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린다.

보면 건우가 마카롱을 쌓아놓고 먹고 있다.

형배 ...그렇게 안 봤는데.

#24. 건우 아파트 현관 앞(밤)

형배, 싸한 표정으로 건우와 걷는다.

건우, 아파트 현관이 보이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낸다.

건우 (마카롱 박스를 건네며) 엄마가 저만 먹으렐는데...

마음이 상한 형배,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손에 마카롱 박스를 쥐여주는 건우.
형배, 갑자기 건우 가방을 들어주려고 한다.

건우 다 왔는데요.

형배 ...

건우 안녕히 가세요. (90도로 인사하는)

갑자기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뒤도는 형배, 입가 한쪽이 씩 올라간다.

#25. 형배 옥탑 마당(밤)

어두운 계단을 터덜터덜 올라오는 형배,
버스 안 건우처럼 얼굴에 외로움이 스친다.
평상에 첩퍼덕 앉고는 마카롱 박스를 열어
마카롱 한 개를 입에 털어 넣는다.
그 달콤함에 세상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형배 (또 한 개를 집어 먹으려다가) 아껴 먹어야지. (박스를 닫는데)

#26. 형배 옥탑 안(밤)

단출한 살림의 서랍장 문을 여는 형배.
마카롱 박스를 집어넣는데 박스 안에 마카롱 달랑 한 개만 남았다.
그새 다 먹은 형배.

#27. 도윤 집 안(밤)

꽤 잘 사는 집안.
잠긴 방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난리 치는 도윤 모.
도윤 부, 왜 친구를 패냐며 도윤을 개 패듯이 패고 있다.
입술이 터지고 코피까지 흘리는 도윤.
씩씩대며 멈추는 도윤 부.

도윤 나도 맞았다고?! (억울해하며) 나도 맞았다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친 팔,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는)

도윤부 (헉!) 건우야?

도윤 아니, 건우 삼촌.

도윤부 뭐? 건우 삼촌?

#28. 건우 아파트 현관 앞(오전)

벤츠 안에 있는 도윤 부,
건우를 기다리고 있는 형배 보며 몰래 사진을 찍는다.
현관 밖으로 나오는 건우.
형배, 건우 가방을 들어주려 손을 뻗고.
건우, 못 이기는 척하며 가방을 형배에게 넘겨주고 앞서 걷는다.
예전보다 짧은 간격을 두고 걷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미행하는 도윤 부.

#29. 건우 중학교 앞길(오전)

갓길에 차를 멈춰 세우는 도윤 부,
등교하는 형배와 건우를 쳐다본다.

#30. 건우 중학교 교실 안(오전)

교실로 들어오는 도윤, 쑥덕대던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을 본다.
 자리로 와 앉는 도윤, 함께 다닌 무리들을 보자 그의 시선을 피한다.
 잠시 뒤— 들어오는 건우.
 아이들이 ‘돼지 콜레라’라며 놀리질 않고
 건우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준다.
 화가 나는 도윤,
 허나 운동장에 앉아 있는 형배를 보자 두려운 표정으로 바뀐다.

#31. 건우 중학교 운동장(오전)

경비아저씨와 함께 청소하고 있는 형배,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에 고개 든다.
 여자 선생님들이 맞은편에 서 있다.

김 선생 건우 삼촌이시죠?
 형배 예.
 김 선생 저... 2학년 담임 김명헌이라고 해요.
 이 선생 전 3학년 담임 이해민이구요.
 형배 아, 예. (깁듯이 인사하는)
 두 선생 감사합니다.
 형배 예?
 김 선생 오늘 일진 애들이 교무실로 왔어요. 앞으로 말썽 피우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요. 알고 보니 건우 삼촌께서 참교육을
 시키셨다고.
 형배 아, 아닙니다.
 김 선생 (울먹이는) 휴직계를 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이 선생 (김 선생의 어깨를 토닥이는)
 형배 이 새끼들이... 아이고...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미소 짓는 김 선생과 이 선생.

#32. 몽타주. 형배 미행

도윤 부, 학원, 편의점 등을 다니는 형배와 건우 본다.
 건우와 헤어지고 심부름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형배.
 도윤 부의 시선에 심부름센터 간판이 무지하게 크게 보인다.

#33. 심부름센터 안(밤)

안으로 들어오는 도윤 부, 퇴근 준비를 하는 영호 본다.

도윤부 (핸드폰 속 형배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여기 직원입니까?
 영호 아, 자리에 앉으세요.
 도윤부 (앉지 않고 서 있는)
 영호 (선반에서 삼촌패키지 팸플릿을 찾으며)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단 속담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는
 그런 마을이 없나 봅니다.
 도윤부 내가 건설업에 종사해요. 마을 팔 생각이면 다른 데 팔고,
 이 사람 여기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영호 (안 먹히네, 형배 프로필을 보여주며) 네, 근무 중인데요.
 원하시면 미리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가 오는)
 잠시만요. (전화를 받고) 여봉, 있다 전화할게. (고개 들어보면
 도윤 부가 나가는)
 뭘야 하는 표정의 영호, 책상을 내려다보면 형배 프로필이 사라지고 없다.

#34. 다른 심부름센터 안(밤)

책상 위에 놓인 형배 프로필.
 상담을 받고 있는 도윤 부, 맞은편에 앉은 사내 쳐다보면
 #2에서 형배랑 싸우다가 직원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조폭5가 앉아 있다.

조폭5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렵겠습니다.
이 바닥에도 상도덕이 있어서요.

도윤 부, 책상이 계속 미세하게 떨리자 아래를 보니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조폭5의 모습에 기가 찬 표정을 짓는다.

도윤 부 난 또 지진이라도 난 줄 알았네. (한숨 쉬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조폭5 잠깐! (메모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는) 이 사람 찾아가보세요.

도윤 부 누군데요?

조폭5 대부님이라고 합니다. 남들 말로는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밑에 있었으니까 꼼짝 못 할 수 있습니다.

도윤 부 (메모지 보는)

조폭5 (책상에 놓인 형배 프로필 건네며) 몸조심하세요.
보통 놈 아닙니다.

도윤 부 (심각한 표정을 짓는)

#35. 건우 중학교 앞길(오전)

건우와 등교하는 형배.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는 고급세단.
액셀을 세게 밟는 운전자.
속도계가 시속 30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까지 올라가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형배와 건우에게 돌진한다.
헉! 건우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형배.
끼익! 엄청난 파열음을 내며 그들 앞에 멈춰 서는 고급세단.
갈끔한 명품 차림의 60대 후반의 익현이 도윤과 함께 내린다.
노려보는 형배, 확! 하려는데 건우 보고 참는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익현과 도윤.
도윤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튜! 침을 뱉는다.
저 새끼가 하는 표정의 형배.

#36. 건우 중학교 교실 안(오전)

체육복으로 갈아입느라 어수선한 교실.
창문가에 선 아이들, 운동장에 있는 형배와 익현을 본다.

아이들 누구야? 누구야?

아이1 도윤이 할아버지래.

아이2 지금 건우 삼촌하고 대결 각?

아이들은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고.

도윤은 자신을 회피했던 무리들을 괴롭히고.

건우는 운동장에 있는 형배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37. 건우 중학교 운동장(오전)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는 형배와 익현.

익현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좋네.

형배 (굳은 표정)

익현 근데 너는 오랜만에 웃어른을 만났으면
안부인사가 먼저 아니겠나?

형배 저 학교에 보낸 게 대부님입니까?

익현 내가 그랬음 무슨 낯짝으로 여 있겠나? 안 글나?

그 당시 경찰이 경찰이고? 깡패지. 금마들 실적 쌓는다고
니가 뒤 간 거지. 내 니 빼널라고 금두꺼비 얼마나 바쳤는지 아나?
그런데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힘 한 번 못 썼다 아이가.

형배 (못 믿는) 그냥 지금이라도 가십시오.

익현 점마가?

형배 (운동장으로 나오는 아이들 중 건우 보는)

익현 누가 보면 점마가 깡편 줄 알겠다.

형배 전교 1등입니다.

익현 그래? 빨도 1등으로 차는가 보자.

선생님이 편을 나누고 역시나 건우와 도윤은 서로 다른 팀이다.
도윤이 일부러 건우에게 공을 세게 차 맞춘다.
무서워서 공을 피하는 건우.
아이들, 대놓고 건우를 비난하진 않지만 잔뜩 짜증 난 표정이다.
점점 위축감이 드는 건우와 표정이 어두워지는 형배.

익현 점마, 몸치네 몸치.

이때 형배를 향해 날아오는 축구공.
형배, 축구공을 손에 들고 건우에게 가져다준다.

형배 건우야, 공 봐. 공! 공은 그냥 공이야. 알지?
건우 (고개 끄덕이는)

축구를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
도윤이 건우에게 패스를 하는데... 건우가 공을 뺏 찬다.
골대 그물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축구공.
아이들이 건우에게 몰리며 환호하고 난리다.
형배, 건우에게 엄지를 치켜들고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다.
건우, 형배를 보며 미소 짓고 도윤,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는다.

익현 고만하고 앉아라. 운동장 울리는 거 안 보이냐?

형배 (인상 구기며) 아직 안 갔습니까?

익현 형배야, 얼라들 싸움에 이게 뭐꼬? 점마들 일은 점마들이 알아서
하게 냅뒀야지.

형배 대부님, 우리 때도 애들 싸움이 애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몫만 하고 끝낼 테니까 대부님은 그만 가십시오.

익현 내는 그리 못하겠는데, 니 내 알재? (아무 말 않는 형배 보며) 니가
버팅길수록 얼라가 힘들 텐데 꽤않겠냐?

형배 그때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익현 (웃는) 그래, 함 누가 이기나 보자. (뒤돌아가는)

형배, 익현을 쳐다보다 건우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본다.

#38. 건우 중학교 앞길(오전)

고급세단 안에 있는 익현, 축구 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딘가로 전화한다.

익현 김 사장, 내다. 우리 인제 부자 됐다 아이가. (아이들 수를 세며)
여기가 돈줄이다. 돈줄. (사이) 삼촌패키지라고.
얼라들 보디가드 하는 건데 니 아 들 좀 준비시켜봐라.
(운전자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며 미친 듯 웃는)

#39. 건우 중학교 교문 앞(오후)

건우 기다리는 형배, 뺨하니 지나쳐 가는
도윤과 무리들을 쳐다보며 뒤도는데...
정문 앞에 서 있는 덩치 셋이 형배를 노려보며
도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간다.
“저 새끼들” 하며 찌러보는 형배, 건우가 다가오자 표정을 감춘다.

#40. 건우 중학교 근처 골목(오후)

길을 걷는 형배와 건우,
건우 반 아이들이 떡볶이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떡볶이 가게 안을 쳐다보는데 도윤이 아이들을 음식으로 매수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윤이 무서우면서도 먹을 것에 현혹된 듯 좋아한다.
이를 보는 건우, 옆을 보는데 형배가 없다.
뒤돌아보면 형배가 하교하는 건우 반 아이들을 우르르 끌고 온다.

형배 니들 배고프지? 아저씨가 자장면 사줄게.

아이들 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전 학원 가야 돼요.

전 체했는데요.

형배 (아이들을 노려보는)

아이1 근데 탕수육 먹어도 돼요?
 형배 야, 넌 밀가루 알레르기 있다며?
 아이1 (배시시 웃는)
 형배 테이블당 한 접시야.
 아이들 (일제히) 네.
 형배 대신 건우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아이들 네.

아이들, 건우와 눈인사를 하며 떡볶이 가게 옆 중국집 안으로 들어간다.
 건우, 형배가 고마운 듯 쳐다보는데...
 형배, 떡볶이 가게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도윤과 무리들,
 덩치들을 보며... 봤냐? 이게 플렉스야!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아이1(E) 이모, 여기 유산슬 추가요!!!

헉! 등 뒤에서 들리는 아이1 소리에 창백한 표정으로 뒤도는 형배.

#41. 학원 안(밤)

형배, 공부하는 건우 지켜보며 틈틈이 학원 안을 둘러본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오는 건우,
 형배보다 형배 자리에 놓인 공부 관련 책자를 본다.

형배 (걸어오는) 수업 끝났지?
 건우 네.
 형배 (건우 가방을 자연스럽게 메는) 가자.

건우, 의자에 놓인 책자를 슬쩍 보고는 형배 따라간다.

#42. 학원 좁은 뒷길(밤)

학원에서 나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형배와 건우.
 PC방에서 나오는 도윤과 무리들, 덩치 셋을 맞닥뜨린다.

형배 비켜.
 덩치1 왜?
 형배 비켜야 지나갈 거 아냐?!
 덩치2 (일부러 골목을 막아서며) 지나가. 누가 뭐래?
 형배 야!
 건우 (형배 뒤에서 형배 팔 잡으며) 아저씨.
 형배 (건우 때문에 화를 참으며) 우리가 여기 먼저 들어왔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만들지 말고 가.

어이없어 웃는 덩치들, 가슴에 숨겨놓은 칼 등 다채로운 연장을 꺼낸다.
 놀란 아이들, 뒷걸음질 친다.

형배 애들 앞에서 뭐하는 거야?
 덩치3 그러니까 가라고. 이 돼지새끼얏!
 건우 (형배 팔 잡으며) 아저씨!
 형배 대로변에 가 있어.
 건우 (형배 팔 잡아끌며) 가요, 그냥.
 형배 돼지새끼라잖얏!
 건우 아저씨! 난 맨날 들어요.
 형배 (버럭) 그러니까 너도 참지 마!
 건우 (황당한)

칼을 겨누고 있는 덩치3을 향해 걸어가는 형배, 칼끝을 잡더니 휘어버린다.
 헉! 놀라는 덩치3,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건우와 도윤, 다른 덩치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뒤로 물러서는 덩치3,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고 다른 덩치들을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덩치1,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유연하게 피하는 형배.

헉! 가슴을 졸이며 보는 건우와 도윤.

허나 덩치1의 칼 숨씨가 만만치 않고 건우가 다칠 뻔한 상황에

형배가 몸을 날려 다리를 다친다.

화가 난 형배, 덩치1의 목덜미를 탁 잡는데 엇가락처럼

늘어지듯 쓰러지는 덩치1.

헉! 놀라는 덩치2·3과 건우, 도윤.

형배 애 왜 이래? (뒤돌아서 덩치들 보는)

덩치2 (형배와 눈이 마주치자 연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형배 (덩치2 가리키며) 니가 와서 봐봐.

덩치2 (기절한 덩치1의 숨을 확인하더니) 용선아! 용선아! (오열하는)

형배, 덩치2를 뒤로 물리고 덩치1의 심장을 마사지하는데...

갈비뼈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는 덩치1.

형배 아,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허나 덩치1이 다시 의식을 잃고 덩치2가 그를 질질 끌고 간다.

형배 (덩치2·3 보며) 5초 주께. 그때까지 여기 남아 있는 놈은 나랑
(구부린 칼을 곱게 펴며) 애하고 놀아야 돼.

후다닥! 골목 언저리로 사라지는 덩치들과 도윤.

형배 (도망가는 도윤 보며) 너 일로 와. 일로 안 왔!

건우 아저씨.

뒤도는 형배.

건우, 형배 운동화에 떨어진 핏방울을 보고 형배 바짓단을 올리는데
전에 다친 상처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우 그때 다친 거죠? 김도윤이랑 싸울 때...

형배 (바짓단을 내리며) 아냐.

이때 건우 핸드폰이 울린다.

형배 엄마야?

건우 (고개 끄덕이는)

형배 아이씨! (앞서 뛰는)

건우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배 보고 서 있는)

형배 (다시 돌아와 건우를 끌고 가는)

#43. 건우 아파트 현관 앞(밤)

집으로 뛰어가는 형배와 건우.

형배 하오. 숨차. 이씨.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건우 아저씨, 다리 괜찮아요?

형배 늙어서 그래.

건우 죄송해요. 저 때문에...

형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 멀리 건우 모가 보이자) 저승사자네.
저승사자. 가만 냅두면 어련히 잘할걸.

건우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형배 내가?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잖아. 늦었으니까. 그지?

건우 (어이없어 웃는)

건우 모와 가까워질수록 말이 없는 두 사람.

건우 모 (건우 보며) 전화 왜 안 받아?

건우 (마치 도윤이를 대하듯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건우 모 들어가. (형배 보며) 애 정해진 시간에 들여보내야죠.

형배 (조금 쫓아서 잠시 말을 앓고 있다가) 그 도윤 부모님이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삼촌을 고용했습니다.

건우 모 깡패들이에요?

형배 (고개 끄덕이는)

건우 모 (걱정스러운) 계약을 연장해야겠네요.

형배 아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싸움만 키울 뿐입니다.
 도운 부모님을 만나세요.

건우 모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오히려 도운이 학폭을 당했다면서요.
 증거 영상도요. 골목에서 그쪽한테 맞아서 기절하고 건우한테도
 뺨을 맞았다고.

형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에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게...

건우 모 학교 담임이 매일 전화 와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난리예요.
 요 며칠 전에는 학교까지 찾아왔었어요.

형배 ...

건우 모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형배 지금 건우한테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건우 모를 쳐다보는)

건우 모 (차갑게 쳐다보는)

형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건우 모 (안으로 들어가는)

휴! 그제야 숨을 내쉬는 형배,
 뒤돌아 가는데 다리 부상이 심한지 절뚝거린다.

#44. 다른 심부름센터 안(밤)

“으앗!” 펍! “으앗!” 펍! 비명 소리와 함께 빈 책상이 보인다.
 책상 너머 벽면에는, 가출인 소재파악, 부동산 조사, 보험 조사,
 사회질서 감시 및 공익 침해행위 조사 아래 삼촌패키지가 새로 적혀 있다.

익현 (소파 중앙에 앉아선) 김 사장, 그만해라. 아 들 죽겠다.
 처참한 물골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덩치 셋.
 야구방망이를 던져두고 소파에 앉는 40대 후반의 뽀글이 머리 김 사장.
 이때 익현에게 전화가 온다.

익현 (전화를 받으며) 네, 애긴 들었습니더. (사이) 아들 손
 잘랐으니까네 칼 들고 설칠 일 없을 겁니더. (사이) 농담입니더.

(웃는) 열라는 따뜻한 꿀물 멕이고 재워보이소. 하루 이틀 지나면
 겁도 사라지겠지예. (사이) 그럼 지금이라도 무르시겠십니까?
 (사이) 걱정 마시고 주무이소. 다 방법이 있으니까네.
 (사이) 네, 네. (전화를 끊고는 김 사장 보며) 열라들 더 있재?
 김 사장 예, 고문님.
 익현 점마들, 다시 칼 못 잡게 손 잘라 불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김 사장.
 손가락을 감추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덩치 셋.

#45. 형배 옥탑 마당(밤)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형배. 복싱용 샌드백이다.
 형배, 철봉에다가 샌드백을 걸고는 손에 압박봉대를
 칭칭 감고 미친 듯 쳐댄다.

#46. 서울시청 하늘광장카페 안(오전)

서울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9층의 전망 좋은 카페.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과일 주스를 마시며 분위기를 잡고 있는 익현.

#47. 건우 중학교 앞길(오전)

영호의 봉고차를 몰고 오는 형배와 조수석에 앉은 건우.
 형배 먼저 가 있어. 건너편에 주차하고 갈게.
 건우 네.
 차에서 내리는 건우, 교문 앞에 일렬로 주차된 서너 대의 차량을 본다.
 운전석 창문들이 서서히 내려지면 험상궂은 표정의 덩치들이 보인다.

컵을 먹은 건우, 경비아저씨 안내를 받으며 후다닥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형배, “저 새끼들!” 싸우려고 나가려다 참고 어딘가로 전화한다.

형배 교통과죠? ○○중학교 앞에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애들이
 지나다니기가 위험한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어어어어? (봉고차
 클랙슨을 울리며) 아이고. 큰일 났네. 애 다치겠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운전하는 형배, 차량 안에서 자신을 때려보는 덩치들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바짝 올리며 미소 짓고 간다.

#48. 건우 중학교 운동장(오전)

교통과 단속반원과 실랑이하는 덩치들을 보는 형배, 어딘가로 전화한다.

형배 112죠? 지금 ○○중학교 앞에 깡패들하고 공무원이 붙었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어어어어? 공무원 머리가 깨졌네. 저 피 봐.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와주세요. 네. 네. (전화를 끊는)

 잠시 뒤에 출동한 경찰들, 단속반원들과 실랑이하는 덩치들을 연행한다.
 이를 보며 함박웃음을 짓는 형배.

#49. 서울시청 하늘광장카페 안(낮)

형배처럼 함박웃음을 짓고 통화하고 있는 익현.

익현 그래,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자 손을 드는)
건우부 (손을 든 익현을 보며 걸어오는) 도윤이 할아버지라고요?
익현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하는) 예, 반갑습니다.
건우부 (빼딱하게 다리 꼬아 앉으며)
 그런데 외가 쪽인가요? 친가 쪽인가요?

익현 예?
건우부 도윤이네는 고향이 서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상도 말씨셔서요.
익현 먼 할아버지쯤으로 합시데이.
건우부 건우 엄마가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한 걸 가지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러 오신 거면 도움을 못 드릴 거 같네요. 굳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익현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건우부 (뒤도는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50대 남자를 보며 놀라는)
곽부장 어, 자네 왜 여기 있어? (익현을 가리키며) 아는 분야야?
건우부 (당황해하는)
익현 아이고, 곽 부장!
곽부장 계장님, 오랜만입니다이. 아, 그런데 우리 김 팀장하고는 우예된
 사이입니까?
익현 같은 반 학부모데이. 내는 김도윤이 할애비, 저분은 김건우 아버지.
곽부장 뭘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김 팀장, 이분은 부산시청 근무 당시
 모셨던 계장님이데이. 내 이분 덕에 부산 촌놈이 서울시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아이가! 인사해라.
건우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익현 (비열하게 웃는)

#50. 건우 모 중학교 주차장(낮)

차 안에 앉은 건우 부와 건우 모.

건우부 자식 앞길도 모자라서 남편 앞길까지 막아야겠어? 민원 철회해.
 당장!
건우모 그렇게는 못 해.
건우부 당신이 그러고도 교사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건우모 내가 교사니까 더 잘 알아.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피해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난 우리 건우를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건우부 (봉투에서 형배 사진을 꺼내며) 사람 죽인 전과자래.

그래도 계속할 거야?
건우 모 (헉! 놀라는)

#51. 건우 중학교 운동장(저녁)

의자에 앉아 있는 형배, 영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다가 전화를 뚝 끊는다.
이때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건우 보며 미소 짓는 형배.

형배 …건우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는데.
건우 먼저 갈 데 있어요.
형배 어딜?

앞서 걷는 건우를 따라가는 형배.

#52. 교보문고 안(저녁)

참고서를 고르고 있는 건우.
형배는 서점이 낯선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건우와 형배를 보며 소곤대는 사람들.
“덩치 봐라, 둘이 부자인가 봐, 다행네,
깡패도 공부하잖아, 넌 더 열심히 해야지.”
그중 20대 커플이 깡패 아니냐며 유독 키득댄다.

형배 건우야, 그만 가.
건우 (책 고르며) 초등학교는 졸업했어요?
형배 (작은 목소리로) 뒤질래?!
건우 (놀라며) 졸업 안 했어요?!
형배 앗! (작은 목소리) 졸업했어.

웃는 건우, 중학교 검정고시 참고서 몇 개를 고르고는 계산대 앞으로 간다.

형배 (따라가며) 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건우 제가 안 낼 건데요.
형배 뭐?
계산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배 (건우를 쫓아보며 카드를 건네는)

피식 웃는 건우, 갑자기 표정이 굳어 어딘가로 간다.
뒤야 하는 표정의 형배.

건우 (20대 커플 앞에 서서) 사진 지워주세요.
남자 뭘 사진?
건우 찍었잖아요. CCTV 확인할까요? 아님 경찰 불러요?
사진 몰래 찍는 거 초상권 침해예요.
남자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 애야, 공부 더하고 와라.
형배 (저 새끼가 하는 표정으로 급히 다가오는)
건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0대 커플 (표정이 굳는)
형배 (걸음을 멈추고 다 컸네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는)
여자 오빠, 지워. 빨리.
남자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을 지우는)
건우 (핸드폰을 보며) 휴지통도 삭제해주세요.
남자 (삭제하는)
건우 (남자 손에 든 새 책을 보고는 여자를 보며) 누나, 이 아저씨 만나지
마세요. 중학교 추천도서를 지금 읽어요.
여자 (애인을 보며 웃는)
남자 (표정이 굳는)
건우 (돌아서다 말고는) 글고 우리 삼촌, 깡패 아니예요.

형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건우를 대견하듯 쳐다본다.

형배 건우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건우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죠.
 형배 (건우 쳐다보는)
 건우 알았어요.
 형배 (건우 머리를 쓰다듬고는) 너 말 잘하더라.
 건우 (그러게... 하는 표정을 짓는)
 형배 근데 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건우 지어낸 건데요.
 형배 (애는 정체가 뭐지 하며 보는)
 건우 (씨익 웃는)

#53. 건우 중학교 운동장(밤)

빈 운동장에서 건우에게 축구 특훈을 하는 형배.
 땀방울 차대는 형배 공에 엉망진창이 되는 건우, 대자로 누워버린다.

형배 일어나. 일어나라고.
 건우 (우웁! 헛구역질하는)
 형배 (한숨)
 건우 문제집 사줬다고 복수하는 거죠?
 형배 말은 바로 해. 문제집은 내가 샀지.
 건우 근데 왜요?

물끄러미 건우 보는 형배, 건우를 일으켜 세우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건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 간다.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형배 따라가는 건우.

#54. 목욕탕 앞(밤)

허름하고 낡은 목욕탕 앞에서 실랑이하는 형배와 건우.

형배 이 시간에 사람 없다니까.
 건우 아, 싫다고요.
 형배 아저씨 등 답답해 죽겠어.
 건우 세신사 있잖아요. 때 밀고 와요.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형배 앗!
 건우 왜요?!
 형배 아저씨 소원이야.
 건우 (짜증 난 듯 형배 보는)

#55. 목욕탕 안(밤)

형배와 건우만 있는 목욕탕.
 허리에 수건을 두른 건우의 등을 밀고 있는 형배.
 그간 도윤이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직도 멍 자국들이 선명하다.
 마음 아픈 표정의 형배, 조심스럽게 등을 민다.

형배 건우야, 아저씨 좋은 사람 아냐.
 건우 알아요.
 형배 뭐?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건우 근데 저한테 좋은 사람이예요.
 형배 (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저씨 개네들 같았어.
 건우 그럴 줄 알았어요.
 형배 뭐?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건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형배 (들었다 봤다 하는 건우에게 화난 듯 등을 세게 미는)
 건우 아앗!
 형배 엄살떨지 마. (건우 등이 시뻘게져 놀라는)
 건우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다고 하지. 유치하게 정말 왜 이래요?
 형배 그런 거 아니래두! (뜸을 들이다가) 건우야...
 건우 아저씨 아니 삼촌... 삼촌은 좋은 사람이예요. 됐죠?

헉! 훅 들어와서 말을 잊지 못하는 형배.

건우, 뿌연 수증기가 맺힌 거울을 보는데 형배 표정이 좋지 않아 뒤돈다.
표정을 감추려 등을 내보이는 형배.
건우의 시선으로 최근에 다친 형배의 상처들이 보인다.
특히나 각목에 맞아서 멍이 든 팔이 눈에 들어온다.

건우 삼촌...
형배 박박 밀어. 요령 피면 알지?
건우 (눈에 눈물이 맺히며 등 때를 미는데)

앗! 목욕탕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는 형배.

CUT TO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형배,
팬티 입는 건우의 아랫도리를 슬쩍 쳐다본다.

건우 (버럭) 뭐하는 거예요?
형배 (창백한 표정으로 수건을 찾아 다소곳이 허리에 두르고 가는)
건우 (왜 저래 하며 쳐다보는)

CUT TO

거울 앞에서 스킨, 로션을 바르고 드라이를 하는 두 사람.

형배, 건우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옷맵시를 잡아주고
어깨를 반듯하게 펴게 한다.

건우, 위축됐던 모습 대신 당당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뚫어져라 본다.

미소 짓는 형배를 보고 따라 하는 건우.

형배가 요상한 포즈를 취하면 건우가 따라 하며 포즈를 취한다.

마치 <레옹>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그런데 거울 모서리 끝에 영업시간 끝났으며

잔뜩 짜증이 난 주인장 얼굴이 보인다.

#56. 건우 아파트 현관 앞(밤)

형배,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진다.

건우, 형배와 보조를 맞추려 천천히 걷는다.

가로등 그림자로 둘의 모습이 겹쳐지며 한 사람으로 보인다.

현관 앞에 도착하는 두 사람.

건우 (환하게 웃으며) 삼촌, 내일 봐요.
형배 (고개 끄덕이는)

안으로 들어가는 건우.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는 형배.

건우(E) 삼촌! 삼촌!

주변을 둘러보는 형배, 11층 난간에서 손을 흔드는 건우 본다.

따라서 손 흔드는 형배, 건우가 들어가자 주차된 차에서
걸어 나오는 건우 모 본다.

건우 모 (짜늘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네는) 수고했어요.

형배 ...건우 잘 부탁드립니다.

건우 모 (황당한) 전과 알았다면 애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형배 (표정이 어두워지는)

#57. 회상. ○○ ไนท์클럽 앞(밤)

15년 전. 클럽 안에서부터 덩치 큰 조폭들에게 먹살 잡힌 채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익현, 골목을 돌아서 승용차 안에서 대기 중인 형배와
조직원들을 향해 걸어간다.

형배 (차 밖으로 나오는) 팬찮습니까?

익현 명분이 생겼으니까네 이제 이 클럽은 우리가 접수한다. 알겠재?

형배 네.

조직원들을 끌고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형배.

#58. 회상. ○○나이트클럽 안(밤)

다채로운 연장을 들고 나이트클럽에 진입하는 형배와 조직원들.
춤 추고 있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다.
나이트클럽을 지키고 있던 덩치들과 형배 무리들이 피 튀기며 싸운다.
형배, 칼이 아닌 힘과 기술로 덩치들을 하나씩 무찌르며
VIP룸 안으로 들어간다.
운영권 문제를 회의 중이던 클럽 사장과 운영진들이
무차별적으로 언어타진다.
아드레날린이 폭주하는 형배와 조직원들,
연장을 내려놓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
보면 클럽 사장이 칼에 찔려 죽어 있다.
놀란 표정의 형배, 조직원들을 쳐다보는데 누가 찔렸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다.

#59. 회상. ○○나이트클럽 앞(밤)

조직원들과 뛰쳐나오는 형배, 익현을 보고는...

형배 배 사장이 죽었습니다.

익현 니 내 믿제? 당분간 숨어 지내그래이. 알겠나?

형배 어떻게 할...

익현 (O.L.) 가그래이. 시간 없다.

조직원들을 끌고 가는 형배를 보는 익현,
어떡하지 고민하다 어딘가로 전화한다.

익현 최 반장, 내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형배,
룸미러로 통화 중인 익현 보며 설마 하는 표정 짓는다.

#60. 다시 건우 아파트 현관 앞(밤)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형배.
싸늘하게 뒤도는 건우 모.

형배 건우가 왜 안 싸웠는지 아세요?

건우 모 (뒤돌아보는)

형배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건우 애 아닙니다.
냅두면 알아서 잘할 겁니다. (뒤돌아 가는)

건우 모 (뒤통을 찌르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형배 (휴! 하는데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는)

#61. 심부름센터 안(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형배.
십여 명의 경찰들이 사무실 물건들을 무차별적으로 뒤지고는
박스에 담고 있다.

영호 (형배 보고) 형!

경찰 (겁을 먹은 영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하고 그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용정보법 제40조 위반으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영호를 끌고 가는)

형배 (얼굴을 구기는)

#62. 다른 심부름센터 안(밤)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형배,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익현을 본다.

익현 거 앉아라.
형배 뭐 하는 겁니까?
익현 내 밑으로 들어온다.
형배 영호 냅두십시오. 안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익현 와 내도 죽일라고?
형배 (주먹을 쥐는)
익현 공무원이 깡깡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가 뭘 배우겠노?
형배 건우 건드렸다가는 정말 죽습니다.
익현 나는 그럴 생각 추후도 없다. 다만 돈 버는 데 니가 필요할 뿐이제.
경쟁업체가 줄수록 좋은 거 아이가. 다른 데도 이미 다 손을
써놨데이. 그러니까네 잘난 척 고마하고 같이 손잡아보그래이.
형배 다시 경고합니다. 영호 가게 돌려놓고 건우 건들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는 형배.
잠시 뒤— 안으로 들어오는 김 사장.

김 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익현 먹고살라든 지가 별수 있겠나.
김 사장 안 한다고 하면요?
익현 골칫덩이는 걸어내야제. (웃는)

#63. 건우 아파트 현관 앞(오전)

현관 밖으로 나오는 건우, 형배가 보이질 않자 두리번거린다.
뒤따라 나오는 건우 모, 차 문을 연다.

건우 삼촌은요?

건우 모 차에 타.
건우 삼촌은요?
건우 모 이제부터 안 와. 엄마가 데려다줄 거야.

건우, 형배에게 전화를 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어디냐고 문자를 보낸다.

건우 모 김건우.
건우 엄마가 삼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건우 모 뭐?
건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대답 못 하는 엄마 보며 씩씩대며 걸어가는 건우.
달려가서 건우를 붙잡는 건우 모.

건우 모 너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엄마가 이러려고 너 키운 줄 알아?
건우 (엄마의 셔슬 퍼런 기세에 겁을 먹는)
건우 모 (건우를 잡아끌고 가며) 차에 타! 당장!

질질 끌려가는 건우, 용기 내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간다.
그런 건우를 붙잡으려 하지만 놓치고 마는 건우 모,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다.
이 모습을 아파트 구석진 곳에서 애태우며 쳐다보고 있는 형배.

#64. 건우 중학교 가는 길(오전)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건우, 계속 형배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낸다.
멀리서 숨어서 건우를 지켜보며 따라가는 형배,
자신의 꺼진 핸드폰을 보며 전원을 켜려다가 만다.

#65. 학교 몽타주

— 교실

힘없이 교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건우.

도윤, 건우에게 눈짓하며 화장실로 따라오란 신호를 보낸다.

나가지 않고 가방 안의 책과 노트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건우.

화가 난 도윤, 건우의 책상 위 물건들을 밀치며 지나간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우 물건들.

건우, 외면하는 아이들 속에서 말없이 물건을 줍는다.

— 급식실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아이들.

늦게 온 도윤과 무리들이 일부러 건우 앞에 선다.

건우, 식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저 새끼가 하는 표정의 도윤, 건우를 따라 나간다.

도윤 돼지 콜레라, 멈춰.

계속 걸어가는 건우를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도윤.

슬리퍼에 맞고 무표정한 얼굴로 뒤도는 건우.

겉을 먹은 도윤, 주변에 아이들이 쳐다보자 표정을 감춘다.

도윤 어쭙! 눈에 힘 안 풀어. 이 새끼가 삼촌 달고 다니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야, 하마 어디 있냐? 하마 안 보이네.

건우 말 조심해.

도윤 이 돼지새끼가 미쳤나?

건우 너 수업 끝나고 나 좀 보자.

도윤 뭐?

구경하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쳐다본다.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걸어온다.

순식간에 사사삭! 흩어지는 아이들.

저 새끼가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건우를 째려보며 가는 도윤.

“돼지콜레라 미쳤다”, “돌이 붙는데?”, “쳐맞는 거 보러 가자”, “어디래?”,
건우 반 아이들이 다른 반 아이들에게 건우가 도윤이와 싸운다고
소식을 전한다.

— 운동장 구석

아빠에게 전화하는 도윤, 통화가 되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한다.

도윤 저 김도윤인데요.

#66. 다른 심부름센터(낮)

익현 (도윤과 통화하고 있는) ○○동 꼭대기에서 보자 하그래이.

전화를 끊는 익현, 형배에게 전화하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 애들끼리 싸운다며 문자를 보낸다.

#67. 심부름센터 안(저녁)

어질러진 사무실을 정리하는 형배,

뒷주머니에 꽂아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전원이 켜진다.

형배, 핸드폰 전원을 끄려는데 애들끼리 싸운다는 익현에게서 온 문자 본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형배, 건우에게 전화한다.

#68. 재개발동네(저녁)

비장한 표정으로 걷는 건우와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도윤과 무리들.

#69. 거리(저녁)

미친 속도로 봉고차를 운전하는 형배, 차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
건우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자 삼촌 가기 전에 움직이지 말란 문자를 계속 보낸다.

#70. 재개발동네(저녁)

건우, 백팩에 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기에
형배에게 전화 온 줄 모르고 걸어간다.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도윤, 옆을 보는데 주차된 승용차 안에 익현과
김 사장, 덩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씩 쪼개며 간다.
도윤 무리들, 도윤의 비열함에 하나들 표정이 굳는다.
서로 맞닥뜨리는 건우와 도윤 그리고 무리들.

도윤 씨발, 왜 불렀어?
건우 그만해. 너랑 싸우기 싫어.
도윤 이 돼지새끼가 미쳤나? 야, 애 얼마나? 이자까지 합쳐서.
무리들 (아무도 말을 않는)
도윤 (버럭) 얼마나고?
건우 지금까지 받아간 내 돈 돌려줘. 그리고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했다가는 나 가만 안 있어.
도윤 뭐?

잠시 뒤— 동네로 진입하는 형배가 탄 봉고차.
형배, 차 안에 탄 익현과 무리들을 썰러보다 건우를 구하려고 지나쳐 간다.
이를 보는 익현과 무리들.

익현 살인전과자가 얼라를 패면 형량이 얼마 나올 거 같노?
김 사장 형량도 형량이지만 국민들 공분이 상당하겠쥬.
익현 (비열하게 웃으며) 우린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밖으로 나가는)

봉고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이 나오자 차에서 내려 달려가는 형배.
화가 난 도윤이 건우를 향해 달려든다.
건우, 도윤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는데 자신을 부르는
형배 목소리를 듣고 멈칫한다.
이때 도윤의 주먹이 건우 얼굴을 가격하고 뒤로 넘어지는 건우.
이를 본 형배가 미친 듯 달려와 도윤에게 달려들려는데...

건우 삼촌!!! 안 돼!!!
그 소리에 멈추는 형배, 겁먹은 도윤을 썰러보다 건우에게로 간다.

형배 (넘어진 건우 일으켜 세우는) 건우야, 괜찮아?
건우 (고개 끄덕이는)
형배 (울먹이며) 전화 왜 안 받아? 삼촌, 걱정했잖어.
건우 (백팩에 든 핸드폰 보며 역시나 울먹이며) 삼촌도 전화 안 받았잖아요.
형배 (눈물을 훔치고는 건우 손을 잡고) 가자.

뭐야?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청승맞게 훌쩍이는 두 사람,
뒤도는데 익현과 덩치들이 이들을 막아선다.
형배, 비열하게 웃는 익현을 노려본다.

형배 건우야, 뒤로 가 있어.
건우 삼촌!
형배 지금은 피할 수 없어.

뒤로 물러서는 건우.
덩치들이 형배를 향해 달려들고 형배는 익현을 향해 달려든다.
덩치들이 익현을 보호하려는데 형배의 힘에 하나들 쓰러진다.
형배한테 얻어맞는 익현이 살기 위해 건우가 있는 방향으로 도망친다.
뒷걸음질 치는 건우.
익현이 건우를 밀치고.
골목 끝 난간 아래로 떨어지는 건우.

헉! 놀라는 도윤과 무리들.

난간 아래로 몸을 날리는 형배, 추락하는 건우를 끌어안는다.

쿵! 굉음. 먼지가 풀풀 날리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형배와 건우.

형배 가슴에 안긴 건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형배를 깨우는데 의식이 없다.

“삼촌!”, “삼촌!” 울부짖는 건우의 얼굴이 느린 화면으로 보여지며 암전.

#71. 대형병원 안(밤)

화면 밝아지면 응급실 침대에 누운 형배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다.

삼촌을 부르면서 오열하며 따라가는 건우를 의료진들이 막아서고.

여러 방송사 뉴스 화면으로 사건이 보도된다.

아나운서 학원가에 부는 삼촌패키지를 아시나요? (사이)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가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깡패를 고용하고 (사이) 가해 학생 부모가 또 다른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깡패를 고용하는 희대의 사건이... (사이) 오늘 저녁 ○○동 일대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깡패들 싸움이 일어났고 추락하는 김 모 군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40대 최 모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이) 아이를 난간에서 민 60대 최 모 씨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중상을 입어 치료 중으로... (사이) 경찰은 양측 부모들을 불러 조사 중인~

#72. 건우 중학교 교실 안(오전)

삼삼오오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는 아이들.

안으로 들어오는 도윤.

도윤 무리 중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막아선다.

그 아이를 밀치는 도윤.

다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막아선다.

뭐야? 하며 아이를 밀치려는데... 하나들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결국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 도윤을 막아선다.

도윤, 싸늘한 표정의 아이들을 보자 뒤로 주춤거리며 밖으로 튀어 나간다.

#73. 대형병원 안(낮)

호흡기를 달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형배를 지키고 있는 건우.

의사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른은?
건우 제가 보호잔데요.
의사 (망설이는데 건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단다.
건우 어떻게요?
의사 생존확률이 십 퍼센트 정도. 장애가 생길 확률이 80퍼센트가 넘어.
건우 어쨌든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의사 (고개 끄덕이는)
건우 삼촌, 삼촌! 내 말 들리죠. 삼촌 살 수 있대요. (통통 불어서 손인지 발인지 알 수 없는 손을 잡고는) 삼촌, 내 말 들리죠? 삼촌! 삼촌!
형배 (이때 손이 까닥 움직이는)
의사 (놀라 쳐다보는)
건우 삼촌!! 삼촌!!! (형배를 끌어안는)
형배 (건우가 끌어안자 아파서 신음 소리를 내는) 어... 어... 어...

#74. 건우 중학교 성찰교실 안(오전)

지금에서야 열린 학폭위.

여자교감, 위원들, 건우와 도윤, 양측 부모가 앉아 있다.

여자교감 김도윤 학생이 김건우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같은 반 아이들의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제9호 퇴학 조치를 결정하는 바입니다.

참담한 표정의 도윤 부모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도윤.

싸늘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우 부모.

건우 저는 싫어요.
 모두들 (건우 보는)
 건우 도윤이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건우 부모 건우야! 김건우!
 건우 재가 깡패가 되는 게 싫어요.
 도윤 (놀라 보는)
 건우 대신...
 모두들 (건우 보는)

#75. 건우 중학교 화장실 안(낮)

손을 씻는 아이들, 발밑으로 들어온 마대 걸레 보면 도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웃으며 나가는 아이들. “3년 내내 화장실 청소래”,
 “차라리 퇴학이 낫지”, “이게 갑 오브 갑 복수 아냐?”

#76. 대형병원 안(낮)

꽃을 사들고 병실로 오는 건우, 빈 침상을 본다.
 병실을 정리하러 온 간호사를 보는 건우.

건우 우리 삼촌 어디 갔어요?
 간호사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 너 오면 주라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건네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는 건우.
 ‘삼촌한테 새로운 꿈이 생겼어. 건우야 나중에 보자.’
 울먹이는 건우, 안에 두툼한 것이 만져져 꺼내보면 마카롱이다.
 피식 웃는 건우 얼굴에서 화면 어두워진다.

#77. 거리(낮)

화면 밝아지면 거리에서 아이들과 장난치며 노는 건우.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
 버스 안에서 그런 건우를 지켜보는 누군가.
 건우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버스.
 아이들과 장난치다 멈춰 서는 건우,
 버스 안에 덩치가 무척이나 큰 사내의 뒷모습을 본다.
 앞서가던 아이들이 건우를 부르고 아이들 곁으로 달려가는 건우.
 버스 안의 남자... 고개 돌려 건우를 눈에 담는다.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면 형배다.
 형배 옆으로 주눅이 든 중학생 아이 하나가 보인다.
 그 아이가 건우를 부러운 듯 보고 있다.

형배 야, 절로 앉아.

아이, 형배 뒤로 가서 앉는다.
 형배,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건우와 함께 산 검정고시 책을 펼쳐 공부한다.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다 틀렸다.
 마지막 문제 하나 겨우 맞혔다.
 무지하게 좋아하는 형배 얼굴에서 화면 멈추며.

끝.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와 삼촌패키지를 엮어 학교폭력에 대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으로 본 대본을 시작하게 됐다. 대본을 쓰면서 학교폭력이 너무도 심각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코미디로 엮는 게 맞는지, 수많은 내적 갈등과 후회가 있었다. 두 달이 넘는 수정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대본은 당선작에서 취한 여러 설정을 걷어내고 형배와 건우에게 초점을 맞췄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우선 부족한 실력에도 뽑아주신 오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번 개떡 같다는 말씀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신 센터장님과 신뢰의 눈빛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임고은 대리님과 단막으로 뭉쳐진 4조 한은진 작가님, 김선미 작가님, 이병준 작가님, 이하니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겨울 만한데도 아낌없이 리뷰를 보내준 그분들이 있었기에 수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덜 수 있었고, 든든하고 좋은 동료들 얻은 듯하여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전에는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하염없이 걷는 느낌이었다면... 오픈 4기 드라마 작가님들을 만난 지금은, 출구가 언젠가 나타날 것을 믿게 되었다. 힘들다고 소리칠 때 내 목소리가 외롭게 메아리로만 꽃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4기 동기 작가님들이 손을 잡아주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잘할 거라고 응원해주신 친구, 동료,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단막을 끝내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파이팅! 끝! 안녕!

오명남녀

백이신

남자친구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고통받던 한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날 검색어 1위는 해당 연예인의 ‘자살’이 아닌 ‘동영상’이었다. 호기심을 채우려는 노골적인 욕망으로 인터넷이 들썩였다. 그녀의 영상을 찾으려던 그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참혹한 범죄마저 개인의 욕망으로 소비하는 비정한 인터넷 세상의 인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친구나 가족, 혹은 나 자신이다. 드라마의 선한 영향력을 믿으며 그 불편함을 나누려 한다.

등장인물

변정후(29, 남) 삼류 인터넷 신문사인 ‘허리케인뉴스’ 웹기자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책임지려 대학을 중도 포기한 이후 속물기자의 길을 걸어왔다.

안도영(28, 여) 디지털 장의사 오즈의 팀장
게임 폐인 아우라에 천재 해커란 이력이 있다. 냉소적.

캐리(33, 여) 정후 동창&허리케인뉴스의 사장
부유한 집안 태생으로 분방하고 쿨한 성격.

장 사장(65, 남) 디지털 장의사 오즈의 사장
전직 형사반장이란 이력이 있다.

박 대리(26, 남)
도영 밑에서 일하다 대형 디지털 장의사인 엔젤로 이직.

최 형사(46, 여)
사이버 범죄 수사대 형사. 장 사장 형사 시절 파트너로 도영과 친분이 있다.

변정린(21, 여)

정후의 늦둥이 여동생. 배우지망생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그 외

박현수(32), 김성태(45), 정후 모(63), 정린 전 남친 창오(22) 등.

줄거리

오명을 날려 클릭을 유도하는 속물 웹기자 변정후!
오명을 지우기 위해 날뛰는 디지털 장의사 안도영!
자석의 양극과도 같은 두 남녀가 만난다.

“당신 여동생이 몰카* 범죄에 당해 자살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정후의 기사를 내리기 위해 도영이 내뱉은 독설은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되고
강간당한 불법 촬영 범죄 영상유포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한 정후 여동생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함께하는 가운데, 약물 강간을 찍는 불법 촬영 범죄자와
범인이 만든 영상으로 이득을 보던 업로드 사이트의 사장까지 잡아낸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던 악당이

또 다른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마는데...

* ‘몰카’ 관련 범죄에 대해 통상적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드라마의 특성상 ‘불법 촬영 영상물’
혹은 ‘불법 촬영 범죄’ 등의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명남녀
백이신

#1. 방 안(밤)

불 꺼진 방. 의자에 앉은 뒷모습 실루엣.
그의 시점으로 책상 위 모니터로 들어가면
검색어 순위 ‘1위 청연’, ‘2위 청연 몰카’, ‘3위 청연 동영상 충격’ 보이고
마우스 휠 드래그되고 검색 창에 ‘청연 몰카’ 타이핑하는 손.
발랄한 청연의 사진들과 떠오르는 웹 기사들.
“넘사벽 뇌섹아이돌 청연, 넘사벽 몰카 스캔들!”
“인기 걸그룹 티엔티 ‘청연’ 연습생 시절 ‘몰카’ 의혹”
“청연 소속사 측 합성으로 일관”

남고생E (신난 감탄) 와... 씨...

검색 창에 ‘킹디스크’ 타이핑한다. 웹하드 사이트 ‘킹디스크’ 화면 열리고.
수많은 19금 뺏지 단 제목들 훑어 내리던 커서 ‘청연 몰카’ 클릭.
팝업창에 진행 속도 보인다. 손끝으로 마우스 타닥타닥...
두드리는 조급한 손.
다운 완료, 동영상 플레이되면...

몰카 동영상 속. 단란주점 룸.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오렌지 주스 병. 문 열고 들어온 청연(21),
천진 발랄한 얼굴로 앉는다.
문 쪽으로 목을 쪽 빼며 보다가 잔에 얼음 넣어 주스를 따라 마신다.
얼음 먹는 귀여운 얼굴... 화면 미세하게 튼다.
취한, 몽롱한 눈으로 흐느적대며 춤을 추다 두통이 오는 듯 찡그린다.

청연 (야릇한 신음) 흐응...

다리 힘 풀려 풀썩 소파에 눕는다.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사내의 벗은 뒷모습...

남고생 (꿀꺽 침 삼키며 흥분) 하...
엄마(E) 안 자니?

화들짝 놀라 모니터 전원 끄는 손.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듯 방 안 보이고.
뒤를 돌아 가만히 밖에 귀를 기울이는 평범한 남고생 얼굴.
엄마 지나가는 발소리 들리자 안도의 한숨 푹 뱉는다.
카톡음 울린다. 핸드폰 액정 터치해 단독방 열리면

INSERT

— 청연 몰카 봄??? 합성 아님
— (입력한다) 빼박. 청연 좇됨
— ㅇㅈ(인정) 근데 찍은 놈 누구냐??
— (입력한다) 고마운 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애들아, 청연 자살했대!

단독방에 헤드라인 '청연 자살'인 웹 기사 링크 뜯다. 클릭해 열면.
숨진 채 병원에 옮겨졌으며 유서대로 장례식 없이 화장하기로 했던 기사 내용.
포털 검색어 순위는 '청연 자살'에서 '청연 몰카'가 1위로 올라온다.

위 신 덮는 INSERT

청연 몰카 영상 파일 다운받는 사람들.
— 지저분한 방 안 컴퓨터 앞.
청연 몰카 다운 팝업창 띄워놓고 게임하는 남자1.
— 모텔 안. 청연 몰카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속옷 커플.
— 노트북. USB 꽃아 소장 희귀템 폴더에 청연 몰카 영상 옮기는 남자2.
— 컴퓨터 둘러싼 중학생들.
몰카 영상 보며 킬킬대는 무지하고 장난스러운 얼굴들...
그 위로 '배우 S군 성상납', '희대의 살인마 검거' 등
다른 웹 기사들 포개져 덮이며
기사의 연도는 '2012년 00월'에서 '2019년 11월'이 된다.

#2. 허리케인뉴스 사무실/복도(낮)

광속으로 자판을 누비는 손가락. 여러 기사를 놓고 Ctrl+C, Ctrl+V를
번갈아 치는 현란한 짜깁기 기술로 끈적한 웹 기사를 날려대는 정후.
'김희애! 남자에 미쳐!', '서장훈 올해 안에 결혼!' 등의 헤드로
웹 기사 올라간다.

복도. 걸어오며 스마트폰으로 기사 읽는 패셔너블한 느낌의 캐리.
정후의 헤드라인 클릭해 들어가면 '배우 김희애, 차기작으로 영화 남자에
미쳐를 제안 받았으나...', '서장훈 올해 안에 결혼 생각 전혀 없어...'다.
미소 짓는 캐리를 톡 치고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굵슬머리 산발한 도영.
뭐지 싶게 따라 들어가는 캐리.

도영 (까칠한 외침) 변정후...!! 씨...가 누구죠?

영업부와 편집부, 객원 기자실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열 명 남짓한 인원이
따닥따닥 붙어 조악한 분위기인. 타이핑하던 직원들 일제히 정후 본다.
그들 시선 따라 정후 보는 도영. 이어폰 끼고 방송 보며 실시간 기사 타이핑
중인 정후, 싸늘한 표정으로 다가서는 도영을 알아채지 못한다.

도영 (부르려 입 떼다가 무언가 발견, 눈썹 꿈틀) ...

파일들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오보 삭제 요청 공문서'
빼내 정후의 눈앞을 막는다.

정후 (이어폰 빼고 보며) 뭘니까?

도영 (문서 탁 던다) 뭘로 보여요?

정후 (보고) ...디지털 장의사 안도영 팀장이... 그쪽?

도영 왜 안 내려요?

정후 래퍼 제인도 청연처럼 버클리 포기한 케이스다...

오보 아니니까.

도영 '충격! 래퍼 제인, 제2의 오청연?'

누가 봐도 몰카 의혹이랑 연결 지은 헤드잖아요!

정후 난 아닌데. 누가 그래요?
(옆 후배 퍽짓) 너 말해봐, 그렇게 생각했어?
후배 (도영 눈 피하며 도리도리)
정후 (캐리에게) 사장님은요?
캐리 (끼우지 말란 경고의 부라림)
정후 웹 기사 제목만 보고 믿는 거 요즘 초딩도 안 하니까,
가서 래퍼답게 풀지 말라고 해요.
도영 오청연 때문에 온 거예요.

일등 뜨악한 느낌으로 도영을 본다. 정후, 잠시 할 말을 잃는데....

도영 (뼈뼉) 죽은 사람 정보 지우는 게 원래 디지털 장의사구요.
정후 오청연이 아이돌 몰카의 상징으로 각인된 건...
관심의 정점에서 자살한 그녀 탓이죠.
도영 (!!)
정후 (모니터 쪽으로 돌며) 기정사실화된 건 기사 문제 안 됩니다.
(이어폰 끼는데)
도영 만약 당신 여동생이 청연처럼 몰카 범죄를 당해 자살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정후 (일어나며) 싸우러 온 건가?!
캐리 (막아서며) ... 검토할 테니 이쯤 하죠.
도영 (정후 누르듯 보고 가며) 기레기 새끼...!

정후 뺨 쳐서 '거기 안 서...!' 하는데 캐리와 후배가 입 막아가며 말리고.
도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3. 옥상 휴게소(낮)

감정 추스르며 인상 구기는 정후에게 캐리가 커피 건넨다.

캐리 오즈의 마녀시다. 저 업계 최고 실력자.
정후 (꼬여) 깡패 같은 여자가 뭔들.

캐리 뭐, 자석의 양극인 거지. 한쪽은 오명을 쓰는 남자,
한쪽은 오명을 지우는 여자...
정후 갖다 붙이긴.
캐리 마녀란 별명 그냥 생긴 거 아니다~
저 여자랑 엮이면 컴이 미치는 저주에 걸린다나...
블루스크린¹ 뜨고, 자료 사라지고...
정후 저주 걸라고 해... 내 기산 못 내리니까...
(전화 올려 보면 정린 영상폰. 찌푸려 받으면)

스마트폰 영상. 백화점 구두매장 앞. 낮.
진열된 빨간 구두 보여주며, 한껏 귀여움 떨며 <오빠 생각> 노래하는 정린.

정린 (애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명품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검지 올리고 조르는) 한 번만 사주라. 응? 응!
이 구두 신으면 오디션 진짜 잘 볼 거 같단 말야...
정후 (전화 꺼버리고) 남는 빨간 구두 없냐?
캐리 늦둥이 동생, 또 친구 카드로 사고 칠라. 사줘라...
정후 (일어난다)
캐리 벌써 가게...?
정후 정신 확 든다. 골통 때매.

#4. 정후 집(밤)

거실. 텔레비전을 보며 실시간 기사를 쓰고 있는 정후, 잔뜩 입이 나온 정린.

정린 진짜 안 사준다고~?
정후 (눈 안 주고 일하며) 엄마 환자다. 철 좀 들자.
정린 수술 끝난 지 일 년두 넘었는데~ 왜 환자야~

1. 원도 운영 체제에서 시스템 오류를 복구할 수 없을 때 오류 정보와 함께 화면에 띄우는 파란 화면.

정후 (타이핑 다다다 치며) 암에 완치가 어딴냐….

정린 여동생 인생 생각도 해주라~ 나한텐 오빠가 아빠잖아….

정후 (타이핑 멈추고 찌푸려 보며) 뭔데 이번엔?

정린 (얼른 명함 디밀며) 박찬욱 감독 밑에 있던 조감독 입봉작. 그 감독이 나 민다구 했던 말야… 봐~ 직접 받은 명함.

정후 (명함 ‘김해욱’ 검색하면 프로필 사진) …이 사람?

정린 (끄덕, 사진 보며) 뽀샵 엄청 했는데 더 늙어 보이는 건 뭐래.

정후 (한숨) 마지막이야. 이번에 떨어지면 때려쳐… (지갑 찾는 데)

정린 (아싸! 하는 얼굴로 정후 카드 꺼내 흔든다)

정후 너! 언제…!

정린 (신나서 나간다) 엄마한텐 비밀이다~

#5. 오즈 사무실(밤)

동네 복덕방 정도 공간. 컴퓨터에 도스 화면을 띄우고 필터링 작업하며 마카롱 한입에 넣고 씹는 도영. 상자에 쌓인 마카롱이 보인다. 다크스클 안경잡이 박 대리(26)가 불만 가득해 구시렁대며 짐을 정리한다.

박대리 제때 쉬지도 못하지, 보안 유지 한다구 총원도 없지… 나 정말 착취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도영, 모니터에서 눈 떴지 않고 있다 뭔가 걸린, 다다다 흡사 게임에 미친 표정으로 자판 두드린다.
체념한 박 대리, 가방 싸서 장 사장 책상에 사직서 올리고 간다.

#6. 스튜디오 있는 건물 앞(낮)

혈레벌떡 뛰어오는 정린. 상기된 얼굴.
검정색 벤 앞에서 기다리던 현수(32, 남)가 손을 흔든다.
정린 달려가다 빨간 구두 한쪽이 벗겨지고.
잠시 도드라져 보이는 빨간 구두….

(E)핸드폰 발신음.

#7. 정후 모 시골 집/주방(낮)

정후 모, 한 귀에 핸드폰 댄 채 약 찜겨 먹는데,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전화.

정후모 하는 일도 없는 게 왜 전할 꺼냐…?
내려와서 김장이나 거들 것이지, 헛바람만 들어서…

싱크대 위, 텃밭에서 수확한 대파를 담은 좁은 소쿠리를 탁자로 내린다.
두리번대다 창고로 향한다.
창고. 낡은 컴퓨터 부품, 본체들 있는 창고.
컴퓨터용 서적들 책상 밑에 가득 있다.
문 열고 김장용 큰 소쿠리들 꺼내 가는 정후 모.

#8. 정후 집(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정후,
신발장 밑에 정린의 흩어져 넘어진 빨간 구두 본다.

정후 (구두 흠집 보며) 48만 원 니 꼴 보니 알 만하다 오디션….

정린 방. 어두운 구석에 웅크려 앉아 울고 있는 정린.
무언가 기억해내려 애쓰는데 잘되지 않는다.
불안한 눈으로 스마트폰 바라보다…
112 누르다 끄고… 웅크린다.

정린 (울먹) 어떡해… 어떡해…

#9. 엔젤 디지털 장의사 사무실(낮)

박 대리! 컴퓨터 화면과 의뢰 계약서들을 번갈아 보며 확인 중이다.

과장 (지나다가 어깨 툭) 일은? 할 만하지?
 박 대리 킹디스크에서 온 고객이 많네요?
 과장 거기 필터링² 우리가 해서지 뭐... 열심히 해.

과장 가고 박 대리,
고객 차트에 최초 유포지 '킹디스크'라고 적고 의뢰서 바라본다.

#10. 대포 집(밤)

캐리와 술잔 주고받는 정후.

캐리 동생은? 아직도 방에 틀어박혀 있어?
 정후 연기는 무슨, 붙는 게 이상하지.
 캐리 오래가네... 전 남친 문젠 아니고? 집착 째었다며?
 정후 쫄보야. 갠 아니고... (술 따르며) 모르겠다. 나도.

#11. 정후 집(밤)

창문 쪽을 넘어다보는 창오.
핸드폰 꺼내 '정린' 번호로 걸면 음성으로 넘어간다.

창오 (초조, 짜증) 아씨... 왜 안 받아.

누가 보고 있는 느낌에 돌아보면 눈에 불꽃이 튀는 정후다. 도망치는 창오.

2. 불건전하거나 저작권을 위반한 음원 또는 유해한 내용이 들어 있는 웹 페이지나 영상, 이메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차단하는 것.

#12. 일각 도로(밤)

기겁해 뛰는 창오, 뒤쫓아 오는 정후. 창오,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탄다.

정후 너 뭐야? 안 내려! (택시 창 두드린다)
 창오 형 빨리, 정린이한테 가보세요!
 정후 (싸한 느낌 스치고 집으로 달려간다)

#13. 정후 집/정린 방(밤)

현관 열고 뛰어 들어오는 정후.

정후 (잠긴 방문 두드리며) 정린아!

거실 뒤지는 정후. 서랍 속, 월세 계약서 봉투 쏟으면 열쇠꾸러미 나온다.
방문 열리면 쓰러진 정린과 널브러진 빈 약병들.

정후 (사색으로 달려들며) 이 꼴통아!! 무슨 짓을 한 거야!

#14. 응급실(밤)

— 정린을 실은 침대를 밀고 들어가는 응급대원들. 정후도 같이 달린다.
 — 의료진이 정린의 위세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정후, 미칠 것 같은 표정.

#15. 병실(밤)

호흡기를 낀 의식 없는 정린을 참담한 얼굴로 내려다보는 정후.

의사 호흡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후 언제... 깨어납니까?

의사 삼사 일은 더 치료해야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면 쇼크가 올 수 있으니 환자 안정에 주의해주세요.

의사 나가면, 의자에 앉아 마른세수하던 정후, 정린의 핸드폰 꺼낸다.
 액정 지문인식 표시에 정린의 검지 대고 열리면 창오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 통화 누른다.

창오(F) 정린이!! 괜찮아?
 정후 (나직이)… 끊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정린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창오(F) (머뭇) 형… 정린이는요?
 정후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정린이… 무슨 일 있었어?
 창오(F) (잠시) 정린이… 몰카 있어요… 약 먹고 당한 거 같은데…
 몰카까진 몰랐나 봐요…
 정후 !!!
 창오(F) 친구가 보라고… 정린이 같다고 해서… 나도 걱정돼서
 알려준 거라구요. 근데 아무래도 기분이 싸해서…
 정후 (충격에 쉰 낮은 소리) …어딴어…?
 창오(F) 빨간 구두. 킹디스크에 그렇게 쳐보세요.

#16. PC방(밤)

총혈된 눈으로 킹디스크 검색 창을 보는 긴장한 정후.
 USB 꽂힌 하드.
 자판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되는 ‘빨간 구두’.
 파일 내려받는다.
 플레이하면 영상 속, 누워 있는 정린의 발에 빨간 구두.
 자신이 사준 구두 알아본 정후의 일그러지는 얼굴.
 침대에 널브러진 나체의 정린…
 몸을 떨며 분노와 고통을 누르는 정후,
 신음 섞인 울음이 비어져 나온다.

#17. 영화 기획사(밤)

꼭지 돈 정후가 사무실로 들이닥친다. 직원 한두 명 야근하다 일어선다.

정후 김해옥 감독, 이 새끼 어딴어!
 직원 두 달 전에 베트남 촬영 가셨는데. 누구세요?!
 정후 (!) 두 달 전에…?

#18. 경찰서(밤)

경찰서를 나오는 정후.

경찰(E) 감독 사칭하고 연기 지망생들 노리는 경우가 꽤 있죠….
 정황만으론 수사가 어렵고… 정식 수사를 원하시면
 피해자와 오시죠.

정후, 괴롭게 허공을 본다. 도영이 한 말과 같은 상황이다.

도영(E) …만약 당신 여동생이 청연처럼 당하고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정후 오즈의 마녀….

#19. 오즈 사무실(새벽)

팔다리를 쭉쭉 늘이는 동작을 하며 문을 나오던 도영,
 복도에 주저앉아 고개 숙인 정후 보곤 화들짝 놀란다.

도영 당신… 변정후?
 정후 (일어난다)

#20. 오즈 사무실(새벽)

어두한. 구석의 도영 자리 모니터만 켜져 있다.
불을 켜는 도영. 따라 들어오는 정후.

정후 밤샘 겁니까?
 장 사장 (앞드려 자다 일어나) 박 대리 잡아 와. 나 더 못 해...
 도영 그러게 왜 보너스 줄 돈으로 노름을 해요.
 (정후에) 할 말, 해보시죠?
 정후 (입이 마른다) 내 여동생... 몰카 영상이 킹디스크에 있어요.
 도영 (!)
 정후 자살미수로... 지금 혼수상태인데... (괴로움 짝 물고)
 더 퍼지기 전에... 영상부터 없애줬음 좋겠어요...
 도영 왜... 나한테 의뢰하러 온 거예요?
 정후 최고라고 들어서... 그리고...
 (억지 미소) ...저주는 건 사람이 가장 빨리 푸는 거 아닙니까.
 장 사장 못 해요! 새 직원 오기 전엔 물리적으로다...
 도영 (서류철 정후 앞에 놓고) 이 안에 든 거 처리해볼래요?
 당신 쪽에서 하면 빠를 일들이라... 그럼 나도 될 거 같은데...
 정후 (도영 보며) ...내 동생 일... 얼마나 걸립니까?
 도영 36시간. 우선 인터넷은요.
 정후 (도영 뺨히 보다 서류 챙겨 나간다)

#21. 허리케인뉴스(아침)

자리에 앉아 열심히 통화 중인 정후. 출근한 옆자리 후배가 뭐하나 본다.

정후 (통화) 오보 안 빼는 악질신문사로 신문, 방송, 다 타게 만들고
 소송 당연히 갑니다! (듣고 수궁) ...두 시간 드리죠. (끊고)
 후배 아침부터 뭐해요?
 정후 (프린트 건넨다) 오늘 안에 해결해줘.
 후배 (훑으며) 뭐예요?

정후 블로그 포스팅 삭제 48건, 밴드, 카페, 인스타 등등에서
 사진이랑 악성 댓글 삭제 127건 정도. 지워봐.
 후배 에...? 내 랜선 인맥 다 동원해도 일주일 걸릴걸요.
 그리고 왜 선배가 이런 걸...
 정후 열 시간 내에 끝내면 내 캐논... 카메라 니 꺼다.
 후배 (눈 커져) 캐논 5D 마크를요?
 정후 정확히 열 시간. 넘기면 렌즈 하나씩 뺀다.
 후배 (신나 깎지 꺼 운동하며) 맡겨두시죠.

#22. 허리케인뉴스 사장실(아침)

캐리가 들어와 코트를 건다. 벌컥 문 연 정후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온다.

캐리 스타킹이라도 갈아 신었음 어찌려구 노크를 안 해?
 정후 (서류 놓고) 오보 내리고 정정기사 내게 해줘.
 캐리 (서류 들추며) 메이저급들이네...
 딴 신문사 오보를 왜 니가 부탁해?
 정후 (믿는단) 고맙다! (나간다)
 캐리 (히)

#23. 가라오케 주점(밤)

기자들 회식 자리.

최 기자 곁에 딱 붙은 한 기자(여), 그 외 윤 기자 등 대어섯.
 친분 있는 분위기로 허물없이 신나서 떠든다. 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정후.

정후 너 왜 기사 안 내려?
 최 기자 아침부터 귀찮게 왜 그냐? 주렁주렁 광고 달린 거 안 보여?
 정후 (최 기자와 한 기자 한데 붙여놓고 사진 찍는다)
 최 기자 (얼떨떨하게 찍혀놓고) 뭐... 뭐야?
 정후 니 둘 사귀는 거 와이프 아직 모르지? 알려줄까?

최 기자한 기자 야!

정후 선배 너 미쳤니?

윤 기자 갑자기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정후 더 미친 짓도 할 수 있어. (최 기자에게) 기사 내려...

#24. 오즈 사무실(밤)

책상 위에서 잠든 도영. 모니터엔 커서가 깜빡거리는 까만 도스 화면,

정후가 들어와 서류를 탁! 올린다. 움찔 깨어나는 도영.

정후 끝났으니까... 약속 지켜요.

도영 웹상에 있는 건 처리했고. (USB 주머) 경찰에 증거용.

정후 어떻게 벌써...

장 사장 (마카롱과 호떡 사오며) 바야바처럼 생겼어도 고딩어 시절

화이트해커³로 촉망받던 몸이서... (마카롱을 도영 주고)

도영 (정후에게) 사이버 수사대 협조받아 영상 DNA 추적 필터를 깔면...

다시 올라오는 걸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정후 (표정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하드에 저장해둔 것들... 애긴가요?

도영 놈! 개들은 하드 빼 나서 애 좀 먹고 있을 거예요.

정후 (?)

장 사장 (호떡 우물대며) 찌질한 아이피 추적해서

하드 터뜨리는 건 안 팀장한테 테트리스 수준이지...

정후 (이 인간들 대체 뭐지 싶고) ...그럼...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도영 업로더를 잡으면. 다크웹⁴에서 거래된 아이피라 나도

추적이 안 돼요.

장 사장 결론적으로다... 올린 놈이 갖고 있는 걸 못 날리면...

3. white hacker, 선의의 해커. 네트워크에 침입한다는 점에선 해커 같지만,

미비한 보안 시스템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여 블랙해커의 공격을 예방,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

4. dark web,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살인 청부,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웹.

언제고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단 거야.

정후 (분해 주머 쥐는데)

도영 업로더 아이디어가 나비라면, 나비마스크, 악마나비, 아이디 패턴과

범죄스타일이 이놈 짓 같은 우리 의뢰인이 셋이나 돼요...

(질끈 씹으며) 잡아야 돼요... 이 자식...

정후 ...찾을 방법은요? 없는 겁니까?

도영 영상 올려진 킹디스크 쪽에 올린 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운 좋게 받아낼 수 있다면 또 모르죠.

정후 ...

#25. 병실 안(밤)

의식 없는 정린. 보호자석에 앉은 정후,

가슴 아픈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정후 모의 전화 걸려온다.

정후 모(F) 정린이 왔어? 전환 왔고?

정후 (정린 보며) 친구들이랑 신났을 텐데... 전화는...

정후 모(F) 너두 너다. 가뜩이나 등골 빼는 철딱서닐 유럽여행까지 보내?

정후 (목 안이 뜨거워오는) ...꿀통 조르기를 누가 당해요.

정후 모(F) 으휴, 마흔 넘어 생긴 복덩이라더니, 웬수때기... 알았어.

전화 끊고. 눈빛 매섭게 변해 노트북에 '킹디스크' 타이핑, 기사들 훑는다.

#26. 킹디스크 사무실(낮)

지문 인식하고 들어가는 직원들. 엘리베이터 열리고 정후 내린다.

직원1 지문 올리자 열리는 문, 그 뒤에 따라 들어가는 정후.

직원1 외부인 출입 안 됩니다.

정후 (형사 신분증 보이고) 경찰입니다.

불법 동영상 유포건 때문에 왔는데... 책임자가 누구시죠?

CUT TO

회의실. 정후가 긴장 타는 심정 숨긴 채 앉아 있다.
부장을 모시고 오는 과장.

부장 사이버 수사대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일로…
 정후 최근 5년 사이 굵직한 해비 업로더가 다 이쪽으로 이적했죠?
 부장 …회원 수가 많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정후 해비 업로더들, 신상 좀 넘겨주시죠.
 부장 (떨떠름)
 정후 김성태 대표가 텐프로계의 아랍황제로 불린단 소문이던데….
 부장 (쓰웃 본다)
 정후 신문에 던져줄 미끼가 많던데요.
 부장 우선 경찰 신분증 보여주시죠. 확인하고 드릴 테니….
 정후 (당황의 빛 스친다)
 부장 요샌 개인정보보호법이 드세놔서… 협조공문도 주시고요.
 정후 (가짜 형사 신분증 만지작대는데…)

다급히 문 열고, 당황한 표정으로 비서가 들어온다.

여직원 과장님… 사이버 수사대에서 나오셨다는데요?

황당한 과장이 정후 본다. 다가오는 최 형사와 도영.

정후 (버럭)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도영·최 형사 (기가 찬)

#27. 킹디스크 건물 앞(낮)

도영과 나오던 최 형사가 앞쪽의 정후 어깨에 손을 툇 얹으며.

최 형사 형사 사칭은 중첩니다.

정후 (머쓱) 근데… 형사님하고 도영 씨는 어떻게 같이… 오신 거예요?

최 형사 상부상조. 정의를 위한 카르텔 관계죠.
 도영 (정후 보다가 빼떡) …기자는 기자네요.
 정후 기레기도 할 땐 합니다….
 (전화 올린다. 받고 놀란) 깨어났습니까?!

#28. 병실 안(낮)

악악대는 정린. 정후가 화를 누르며 실랑이 중이고.
입구 쪽에 선 도영 보인다.

정린 왜 맘대로 살려내! 왜 못 죽게 해!
 정후 너…! (화 누르고) 엄마 생각은 안 해?
 정린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해? 지금 내가 어떻게 엄마 생각을 해!
 (정후한테 이것저것 다 던진다) 나가! 꺼져!
 도영 (모습 드러내며) 넌 죽어도 니 영상은 살아남아.
 정린 (!)
 도영 니가 죽든 말든 니가 끄적해하는 영상은 계속 돈다고.
 정린 (표독스럽게 부르르 떨며) 누구야… 뭘 안다고….
 도영 원한다면 니가 태어났던 기록까지 지워줄게. 살아.
 정린 (멈칫하다가) …누구나니까!
 정후 인터넷 기록 지워주는 사람… 디지털 장의사야.
 정린 (도영 본다)
 도영 (시선 받는다)
 정린 (붉은 눈가 젖어들며) 거짓말… 지우는 게… 된다고?
 도영 약속할게. 어리석은 것 말아.

#29. 병원 로비(밤)

정문 밀고 나가려는 도영.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후가 도영을 부른다.

정후 도영 씨… (못 듣자 다시 크게) 안도영!

도영 (멈춰 돌아본다)
정후 (미소) 데려다줄게요.

사람들부터 찾아보자구요...
(장 사장 받으면) ...사장님, 마를린 카드 지금 쓰죠.

#30. 정후 차 안(밤)

차 창밖을 보는 도영. 운전하며 그녀를 룸미러로 보다 말을 꺼내는 정후.

정후 아깐... 아니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도영 (답답) ...왜 웹 기자가 됐어요?
정후 대학 중퇴 전엔 메이저급 기자로 한국기자상이 꿈이었죠.
도영 물카의 상징... 관심의 절정에서 자살한 청연 탓이다...
진심이었잖아요. 현실 타협한 속물 기자여서가 아니라.
정후 (쓴데...) 도영 씨 이 일... 왜 합니까?
도영 시작한 일을 못 끝냈을 뿐이에요.
정후 하긴, 끝을 내기 힘든 일이니까...
도영 운 좋게 영상을 다 없애도 평생 포비아에 시달리죠. 어딘가
내 영상이 있을 거다. 저 사람이 봤을 거다... 또 찍힐 거다.
정후 돌아가신 아버지께 지켜주겠다 약속한 내 동생 일이 되겠죠.
도영 (본다)
정후 그놈들 잡아서 인터넷에 기사를 낼 겁니다.
놈들이 한 짓들... 날날이 파헤쳐서, 기사를 내고 또 내고...
모든 국민이 다 알 때까지 뿌려서
내 동생 같은 피해 안 보게 할 겁니다.
도영 복수? 아님, 진짜 기자가 돼보겠다?
정후 기사가 양날 겁이라면, 좋은 쪽을 휘둘러볼 겁니다.
비록 싸구려 웹 기자지만...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도영 (정후 말 곱씹어 듣다가... 입꼬리 올린다) 그 말 믿어보죠.
(전화 걸며) 이태원으로 차 돌려요!
정후 ?
도영 나비가면... 이놈 일이 년 된 거 아니에요. 약물에 감독 사칭...
시작할 땐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놈을 봤을 만한

#31. 마를린 CD숍(밤)

앞장선 도영을 따라 들어가는 정후.
도살장 끌려가는 얼굴로 따라가는 장 사장.

정후 시디샵이 뭐하는 뎀니까?
도영 크로스드레서⁵들 전용 미용실? 분장실? 차도 마시고...
취미로 여장을 즐기는 남자들의 모임 장소인데, 마를린이라고.
장 사장님 형사 시절 정보원이 주인이에요.
정후 은밀한 정보가 고이는 장소군요.
도영 마를린이 보복당해서 죽다 살았을 때 장 사장님이 약속했대요.
다시 찾아오면 여장을 하겠다고...
정후 (장 사장 보며 상상, 배시시)
장 사장 뭘 봐! 엠병, 경찰 때려치고 불일 없겠다 싶어 한 말인데...

#32. 마를린 CD숍(밤)

1970년대 할리우드 배우 모습을 한 여장 남자 마를린(45).
한 남자의 여장을 마무리하다, 정후와 도영을 보고 낯선 이들로 여기던
차에 장 사장을 발견하고 환히 미소 짓는다.

장 사장 (다 포기했던 얼굴로 손 휘휘 젖는다)

5. 취미로 이성의 복장을 입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 철저하게 취미로 여장을 즐길 뿐, 보통의 남성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그중에는 결혼해 가족을 둔 사람도 많다.

CUT TO

장 사장에 메이크업 중인 마를린.
우스꽝스러운 면로가 되어가는 장 사장이고.

마를린 인증샷 찍어서 아들 보여줘야지.
장 사장 젠장... 사내자식들이 할 일 드럽게 없어서 여장을 하고 놀아...
 알았으니까 하던 애기나 계속해...
마를린 홍 감독이라고 성인영화 제작하는데... 전에 아까운 여배우가
 물카 충격에 죽었던 애길 했어요.
 반장님 말한 수법도 비슷하고...
장 사장 그놈도 관련된 건 아냐?
마를린 (저으며) 자기 영화에 프라이드가 강한 남자예요.
 스튜디오로 찾아가 봐요. (주소를 메모해 정후에게 주며)
 아직 촬영 중일 거니까.
장 사장 (메모를 낚아채 의자에서 벌떡 도망친다)
마를린 (군대톤 버럭) 장 반장!

가발을 내던지며 나가는 장 사장. 그 뒤를 정후와 도영이 따라간다.

#33. 마를린 CD숍(밤)

숨차서 헐헐대는 장 사장.
정후가 차 문 열자 물티슈로 화장 뺀뺀 지우며 차에서 멀어진다.

정후 가시게요?
장 사장 (손을 휘휘 저으며) 내 역할은 여기까지. 지금 가서 안 쉬면
 올해 크리스마스엔 캐롤 대신 마누라 무덤 옆에 누워서
 잔소리 들을 판이야...
도영 (정후에게) 가죠. 우린.

#34. 촬영 스튜디오(밤)

정후와 도영이 경직되어 서 있다. 침대 위에서 격정적인
베드신을 찍는 남녀 배우와 카메라를 들이대는 촬영감독.
정후를 보고 홍 감독(46, 남)이 컷을 외친다.

홍 감독 남의 촬영장에 들어와 뭐합니까?
정후 경찰입니다.
홍 감독 (성가신) 몰라요.
정후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요?
홍 감독 이 스튜디오 낼까지 대여한 건데, 돈 내줄 거요?
 난 아무것도 모를 거니까, 귀찮게 말고 가보슈.
도영 홍 감독님, 저희 마를린이 보내서 왔어요.
홍 감독 참 내, 그렇게 말할 것이지... (정후에게) 형사 아니지?.
 기자나부랭이라면 모를까?
정후 쳇... 나부랭인 뭘니까?

시간 경과.
의자에 앉은 홍 감독이 씩씩한 얼굴로 얘기한다.

홍 감독 6년 전쯤에 은희라고... 생활고 때문에 성인배우로 전향한
 애였어. 그즈음 재빈이라고 알바로 영화과 놈이 왔는데...
 금세 둘이 붙어 다니더라고...
정후 사귀 건가요?
홍 감독 (쓰게 미소) 은희는 그랬겠지...
 몸매도 페이스도 크게 히트 칠 재목이었는데 카메라만 돌면
 도통 물입을 못 하는 거야... 속 터져 일찍 접었는데...
 재빈이 놈이 좋은 수가 있다며 술을 사줬다더군. 미친 새끼...
정후·도영 왜요?
홍 감독 ...약을 먹이고 찍잔 거야.
정후·도영 !!! (이놈이다 싶은)
홍 감독 물병에 최음제를 탄 칵테일이라는데... 허, 이놈 봐라 했지...
 범죄 영상이랑 영화도 구분 못 하면서 감독 하려느냐고

흔쥘을 내서 쫓아냈는데... 은희 죽고 몰카가 돌았을 때
 딱 그놈 짓이라 생각했지.

정후 경찰엔요?

홍 감독 당시 성인배우 몰카를 범죄로 봐줬잖나...

정후 혹시 그 자식 신상에 관한 건 없습니까?

홍 감독 (가로젓고) 이력서에 쓴 거는 다 가짜였고...
 뭐 편집 배운 티는 났으니... 관련 학과를 나온 건 맞을 거야.

도영 혹시, 영상 만질 때 습관이라든가... 특징은요?

홍 감독 오래전 일이라... 편집실서 같이 밤샐 때...
 지놈 손댄 영상엔 저만 아는 표시가 있다고는 했는데...

도영 (눈빛 빛내는)

#35. 스튜디오 건물 밖(밤)

걸어 나오는 정후와 도영. 도영이 핸드폰으로 최 형사 문자 확인한다.

도영 최 형사님이 킹디스크 업로더 나왔대요. 거기부터 가보죠.

정후 저기... 도영 씨, 그전에 먼저...

도영 (보면)

정후 (미안해서 머뭇) 정린이 정식 수사 요청하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요? 내 말은 안 들어서...

도영 (눈빛 미소로 받으며) 설득해볼게요.

#36. 경찰서 주차장(밤)

정후, 운전해 오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도영과 정린.
 정린이 다른 봉고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을 보고 몸이 굳는다.

정린 (불안하게 도영 잡으며) 언니... 나 꼭 가야 해?

정후 숨는다고 안 끝나...
 그놈들한테 쫓값 받게 해야 끝나는 거야...

정린 (도영에 꼭 붙는다) 같이 있어줄 거죠?

도영 (대답 대신 안는다)

#37. 경찰서(밤)

최 형사가 윤 기자와 실랑이 중이다.

윤 기자 모텔 생중계된 IP카메라⁶에 정 의원도 있다던데... 맞죠?

최 형사 글썽 모른다니까 그러시네...

도영과 정린, 정후가 들어온다. 정린은 식은땀 흘리며 눈을 피한다.

도영 최 형사님.

최 형사 어, 마침 잘 왔네. (사무실 쪽으로 가며) 이쪽으로 들어와.

아는 척하려는 윤 기자에게 도영, 어색하게 눈인사하고 들어간다.
 사이버 수사대 회의실. 정린이 목이 짙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다.
 음료수 따위를 앞에 밀어주는 최 형사.
 정린이 음료들 가운데 요구르트를 본다. 창백한 시선 꽃히고.

도영 킹디스크 다녀오신 건요?

최 형사 노숙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것, 다 도용된 거야.

도영 (역시나 싶고) 돈줄이나 다름없는 대형 업로더들 보호하느라...
 가짜 신상을 넘겼단 얘기죠.

정후 나쁜 새끼들...

최 형사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지... (정린 부드럽게 본다)

정린 (뚫어져라 요구르트를 보는 시선에서)

INSERT (FLASH BACK 처리된)

6. Internet Protocol camera,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카메라.

시내 도로. #6의 검정색 밴 내부.
실내용 아이스박스 안에 요구르트와 음료들 있다.

정린 (천진하게 둘러보며) 밴은 침 타요.
현수 회사 꺼. 딴 애들은 똥차 타고 먼저 가고...

신호 걸리자, 운전하던 현수가 아이스박스에서
비타민 드링크 따위를 따서 마신다.

정린 5분 남아서 일찍 온 줄 알았는데... 더 긴장돼요.
현수 내가 미는데 뭘 걱정? (빨대 꽂아주며) 요구르트나 마셔...
정린 네... (마시려다) ...최종 오디션 몇 명이나 돼요?
현수 여덟 명. 다 빵빵해. (대본 건네며)
원래 즉흥연기 테스트하는 건데 먼저 주는 거야.
정린 (눈 커져 반색) 감독님~!
현수 얼른 목축이고 읽어봐. 연기 봐줄게.

운전석의 현수가 룸미러를 통해 빨대를 빠는 정린 본다.
요구르트 화면 잡고....

현재.
테이블 위의 요구르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정린을 최 형사가 보고

최 형사 마실래요? (친절하게 요구르트 밀어준다)
정린 (비명) 싫어!!! (뛰쳐나간다)
정후 정린아! (따라 나가고)
도영 다시 올게요. 최 형사님.

회의실 밖. 정린이 뛰쳐나오고 정후와 도영, 뒤따른다.
근처에서 앉아 주시하던 윤 기자가 보고 일어선다.

#38. 경찰서 주차장(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 나오는 정린. 사람들 시선이 모두 꽂혀오는 것 같다.
뒤따라 온 정후와 도영, 부르며 달려오는데 흥분상태로 내달리던 정린이
남자들 한 무리와 부딪히자 비명 지르며 고꾸라진다.

정후 정린아! (달려가 안고)
도영 (정린 받으며) 나한테 맡기고 차 가져와요.
정후 (차로 달려가려 하면 다른 차로 막혀 있다)
윤 기자 (차 운전해 와) 정후야! 여기야!

정후가 도영과 함께 정린을 윤 기자의 뒷좌석에 태운다.

#39. 병실(밤)

침대에 누워 안정제를 맞으며 돌아누운 정린.
정후와 도영이 뒷모습을 보고 있다.
정린에게 다가서는 정후,
도영이 말리는 눈빛을 보내면 한숨 푹 쉬고 나간다.

정린 무서워... 너무... 너무 끔찍해...

도영을 돌아보는, 울고 있는 정린의 얼굴에서

INSERT (FLASH BACK 처리된)
모텔 안. 침대에 누운 정린이 부스스 눈을 뜨고 앉는다.
어지러운 머리를 만지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다리 사이에 든다.
창백해져 내려다보는데...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현수. 다른 느낌의 얼굴이다.

정린 (떨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 내가 묻고 싶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

정린 (현수를 겁먹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본다)

현재. 병실 침대 시트로 몸을 감싸며 움츠리는 정린.

정린 요구르트... 마시곤... 깨어나기 전까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분명히... (울며 말을 못 잇는)

도영 (싸늘) 강간을 당한 건 알 수 있지...

정린 (흐느끼며) 다 잊고 싶어요. 그냥... 난... 다 잊을래...

도영 그렇게 해.

정린 !!

도영 (차갑게 식은 눈) 잊을 수 있다면...

정린 (울컥울컥 쏟아지는 눈물)

#40. 옥상 휴게실(밤)

담배를 나누어 피우는 정후와 윤 기자.

윤 기자 (사정 안) 더러운 새끼들... 남자란 게 부끄럽다.
정후 ...찾으면 죽일 거 같다... 법이고 뭐고...
윤 기자 그래도 다 잊어라. 동생도 외국 보내든가 하고...
정후 (인상 구긴다)

윤 기자 이쪽 취재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몰카 천국, 강간 천국,
그렇게 불리는 게 다 맞는 소리다...
개고생해서 잡아야 찍어서 유포한 놈들 삼사 년이면 풀려나.
소송하다 힘들어 자살한 피해자도 많고...
정후 (싸늘) ...기사는! 기사는 계속 낼 수 있잖아.
윤 기자 ...
정후 (독 오른) 잡기만 하면 얼굴까지 기사 낼 거야...
법이 쉽게 풀어줘도 내 기사는...
(이 갈며) 절대로...
그놈들 죽을 때까지 안 놔줄 거니까 두고 봐.

#41. 오즈 사무실(새벽 무렵)

도영 맞은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영화과 졸업생들 검색하는 정후.
핸드폰 문자음, 홍 감독이 보낸 '다 그놈 아님'이라는 메시지 확인하고 한숨.

정후 홍 감독한테 보낸 졸업사진 다 황재빈은 아니래요.
(충혈된 눈 비비고) 영화과는 다 뒤졌는데...

도영 ...와서 확인해볼래요?

영화과 홈페이지 게시판, 뒤풀이 등의 사진들 있다.

도영 (가리키며) 댓글 읽어봐요.
정후 '술 마시면 눈 주변이 가면 쓴 것처럼 붉어진다더니
진짜네'... '변태 현상'... (!) 댓글 밑 대댓글 '닥쳐'라고 쓴
아이디가 나비가면...?!

도영 실명은 황재빈이 아닌 최재빈이에요.
정후 (사진 보며) 맞을까요? 김해욱 감독이랑은 전혀 다른데...
도영 헤어진 여자친구 몰카를 찍어 게시판에 올렸다가
3학년 때 제적당했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정후 적어도 죽일 놈인 건 확실하네.
가서 최재빈이 황재빈 맞는지 최 형사님께 확인해볼게요.

#42. 경찰서(낮)

모니터로 신원조회하고 있는 최 형사.
최재빈 신상 뜬다. 바짝 다가서는 정후.

최 형사 중학교 때 새아버지 성을 따라 최재빈이 됐네요...
태어났을 땐 황재빈이 맞아요.

정후 역시... 이놈이...

최 형사 근데 이 자식, 마약 거래로 3년 전부터 수감 중인데요?
정후 (모니터 보며 실망) 적어도 3년 이내 건... 이놈 짓이 아니네요.

#43. 오즈 사무실(낮)

정후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온다. 집요한 눈으로 모니터 두드리는 도영.

정후 지치지도 않아요? 최재빈이 아니라는데…

도영 과거 범죄 수법… 아이디 패턴, 군데군데 일부러 튀게 하는 편집까지 우리가 찾는 나비가면과 똑같아요… 적어도 최재빈을 아는 놈 짓이에요.

정후 뭘 좀 알아낸 겁니까?

도영 최재빈이 활동했던 편집동호회 멤버 중에 거의 찬양 수준의 쪽지와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 속 빨간 머리 이 남자. 박현수.

정후 박현수?

도영 인터넷상에서지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더라구요.

정후 이놈 얼굴 프린트해줄 수 있어요?

(프린트에 머리 검게 하고 수염과 안경 그린다) 비슷한데요.

도영 흥 감독님이 황재빈, 아니 최재빈이 영상에 자기 흔적을 남긴다고 했죠? 워터마크예요. (화면에 멈춰진 영상 띄우고) 최재빈이 만든 영상인데, 크레딧 봐요. 확대할게요… (크레딧에 ‘나비가면을 쓴 남자’라고 올라온다)

정후 (읽으며) 나비가면을 쓴 남자…

도영 그리고… 정린 씨 영상… 침대시트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밑단에 ‘나비가면을 쓴 남자’라고 쓰인)

정후 일부러 접근해 최재빈에게 덮어씌우려 모방한 거네요.

도영 주민번호만으로 찾는 건 최 형사님도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정후 (조바심 나는데)

도영 하지만, 최재빈을 모방했겠다 범죄에 사용된 건 다 가짜니까 박현수가 사적으로 쓰는 핸드폰은 분명 본인 명의일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 대리. 마카롱 봉지를 흔든다.

박 대리 장 사장님은 정신 좀 차렸어요?

도영 (시계 보고) 박 대리, 통신사 계신 누님도 출근하셨지?

박 대리 에이 진짜… 이러려고 불렀어요?

정후 초면에 이렇게 반가운 분은 첨입니다.

#44. 호텔 옥조실(밤)

대마초 흔적. 여자들과 함께 탕에 들어가 있는 현수와 성태.

현수 감독 형세도 써먹을 만큼 써먹은 것 같고… 설까 봐요.

성태 꼬시기 좋은 명함이야 많잖아. 뭐가 걱정이야.

현수 형이 하든가요.

성태 회장이잖아. 게임밖에 할 것 없는 너랑 같냐? 약 잘 받아먹는 더 어린 년들 찾아봐.

현수 빨간 구두, 개 때문에 형사 왔다면서요?

성태 여자 맛은 형님이 먼저 보는데, 몸 나온 나만 쫓리게.

현수 그래서 너만 특별대우해주잖아.

성태 사이트 영상 팔이들이랑, 같이 예술하는 나랑 같나.

현수 (쓰읍 노려본다)

성태 (깽) 알았어요.

#45. 오즈 사무실(낮)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인 도영,
정후는 박 대리와 킹디스크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박 대리 (박수로 집중시키며) 자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철판, 킹디스크와 엔젤 디지털 장의사
양쪽에 쓰고 주고받는 화살표 그려가며

박 대리 킹디스크에 올라온 불법영상 피해자 엔젤로 의뢰를 보내주고

엔젤에선 영상 필터링 시스템 가동을 수시로 중단해서 불법영상을 올리게 해서 이익을 주고요….

도영 (쓴 미소) 악마들의 카르텔….

정후 킹디스크 같은 대형 사이트가… 악의 꼭짓점 중 하나라니….

박대리 (착잡) …경찰에서 나와도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면 되니까… 부담 없는 장사죠.

도영 자리. 도영의 모니터에 문자메시지 확인을 알리는 팝업 뜬다.

도영 걸렸어요!

정후와 박대리, 도영에게 간다. 해킹하는 도영의 손이 빨라진다. IP주소를 추적해내는 도영. 구글에 IP주소를 입력하자 GPS 위치가 나타난다.

정후 문자 중에 뭘 눌렀어요?

박대리 (정후 보며 픽) ‘오빠 나야?’는 아니겠죠?

도영 배틀그라운드 신규 맵 테스트 기간안내 문자.

박대리 확 땡기긴 하네….

도영 링크 표시되지 않게 문자에 숨겼고 신규 맵도 연결했고….

정후 스미싱⁷인 줄 모르고 클릭했다 얘기네요.

박대리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아이피엔 로그 기록이 남아요. 모바일인지 인터넷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서울 무슨 동인지 위치 기록이 남죠. (도영에게) 찾았어요?

도영 하는 중. 근데 해킹 끝내기 전에 놈이 스미싱을 눈치채거나… 핸드폰을 버리면 끝이에요. (정후 본다)

정후 알겠어요. 난 최 형사님한테 갈게요. (가면)

도영 넌, 킹디스크 가서 확증 잡을 것 있나 더 찾아봐.

박대리 네. 스파이도 갑니다. (간다)

7.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휴대폰을 통제하며 개인정보를 빼낸다.

창가로 가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박대리와 정후를 확인하는 도영.
여느 때와 다른 차가운 얼굴로 서랍 속 노트북을 꺼내
도스 프로그램을 연다.

INSERT
도영의 오피스텔 방 안. IT 회사의 컴퓨터 관제실 같은 분위기다.
슈퍼컴퓨터와 본체들 이어져 있고. 십여 대의 모니터를 보인다.
메인 모니터에 도영이 열던 것과 같은 도스 창이 떠 있고.
오피스텔의 메인 모니터와 오즈 사무실 도영의 노트북이 교차된다.
도영 노트북과 오피스텔의 하드와 연결되어 실행되는
해킹 프로그램이 화면에 보이고
메모창의 ‘박현수 핸드폰 아이피 117.111.15.***’가
해킹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46. 현수 집(낮)

위 신 이어. 프레임에서 헤드셋을 낀 현수가 게임을 한다.
현관 벨 울리고…. 현수가 문을 열면 피자 배달원이 서 있다.

현수 (주머니 뒤지면 이천 원만 나오고) 기다려…

거실. 서랍 열면 돈 가방에 만 원뿐이다.

현수 아씨… 언제 다 썼어…. (배달원에게 가서 만 이천 원 주고)
나머진 다음에 와서 받아.

배달원 (참고) …지금 주시죠?

현수 다 써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새까?

배달원 (헬멧 벗으면 험악한 인상) 경찰 부를까? 줄래?

현수 은행 갔다 와야 돼서… 그래…요

배달원 한 시간 뒤에 올 테니까. 배달비 두 배로 쳐서 이만 육천 원!
알아들었냐? 새까…

현수 …알았어요.

배달원 착하게 삼시다. 생긴 대로 말고. (돌아간다)

문 닫히자, 성질 뻔쳐 피자 상자 내팽개친다. 방에 들어가는 현수.

INSERT

책상 위 현수 핸드폰 액정. 은행, 잠김문서 등등 마음대로 열렸다 닫히는 창들 보인다. 나갈 채비 끝낸 현수, 핸드폰 주머니 넣고 피자 입에 물고 밖으로 나간다.

INSERT

도영의 오피스텔 방.
벽면 모니터들, 피자 물고 나가는 현수 모습 실시간으로 보인다.

INSERT

오즈 사무실. 도영이 오피스텔 하드와 연결된 노트북으로 현수 모습을 본다.

#47. 은행 앞(낮)

봉고차 안에 숨어 있는 정후와 최 형사 팀.

정후 (감탄) ...도영 씨 어떻게 박현수 은행까지 알아내죠?
최 형사 궁금해도 입 꼭 다물죠. 수갑 채울 일은 없어야 하니까...
정후 ...도영 씨 언제부터 아셨어요?
최 형사 청연 몰카 사건이 장 형사님 마지막 수사였는데...
장 형사님 퇴직 전에 같은 부서였거든요.
나중에 오즈에서 만났어요.
정후 장 사장님이 퇴직하고 도영 씨 스카웃한 거네요...
최 형사 도영 씨가 제안한 거래요. 청연 자살하고 도영 씨 힘들어할 때 장 형사님이 많이 힘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후 도영 씨가 왜 오청연 때문에 힘들어요?
최 형사 몰랐어요? 도영 씨가 죽은 오청연의 언니예요.
정후 !!

최 형사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몰카 사건 터지기 직전에 다시 만났는데... 그만큼 안타까웠겠죠.
정후 용케 마스크를 피했네요...
최 형사 장 형사님이 많이 애썼다고 들었어요. 나도 오즈에서 들었고. (차창 밖 현수 발견) 숙어요!

몸을 낮추고 차창 밖의 현수를 지켜보는 정후, 최 형사.

#48. 은행 ATM기 부스(낮)

ATM 기계에 통장 넣고 돈 찾는 현수. 최 형사 팀 들이닥치고...

최 형사 박현수!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체포한다...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 읊는데)
현수 (엇! 하다가) 에이씨... 어떻게 찾았어요?
정후 (주먹 날리고 먹살) 겨우 그만 게 궁금하냐?
최 형사 (말리며) 이러지 않기로 했죠...
현수 니들 폭력경찰로 신고할 거야! 공무원 주제에... 시민을 꽤?
최 형사 (정후 말리던 손 푼다) 어차피 신고할 놈. 패든가요.
현수 (뜨렉! 정후 발 날아온다) 경찰이 이래도 돼?
정후 (마구 패며) 경찰 아니고... 오빠다! 변정린! 이름은 기억하냐!?
현수 (잠시) ...빨간 구두?!
정후 이 자식이! (눈 돌아 더 밟는데)
현수 (바락) 시킨 놈 따로 있다구요!!!
정후 개수작 떨지 마... 새끼야!
최 형사 (가까스로 막아서며) ...시킨 놈이 누군데?
현수 (머리 가드 한 채) 정상참작... 약속해주면 말할게요.

#49. 경찰서 취조실(낮)

유리벽 밖에서 취조실 안의 최 형사와 현수를 지켜보는 정후.

현수 7년 전에 알바하던 단란주점에서 단골한테 돈을 받았어요.
물카를 방에 숨기는 조건으로….

최 형사 (못 미더운) 그 단골이 김성태다?

현수 아씨… 왜 안 믿어! 청연이 찍힌 것두 나중에 알았어요.

최 형사 (피해자 사진 꺼내 보이며) 다 니가 찍었잖아?

현수 시켜서 했다고요! 감독 따까리하다 힘들어서 연락했어요.
돈이나 좀 뜯어낼까 했는데, 만나자더니 예술사업 하자고….
그 나비가면 모방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픽도
설계는 다 성태 형이 해준 거라구요….

최 형사 예술사업? 놀구 있네. 해서 넌 하수인일 뿐이다?

현수 (주역이며) 김성태 아니었음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니까요.

최 형사 약 먹이고 강간하고… 그 범죄 영상으로 돈 벌고.
평범하게 살 놈이 할 짓 같아!

현수 아씨… 정상참작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50. 경찰서(낮)

현관 옆 흡연구역. 담배 나눠 피우는 정후, 최 형사.

최 형사 도영 씨는요?

정후 의뢰받은 일들이 그동안 밀려서 일한대요.

최 형사 이 와중에… 프로는 프로네.

정후 참, 청연 썬 그날 왜 단란주점에 간 겁니까?

최 형사 매니저가 불러서 갔다는데, 박현수 말이 맞다면
청연을 점찍은 김성태가 매니저를 사주해서 강간하고
물카를 찍은 거죠.

정후 (찌푸리며) 죽일 놈…

최 형사 1집 앨범 나오기 직전이니, 청연은 다른 멤버들 때문에라도
숨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 년 후 한창 떴을 때
물카가 나온 거고.

현수를 취조하던 경찰이 난감한 표정으로 달려온다.

경찰 저 자식, 변호사 만나더니 말 바꾸는데요.
혼자 한 일이라고….

최 형사 이 새끼가! 들어보낼 때 찜찜했는데, 김성태가 보낸 거였어.

정후 (주먹 말아 쥐다)

#51. 회장실(낮)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는 성태.

성태 알아듣게 말하고 온 거야?

변호사 약물은 증명할 수 없을 테니
여자가 동의했던 걸로 판을 짜주겠다고 했습니다.
성태 내가 그놈 입에서 나올 일은 없겠지?
변호사 군대 다녀오는 셈 치면 출소 즉시 새 인생 살 수 있는
모든 걸 마련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성태 난 말야,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밖이 웅성대며 문 열리고 정후가 뛰어 들어온다.
비서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고.

성태 누구야?

비서 기자분이신데,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성태 기자?

정후 허리케인뉴스 변정후라고 합니다. (수첩과 만년필 꺼내 들고)

성태 (비소) 허리케인뉴스… 그런 데도 있어?

정후 약물 강간을 공모하고 범죄 영상을 사이트에 유포하도록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누구한테 입을 함부로 놀려?

정후 변호사까지 보내놓고 발뺌이나?
(바짝 다가서 도발) 말해봐? 왜? 겁나냐, 새까?
성태 (욕설과 함께 주먹 언거푸 날린다)

비소 띤 성태가 바닥에 쓰러진 정후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 녹음 버튼 꾀다.

성태 기자 축에도 못 드는 새끼가... 끌어내!!

의자 밑으로 들어간 정후의 만년필 보인다.

#52. 경찰서(낮)

정린이 취조실 안에 있는 현수를 확인한다.
결에서 지켜보는 도영, 최 형사. 터진 얼굴로 들어오는 정후.

최 형사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린 씨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한데... (정린 보면)

정린 (저으며) 조각조각... 모르겠어요.

최 형사 (정후에게) 약물에 취해 거부를 못 한 건데
검사들이 정린 씨 범죄 영상을 보면 심증이야 가질 테지만...
확증은 안 될 겁니다.

정린 (무릎에 머리 묻고 주저앉으며) 그냥... 다 없애달라고... 제발...

정후 정린아... (다가서면)

정린 오지 마! 오빠도 봤지?

정후 (충격에 굳고)

정린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정후 가자... 데려다줄게

도영 내가 데려다줄게요. 정후 씨 할 일 남았잖아요.

#53. 택시(낮)

택시 뒷좌석에 앉은 정린과 도영, 정후와 통화 중인 도영.

정후(F) 엄마한테 여독 때문에 몸살 걸렸다고 해냈어요.

친구가 함께 간다고...

도영 알았어요.

정후(F) 미안해요... 고맙고...

도영 걱정 마요. 정후 씨 빚진 건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54. 허리케인뉴스 사무실(낮)

컴퓨터 앞에 앉은 정후, 노트북과 자료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보도자료
작성한다. '킹디스크 성장의 밑거름은 여성범죄 동영상?' 타이핑되고...
정후가 킹디스크와 성태의 의혹 기사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화난 표정으로 걸어오는 캐리.

캐리 킹디스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날아왔어.
이래도 왜 안 하던 짓 하고 다니는지 말 안 할 거야?

정후 ...

캐리 나 친구 맞니?

정후 (깊은 한숨 빼고 본다)

#55. 옥상(낮)

분노로 부들대며 왔다 갔다 하는 캐리. 정후가 착잡하게 본다.

캐리 가자. 가서 우리의 본태를 보여주자!

정후 ...

#56. 허리케인뉴스 사무실(낮)

타이핑 소리 두다다다... 기사 쓰느라 정신없는 기자들.

캐리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구! 엄청! 뿌리라고.

후배 (자료 보며 기함) 이 내용 다 사실이에요?
 정후 확인한 거야. 곧 증거확보도 될 거고.
 캐리 다들 허리케인뉴스답게 최대한 쫓득하게 뽑으라고!
 정후 (웃음, 전화 건다) 메일 보낸 거 확인했냐?
 윤 기자(F) 끝내준다. 동생 복수 확실히 하네.
 정후 메이저라고 재지 말고, 지면하고 디지털 편집부까지 다 갈아줘.

#57. 성태 승용차(아침)

뒷좌석 성태와 교복 입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성태 딸.
 핸드폰으로 카톡음 듣고 연다. 링크되어 있는 성태의 기사들.
 ‘킹디스크 성장의 밑거름은 여성범죄 동영상?’, ‘킹디스크 김성태 회장과 불법 업로더의 은밀한 거래’, ‘이태원의 아랍황제 킹디스크 김성태 회장의 갑질 추태’

성태 딸 아빠, 이 기사들 뭐야?
 성태 (포털 여기저기 도배된 기사들에 부르크)…!!

#58. 허리케인뉴스 사무실(낮)

포털 속 도배된 성태 기사 읽으며 정후와 하이파이브하는 캐리, 후배 등.

#59. 정후 집(밤)

정후가 문 열자 도영이 와인을 흔든다.

정후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도영 노코멘트… 해킹?
 정후 헐… 큰일 날 여자네.

CUT TO
 와인 반쯤 비어 있다. 발그레한 둘.

정후 유감이에요. 동생 일은… 청연 씨가 동생이란 말 들었어요.
 도영 난 정후 씨… 7년 전부터 알았어요.
 정후 ?
 도영 검색어 1위, 왜 청연 자살이 아닌 청연 몰카인가.
 인터넷이란 무법지대에 무엇보다 잔인한 건 대중이다.
 정후 (놀란 눈 웃으며) 학보사 시절 쓴 기사… 그걸 봤어요?
 도영 정후 씨 안 봤어요? 남자들, 다 봤다던데.
 정후 (시선 내리다가) …컴퓨터의 신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도영 컴퓨터의 신?
 정후 아버지께서 컴퓨터 공학자였어요. 특하면 컴퓨터의 신이라며 내 컴퓨터를 고쳐주셨죠. 지방대 시간강사였는데 나한테 진짜 컴퓨터의 신 같았어요.
 도영 컴퓨터의 신…
 정후 우리 회사 웹 기사들도 속보성, 낚시성이 생명이긴 한데, 일부러 오보를 낸다거나 사람 다칠 건 내진 않는단 신입 교육도 내가 해요. 컴퓨터의 신이 볼까 무서워서.
 도영 (생각 깊어져 잔 채우다 쏟는다) 어…

와인에 옷이 젖어버린 도영, 서둘러 화장실 간다.
 정후, 정린 옷을 찾아 들고 화장실로 간다. 열린 문, 옷을 들어 물에 빨아내는 도영, 허리가 드러나 배꼽 밑 작은 램프 문신이 보인다.

정후 램프의 요정? 귀엽네요.
 도영 (정후 뺨히 본다)
 정후 (경각, 돌아서며) 미안해요, 옷 가져왔어요. (뒤로 건네면)
 도영 (받고) 정후 씨 좋은 남자예요.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 흐른다. 정적을 깨는 정후의 핸드폰.

캐리(E) (흥분) 윤 기자가 정린이 기사 낸 거! 봤어?!

#60. 메이저 신문사(낮)

윤 기자가 앉아 있는데 정후가 달려와 주먹을 날린다.

정후 누구 맘대로 내 동생 기사를 써?! (먹살 쥐고 혼드는데)
 윤 기자 (같이 잡으며) ...년 그동안 누구 허락받고 썼냐?
 (빈정) 니가 쓰던 기사에 비하면 약과지! 왜 이래?
 정후 (주먹 날리고 눈 붉어져) 킹디스크에 올려졌던 변양의 몰카?
 그 범인을 잡아낸 포털지 기자인 오빠...? (헛웃음)
 오명을 미끼로 삼았어도, 난 신상 털릴 걸 알고 흘리진 않아.

#61. 킹디스크 사장실(낮)

윤 기자 기사가 든 신문 보는 상태, 들이닥치는 최 형사와 경찰들.

최 형사 김성태. 너를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상태 (골프채 만지며 여유) 증거도 없이, 되겠어?

최 형사가 소파 밑에서 정후의 만년필을 꺼낸다. 딸깍 켜면

변호사(E) 저놈 같습니다. 박현수가 말한 빨간 구두 오빠가.
 상태(E) 미친놈, 여동생 유명하게 만들어준 은인도 몰라보구...
 약값에 대포로 뽑은 뱅에 모텔비... 현수 놈 입막음비까지
 두 년놈 때매 내 돈 얼마가 들었는데...
 최 형사 (만년필 끄고 흔들며) 실시간으로 잘 들었습니다.
 상태 쥐새끼가! (골프채를 최 형사 얼굴로 아슬아슬하게 휘두른다)
 최 형사 이 자식이...!
 상태 (최 형사에게 체포되며) 변정후 그 자식한테 전해.
 곧 선물이 도착할 거라고.

#62. PC방(밤)

창오가 윤 기자가 쓴 여동생의 복수를 했다는 정후의 기사들을 보고 있다.
 씩씩하게 한숨 내쉬는데 친구1, 자리에서 일어나 창오에게 말한다.

친구1 창오야, 킹디스크에 다시 정린이 몰카 떴어...
 창오 뭐?
 친구2 청연 몰카도 있고... 누가 소장했던 파일을 왕창 뿌렸어.
 창오 (인터넷 킹디스크 열어 확인하고 어깨 처진다) 정린이아...
 친구1,2 (습관처럼 다운 클릭하는데)
 창오 (벌떡) 시발새끼들아! 어딜 처받고 지랄이야!

#63. 시장(낮)

정후 모가 생닭을 고른다.
 인삼과 대추 등이 든 시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정린.

정린 모 어떻게 놀았길래 기집애가... 맥없이 드러누웠음 뭐해? 먹어야지.

닭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아저씨가 정린을 뵈히 본다.
 시선에 불편해진 정린이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본다.

정린 ...집에 갈래. (간다)
 정후 모 닭만 사면 돼. 기둘러. (정린 간 줄 모르고)

#64. 정후 모 집(낮)

손톱을 물어뜯으며 스마트폰을 켜 킹디스크를 검색하는 정린.
 게시판에 '축제로구나', '희귀 소장본 대량방출' 등이 씌어 있다.
 캡처된 정린의 빨간 구두 영상 사진에 손이 떨어져 스마트폰 놓친다.

정린 (다 집어 던지며 비명) 죽어! 다 죽어!!!

#65. 정후 모 집 일각(낮)

장바구니 들고 걸어오던 정후 모. 희미하게 들린 비명.
불길함에 걸음 멎다... 달린다.

#66. 정후 모 집(낮)

블라인드 줄에 목매는 정린 보인다.
의자 발로 넘어뜨리고 달달 떨리는 손과 발.
뛰어 들어온 정후 모, 정린 발견한다.

정후 모 (소스라친) 정린아!

정후 모 떨리는 손에서 블라인드 줄 엉켜 풀어지지 않고... 버둥대는 정린.

정후 모 (가위 찾아 허둥허둥) 있어봐라... 있어봐...

주방가위 찾아 들어온다. 목에 엉킨 줄을 텃줄 끊듯 싹둑 자르는 정후 모.

#67. 정후 모 집(밤)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정후.

#68. 정후 모 집(밤)

정후, 방문 열고 들어가면 눈 감고 누운 정린. 눈물 찍어내는 정후 모.

정후 모 (붙잡고) 정린이한테 뭘 일이 있었던 거야?

정후 ... (정린 목에 붉어진 줄 자국 보고 울컥)

정후 모 왜 둘 다 말을 못 해, 어? 엄만데 왜 말을 안 해줘?

정후 ...

정후 모 니들 엄마 미치는 꼴 볼 터!

정후 ...강간당했는데...

정후 모 (숨 멎는)

정린 (쉰 목소리로) 하지 마!

정후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놈이 있어.

정린 (목선 비명)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쁜 새끼야!!

정후 모 (덥석 끌어안고 바둑) 괜찮어! 괜찮어, 엄만데는... 다 괜찮어...

정린 (끄덕대며 오열) 엄마아...

정후 죽지 마... 적어도 엄마보다 먼저 죽진 말라고...

둘 바라보다 고통에 돌아선 정후, 울음이 터진다....

정후 죄송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린아...

정후 모와 함께 울며 정후 뒷모습 보는 정린.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정후가 나간다.

#69. 도영 오피스텔(아침)

어두운 실내. 벽에 붙어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하드 본체들에서 불빛이 반짝이는데, 커튼을 확 젖히는 도영.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표정.

도영 컴퓨터의 신... 마음에 드네.

메인 컴퓨터에 앉고, 도스로 들어가 명령어를 입력한다. 벽면 모니터들, 누군가의 컴퓨터들과 핸드폰 렌즈들 시점으로 화면이 반전된다. 클릭. 순식간에 모니터에 수천, 수만의 작은 영상프레임들이 떠오른다.

INSERT

- 영상1. 교무실. 자위하며 화면 보고 있는 양복 입은 남자 모습.
- 영상2. 모텔에서 키스하며 화면 보는 커플.
모텔 녀, '청연처럼 나도 약 먹은 척해볼까?' 모텔 남, '죽여줄게.'
- 영상3. 중고생들 한 방에서 몰카 화면 보며 킬킬대는 무지하고 장난스러운 얼굴들....

#70. 교무실(낮)

퇴근하려는 영상1의 남자. 명패에 '교장 김OO'라고 쓰인.
노트북 끄려는데 청연 영상을 보던 영상1의 자위하던 표정 나온다.
사색이 되어 끄면, 학년주임이 헐레벌떡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다.
노트북 덮는 교장.

교장 (빨빨) 뭐가?
학주 (난감한 표정으로 노트북 열면 게시판이다)

'이거 교장 아님? 영화 다운받으러 들어갔다가 펴'
캡처된 교장의 자위 장면들. 주저앉는 교장.

#71. 대학 강당(낮)

영상2 속 모텔 남녀.
팔짱끼고 킬킬대고 들어오면 강당 안 대학생들 분위기 묘한.
분위기 파악 못 한 여대생1이 '왜 그래?' 하면 옆에 앉은
여대생2가 카톡 보낸다.
영상2, 몰카 속 청연 강간 장면 흥내 내던 섹스 장면
캡처된 것 보고 놀라는 여대생1.
모텔 남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여대생1의 핸드폰 뺏어 본다.
울면서 달려나가는 모텔 녀.
머릴 맞은 듯 휘청이는 얼굴로 서 있는 모텔 남....

#72. 교정 소각장(낮)

영상3의 남고생 중 하나,
쓰레기 비우러 가는데 쓰레기통 뉘아챈 여고생이 뿌린다.

남고생 왜 이래, 현지야?
여고생 (혐오, 울먹) 니 여친이었던 게 수치스러워....
엄마한테 말해서 전학 갈 거니까 다신 아는 척 마.

황당하게 여고생 뒷모습 보는 남고생. 영상3의 친구들 달려온다.
핸드폰 보여주면 영상3 장면이 플레이되고.... '이년 가슴 현지 꺼보다
안 큰데?', '개새... 좋겠다', '강간 캠이라더니 주작 아냐?
표정이 좋아 죽는데...' 같은 음담들....

남고생 (더듬대며) 이거... 불법 아냐? 이러면 안 되잖아!

#73. 학교 옥상(밤)

남고생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유서 위에 운동화를 벗어놓고 뛰어내린다.

남고생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74. 경찰서(밤)

사이버 수사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으로 역추적 중인 경찰,
뒤에서 보는 최 형사.

최 형사 ...그 많은 사람을 찍어 유포하는 게 개인으로 가능한 거야?
경찰 숨은 천재 해커가 긴 시간 머릴 굴렸다면요.
슈퍼컴이 아니면 최고급 사양의 하드 50대는
연결해야 하는데 개인은 아닐 거 같고...

동중계 점조직 중 하나에서 한 짓 아닐까요?
 최 형사 이런 상황에 영상 없애준단 말이 피해자한테 통할까?
 경찰 돈 목적이 아니라면... 미친놈이거나...
 최 형사 복수겠지...

#75. 정후 집(낮)

엉망 된 풍경. 부서진 TV. 핸드폰 배터리 분리돼 던져 있고.
 널브러진 술병들. 수염 덩수룩한 페인 모드 정후가 소파에 있다.
 눈 뜨고... 잠시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않는다.

#76. 허리케인뉴스 사무실(낮)

정후가 자리에 앉아 후배의 자리가 빈 것에 의아해한다. 캐리가 온다.

캐리 휴가 아직이잖아? 전화까지 꺼놓더니 왜 벌써 와?
 정후 (후배) 이 자식, 어디 갔어?
 캐리 컴퓨터의 신... 피해자야.
 정후 컴퓨터의 신?
 캐리 몰라? 삼 일 동안 수도권에라도 있었니? 전국이 난린데...
 정후 뭔데? 그게?
 캐리 범죄 영상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람들이 역몰카 당했어.
 바이러스 이름이 컴퓨터의 신이고.
 정후 (낮게) 왜 하필... 그 이름을...
 캐리 참, 너 휴가 들어가고 택배 왔어. 안도영 씨던데?

책상에 놓인 작은 상자. 정후가 뜯으면 두 장의 사진이 나온다.
 청연의 걸그룹 시절 수영장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 배꼽 밑의 문신 보인다.

캐리 (사진 보며) 청연? ...램프 문신 얘기 진짜였네...?
 정후 (사진 속, 도영과 같은 문신에 멍한)

캐리 이뻐 걸그룹이 문신은 좀 그랬잖아. 짧게 입고 나와도
 문신 테이프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몰카 본 사람들끼린 램프, 램프... 했대나... 그 말이 진짜였네.
 정후 (놀란... 천천히 사진 뒤집으면 도영의 글 적혀 있다)
 도영(E) 내 영혼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청연이었어.
 찾지 마. 안도영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충격받은 정후, 사진 속 청연과 도영을 번갈아 보다 황급히 달려나간다.

#77. 오즈 사무실(낮)

장 사장이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정후 달려온다.

정후 (깊이 보며) 도영 씨가 청연이었어요.... 알고 있었죠?
 장 사장 ...
 정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 사장 난들 알겠나.
 정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사장님은...?
 장 사장 처음부터. 성형 후 안도영이 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왕창 받았거든. 그 덕에 아내의 잔소릴 4년이나 더
 들을 수 있었으니, 은인 중에 은인이랄까?
 정후 만나게 해줘요. 난... 만나야겠어요.
 장 사장 찾을 생각도 없지만... 찾는 게 누군데?
 정후 (혼란스러운)
 장 사장 자네한테 굳이 밝힌 걸 보면... (부드럽게)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안 걸로 만족하게...
 정후 (눈가 젖어든다)

#78. 몽타주

— 뉴시터. 까칠해진 얼굴로 맥없이 뉴시터 드리우는 교장.

- 장례식장. 자살한 남고생의 영정사진. 그 앞에서 우는 엄마.
- 공항. 모자 폭 늘러쓴 모텔 녀 출국 심사를 받는다.
- 캠퍼스. 잔디에서 술판 벌이는 모텔 남.

모텔남 막말로 남자가 쫓릴 거 있냐?
 오줌 싸면서 내 꺼 안 본 놈 있냐고 여기?

 낄낄대며 엄지 척 올리는 친구들. 그중 하나 일어선다. 일동 쳐다보면 말없이
 비난의 시선만 주고 걸어간다. 장 사장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신 위에
 흐른다.

장 사장(E) 우리나라가 몰카 범죄의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79. 교도소(낮)

 왜소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죄수가 보는 신문을 뺏어 읽는 성태.
 중년의 죄수, 서늘한 눈빛. 중년 죄수가 우유갑을 길쭉한 세모로 접고...
 푹! 성태 눈을 찌른다.
 비명 지르며 나뒹구는 성태. 태연하게 신문 읽는 중년 죄수.

장 사장(E) 이를 소비하려는 사람들도 범죄자라는 인식...
 즉, 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역시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80. 오즈 사무실(낮)

 장 사장이 정후가 쓴 인터넷 신문을 읊조리고 있다.
 도영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정후.

정후 왜 남의 기사 소리 내서 읽고 그래요? 일하는 데 방해되게.
장 사장 허구한 날 남 사무실 와서 지 일 하는 놈은 뭐고?
박 대리 (부스스 일어나, 피곤에 찢 짜증) 이 회산 왜 나만 일해요?
장 사장 신입이가 자꾸 나가는데 어째? 나 죽으면 니가 사장해.
박 대리 내가 먼저 죽는다고요...

 웃으며 기사 마무리하는 정후의 노트북에 메시지 알림이 뜬다.
 무시하는데, 커서 저절로 움직여 메시지를 연다.
 도영 메시지에 놀란 정후, 점점 환하게 미소가 번지는 얼굴에서...

 끝.

“내가 예술가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면
나 역시 한 명의 육체노동자입니다. 일생 내내 그래왔어요.”

—파블로 카잘스, <첼리스트 카잘스, 나의 기쁨과 슬픔> 중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빼고 말하자면,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동 중에 가장 즐거운 노동인 글쓰기를 끝낸 것뿐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꿈꾸던 장소에 한 발 더 내디뎠다는 것,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

앞으로 가야 할 글쓰기의 여정에서 여러 기쁨과 고통의 이유들이 더해지겠지만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이보다 더 찼던 성실한 노동의 냄새가 평생 제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충실히 계속 쓰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해봅니다. 또다시.

Re-Play

김미숙

요람에서 무덤까지
CCTV, 핸드폰, 블랙박스가 따라다니는 요즘
더는 개인의 일상이 개인만의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정보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공유되는 수많은 영상.
피로도가 쌓이지만 남의 일상을 훑쳐보는 욕구를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당사자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사고의 순간이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된다면
그건 그걸 잊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겐 무한히 반복되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타인의 고통을 손쉽게 공유해 유희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 고통에 더 무감각해지는 시대,
그 시대의 공포를 말해보고 싶었다.

등장인물

서준(27세, 남) 싱크홀 영상 속 인물

대학생. 또래에 비해 좋은 스펙을 가진 명문대생이지만 엄격한 부모 아래 자란 탓에 늘 타인의 관심을 갈구한다. 매일 습관처럼 주변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며 가끔은 주위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폭력적인 영상을 수집하기도 한다. 디지털 세대답게 영상 콘텐츠가 곧 정보이자 오락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카메라로 찍고, 찍은 건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그에 비해, 초상권, 인격권, 사생활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정석(38세, 남) 편의점 폭행 영상 속 인물

편의점 사장. 부모님이 하던 가게를 물려받은 청년사업가. 하지만 큰 포부도 욕심도 없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소박하고 착하다. 정도 많지만, 겁도 많다. 24시간 편의점에만 붙어 있다 보니 취미라곤 인터넷 게임과 동영상 감상,

그리고 SNS 친구들과 재미난 영상 공유하기가 전부다. 웬만한 진상 손님에도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그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 울컥울컥 분노를 표출한다.

유정(30세, 여) 스토킹 영상 속 인물

홍보대행사 직원. 외유내강. 자주독립적이며 밝고 당차다. 그 나이 또래에 걸맞게 친구를 좋아하고, 사진찍기를 즐기고 SNS가 일상인 평범한 직장인이다. 좀 남다른 게 있다면 예쁘장한 외모 탓에 구애하는 남성이 많고 그 덕분에 스토키 비슷한 사람들을 여럿 상대해봤다는 정도. 그런 이력 탓에, 주변을 늘 경계한다. 오피스텔로 독립한 이후부터 더욱 그렇다. 혼자 사는 여성답게 위험을 감지하는 촉이 발달해 있다.

손님(40대 후반, 남) 편의점 폭행 영상 속 인물

동영상 세계 최고 빌런! 위장술에 능하다. 겉으로 보기엔 재미없는 농담이나 늘어놓는 편의점 손님이지만 이것은 부캐일 뿐 본캐는 동영상 세계의 관리자이자 위장 백신이다. 동영상 속 인물들이 영상의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감시한다.

서준A(27세, 남) 편의점 폭행 영상 속 인물

서준의 두 달 전 모습. 각성하지 못한 구경꾼으로 정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엿본다.

유정A(31세, 여) 싱크홀 영상 속 인물

1년 후 유정의 모습. 각성하지 못한 구경꾼으로 서준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엿본다.

태호(27세, 남) 싱크홀 영상 속 인물

서준과 같은 학과 동기.

버스기사(남)

버스기사로 위장한 백신 프로그램.

검은 헬멧(남)

현실에서는 유정을 괴롭히던 스토키. 동영상 안에서는 유정을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백신 프로그램.

그 외

승범(20대, 남, 묻지마 폭행범), 윤기(50대, 남, 버스 승객), 고은(30대, 여, 유정친구), 여자, 최서준(현실 세계의 서준), 한정석(현실 세계의 정석), 강유정(현실 세계의 유정), 여고생1(구경꾼6), 여고생2(구경꾼7), 여고생3(구경꾼8)

줄거리

내리고 싶다. 정말 격렬하게 이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

버스를 탄 취준생 서준, 오늘따라 SNS에 찍어 올릴 재미난 영상들이 넘쳐난다. 갓길에서 싸움이 붙질 않나? 버스에서 아저씨가 난동을 부리지 않나? 거기다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서류가 통과됐다는 기분 좋은 문자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 자부하던 그때, 모든 일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멀쩡하던 땅이 주저앉더니 싱크홀로 버스가 곤두박질치고 사고 현장에서 운 좋게 깨어나지만, 다리가 끼여 움직일 수가 없다.

거기다 단연 최악은 이 사고의 순간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사고 나기 몇 분 전으로 돌아가는 이 환장할 상황! ‘내리고 싶다. 정말 격렬하게 여기서 내리고 싶다...’ 과연 서준은 버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기억은 뭐지? 내가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라니!

다 기억난다. 조금 후에 있을 방금 전의 사건.

정류장 근처 평범한 편의점. 사장인 정석은 오늘따라 몸이 이상하다. 찌뿌드드한 것도 모자라 자꾸 멍해진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손님이 살 물건을 미리 알고 있지 않나? 계산도 하기 전에 계산할 금액이 떠오르지 않나? 심지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손님, 이 손님과 나눈 얘기, 그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일어날 묻지마 폭행까지...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한다. 처음엔 단순히 예지몽을 꿨나 싶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놈이 휘두르는 흥기에 맞고 정신을 잃으면 어김없이 몇 분 전으로 돌아가 다시 같은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기억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손님이 걱정되는 정석, 같이 도망치자고 설득하는데... ‘아! 이 손님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더군다나 도망치려는 자신을 자꾸 붙잡고 늘어진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이 손님 참 수상하다. 혹시 그놈과 한패인 걸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검은 헬멧과의 만남

퇴근길 유정, 친구 고은과 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서둘러 귀가 중이다. ‘어! 그런데 이 소린 뭐지.’ 집 앞에 다다른 그때, 누군가 뒤따라옴을 느끼는 유정. 핸드폰 카메라로 뒤를 살며시 확인하면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 온몸을 둘러싸는 공포의 전율, 하지만 유정 펄쩍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집으로 달려 들어간다. 끝인! 흠인! 이제 안전하다. 문만 열지 않으면!

하지만 스토커인 검은 헬멧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어떻게든 겁을 줘서 유정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 매 순간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눈을 뜨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검은 헬멧과의 그 순간이 계속된다.

반복의 진실, 타임루프가 아니라 리-플레이였다!!

그 속에서 드러난 캐릭터들의 정체... 각성자 혹은 방해자 또는 구경꾼

버스에서 탈출하려는 서준, 그런데 상황이 반복될수록 취객의 주정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이런! 이 세계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게 취객이었다니!’ 각성된 자만이 아는, 이 세계가 반복된다는 사실! 서준, 정석, 유정이 각성한 건 불행일까? 다행일까? 어쨌든 취객처럼 미쳐버리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정석에게 능청맞게 유머를 구사하던 손님, 알고 보니 각성한 자들의 탈출을 막는 방해자였다. 그는 동영상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백신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관리자라 칭하며 각성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에서 탈출해보려는 세 사람. 반복 속에서 각자 탈출 루트를 찾아가는데. 제기랄! 구경꾼이 너무 많다. 카메라, 블랙박스, 핸드폰 등 다양한 아이템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제야 드러나는 구경꾼들의 정체,

현실 세계에서 동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니! 그들의 앵글에 담기는 순간, 동영상은 리플레이되고 세 사람은 사건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동영상 세계의 끝, 데이터 저장고에서 마주한 세 사람

수십 번의 반복 끝에 각자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서준, 정석, 유정!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전에 봤던 동영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아침에 봤던 동영상이 그 옆 블록(동네)을 차지하고 있다. 한여름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 다음 블록은 눈 내리는 겨울밤이 펼쳐진다.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던 이 세계, 하나의 동영상이 하나의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동영상의 세계였다. 서준, 정석, 유정을 향한 방해자와 구경꾼의 집요한 괴롭힘은 계속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세 사람, 결국 이 세계의 끝, 데이터 센터로 들어서게 되는데.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세 사람. 하지만 서로 상대의 동영상을 유희한 사실을 모른 채 세계의 끝에서 만나게 된다. 과연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아파트 인근 도로+아파트 단지 안(낮)

맑은 하늘, 밝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자전거 한 대.
옛돼 보이는 소녀, 하이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전거를 타고
짙은 녹음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위를 경쾌하게 달린다.
어느덧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자전거, 화단 근처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둔탁한 유리 파열음.
소녀, 놀란 표정으로 아파트 고층 올려다보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유리 파편과 5킬로그램 덩벨.
공포에 질린 소녀, 낙하물이 덮치려 할 때 두 눈 질끈 감는데....
그 순간 중앙에 버퍼링 표시 뜨며 시간 멈춘 듯 모든 것 일시 정지된다.
화면 위로 들리는 목소리.

서준(E) 뭐야! 왜 멈춰?!

#2. 시내버스 안+도로 일각(낮)

꽉 막히는 도로 천천히 서행 중인 시내버스 안.
화면 바뀌면 #1의 서준이 보고 있던 핸드폰 속 동영상이었다던 걸 알 수 있다.
뒷문 근처 2인석에 나란히 앉은 서준과 태호.
네다섯 명쯤 되는 승객들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조는 남자,
대형마트 장바구니를 바닥에 둔 아저씨(윤기) 보이고.
서준, 버퍼링 걸린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신경질적으로 새로 고침을 누른다.
옆자리 태호는 창밖으로 정체 중인 도로를 살피고 있다.

태호 (창밖 보며) 사고 난 거 같은데.
서준 (휴대전화 보며) 아이! 결정적 순간에!
(플레이 버튼 다시 누르며) 나와라. 줘!

태호, 서준 보면 그제야 핸드폰 보고 한 말임을 알고, 한심한 듯 고개 젓는다.
짜증 섞인 얼굴로 동영상 꺼버리고 고개 들어 창밖 보는 서준.

서준 (도로 보며) 뭐야, 여기도 버퍼링이야. 오늘 안쪽으로 왜 이러냐?
태호 (창밖 가리키며) 야야 저기.

창밖으로 2차로에 승용차 두 대,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다.

서준 야, 비켜봐. (호기심 이는 듯 태호와 자리 바꿔 창 쪽으로 가는)

차에서 내려 실랑이 벌이던 운전자들, 점차 싸움 과격해지면
가죽점퍼 입은 20대 남자가 양복 입은 40대 남자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다.

창문 열고, 폭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서준.

서준 오! 제대로 붙는데. 오호! 좋아! 오! 그렇지.

환호하는 서준을 힐끗거리는 승객들. 태호는 그런 서준이 부끄럽고.

태호 너 오늘따라 유난히 대놓고 찍는 거 같다.

서준 오늘따라 유난히 대놓고 싸우잖아. 야, 이게 나 좋자고
이러는 거 같아? 이런 순간의 포착, 고발정신이야말로 세상과의
순수한 소통인 거야. 일종의 제보지! 정보고!

사고 지점 지나면 금세 뚫리는 도로.

앞차들 속도 높이면, 서준이 타고 있는 버스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고

태호 너 지난번에 폭행 영상 찍어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한 거 잊었어?

서준 그걸 어떻게 잊냐. 집에서 거의 쫓겨날 뻔했는데.

태호 근데도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서준 (찍은 영상 보며 아차 싶고) 아! 맞다. 모자이크!

태호 뭐?

서준 (핸드폰 보며) 너무~ 정직해, 화면이. 원래 보일 듯 말 듯,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내가 모자이크 죽이게 한 거 있는데, 한번 볼래?
태호 (어이없고)!

[서준 리플레이 1]
서준, 태호 앞으로 핸드폰 내밀어 영상 보여주려는데
때마침 메시지 도착하고

INSERT
문자메시지
KMS PD 모집 1차 서류전형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호 (합격 메시지가 부럽고) 너, 기다렸던 데 아니야? 추...축하해.
서준 (거드름) 축하하는 뭐, 아직 1찬데.

그 순간 태호에게도 메시지 알림음 울리고 기대하는 표정으로 확인하는데.
들뜬 표정으로 히죽이며 태호의 메시지 힐끔거리는 서준.

서준 너도 뭐 합격 문자야?
태호 (메시지 안 보이게 숨기며) 아... 아니야 그런 거.
서준 (태호 반응 수상쩍고) 그럼 뭔데? 아! 혹시 수진이? 너 개랑 썸 타지?
태호 아니야. 집이야. 집. (오버하며 쿨한 척) 그리고 나 개랑 끝났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단칼에 선을 긋더라고. 그냥 편한 선후배로 지내자는데. 생각해보니까... (서준의 시선 이미 다른 곳 향해 있고) 야, 내 말 듣고 있어?

태호, 서준의 시선 따라 고개 돌리면,
좀 전까지 즐던 남자, 운전석 격벽에 기대 주정을 부리고 있다.

취객 이게 말이 돼. 다들 미쳤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뭔 말인 줄 알아? 이럼 우리 다 죽는 거야. 씨발. 아저씨 알지?
알고 있잖아!!

점점 주정의 수위를 높이는 취객, 핸드폰으로 그런 취객을 촬영하는 서준.

서준 (신나고) 야, 오늘 왜 이렇게 진상들이 많냐?
태호 (말리며) 그만해. 여기 버스거든. 적다 걸리면 뿔 데도 없다고.
서준 야, 저러다 뭔 일 나와. 우리가 목격잔 거야.
(핸드폰 보며) 이게 증거고.
태호 너 이거 SNS에 올릴 거 아냐?
서준 조회수는 덤이지.
태호야, 예술가는 피사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야.

취객의 추태를 신나서 찍는 서준. 그런 서준을 힐끔거리는 50대 승객(윤기).
윤기 몸을 돌리다 바닥에 둔 자신의 장바구니를 발로 툭-하고 찬다. 장바구니
쓰러지며 물건을 쏟아져 나오면. 바닥에 흩어진 휴지, 생수, 행주 등을
주워 담는 윤기. 취객의 주정 심해져 격벽을 발로 차면 버스기사 참다못해
한마디하고.

기사 (취객에게) 아저씨, 위험하니까 자리에 가서 앉아요.
취객 다들 미쳤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씨발. 아저씨 알지? 아저씨 다 알잖아?
기사 (승객에게) 누가 이분 좀 말려봐요. (룸미러로 뒤쪽 보며)
거기 학생, 이 사람 얼굴 확실히 찍어서 신고해버려.

기사의 말에 승객 쪽으로 몸을 돌리는 취객,
몰카 찍던 서준과 눈이 마주치고
취객, 눈빛 돌변해 서준에게 달려들어 핸드폰 뺏으려 한다.
태호, 취객의 허리춤을 잡고 말리고
서준은 핸드폰 뺏기지 않으려 바둥대는데

취객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핸드폰 뺏으려 하고) 다 너 때문이야.
서준 (핸드폰 꼭 쥐고는) 아저씨 왜 이래. 미친 거야?
취객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자 서준 목을 조르며) 죽어!
이 나쁜 새끼야!
서준 미쳐도 이건 아니지. 날 언제 봤다고.

아저씨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순간 우르릉 쿵- 소리와 함께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버스.
급정거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비명.

#3. 싱크홀+거리 일각(낮)

2차로(양복 4차선)에 생긴 지름 3~4미터가량의 싱크홀.
버스 중앙부터 뒷바퀴까지 절반가량이 싱크홀 아래로 주저앉은 상태다.
뒤따르던 차들 급정거하며 2차 사고는 모면했지만,
불꽃 일며 버스 아래쪽에서 검은 연기 피어오른다.

행인에 인근 주민들까지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지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 정작 구조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다만 놀랍고 낯선 광경을 앞다퉈 핸드폰으로 찍어댈 뿐이다.
몇몇은 신고와 제보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사람도 보인다.

#4. 버스 안(낮)

나뒹구는 가방, 깨진 유리, 여기저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승객들.
기울어진 버스에서 홀로 눈을 뜨는 서준,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휘어버린 좌석 사이에 발이 끼여 빠지지 않는다.
바닥에 쓰러진 태호도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미동이 없다.

서준 (신음) 아! (발을 빼려고 할수록 고통스럽고, 태호 흔들어 깨우며)
태호야! 정신 차려봐. 한태호!

신고하려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집어 들면 액정 깨져 있고
고장이 난 건지 작동하지 않는다.

서준 아이—씨, 핸드폰.

발이 끼인 채로 몸을 일으켜 겨우 창밖 내다보면 밖에 구경꾼들 보이고

서준 (창 두드리며) 저기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때, 방관하던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버스로 다가오는 마스크 낀 여자.
구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 밝아지는 서준.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가방에서 카메라 꺼내 서준 쪽으로 들이미는 마스크 녀.

서준 뭐야. 카메라는 왜 꺼내. 뭐 하는 거야!

마스크 녀 카메라 촬영 버튼 누르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서준.

[서준 리플레이 3]

#5. 시내버스 안+도로 일각(낮)

메시지 알림음에 놀라 눈을 번쩍 뜨는 서준. 버스 안이다. 문자 확인하면

INSERT

문자메시지

KMS PD 모집 1차 서류전형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준 (버럭) 아까 왔잖아. 왜 또 오는 건데, 왜! 왜!

태호 (어리둥절) 왜 그래?

서준 너 좀 전에 기억 안 나? 우리 이 버스, 세 번째잖아?

태호 (장난인 줄 알고) 재미없거든. (메시지 알림음 들리면 확인하며)

서준 (안절부절) 곧 사고 날 거야. 버... 버스부터 세워야 해.

태호 뭐?

서준, 버스기사에게 달려가

서준 아저씨! 스탑! 아저씨 버스 좀 세워봐요.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기사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는) !
서준 (격벽을 두드리며) 아저씨! 세워달라니까요. 버스 세우라고!
태호 (앞으로 와서 기사에게 대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너 오늘 왜 이래?

태호, 서준 끌고 버스 맨 뒷자리로 가는.

서준 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 (뭔가 생각난 듯) 너 수진한테 차였지?
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선후배 어찌구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태호 (먹살 잡고) 야! 최서준. (울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서준 (설마 하는 기대감으로) 야, 너 생각났어?
너도 느끼는 거지? 꿈인 줄 알았는데 눈뜨면 계속 그 자리고.
같은 시간에 갇힌 것 같고...

태호 그래. 그렇다. 수진이 생각만 하면 어딘가에 갇힌 것 같고...
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래 개는 니가 좋다더라. 됐냐?
내가 개 뻘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냐!

서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먹살 잡힌 서준, 특- 소리에 돌아보면,
바닥으로 쏟아진 물건들 주워 담는 윤기 보이고
운전석 쪽 보면 취객, 버스기사에게 주정을 부리고 있다.
#2와 모든 것이 그대로다.
다음 일을 예상하듯 버스 앞유리 보면, 저 멀리 도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서준 (태호에게) 짹 잡아!

거세게 흔들리는 버스, 승객들 비명 들리고.

#6. 싱크홀에 빠진 버스 전경(낮)

#7. 버스 안(낮)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 정신 잃은 승객들 사이에서 깨는 서준.
몸을 일으키는데, 이번엔 #4와 다르게 다리 멀쩡하고
서준, 시선 돌려 앞서 앉았던 좌석 바라보면 이번에도 완전히 휘어져 있다.

서준 (다리 만지며) 휴! 다행이다. 야, 태호야. (태호 살피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눈, 손으로 뒤통수 더듬어보면 손에 묻어나는 상당량의 피. 머리 뒤가 찢어진 듯하다) 아이-씨 뭐야. 이번엔 사는 줄 알았는데. (휘청이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는 서준)

[서준 리플레이 15, 17, 18, 20]

#8. 몽타주. 서준의 탈출

버스 안. 문자메시지 알림음에 눈뜨는 서준.
- 운전석으로 돌진해, 격벽 너머로 손을 뻗어 핸들 이리저리 돌리며 서준, “서, 세우라고!”

INSERT

도로 위. 버스, 두 차선 넘나들며 위험하게 질주하고.

-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려는 서준과 이를 말리는 태호.
서준, “태호야, 우리 다시 살아서 만나자.”

- 승객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버스에서 난동 부리는 서준.
서준, “당신들 죽고 싶어? 난 살고 싶다고.” 승객들에게 제압당하는 서준.
서준, “놔, 이 멍청한 새끼들아!”
- 태호를 힘겹게 끌고 와 다른 좌석에 앉히며
서준,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죽는다고.”
땅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화면.

[서준 리플레이 22]

#9. 버스 안(낮)

싱크홀에 빠져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 정신 잃고 쓰러진 승객들.
자신의 몸을 마구 더듬으면서 생사를 확인하는 서준.

서준 (다리와 머리 매만지다 일어나서 제자리 뛰기 해보는) 오! 살았다.
오! 야, 나 멀쩡해. 태호야. (정신 잃은 태호, 반응 없고) 야, 한태호
정신 차려봐! 야, 난 살았는데 넌 또 이러면 어떡해. (핸드폰
주워보면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내가 나가서 119 불러올게.
잠깐만 기다려.

버스 내부, 금세 연기로 가득 차고 비틀거리며 출구 찾는 서준.
수동 개폐 레버 돌려 버스 앞문 열어보지만, 고장 났는지 꼼작하지 않는다.
창문을 당겨봐도 반쯤 금이 간 유리창 쉽게 열리지 않는다.
벽면에 걸린 비상 탈출용 망치를 집어 버스 좌측 창문을 내려치면 조금씩
깨지며 탈출 통로 만들어지는데, 카메라 든 구경꾼들 소리 듣고 몰려온다.
그중에는 마스크 녀도 있다. 몇몇 사람 카메라 들이밀면 ‘안 돼!’ 비명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서준. 하지만 이내 촬영음과 함께 쓰러지고.

[정석 리플레이 2]

#10. 편의점 안(낮)

쓰러진 서준의 얼굴 위에 오버랩되는 정석의 얼굴.
계산대 위 포스단말기 있고, 그 옆에 컴퓨터 모니터 놓여 있다.
계산대에 앉아 모니터 쪽 바라보고 있는 정석.
모니터 속 화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는 듯하다.
그 앞에서 조는 건지, 반쯤 감긴 눈으로 앉아 있는 정석.
손님이 부르는 소리 아득히 멀리서 들리다 점점 선명해지면...

손님(E) 사장님! 사장님!
정석 (얼떨떨한) 예?! (정신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네!
손님 (우산 가판대에서 장우산 하나 들고) 이거 다른 색은 없어요?
정석 거기 있는 게 전부데요.
손님 (계산대로 걸어와 우산 내려놓으며) 전부터 느낀 건데,
여긴 취향이 너무 레트로야. 이것 봐, 여긴 뭐 아재들만 오나?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핫바 집으며) 이것도 그래요.
난 이런 오리지널 안 먹거든. 핫바는 자고로 치즌데.
유래가 그래요. 유래가.
정석 (핫바 내려다보곤) 데워드릴까요?
손님 이거? 데워먹는 거예요? 어쩐지... 차더라. 아니 그냥 주세요.
(지갑 꺼내면)
정석 (자신도 모르게) 이만 삼천구백 원입니다.
손님 (카드를 건네다가 멈칫하며) 암산한 거예요?
정석 (아차! 바코드도 안 찍었다) 어! 죄송합니다.

급히 스캐너를 들고 계산하는 정석.
이때 손님 뒤편으로 모자 눌러쓴 승범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아웃포커스 된 채 지나가는 승범, 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

손님 하아! 암산 좋지. 두뇌 회전, 치매 예방, 근데 이게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나이가 들면 생각만큼 안 되거든. 깜빡깜빡하는 게...
정석 (믿기지 않는 듯) 이만... 삼천구백 원입니다.

계산대에 찍힌 23,900원. 정확하다.
정석도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고 카드 받아 결제하며

손님 우와! 진짜네?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누가 보면 내가 뭐 살지 알고 있었는 줄 알겠네.
정석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 듯) 네...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손님 하하! 에잇— 농담도....

이때 손님의 핸드폰 울리고, 중요한 전화인 듯 구석으로 가서 받는다.
정석, 출입문 쪽 바라보면 밖으로 나가는 승범 보이고

손님 예. 어보. 네 그럼요. 샀죠… (놀라) 예? 아니 그런 건 당신이 직접… (혼나는 듯) 아니에요. 예. 사 갈게요. 예.
(전화 끊고 계산대로 와서, 머뭇거리며) 저기 그거 있어요…

정석 손님 (동시에) 판탈롱 스타킹 커피색…!
(잠시 멈칫, 서로를 경계하다) 두~개?

손님이 하려던 말이 뭔지, 기억나는 정석, 자신도 모르게 내뱉어버렸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 ‘꿈에서 봤다? 이 상황!’ 그래 이게 침이 아니다.
흠칫 놀라는 손님! 그보다 더 놀라는 정석!

정석 (소스라치며) 혹시 나랑 친해요?
손님 (절레절레)
정석 전에도 나랑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손님 (절레절레)
정석 (희번덕대는 눈동자) 아닌데! 있는데! 기억나는데!
손님 (절레절레) (이거 미친놈 아닌가? 싶고, 주춤주춤 발을 빼며)
내가 고전미가 좀 있어. 스타일이 레트로야 생긴 게 흔해. 아주 흔해. 얼굴이 딱 봐도 아재잖아. 그… 그럼 수고하세요.

쩍새게 도망치는 손님.
잠시 후 혼란스러운 정석의 얼굴 위로 날아드는 거친 비명과 절규.
정석, 편의점 밖을 내다보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진 손님 보이고
곧이어 서너 명의 사람들 쫓기듯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다.
그제야 행인들을 상대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승범 보인다.
승범과 눈이 마주친 정석. 어라! 분명 구면이다. 이제야 모든 게 떠오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며 급하게 출입문을 달아보지만,
승범 어느새 정석을 밀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승범에게 밀려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정석.

승범 나 비웃은 새끼 나와?

쇠파이프로 출입문과 계산대, 모니터와 판매대 물건들 차례로 부수는 승범.

승범 나 무시한 놈들 다 나오라고!

정석, 일어나 도망가려는 순간, 눈앞으로 날아드는 승범의 쇠파이프.
쓰러지는 정석의 시선으로 보이는 편의점 밖 사람들.
멀찌감치 서서 편의점 안의 끔찍한 범죄 현장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다.
파란 모자 쓴 남자, 중계라도 하듯 가까이 다가와 카메라로 내부를 찍는다.
그 순간 조리대에서 들리는 빼— 가열이 끝난 전자레인지 종료음. 동시에 완전히 감기는 정석의 눈.

[정석 리플레이 10]

#11. 편의점 안(낮)

손님(E) 이봐요. 사장님!

#10에서 쓰러진 정석의 얼굴이 모니터 앞에 넋 놓고 앉아 있는 정석과 오버랩된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듯 손님이 부르면 현실로 각성되는 정석.

손님 사장님! (장우산 하나 들고) 이거 다른 색은 없어요?

‘그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정석,
타임루프 같은 이 상황에 상당히 적응한 듯 고개를 흔들며 빠르게 깨어난다.

정석 이 손님 또 왔네. (미치겠고) 또 왔어. 여기 또 오면 어떡해요?
손님 사장님이 불렀잖아요.
정석 (헉— 뭘 소리?!)
손님 지난번에…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이래놓고는. 하하!
정석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손님이 이 우산을 여기서 몇 번이나 산 줄 알아요?
 손님 예? 내가 술 먹고 여기 왔었어요?
 정석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일곱 번 아... 아니 여덟 번,
 여하튼 엄청 많이 했다고요.
 손님 (민망) 내가 주사까지 부렸어요?
 정석 (미치겠고) 아니, 그게 아니구. 잘 들어봐요. 어떤 미친놈이 와서
 쇠파이프를 막 휘둘러, 그럼 내가 맞고 쓰러져요. 정신을 잃은
 거지. 손님은 이미 쓰러졌고. 그런데 눈을 뜨잖아요. 그럼 다시
 맞기 전인 거야. 그러니까 맞고 깨고 또 맞고 깨고. 이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손님 (심각하게 듣다가 배시시 웃으며) 아!~~~ 사장님 낫술 하셨구나?
 정석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죠? (우산 가리키며) 저거 레트로.
 (햇바 들고) 이거 치즈. (답답) 몰라요? 이만 삼천구백 원!?
 손님 (뭔 소린가 싶고) 예?

종소리에 출입문 쪽 보면 승범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다.
 마치 표적을 정하듯 두리번거리는 승범, 놀란 정석 계산대 아래로 숨는다.
 그런 정석의 얼굴 위로 손님의 목소리 날아든다.

손님(E) 이거 계산 안 해줘요?
 시간 경과.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며 난장판을 연출 중인 승범.
 판매대 뒤에 숨은 정석, 승범의 다음 동선을 정확히 꿰고 있는 듯 승범을 피해
 요리조리 잘도 숨는다. 드디어 승범이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이때다 싶어
 편의점 밖으로 달려나가는 정석. '탈출에 성공했나?' 싶었는데. 편의점 밖은
 파란 모자를 쓴 남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구경꾼이 대기 중이다.
 정석이 나오자 일제히 카메라 꺼내 드는 구경꾼들. 구경꾼들로 인해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던 정석,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쓰러진 정석 뒤로 쇠파이프 들고 서 있는 승범이 보인다.

[정석 리플레이35]

#12. 편의점 안(낮)

손님(E) 이봐요! 사장님!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계산대 모니터 앞에서 눈을 뜨는 정석.
 손님 (우산 가판대에서 장우산 하나 들고) 이거 다른 색은 없어요?
 뭔가 생각한 공공이가 있는 듯, 벌떡 일어나는 정석.
 정석 (경계하는 눈빛) 차... 창고에 있을 거예요. 아마.
 손님 번거로우면 그냥 이거 해도 되는데... 찾아주시면 좋고.
 정석 아니에요. 금방 와요.
 정석,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로 간다.

#13. 편의점 창고 안(낮)

상품 박스들 쌓인 창고 안. 정석 누가 따라올세라 문부터 잠그고.
 좌측 벽면의 상자들 옆으로 옮기면
 성인 남자가 빠져나갈 만한 크기의 창이 보인다.
 상자를 쌓아서 밟고 창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정석.

#14. 편의점 뒤쪽 골목길(낮)

창문 통해 뒷골목으로 나온 정석.
 대로변으로 이어진 우측 골목으로 달리는데
 20미터 앞, 전봇대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손님.
 놀란 정석, 멈춰 서지 못하고 손님 피하려다 바닥으로 나자빠지고.
 손님 (음흉스러운 미소) 아이 사장님 어디 가요?

정석 (일어나며) 왜... 에... 여...여기 있어요?
 손님 난 기다려도 안 오길래. 가려고 나왔죠.
 정석 (다행) 예. 잘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요.
 손님 뭘 소리야. 사장님 왔으니까 이제 다시 계산하러 가야지.

정석을 편의점 쪽으로 끌고 가는 손님.

정석 (끌려가며) 싫어요. 이거 놔요. 딴 데 가서 사. 딴 데.
 여기 편의점 많잖아요. 왜 날 못 가게 계속 붙잡는 건데?
 당신 나 때리는 사람이랑 한패야?
 손님 (돌아보며 씩 웃는) 눈치챘네.

소름과 전율에 휩싸이는 정석. 그 순간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
 식파이프를 든 승범이 편의점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
 방심한 틈을 타 손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정석.
 대로변 달리다 길 건너편 지구대 발견하고
 마침 횡단보도 신호도 파란불로 바뀌는데, 고지가 코앞이다!
 그런데 아뿔싸! 길 건너던 정석의 눈에 들어오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파란
 모자 남. 아차 싶어 고개 돌리지만 피할 새도 없이 급습하듯 카메라 꺼내 들고
 정석을 찍는다. 순간 쓰러지며 정신을 잃는 정석.

[유정 리플레이 1]

#15. 엘리베이터 안(밤)

검은 화면 위, 몇 번의 깜빡임 후 불 들어오면,
 그제야 그곳이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잠시 전기가 나갔던 모양이다.
 전력이 복구되며 엘리베이터 번호판과 CCTV에 차례로 불이 들어온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유정, 겁먹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목적지가 11층이었던 듯 숫자 버튼 11이 눌러져 있다.
 전력이 나가기 전 이미 1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전기 들어오자 층수 표시기에 11이 뜨고 문이 열린다.

#16. 오피스텔 복도(밤)

긴 복도에 뻑뻑하게 들어선 문들. 전형적인 오피스텔 복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유정.
 지퍼 달린 굵 높은 부츠를 신고 있다. 또각또각 걷는 소리, 복도를 울린다.
 1108~1116이라고 적힌 방향으로 걷는 유정.
 톡 메시지 알림음 울리면 핸드폰 꺼내 확인하고 답하는.

INSERT

유정과 고은의 톡 메시지.

고은 어디?
 유정 엘리베이터 내렸어. 집 앞.

그때 유정의 귀에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 들리고.
 온 신경이 뒤를 향하는 유정, 선불리 돌아볼 수 없어 침착하게 걸으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 뒤를 슬쩍 비춰본다. 순간 멈칫!
 검은 헬멧 쓴 남자 보인다. 요동치는 심장, 마른 침 삼키는 유정.
 유정 걸음 멈추자 남자도 멈춰 선다.
 뭔가 결심한 듯 핸드폰에 달린 전자기를 꼭 움켜쥐는 유정.
 하나, 둘, 셋에 전력 질주하는데 1109호, 1110호를 지나 드디어 1111호 앞.
 그런데 거칠게 돌진하던 유정, 그만 스텝이 영켜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하지만 아파할 시간이 없다. 박차고 일어나 전자기로 도어록 문을 연다.
 집 안으로 쩍샤게 들어가는 유정. 1111호 문. 쿵—하고 닫힌다.

#17. 유정 집/현관(밤)

스트라이크! 홈인! 골인! 무사히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그리고 보니 달리면서부터 남자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제야 자신이 너무 ‘오버했나?’ 싶은 유정. 민망함에 달아오르는 얼굴.
톡이 울린다. 고은이다. 톡 창을 여는 유정.
부츠를 한 손으로 벗으려다 관두고 현관 앞에 걸터앉아 메시지 주고받는다.

INSERT

유정과 고은의 톡 메시지.

고은 피자 사갈까?
유정 방금 복도에서 이상한 남자 봤다.
고은 남자? 누구?
유정 헬멧 쓴 남자.
따라오는 거 같아서 막 뛰었는데. 아니었나 봐. ㅠ
고은 너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따라오는 거 같아서 뛰었는데 택배였다며.
유정 (민망함의 이모티콘)
고은 확인은?
했어?
유정 뭘?
고은 밖에.
유정 확인?
고은 그래 확인해봐. 옆집일 수도 있잖아.

유정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살머시 문 열고 틈새로 밖을 내다보는 유정.
역시 아무도 없다. 안도하는.

#18. 오피스텔 복도(밤)

그제야 과감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유정.
움직임을 감지하는 복도 CCTV, 빨간불 들어오며 작동되고.
유정, ‘역시 괜한 의심이었네?’ 싶어 들어가려는 순간,
맞은편 비상계단(2)에서 달려나오는 검은 헬멧.

유정, 놀라 손에서 핸드폰 놓치면 현관 안으로 굴러떨어지고.
은몸이 얼어붙은 유정, 하얗게 질린 유정의 얼굴에서.

#19. 유정 집/현관(밤)

어둠 속, 현관 바닥에 떨어진 유정의 핸드폰으로 전화 걸려오고
깨진 액정화면에 발신자 ‘고은’이 뜬다.
텅 빈 방을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전화 끊기면서 암전.

[유정 리플레이2]

#20. 엘리베이터 안(밤)

검은 화면 위 몇 번의 깜빡임. 엘리베이터 불 들어오면
화면 가득 유정의 겁먹은 얼굴이 보인다.
전력 복구되면 층수 표시기에 11 뜨면서 문 열린다. 어딘가 익숙한 이 장면
‘데자뵤가?’ 싶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걸어 나오는 유정.

#21. 오피스텔 복도(밤)

복도를 걷는 유정. 초조한 얼굴이고. 톡 오는 소리에 핸드폰 꺼내 들면

INSERT

톡 메시지.

고은 어디?

‘헉! 꿈속에서 봤던 그 문자다!’ 그 순간 느껴지는 인기척.
설마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핸드폰 카메라로 뒤를 비춰보면
제기랄! 또 검은 헬멧을 쓴 남자다!!

빠르게 편집되어 보여지는 유정의 동작들.

CUT TO

- 복도를 힘껏 달리는 유정.
- 집 앞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유정.
-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정.

#22. 유정 집/현관(밤)

현관문 잡고 숨을 고르는 유정. 때마침 울리는 톡, 확인하고 답하는

INSERT

유정과 고은의 톡 메시지.

고은 피자 사갈까?
 유정 금방 나 복도에서 이상한 남자 봤다.
 고은 남자? 누구?
 유정 헬멧 쓴 남자.

메시지 입력창에 문자 찍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 들고.
 #17에서처럼 ‘따라오는 거 같아서 막 뛰었는데. 아니었나 봐. ㅠ’를 찍다가
 지우는 유정, 입력창 안의 커서, 초조하게 깜빡인다.
 그 순간 도착하는 고은의 새로운 메시지.

INSERT

톡 메시지.

고은 너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따라오는 거 같아서 뛰었는데 택배였다며.
 ‘헉!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거칠게 문자 자판을 내려치는 유정.

INSERT

톡 메시지.

유정 나 따라왔다는 말 안 했는데.

메시지를 보낸 후 답을 기다리는 유정.
 메시지 읽음을 표시하는 ‘1’이 사라지지 않는다.
 애가 탄다. 문자창을 닫았다 다시 열어도 마찬가지다.
 손톱을 신경질적으로 물어뜯는 유정. 쉬지 않고 깜빡이는 커서.
 한참 만에 사라지는 ‘1’. 곧이어 도착한 고은의 새로운 메시지.

INSERT

톡 메시지.

고은 따라온 거 아니었어??
 이상한 남자 봤다며?
 너 가끔 그러잖아. 이상한 남자가 자꾸 따라오는 거 같다고,
 유정, 안도하는 표정, ‘괜히 예민했나?’ 싶고.... 고은에게 메시지 보내는

INSERT

유정과 고은의 톡 메시지.

유정 이거 데자뵤가?
 나 이거 꿈에서 봤어. 어떤 남자가 따라오고, 너랑 톡하는 것까지.
 고은 다 봤으면 알겠네. 다음이 뭘지~ㅋ
 유정 다음?
 고은 확인해봐야지. 밖에.
 유정 미쳤어! 확인 안 해! 문은 절대 안 열 거야.
 고은 진짜? 나도 안 열어줄 거야? ㅠㅠ
 유정 뭐?
 어딘데?
 고은 도착했지~

때마침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나고.
안도감과 반가움으로 재빨리 문을 여는 유정.

#23. 오피스텔 복도(밤)

유정 (문 열며) 야, 너 왜 이제 왔어.

험한 복도. 아무도 없다.

유정 야, 윤고은! 어딴어. 장난치지 마.

혹시 문 뒤에 숨었나? 두리번거리며 복도로 나오는 유정.
움직임을 감지하는 복도 CCTV, 빨간불 들어오며 켜지고.
불길한 예감. 설마 하는 심정으로 맞은편 비상계단(2)을 쳐다보면
열린 방화문 사이로 보이는 검은 헬멧.
은뿔을 휘감는 싸늘함. 하얗게 질린 유정의 얼굴에서.

[유정 리플레이7]

#24. 오피스텔 복도(밤)

유정의 행동, 빠르게 편집되어 보여지고.

CUT TO

-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복도를 힘껏 달리는 유정.
- 집 앞에서 넘어지는 유정.
- 현관문 쿵-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 유정.

#25. 유정 집/현관(밤)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는 유정.
숨을 몰아쉬며 복도 쪽 소리에 귀기울이는데, 툭 알림음 울린다.
유정, 메시지 확인하곤 화가 나 답 보내면

INSERT

유정과 고은의 툭 메시지.

고은 피자 사갈까?

유정 너 누구야?

고은 누구냐니?

유정 너 윤고은 아니잖아?

고은이 어딴어? 고은이 어쨌냐고! 당장 대답해.

메시지 읽음 표시 '1'은 사라졌지만, 답이 없다.

초조하다.

와이파이를 껐다 켜는 유정. 다시 접속해도 여전히 답이 없고.

고은에게 전화를 거는 유정. 문밖에서 들리는 고은의 핸드폰 벨소리.

놀라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는 유정.

통화종료 버튼 누르면 밖에서 들리던 벨 소리도 함께 끊긴다.

그사이 꺼져버린 현관 센서등.

유정 몸을 움직여 센서등 켜면 어두운 방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 헬멧.

놀라서 핸드폰 떨어뜨리는 유정.

아악! 비명과 함께 문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쿵- 닫히는 현관문.

오피스텔 현관에 떨어진 유정의 핸드폰.

전화 걸려오면 깨진 액정 아래로 발신자 '고은'이 뜬다. 화면 꺼지면서 암전.

[서준 리플레이52]

#26. 시내버스 안+도로 일각 (낮)

버스 안(#2와 동일한 상황). 눈을 번쩍 뜨는 서준, 차분해진 눈빛,
달라진 분위기. 일어나 버스 벽면에 걸린 비상 탈출용 망치부터 챙긴다.

태호 야 그걸로 뭐 하려고?

서준 (결연한) 잘 들어. 우리 곧 사고 날 거야.

물론 니가 이거 안 믿는 거 알아.

태호 너 꿈꿨어?

서준 그 질문에만 내가 마흔 번 넘게 답한 거 알아?

태호 (한숨 쉬고) 알았어. 안 말릴 테니까. 그냥 너 찍고 싶은 거 찍어!

서준 그래도 나 너 포기 안 해. (흠쩍이며) 결과가 바뀌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너 꼭 살린다!

태호, 특 오는 소리.

확인하려고 하면 서준이 태호를 다시 붙잡으며

서준 그리고 니가 잊었을까 봐 다시 말하는데

나 수진이한테 1도 관심 없다.

태호 (당혹) 뭐?

서준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 꼭 잘 되게 도와줄게.

서준의 행동이 어리둥절한 태호. 윤기 장바구니 퍽—하고 쓰러지면
서준, 바닥으로 굴러나온 생수통과 행주 주워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윤기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준 나 아저씨한테도 설명할 만큼 했거든요. 손잡이나 잘 잡아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테지만.

가려는 서준, 붙잡는 윤기.

윤기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서준과 윤기 실랑이 벌이고, 취객 어김없이 일어나 기사에게 주정 시작한다.

취객 이게 말이 돼. 다들 미쳤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뭔 말인 줄 알아?

이럼 우리 다 죽는 거야. 씨발. 아저씨 알지? 알고 있잖아!!

때마침 서준의 귀에 들어오는 취객의 주정.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여태까지 왜 이 의미를 몰랐을까?' 싶은 서준.

윤기를 뿌리치고 취객에게 달려가서

서준 아저씨, 방금 뭐라 그랬어? 어떻게 알아, 우리 다 죽는다는 거?

아저씨도 아는 거야? 반복된다는 거?

취객 (섬뜩하게) 너 알았구나?

서준 아저씨 언제부터 안 건데? 언제부터 이려고 있었던 거냐고?

취객 (흥분) 내가 말했잖아. 다 죽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거짓말
아니라고! (울먹) 내가 그랬잖아. 도와달라고! (애원) 살려줘.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취객,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듯 온몸을 바르르 떨며, 얼굴 감싼다.

서준 말했다고... 나한테?

서준, 주위를 둘러보면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승객들 보이고
'자신도 저랬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사 아저씨, 위험해요. 자리에 가서 앉아요.

원래 앉던 곳에 앉으라고요.

버스기사의 말투 뭔가 이상하다.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운 서준, 룸미러에 비친 버스기사 얼굴 보면

입꼬리가 반쯤 올라간 야릇한 표정 짓고 있고

서준 (격벽 두드리며) 그게 무슨 말이야. 버스에 원래 자리가 어딴어?

아저씨 정체가 뭐야? 아저씨도 아는 거야?
 기사 (아무 대꾸 하지 않고 기계처럼 앞만 보는)
 서준 아저씨 알면서 안 세우는 거지? 맞지? 말해봐. 왜 그러는 건데? 왜?
 순간 우르릉 쿵—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버스.
 급정거와 함께 비명 울려 퍼지고.

#27. 싱크홀(낮)

땅속으로 일부 주저앉은 버스, 아래쪽에서 불꽃 일더니 검은 연기 올라온다.

#28. 버스 안(낮)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 찢어진 이마 붙잡고 일어나는 서준.
 서준 (취객 깨우며) 아저씨, 정신 차려봐. 살려달라며, 나가게 도와달라며~ (태호 흔들며) 태호야, 한태호. 야~!
 (모두 미동 없자 울먹이며) 제발 나 혼자 두지 말고, 일어나라고.
 버스 내부 연기 차오르자 살기 위해 눈물 흘치고 일어나는 서준.
 콜록— 숨쉬기 힘들어지자 생수 따서 행주에 적셔 입 막고
 금이 가 있는 버스 앞유리 망치로 내려친다. 몇 차례 내려치자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유리창, 깨진 유리창 통해 밖으로 나오는 서준.

#29. 버스 밖+인도(낮)

드디어 버스에서 탈출한 서준, 인도로 올라서는데.
 마스크 녀 이번에는 카메라 들고 성큼성큼 서준 앞으로 다가온다.
 서준 (절규) 오지 마. 나 돌아가기 싫어. (주머니에 넣어둔 생수통 열

어 구경꾼의 카메라를 향해 뿌리며)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 구경꾼들. 서준이 뿌린 물에 얼굴 흠뻑 젖은 마스크 녀.
 물기 닦으려 마스크 벗으면 드디어 드러나는 얼굴, 유정A다!

서준 (망치 휘두르며) 비켜. 제발 그냥 나 좀 놔두라고.

서준의 위협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치는 유정A,
 촬영 버튼 누르면 정신 잃고 쓰러지는 서준.

[유정 리플레이31]

#30. 엘리베이터 안(밤)

어두운 화면 밝아지면 겁먹은 얼굴로 서 있는 유정이 보인다.
 선뜻 내리지 못하고 밖을 주시하는 유정. 특 알림음이 들려도 확인하지 않고
 망설이다 닫힘 버튼과 1층을 누르는 유정.
 엘리베이터 10, 9, 8 천천히 내려간다.... 3, 2, 1. 드디어 1층 도착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열림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다.
 호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유정.
 연결 신호가 가지만 금세 뚝뚝... 끊겨버린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붙은 CCTV를 보고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하는 유정.

유정 (CCTV 보며)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이때 갑자기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1, 2, 3, 헉— 다시 올라가고 있다.
 핸드폰을 꺼내 다급히 119를 눌러보지만 역시
 뚝뚝—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
 7, 8, 9... 11층이다. 땡! 하고 문이 열린다. 망연자실한 표정.

#31. 오피스텔 복도(밤)

복도를 걷는 유정, 톡 알림음 들리면, 핸드폰 확인하는데

INSERT
톡 메시지.

고은 어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다.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다!
1108호로 가서 다급히 초인종을 누르는 유정.

유정 (문 두드리며) 저기요. 옆집인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젠걸음으로 1109, 1110, 1112호를 차례로 두드려보는 유정.
설마... '모두 빈집인 걸까?' 인기척이 없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
TV 소리 같기도 하고 말소리 같기도 하다.
옆을 보니 살짝 열린 1113호의 문.

#32. 1113호 현관+1111호 현관(밤)

문을 두드리며 1113호 현관으로 들어가는 유정.

유정 저기요. 계세요?

여자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서서) 누구세요?

유정 (안도) 옆집인데요.

여자 (차갑게) 그런데요?

유정 밖에 누가 따라와서요. 신고 좀 해주세요.

여자 소용없어요.

유정 (당혹) 네?

여자 소용없다고요. 우린 그냥 재생될 뿐이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유정, 그제야 고개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집(1111호) 현관이다.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 검은 헬멧이 서 있고.

유정, 검은 헬멧 노려보는데 순간 유정을 비추고 있던

현관 센서등 탁! 하고 꺼진다. 암전.

#33. 엘리베이터 안(밤)

깜빡거리던 불이 탁! 하고 켜지면 엘리베이터 안이다.

#32에서 검은 헬멧을 노려보던 유정,

엘리베이터 CCTV 노려보는 모습으로 바뀌고. 검은색 동그란 모양의 CCTV,

그러고 보니 검은 헬멧과 닮았다.

11층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조심스럽게 걸어 나가는 유정.

화면 점점 멀어지면 유정의 모습, 모니터 안의 화면으로 바뀌고.

[정석 리플레이36]

#34. 편의점 안(낮)

편의점 안. 계산대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게 보고 있는 정석.

모니터 속, 유정의 동영상이 계속 재생 중이다.

(#33 엘리베이터 안의 유정, 정석의 모니터 안 동영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손님의 부름에 깨어나는 정석.

손님 사장님! (장우산 하나 들고) 이거 다른 색은 없어요?

정석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FLASH BACK #14 손님 돌아보며 “눈치챘네.”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손님에게 달려드는 정석.
달려가는 속도에 몸을 실어 그대로 손님을 덮친다.
우당탕 같이 넘어지는 두 사람. 정석, 손님 위에 올라타 목살을 움켜쥐고

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정석 당신이 한 말 다 기억났어. 시치미 뻔 생각 하지 마.
손님 (본색을 드러내며 야비하게) 완전히 각성했네.
정석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당신 정체가 뭐야?
손님 (정석 손쉽게 밀치고 일어나선 옷매무시 고치며) 알면? 뭐 달라지나? 네 운명은 이미 찍힌 순간 결정된 거야.
정석 찍혀...? (편의점 밖을 서성이는 익숙한 얼굴의 구경꾼들 보며) 저 사람들에게 나 쫓으라고 시킨 게 당신이야?
손님 그럴 리가. 재들은 그냥 찍힌 널 보려고 들이대는 거야. 본능적으로.
정석 (혼란스럽고) 본능?
손님 세상은 어차피 관중 아니면 관중이니까.
정석 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거든.
(계산대 옆 막대 걸레를 무기처럼 집어 들고 경계 태세로)
나 좀 내버려둬. 여기서 나갈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손님 (여유) 무슨 수로? (밖의 구경꾼들 보며) 미친 듯이 달려드는 저 좀비 떼들은? CCTV, 카메라, 핸드폰, 블랙박스 다 어떻게 따돌릴 건데? 설마 진짜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정석 (괴성 지르며) 아~아아~ 약! (손님의 말을 믿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 시끄러. 헛소리 집어치워.
손님 (앞을 가로막으며)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넌 그저 오류고 바이러스일 뿐이야. 버퍼링만 일으키는 렉이라고!!
정석 (혼란과 분노의 상기된 얼굴) !!
손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너 같은 놈들 단속하라고.
정석 (폭발 직전)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손님 이유? (피식) 이 세계엔 이유, 동기 그만 건 없어. 아! 그제 동기화될 뿐이지!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승범 편의점 밖에서 행인들에게 쇠파이프 휘두르고 있고.

손님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시작됐네.

손님, 승범의 폭행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멀찌감치 서서 승범의 끔찍한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대는 사람들.
어느새 파란 모자 쓴 남자, 편의점 입구까지 다가와서 핸드폰 들고 정석을 찍으려고 대기 중이다. 정석, 그런 파란 모자 남에 화가 나고.

#35. 편의점 밖(낮)

정석,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자신을 대놓고 찍는 파란 모자 남을 향해 “야,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며 막대 걸레를 휘두르면.
모자 빗맞으면서 벗겨진다. 그제야 드러나는 파란 모자 남의 얼굴, 서준A다!
정석,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시 들어오고,
순간 승범과 눈 마주치면 막대 걸레 집어 던지고 창고로 들어가 숨는다.

#36. 편의점 뒤쪽 골목길(낮)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정석.
골목길 두리번거리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후미진 좌측 골목으로 달아난다.
곧이어 정석이 나왔던 창문으로 손님과 승범이 차례대로 나온다.
손님, 골목길에 서서 저만치 멀어지는 정석 보고 있다.

손님 (승범이 자기 옆에 와서 서자 신경질 내며) 뭐해. 빨리 가서 잡아.

손님의 명령에 정석이 간 방향으로 뛰는 승범.
핸드폰 꺼내는 손님. 핸드폰 바탕에 깔린 붉은색 앱을 켜면 지도 앱인 듯 지도 그림 위에 수십 개의 블록들이 나타나고, 현재 위치와 방금 정석이 도망친 방향으로 이동 중인 빨간 점(정석)과 뒤를 쫓는 파란 점(승범)이 점멸하며 보여진다.

#37. 오피스텔 복도+비상계단(1)(밤)

1101~1107호 쪽으로 뛰는 유정.

1107호를 지나 방화문을 열고 비상계단(1)으로 들어선다.

1층까지 단숨에 뛰어 내려가는데.

#38. 비상계단 방화문 1층~15층(밤)

1층 방화문 앞.

손잡이 잡고 문을 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문을 마구 두드리다 발로 차는.

유정 거기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CUT TO

다급히 뛰어 올라가 층마다 문을 열어보는 유정.

10층까지 모두 단단히 잠긴 문. 11층 방화문 앞.

11층으로 들어가려다 힐끔 위를 보고 12층으로 올라가보는 유정.

반쯤 포기한 마음. 그런데 ‘믿을 수 없다!’ 12층 방화문... 열려 있다!!!

그제야 얼굴 위로 미소 번지고. 12층 방화문으로 나가는 유정.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말도 안 돼!!! 11층 복도다.

비상계단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 13층 방화문을 여는 유정,

이번에도 11층 복도다.

15층까지 열린 방화문으로 모두 나가보지만 어디로 나가든 11층 복도다.

#39. 오피스텔 복도(밤)

누가 따라와도 더 이상 뛰지 않는 유정, 멍한 얼굴로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집 앞. 뛰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딱하고 쓰러지는 유정.

예상한 일인 듯 무미건조하게 몸을 일으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정.

#40. 유정 집/현관(밤)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은 유정. 계속해서 울려대는 특 메시지 알림음.

확인하곤 메시지로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따져 묻는 유정.

INSERT

유정과 고은의 특 메시지.

고은 피자 사갈까?

유정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고은 남자? 누구?

유정 고은이 어디 있어?

고은 너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따라오는 거 같아서 뛰었는데 택배였다며.

유정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입력된 대로 보내지는 듯한 고은의 메시지.

화가 나 빠르고 거칠게 메시지 찍는 유정.

INSERT

특 메시지.

유정 당신 뭐냐고? 말해! 다 말해! 말하라고!

사라지지 않는 ‘1’.

초조하다.

입술을 질근질근 깨무는 유정.

읽었다. 드디어 사라지는 ‘1’.

동시에 들어오는 고은의 새로운 메시지.

INSERT
톡 메시지.

고은 알고 싶어? 그럼 나와봐. 다 말해줄게.

망설이는 유정,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미치도록 이해하고 싶다.
결심한 듯 눈빛 변하고. 굽 높은 부츠 벗고 운동화로 갈아신는 유정,
신발 끈 동여매고. 다시 신발장 열고 파리채, 하이힐, 우산 등
무기 될 만한 것을 찾는다. 갑자기 생각난 듯 입구 수납장 쪽으로 이동해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다.
서랍에서 찾은 물건은 전기 충격기고. 충격기를 외투 주머니에 찔러넣고
신발장 아래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든다.
땀이 나는지 손바닥을 펴서 옷에 쓱쓱 문질러 닦고 심호흡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는 유정.

#41. 오피스텔 복도(밤)

문 열고 집에서 나오는 유정.
유정의 시각에서 맞은편 비상계단(2) 바라보면 온통 어둠뿐이고.
어둠 속에서 뭔가 스치는 듯 일렁이면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는 유정.
유정과 검은 헬멧,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유정, 헬멧을 향해 소화기 휘두르면,
머리 부분 제대로 맞았는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도에 쓰러지는 검은 헬멧.
소화기 바닥에 집어 던지고, 비상계단(2)으로 뛰어 내려가는 유정.

[서준 리플레이55]

#42. 시내버스 안(낮)

눈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기사에게 돌진하는 서준.
격벽을 내리치며 버스기사를 추궁하는데

서준 아저씨도 아는 거지? 그렇지? 시치미 떼지 말고 말을 하라고.
기사 (못 들은 척 앞만 보고 운전하는)

답답한 서준, 앞문 근처에 비치된 비상 탈출용 망치 챙겨 휘두른다.

서준 말을 해! 하라고. 왜 안 세우는 건데 왜!
기사 여기 정류장 아니잖아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드릴게요.

망치로 격벽 내리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서준 이번엔 운전석을 마구 내려찍는데

기사 (홍분) 왜 이래. 이러다 사고 난다고!

기사, 서준의 팔을 잡고 말리려다 망치에 맞고 기절하는데
핸들에 머리 박고 쓰러진 기사. 빵— 클랙슨 울리고
서준, 그제야 정신 차리고 앞을 보면 싱크홀 사고 지점이 보인다.
저 멀리 미세하게 흔들리는 땅.
급하게 핸들 우측으로 돌리는 서준. 버스, 가로수 부딪치며 멈춰 서고.

#43. 버스 정류장 근처(낮)

멈춰 선 버스. 버스 전방 30미터 앞쪽으로 발생한 #3과 동일한 싱크홀.

#44. 오피스텔 비상계단(2)(밤)(#41 연결)

숨 가쁘게 달려 내려온 유정.
1층 방화문 손잡이 돌리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유정을 뒤쫓는 요란한 발소리 들리고
다급해지는 유정. 지하 1층 내려가 방화문 손잡이 잡아 돌리는데
어! 열린다! 유정의 얼굴에 옅은 미소 스치고.

#45.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나온 유정.

고민할 새도 없이 주차해둔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출발하는데
속도 높여 달리는 유정 차, 그 뒤를 쫓는 검은 헬멧의 오토바이.

#46. 오피스텔 입구+외부 도로(밤+낮)

오피스텔 주차장을 차례대로 빠져나오는 유정의 승용차와
검은 헬멧의 오토바이.

유정의 오피스텔 앞은 분명 밤인데.

조금 달려 직진 신호 받고 다음 블록 들어서면 한낮이고.

전혀 다른 시공간을 붙여놓은 듯한 기이한 풍경이 유정의 눈앞에 펼쳐진다.

#47. 버스 안+밖(낮)(#42 연결)

버스 안에서 깨는 서준. 찰과상은 입었지만 큰 내상 없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버스 외부 이번엔 앞유리 빼곤 크게 부서진 곳 없는 듯하다.
하지만 승객들 이번에도 깨지 않고 정신 잃은 채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데.
서준 수동개폐 레버 돌려 앞문 잡아당기면 스르륵 자연스레 열리는 문.
서준 버스 밖으로 나오고.

#48. 교차. 차도 위 서준+차 안의 유정(낮)

— 싱크홀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경꾼들 버스에서 내린 서준을
발견하고 저 멀리서 좀비 떼처럼 달려온다. 서준은 구경꾼들을 피해 차도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건너가는데

— 유정A도 차도를 가로질러 이내 서준 따라잡고
차도 중앙에서 카메라 꺼내 서준 찍으려 하는데

순간 뺨—하는 클랙슨 소리에 놀라 카메라 떨어뜨리는 유정A.

경적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 돌리면 유정의 차,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 차 안 유정의 시점에서 차도를 건너고 있는 서준과 유정A가 보이고
놀란 유정, 두 사람 보고 다급히 경적을 누르는데

— 서준, 아슬아슬하게 유정의 차를 피해 길을 건너고

— 유정의 차, 유정A가 떨어뜨린 카메라 밟고 지나간다.

산산조각나는 카메라.

— 유정A, 유정의 차 피하려다 엉덩방아 찧고 뒤로 넘어지고.

— 유정, 언뜻 스치는 유정A의 얼굴이 신경 쓰이는 듯

사이드미러로 넘어진 유정A를 계속 바라본다.

자신과 닮은 듯한 사람, 혹시 자신이 잘못 봤나 혼란스럽고.

#49. 도로+아파트 단지(낮)

#48에 이어, 도망치는 서준

도심의 인도와 차도 마구 가로질러 뚫는다. 그런 서준을 뒤쫓는 구경꾼들.

구경꾼들, 마치 타깃만을 보고 전력질주하는 굶주린 좀비 떼처럼 보인다.

새로운 블록 스쳐 지날 때마다 시간과 날씨, 계절이 바뀌고

#2의 정체된 도로가 있는 블록과 #1의 아파트 단지 블록을 차례로 지나간다.

1. 정체된 도로(낮)

사거리에서 직진해 새 블록으로 들어서면 햇살 좋은 봄날 오전,

꽉 막힌 도로 만나고 정체 중인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서준.

추돌사고 난 승용차 두 대가 보인다. 실랑이 중인 운전자들.

가죽점퍼의 20대 남자가 양복 입은 40대 남자를 일방적으로 패기 시작한다.

‘어 이거! 분명히 아침에 봤던 그 장면이다.’

FLASH BACK #2 서준, 버스에서 창문 열고 싸움 동영상 찍는 장면.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 서준. 달리는 속도 늦추고 고개 돌리면
뒤따라오던 구경꾼1, 이때다 싶어 셀카봉 들이밀고
팔꿈치로 셀카봉 밀쳐내고 속도 높여 달리는 서준.

2. 아파트 단지 안(낮)

계속 질주 중인 서준, 도로를 지나 다음 블록으로 들어서면
한여름의 아파트 단지 펼쳐지고
화단 근처 지나는데, 웅성거리며 몰려 있는 구경꾼들 보인다.
그런 사람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덤벨과 유리 파편 그리고
아파트 통행로에 쓰러진 소녀. 아침에 보던 동영상 떠오르고.

FLASH BACK #1 자전거 타고 달리던 소녀.

여러 생각에 복잡해지는 서준의 얼굴. 그때 화단 사이에 숨어 있던
구경꾼2가 점프해서 달려오는 서준을 덮치면 두 사람 함께 바닥으로 구르고.
서준, 오른팔 바닥에 쓸려 피가 나지만 아파할 여유가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구경꾼2의 액션캠을 화단으로 던져버리고 일어나 다시
달리는 서준. 달리다 주차장 한편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곤 자전거
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낡은 자전거,
페달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 낸다.

[정석 리플레이 63]

#50. 편의점 안(낮)

정석의 시선에서 편의점 밖, 행인들에게 쇠파이프 휘두르는 승범이 보인다.
손님은 정석을 편의점 밖으로 잡아끌고 정석은 계산대 붙들고 버티는데

정석 이거 봐요. (울먹) 나한테 왜 이래요?
손님 (놀이하듯 즐기며) 울어요? 왜 그래 정말~ 재미없게.

#51. 편의점 밖(낮)

편의점 앞. 문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 속으로 한 남자 달려온다.
#2에 나왔던 20대 가족점퍼 남이다. 겁에 질린 그를 뒤쫓는 구경꾼들.
편의점 앞에서 구경꾼에게 추월당한 가족점퍼 남. 카메라 촬영음 들리고
사진 찍히자 한순간에 퍽! 하고 터지면서 공중으로 분해되는 남자.
처음으로 느끼는 구경꾼들의 위력.

#52. 편의점 안(낮)

공중으로 분해되는 남자를 목격한 정석.
완전히 겁에 질린 눈빛,
필사적으로 손님 밀쳐내고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53. 편의점 창고 안(낮)

승범을 피해 창고로 숨은 정석, 문 잠그고 무기 될 만한 걸 찾는다.
큼지막한 박스들을 뒤져봐도 과자, 라면뿐이고,
생활용품 진열대를 둘러봐도 그나마 위협적인 물건은
문구용 커터칼이 전부.
그때 진열대 구석에 있는 박스 열어보면 부탄가스 묶음 들어 있다.
걸레 넣어둔 낡은 백팩을 꺼내 부탄가스 묶음 집어넣고
구석에 있는 라이터, 캔오프너, 커터칼, 포장용 테이프 등을 마구 쓸어담는다.

#54. 몽타주. 정석 탈출(낮)

- 백팩 메고 창고 창문 넘어 밖으로 나가는 정석.
- 사력을 다해 골목길을 뛰는 정석.
- 정석, 뒤를 바짝 추격해 오는 승범.
- 정석, 다음 블록 지나자 눈 내리는 겨울 풍경 펼쳐지고.

— 고개 들어 저 멀리 다음 블록 확인하면 햇빛 하늘 아래
전면이 유리로 된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보인다.

#55. 도로(낮)

유정 차를 몰고 계속 직진 중인데,
어느 순간 ‘길 없음’이 적힌 표지판 나타나고
차 잠시 멈추고 내려서 보면 반듯하게 잘린 길.
잘린 길 너머에는 블랙홀처럼 완벽한 어둠만이 존재한다.
손을 뻗어보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손, 놀라 얼른 빼고.
유정, 검은 헬멧의 오토바이 소리 들려오면 다시 차에 올라타
우회로라고 적힌 좌측 길로 들어서는데,
길이 끝나는 지점에 공사 중인 콘크리트 건물 여러 채가 보인다.

#56. 동영상 세계의 끝/데이터 저장고(오후)

앞만 보고 달리던 정석, 블록의 끝지점으로 보이는 곳에 도달한다.
전면이 유리로 된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고
그 뒤편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라도 조성하는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모양의 건물들 수십 채 지어지고 있다.
정석, 공사 중인 건물 쪽으로 걸음 옮기고.

#57. 건물 공사장(오후)

건물 공사장 안으로 뛰어 들어온 정석, 승범을 피해 철근 구조물 뒤에 숨는데,
정석의 귀에 점점 가까워지는 자동차 소음.

곧이어 공사 현장 안전 펜스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유정의 차.
급하게 멈춰 서고 그 충격으로 에어백 터진다.
고개 떨어 정신 가다듬는 유정, 휘청이며 차에서 내리는데.

뒤따라 검은 헬멧의 오토바이도 공사장 안으로 들어온다.
유정을 그대로 밀어붙여 죽이려는 듯 속도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오토바이.
유정, 두 눈 질끈 감으면.

숨어 있던 정석이 달려나와 오토바이를 향해 묵직한 철근 집어 던진다.
유정, 끼익- 우당탕 하고 넘어지는 소리에 눈 떠보면,
오토바이 쓰러져 있고, 바닥에 고꾸라진 검은 헬멧.
유정, 정석 쪽 바라보면, 정석도 자신이 던진 철근의 위력에 놀란 표정이고
두 사람 숨들리기 무섭게 승범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닥친다.
승범, 쇠파이프 들고 두 사람 쪽으로 달려오면 정석, 안쪽 계단 이용해
위층으로 도망치고. 유정, 영문도 모른 채 정석 따라 달리는데.

#58. 건물 내부 1층(오후)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정석과 유정, 그리고 뒤를 쫓는 승범이
보인다. 세 사람 지나가고 난 뒤, 단열 자재 뒤에 숨어 있던 서준, 살며시
밖으로 나와 유정과 정석이 올라간 쪽 바라보는데.
서준, 자신 말고 쫓기는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하고.

#59. 건물 내부 3층(오후)

내부가 완전히 뚫린 넓은 공간, 곳곳에 건축 마감재 쌓여 있고.
마감 처리 덜 된 3층의 한 벽면, 유리도 없이 허공에 뚫려 있다.
도망치는 정석과 유정, 뚫린 벽 끝까지 몰려 더는 갈 곳이 없고
승범, 쇠파이프 들고 다가오는데, 승범의 등장에 완전히 얼어버린 정석,
맞은 기억 떠오르며 얼굴 새파랗게 질리고.

유정 (뒤돌아 아래 보며) 뭘 수 있겠어요?
정석 (겁먹어 아무렇게나 대답) 예. (방금 내가 무슨 소릴 한 거지?) 예?

정석, 뒤돌아 아래 보면 3층 높이 아득히 높아 보이고.

정석 (절레절레) 아뇨.
승범도 무섭지만 3층도 너무 무섭다. 정석, 도저히 못 땄 거 같고.

정석 (겁먹은) 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전기 충격기 꺼내 들고 한 발 앞으로 나오는 유정.
승범, 두 사람 쪽으로 달려오면 유정, 쇠파이프 피하려다 넘어지고.
넘어진 유정을 향해 다시 쇠파이프 내려치려는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쓰러지는 승범. 동시에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벽돌.
서준이 던진 직구에 맞고 쓰러진 듯, 다른 손에 또 다른 벽돌 들고 서 있는
서준. 잠시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서준, 유정, 정석.
유정, 다리 다쳤는지 일어서려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는다.

서준 (다가가서 유정에게 손 내밀며) 괜찮아요?

유정 (서준 잡고 일어서며 끄덕) 예.

동시에 헬레벌떡 3층 입구로 들어서는 손님.

손님 (숨차 헉헉거리며)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바닥에 쓰러진 승범을 보며 위기의식 느끼는 손님, 잠시 주춤하고)
어라! 이 조합은 뭐야. 이제 보니 버그들이 여기 다 모였네.

정석 그쪽이야말로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손님 쫓아와? 니들 때문에 지금 여기 서버실이 어떤 줄 알아?

서준 서버실?

손님 여기는 니들이 함부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지 주제도 모르고. 니들은 오늘 다 죽었어.

정석 (승범의 쇠파이프 집어 들어 나서며) 잘됐네, 나도 진짜 다 끝내고
싶었는데.

손님 (뒤로 주춤하며) 잠깐! 그래도 3대 1은 아니지.

INSERT

핸드폰 앱 화면.

손님, 핸드폰 꺼내 지도 앱 켜서 현위치 ON/OFF 중 ON 누른다.
위치 전송되자 요란한 소리 내며 3층 내부로 몰려오는
수십 명의 구경꾼들 마치 좀비 떼 같다.

#60. 건물 복도+계단(오후)

놀란 세 사람, 구경꾼들 피해 도망가는데.
유정, 아까 넘어지며 다리 접질린 듯 절뚝이며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그런 유정을 보고 정석, 걸음 늦춰 부축해서 함께 뛰는데.
공사 중인 건물, 마감 처리 덜 된 복도.
유정과 발맞춰 뛰던 정석, 건축자재 밟고 미끄러지면 유정도 함께 구르고
서준 앞서 달리다 넘어진 두 사람 보고 잠시 망설이다 돌아가 정석의 가방을
자신이 대신 메고, 유정을 부축해 달린다. 고통스러운 표정의 유정.
유정 때문에 세 사람이 달리는 속도 느려지고.
구경꾼3, 그런 서준과 유정을 따라잡아 안경형 몰래카메라 들이대면
서준, 정석의 가방을 휘둘러 구경꾼3을 제압하고
정석은 바닥의 페인트통 들어 구경꾼들 향해 집어 던지는데,
구경꾼4의 핸드폰과 구경꾼5의 ENG카메라, 페인트통 맞아 멀리
날아가버린다. 하지만 계속해서 쫓아오는 구경꾼들,
모두 처리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다. 비상계단으로 들어선 세 사람.
유정, 계단으로 이어지는 출입문 닫고 문 잠그는데. 구경꾼들 안쪽에서
거칠게 문을 밀어붙이면, 시공이 덜 끝난 출입문, 곧 떨어져 나갈 듯 흔들리고
유정, 도망치는 대신 문손잡이 잡고 서 있는데

정석 (다급하게) 뭐해요?

유정 (다친 발로 고통스러워하며) 먼저 가요. (짜증) 그냥 가라고요.

서준, 어쩔 수 없다는 듯 정석 잡아끌고 두 사람 2층으로 내려가면
잠시 후 유정이 잡고 있던 문 통째로 뜯겨 나가며 구경꾼들 문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유정, 구경꾼들에 밀려 구석에 쓰러지고...
한 무리의 구경꾼들 지나가고 난 뒤 겨우 실눈 뜨는 유정.
그때 문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경꾼, 검은 헬멧이다.

검은 헬멧, 유정 앞에 서서 구경하듯 뻘히 내려다보다 손을 뻗어 일으키려 하면, 있는 힘을 다해 전기 충격기 가져다 대는 유정.
온몸 부르르 떨며 감전된 듯 총계참으로 굴러떨어지는 검은 헬멧.
그제야 쓰러진 유정의 얼굴 위로 안도의 미소 스친다.

#61. 건물 밖(밤)

정석과 서준,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건물 밖 역시 구경꾼들 여럿 보이고
사방에서 달려드는 구경꾼들 때문에
두 사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도망친다.

시간 경과.
공사 중인 콘크리트 빌딩 옆 가로수 길을 달리는 정석.
턱밑까지 차오르는 호흡, 느려진 걸음, 탈진 직전이고.
그런 정석을 앞지르는 여고생 복장의 구경꾼6·7·8. 카메라 꺼내면.

정석 (급히 가리며) 안 돼! 찍지 마!

구경꾼6, 카메라로 정석의 얼굴 찍으면
정석, 두 눈 질끈 감는데 뭔가 이상하다.
실눈 떠 주변 살펴보면 모든 것이 멈췄다.
구경꾼6·7·8. 그 외 뒤쫓던 구경꾼들과 길고양이.
심지어 바람과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정석을 빼곤 모든 것이 멈춘 상태.
구경꾼6의 목과 얼굴, 수신이 불안정한 화면처럼 지지직거리며 미세하게 흔들리고. 동시에 화면 중앙에 버퍼링 표시 뜨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 치는 정석. 화면 밖에서 여고생들 목소리 들려오는데

여고생(구경꾼6)(E)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튼데, 아! 결정적 순간에!

#62. 학교 운동장(낮)

평범한 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교복 입은 여고생 세 명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다. 여고생1·2·3, #61의 구경꾼6·7·8이고. 태블릿 PC 화면 안엔 정석의 편의점 동영상 이 버퍼링에 걸려 멈춰져 있다.

화면 가득 동영상 사이트 확대되어 보여지면
정석의 동영상 아래, '편의점 문지마 폭행'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고
조회수 398,755회 옆에 업로드 날짜 2개월 전으로 되어 있다.
우측으론 다음 재생될 동영상 목록으로 떠 있는데
'버스 싱크홀 사건' 조회수 12만 회, 업로드 날짜 2주 전,
'검은 헬멧 스토킹 사건' 조회수 78만 회, 업로드 날짜 1년 전이 보인다.

여고생2 (구경꾼7) 야, 조회수 장난 아니다.
여고생3 (구경꾼8) 다시 플레이해봐. 아님 새로 고침이라도 눌러보든지.

여고생1, 새로 고침 누른 후 플레이 버튼 누르면

#63. 편의점 안(낮)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눈을 번쩍 뜨는 정석!
놀란 정석의 얼굴 위로 손님이 부르는 소리 들리고.

손님(E) 사장님!

#64. 고층 콘크리트 빌딩 안/데이터 센터(밤)

도망치다 전면이 유리로 된 고층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서서 서준.
아까와 다르게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인 건물인 듯한데.
깔끔한 로비, 세련된 인테리어와 조명, 일반 회사 건물과 비슷한 느낌인데.

#65. 빌딩 안 복도+서버 저장고(밤)

긴 복도로 들어서는 서준, 미세한 기계 소리 들려오고,
 소리를 따라가며 사무실 문 하나씩 열어보면
 규모를 알 수 없는 넓은 방에 수백 대의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 장치 인 스토리지 등이 놓여 있다.
 복도 따라 이런 저장 장치 놓여 있는 방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 복도 끝 사무실 문 여는데,
 방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서준을 뒀친다.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 버스기사사.
 잘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서준을 잡고 가볍게 엮어치기 하면
 힘없이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서준.
 쓰러진 서준을 일으켜 목직한 주먹 날리면 서준, 다시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연이은 주먹과 발길질에 처참하게 얻어터진다.
 간간이 어설픈 반격 시도하지만, 서준의 주먹 번번이 기사를 비껴 치고
 바닥에 쓰러진 서준 위에 올라타서 서준 목을 조르는 기사.

기사 (분노에 차서)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헤맨 줄 알아.

감히 니가 버스를 세워. 왜 살아난 거야. 왜?

서준 이... 거... 놈... 이 미친...

(상기된 얼굴,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운데)

기사 (목 더 세계 조르며) 돌아가. 다시 돌아가라고.

서준, 더듬더듬 주머니에서 비상 탈출용 망치 꺼내,

기사의 머리를 후려친다.

제대로 맞았는지, 금세 얼굴 피범벅 되며 뒤로 과당— 하고 넘어가는 기사.

서준, 그제야 참았던 숨 몰아쉬며 분노와 허탈, 안도의 감정 스치고.

CUT TO

부어오른 뺨, 검푸른 눈두덩이, 터진 입술로 복도 끝 방으로 들어서는 서준.

#66. 서버 관제실(밤)

수천 개의 모니터 화면이 벽에 띄워져 있다.

각각의 화면으로 사건 사고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고,

그중 싱크홀, 스톱킹 등 몇 개의 영상에 버퍼링이 걸려 있다.

영상들 아래 표시되는 러닝타임을 보면,

끝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한다.

누군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지 끝없이 리플레이되는 영상들.

자신이 찍은 영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곤 괴성을 지르며 망치 꺼내서 화면을

내리치는 서준. 곧이어 관제실 보안 경고음 울리고!

작은 망치로 부수기엔 띄워진 화면이 너무 많다.

서준, 정석의 가방을 뒤지면 부탄가스 보이고.

가방에 든 부탄가스통 전부 꺼내 캔오프너로 통을 찢고 라이터 꺼내 드는데

요란하게 문을 열며 들어오는 손님과 검은 정장을 입은 관리자들.

손님 지금 뭐하는 거야. 진정해. 후회할 짓 하지 마.

서준 후회? 그건 이미 하고 있거든.

손님 당신이 만든 이 작품들을 봐. 게다가 당신이 주인공인 작품도

있잖아. 이 찬란한 조희수! 얼마나 멋져!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당신도 나도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서준 주인공? 주인공이면 뭐해.

이 빌어먹을 상황에서 나보고 살기 위해 계속 죽으라는 거잖아.

손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이걸 정보고 제보라고.

세상과의 순수한 소통! 주어진 걸 그냥 즐겨.

서준 내 선택은 이거야. 너나 즐겨!

라이터 불 켜면 불꽃 튀며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서버실 통제로 폭파된다.

동영상 세계, 구역별 블록들, 도미노처럼 차례로 불 꺼지며 화면에서

사라지면. 암전.

#67. 에필로그

- 합기도장에서 훈련 중인 강유정. 휴식 중 싱크홀 영상을 보고 있다.
- PC방, 최서준, 다리에 깁스를 하고 편의점 폭행 영상을 보고 있다.
- 택시 안의 한정석, 검은 헬멧 스토킹 영상을 보고 있다.
- 화면 분할되면 싱크홀, 편의점, 스토킹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
- 사람들이 보고 있던 핸드폰 동영상, 일순간 버퍼링에 걸리고, 사람들 새로고침 누르지만, 순간 안전되듯 완전히 검게 변해버리는 핸드폰 액정, 당황하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들리는 뉴스 앵커 목소리.

앵커(E) 한 동영상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십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동영상을 손쉽게 편집하고 올릴 수 있는 사이트로 회원...

끝.

작가 후기

당선작을 쓴 시간보다 당선 이후 수정 시간이 몇 배는 더 길었다. 그만큼 수정의 과정이 초고의 여정보다 지난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여러 차례 흔들렸고, 방향했고, 그러다 어렴풋이 더듬더듬 전진해갔다. 하지만 또 그래서 많은 걸 배웠고, 느꼈고, 버티다 조금은 단단해졌다.

수정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첫 달은 '다만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바꿀까?'를 생각했고 나머지 한 달은 그렇게 새롭게 설정된 세계를 '어떻게 영상으로 쉽고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빈틈들을 채워갈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시간을 오롯이 혼자 걸어왔던 건 아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 있게 신나게 써보라고 격려해주신 김지일 센터장님, 또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라 응원해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산부인과로 가는 길

이하니

보편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 임산부 등.
오랫동안 고정되어온 사회적 통념이기에 오히려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들, 노키즈존 같은 현상들...
자, 뜨끔했을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사람보다 느린 좀비들의 세상에서,
좀비보다 느린 임산부의 출산하러 가는 길.’

누구든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시하게 느려빠진 좀비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임산부의 생존기를 통해 절감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소한 배려와 존중이 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등장인물

유화영(31, 여)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둔 임산부. 무거운 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지만,
아기를 낳으러 가야 한다는 집념이 그녀를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기를 품은 그녀는 너무나 느리다.

김소진(24, 여)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산부인과 막내 간호사.

도균호(21, 남)

군용차를 탈취한 배려용사. 명령이 세뇌돼버린 시한폭탄.

한재숙(49, 여)

전동차 타고 다니는 정 많은 요구르트 아줌마.

이상철(33, 남)

아기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목숨 걸고 집에 달려온 화영의 남편.

그 외

군인1(26, 남), 실장(35, 여), 원장(42, 남), 양 간호사(30, 여),
산모1(33, 여), 여직원(27, 여), 경비(55, 남), 아이1(6, 남), 여성1(60대)

줄거리

자고 일어나니 바깥 세상이 좀비들의 세상으로 변했다. 출산을 코앞에 둔
임산부 화영, 산통이 심해지기 시작한다. 산부인과에 전화하니
간호사가 출산 준비를 하겠노라 한다. 화영은 결심한다. 좀비들을 뚫고서
아기를 낳으러 가기로.
느린 좀비. 그러나 아기를 뱃속에 품은 화영은 좀비보다 더 느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산부인과로 향하는 화영!
그런데, 화영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 국가에서는 재난대책을 세웠다.
사람보다 느린 좀비. 시속 0.5킬로미터 이하는 모두 좀비! 모두 사살하라!

산부인과로 가는 길
이하니

#1. 거리(낮)

도로 한복판 덩그러니 멈춰 서 있는 버스.
탕- 커다란 총소리와 동시에 버스 창문이 깨지며.

#2. 버스 안(낮)

만삭의 임산부 화영. 소총을 겨누며 혼자 서 있다.
질끈 감은 눈을 뜨면, 노약자 배려석에 시체처럼 앉아 있는 한 남성.
변색된 눈동자, 도드라진 실핏줄, 입가에 흥건한 피... 좀비다.
남성 뒤, 잘못 조준된 총에 깨져버린 버스 창문.
화영,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남성에게 제대로 조준한다.
조준경을 통해 좀비를 쏘아보는 화영의 매서운 눈빛에서.
안전과 동시에 탕- 커다란 총소리. (DIS)

#3. 어제. 화영의 집/안방(낮)

(DIS) (E)빠- 재난 알림음.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눈 뜨는 화영. 힘겹게 일어나 앉는다.

INSERT

자막-24시간 전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곤, 휴대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한다.

'AM 10:17'...

순간 다시 강렬한 뻘 소리가 울리자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 보이는 긴급 재난 메시지.

'(행정안전부) 9월 17일 전국적으로 원인 불명 바이러스. 재난 경보 1급 사태.'

외출통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 바람.’

#4. 어제. 화영의 집/베란다(낮)

베란다 창을 열자마자 아파트 단지에 울리는 경보음이
집 안으로 시끄럽게 쏟아진다.
간신히 한 손으론 난간을 붙잡아 바깥을 바라보는 화영.
15층 높이. 아래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도망치는 사람들, 느릿느릿 걷는 사람들 움직임만 구분되고.
화영, 초조한 얼굴로 ‘여보’에게 전화를 건다.

#5. 어제. 화영의 집/거실(낮)

계속되는 통화연결음.
화영, 거실로 나와 TV를 켜면, 긴급 속보 뉴스가 한창이다.
뉴스 화면 속, 도심에 가득한 느린 좀비들이 사람을 물어뜯는 광경.

앵커(F) 오늘 오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7만 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F)“전화를 받지 않아 뻘 소리가 울리면...” 화영, 새파랗게 겁에 질린다.
화영, ‘여보’에게 문자를 다급하게 전송한다.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앵커(F) ...외출과 통행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선포하였습니다.
화영 뭐... 뭐라고...?

화영, 달력 9월 18에 표시된 ‘출산 예정일’을 바라보고.
통화목록에서 ‘그린 산부인과’를 급히 찾아 전화를 건다.

화영 제발... (상대편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유화영... 유화영입니다.

제가 지금 산통이 너무 심한데요... 내일 출산 예정일인... 안 돼요.
안 돼요!!!! 꼭 낳아야 해요. ...제발. 아시잖아요 간호사님... 제가
얼마나 아가를... 악... 아악!!!

앵커(F) 감염자들의 특징은 걸음 속도가 시속 0.5...

화영, 갑자기 오는 강렬한 산통에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고.
소파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으면.
암전.

#6. 화영의 몽타주

— 긴장한 채 임신테스트기의 빨간 두 줄을 확인한 후, 몹시 기뻐하는 화영.
—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화영.
— 단란하게 꾸며놓은 아가 방에서 배냇저고리를 꼭 쥐고 둘러보는 화영.
(FADE OUT)

(E)휴대폰 벨소리.

#7. 어제. 화영의 집/거실(밤)

땀에 흠뻑 젖은 채 눈 뜨는 화영. 캄캄한 거실.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휴대폰.
신음을 내뱉으며 휴대폰을 들어 보면, 그린산부인과 전화다.

화영 여보세요...
소진(F) 산모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무사하신 거죠...
산모님,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우선...
화영 아니요... 전... 우리 아기 낳아야... (울적)

두 뺨에 눈물이 한 방울씩 타고 흘러내린다.
화영, 베란다 너머 창밖을 보면,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다.

화영, 속 눈물을 닦는다.

화영 (결연한)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산부인과로.

창밖 핏물처럼 붉게 떠오르는 노을 위로 떠오르는 타이틀.
<산부인과로 가는 길>

#8. 화영의 집(낮)

현관문 앞 화영, 차마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뜬다. '출산 예정일'.
화영,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로 문을 연다.

#9. 아파트/복도(낮)

고요함만 가득한 복도.
화영, 벽을 짚고 산통을 참은 후 걷기 시작하면,
철컱- 철컱-, 현관문들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복도 창을 통해 지켜보다 화영이 지나가면 창문을 광광 닫아버리는 사람들.

#10. 아파트/엘리베이터 안+1층(낮)

1층으로 내려가는 층수 안내판.
주먹 쥔 화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파트 현관문 앞 경비(55, 남)
뒷모습이 보인다.

화영 (한 발짝 내리며) 경비아저씨...?

고개를 돌려 화영을 쳐다보는 경비의 얼굴. 시퍼런 실핏줄, 변색된 눈동자.

INSERT

#5에서 보았던, 뉴스 자료화면 영상 속 좀비 모습.

화영, 공포에 휩싸여 온몸이 굳어버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화영 제발... (움직여라...) 제발...

화영, 부들거리며 꽉 주먹을 힘주어 쥔다.

주먹 틈새로 핏방울이 흘러나오고.

그제야 다리를 떼는 화영,

뒷걸음질로 엘리베이터로 다가가 급히 버튼을 누른다.

화영 오...오지 마세요!!! (바로 올라타며)

경비 그어어어...

화영, 달힘 버튼을 타닥타닥 누른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이나 달힘 버튼을 타닥타닥 누르다가 손을 떼다.

화영의 손바닥에 선명한, 주먹을 꽉 쥐다 생긴 붉은 손톱자국 상처.

화영 못 가... 난 못 가 ...못 갈 거야...

흐흐흑... 어떡하니... 아가야 어떡하니...

화영, 슬그머니 달힘 엘리베이터 문에 귀를 가져다 대면, 고요하고.

갑자기 찾아온 산통에 배를 감싸 쥐다 손이 미끄러지며 열림 버튼 눌린다.

마주 선 경비와 눈이 마주치는 화영.

화영 짹!!!! (재빨리 달힘 버튼 누르며) 왜 계속 있냐구!!

흑흑... 제발 다른 데로 가라구!!! 아... 아야!!

겁에 질려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는데,

(E)휴대폰 벨소리.

화영,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보면, '여보'에게서 온 전화.

화영 (서둘러 받으며) 여보!!!! 상철 씨?
 상철(F) 자기야...
 화영 (안도감에 눈물 글썽) 상철 씨!!! 왜 이제야 연락해!!!
 상철(F) 화영아... 어디... 어디야...
 화영 엘리베이터!! 상철 씨는? 어디야?
 상철(F) 집에 있어...야지... 위험...한데...
 화영 상철 씨는 어딘데? 안전해? 무사해?
 상철(F) 아파트... 앞... 거의 다 왔어...
 화영 뭐?

화영, 힘겹게 일어나 다시 열림 버튼을 누르고.

상철(F) 화영아.
 화영 앞에 이상하게 변한 경비아저씨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상철(F) 그것들 엄청 느려...

화영, 지켜보면, 다시 문이 닫힐 때까지 겨우 한걸음 떼는 경비.

화영 (보며) 정말 느리잖아... 것두 엄청...
 상철(F) 오늘... 출산 예정일이잖아...
 화영 상철 씨. 내가 나갈게. 같이 가자. 산부인과에...
 상철(F) 화영아 잠깐... (하는데 화영, 전화 끊고)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영, 나온다.
 경비를 최대한 피해 가려는데, 팔을 짚 뺀어 화영을 붙잡으려는 경비.

화영 어머!!!!

화영, 질끈 눈을 감고서 경비를 밀치면,
 경비,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밀려가 광— 부딪힌다.

화영 (울먹) 죄송해요!! 아프시죠...! 죄송해요!!

경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려는데 문이 다시 닫힐 때까지 한 걸음이고.
 다시 광— 닫히는 문에 광— 부딪히는 경비.

화영 ...죄송해요!!

화영, 현관을 빠져나간다.

#11. 아파트 단지(낮)

단지 곳곳에 매우 느리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좀비들.

화영 상철 씨!!!!!! (두리번거리며 휴대폰 다시 꺼내고)

‘여보’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음과 동시에 벨소리가 단지 저쪽 끝에서 들린다.

화영 (통화 연결되고) 상철 씨!!!

화영, 벨소리가 들린 쪽으로 다가가는데,
 처참한 물골의 상철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서 있다.
 상철, 귀에 대고 있는 휴대폰으로 화영에게 말을 한다.

상철 화영아... 아기... 심장 소리...

화영 여보...!!

상철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어...

상철,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화영에게 힘겹게 다가온다.
 무언가 직감한 화영, 휴대폰을 만삭의 배에 가져다 댄다.
 쿵쿵쿵— 아기의 심장 고동 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상철의 귀에 전해지고.

상철 (잠시 듣더니) ...우리... 아기... (눈 감으며 편안히 미소)

점점 상철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특—.
상철이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진다.

화영 상철 씨... 여보... 여보!!!! (울음을 터뜨리고)

멈춰 있던 상철, 기이한 느린 걸음걸이로 다시 화영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상철 (편안히 미소 짓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어어어...

화영 안 돼...!!!! 상철 씨...!!!!

울음 범벅인 화영, 다가오는 상철을 피해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친다.
좀비로 변한 상철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아파트 단지를 도망쳐 빠져나간다.

#12. 교차로(낮)

인적 없이 험한 거리.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는 화영.
주위를 둘러보는데 텅 빈 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하다.

화영 흑흑... (계속 흐르는 눈물. 둘러보며) 맙소사...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도로. 화영, 길을 건너려는데

아이(E) 엄마아...

화영, 놀래서 뒤를 내려다보면,
화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5살쯤의 아이.

아이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아니네... (홀쩍)

화영 아가야, 엄마는 어딴니?

아이 (퐁퐁 눈물방울 흘리며) 엄마는 어저께 나가서 안 왔어요.

화영 아빠는... 응?

아이 (고개를 저으며) 우리 엄마도 아줌마처럼 (화영 배를 보며)

배에 있는 내 동생... 낳아서 온됐어요. 근데 안 와요.

화영 분명 돌아오실 거야... (목메는) 이건... 뭐니? 아줌마가 뜯어줄까?

아이 손에 들린 요구르트. 고개를 끄덕거리며 화영에게 요구르트를 내민다.

아이 어떤 아줌마가 아까 마시라고 줬어요.

화영 (발다가 말고) 이건... 뭐니... 아가야...?

아이 새로 나온 맛이랬어요... 앞으로 못 먹을 수도 있겠어요.

화영 아... 아니... 그거 말고... (목소리 떨리는)

요구르트를 건네줬던 아이의 손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가 흐르고 있다.

화영 손... 다쳤니?

아이 아까. 아까 어떤 형아가 이빨로 이렇게 했어요.

화영 언... 언제 어떤 형이...

아이 배고픈 거 같아서 요구르트 주려고 했는데 내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이의 손바닥부터 팔목으로 실핏줄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한다.
화영,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고.

아이 으어어어...

화영 아가야...!!

아이 그어어... 어어...

순간 탕—! 소리와 함께 가슴팍에 총을 맞은 아이. 그대로 밀려 주저앉는다.

화영, 깜짝 놀라 보면,

횡단보도 반대쪽에서 군인이 겨눈 총을 내리고 다가온다.

화영, 충격 받은 얼굴로 주저앉은 아이를 멍하니 본다.

화영 방금... 방금까지 말을 했었는데...

군인 감염자로 변하는 거 봤습니다. 감염자는 사살입니다. (화영 보고)

안 물렸습니까. 물리면 바로 감염입니다.

화영 아... 뇨.
군인 (의심의 눈초리) 가까이 있던데, 잠깐 손 좀 보여주시죠.

화영, 손을 펴보는데, 주먹 쥐다 손톱에 파인 상처가 보인다.

군인 뭘니까?! 물린 거 아닙니까?

화영 아니에요. 산통 때문에 참다 보니... (손을 꼭 쥐는 시늉 하는데)

군인 (희번득) 물리면 어차피 다 감염입니다! 사실대로 말... 으악!!

어느새 일어나 군인의 손을 깨물고 있는 아이.

군인, 아이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군인 이거 놔!!!! 으악!!!! 더럽게 힘세네. 에이씨!!!

군인, 발로 아이를 차는데도 떨어지지 않자,

총을 내던지고는 미친 것처럼 발작하며

두 손으로 아이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화영,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부들부들 떤다.

군인, 아이를 간신히 떼어내고는 발로 아이의 머리를 마구 찬다.

군인 (미쳐서) 에라이!! 머리!! 머리를 썬어야 했는데! 잘못! 썬서는!

머리를 썬어야 했는데!!! 머리!!! 머리!!!!

화영 그만... 그만해요...!

군인 머리!!! 머리!!!!

철컹— 소리.

광분하던 군인, 소리에 흠칫 발길질을 멈추고 화영을 쳐다보면,

화영, 떨리는 손으로 군인의 총을 들고 있다.

화영 그만... 하라구요....

화영, 무거운 총을 힘껏 끌어 올려 군인의 머리를 겨냥한다.

군인 이... 이리 내놔악!!!!!!

화영, 총을 뺏으러 달려드는 군인을 보며 질끈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긴다.

탕—!

화영, 거친 숨을 내뿜며 조심스레 눈을 뜨면.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가슴팍에 총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군인.

군인의 눈이 마치 ‘어떻게 나를...’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화영 허억... 허억... (군인 옆, 머리에 피 흘리는 아이 보며) 아가야....

화영, 아이의 손 가까이에 요구르트를 뜯어 조심스레 놓아준다.

총을 둘러멘 채로 뒤뚱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화영.

JUMP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군인의 무전기에서 무전이 흘러나온다.

무전(F) ...무기 운반 군용차를 탈취한 병사가 있다.

(지직) ...배려용사... (지직) 주의 바란다....

무전기를 주워드는 군복 차림의 군호의 손.

무전(F) 사살 명령 (지직) ...

걸음 속도 확인 후 시속 0.5킬로 이하는 무조건 사살....

군호(E) (나지막이 되풀이) 무조건... 사살....

군호의 총이 아직 살아 있는 군인의 머리를 겨눈다.

탕—!

#13. 거리(낮)

화영, 무거운 배를 안고 발을 끌며 걷고 있다.

거리에 멈춰 있는 버스에 손 짚어 기대어 견디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좀비1(E) 그어어어...

화영 깡!!!

버스 밑에서 엎드린 채 기어 나오는 좀비.

화영, 허겁지겁 총을 두 손으로 잡고서 기어 나오는 좀비의 머리를 친다.

화영 머... 머리!! 머리!!! (퍽— 퍽)

좀비2(E) 그어... 그어...

화영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좀비2.

눈치 채지 못한 화영, 공공대며 일어나는데

좀비2 크어어어...

화영, 뒤 돌면.

위아래 민소매, 반바지를 입은 마라토너 좀비2가 서 있다.

화영, 버스 벽을 따라 좀비2에게서 뒤뚱뒤뚱 도망간다.

좀비2, 그런 화영을 따라 어기적어기적 따라가고.

버스를 따라 반 바퀴 추격전을 벌이는 마라토너 좀비2와 화영.

화영 오지 마...! 오지 말라구...!

화영, 숨을 헐떡대며 버스 우측으로 빙 돌아가면,

반대편에서 화영을 따라 버스를 돌아오고 있는 좀비2.

화영, 버스 뒤편 살짝 열린 출입문을 발견한다.

출입문으로 걸어가 한 발 올리는데,

만삭의 배 때문에 좁은 문 틈새로 들어가지 못하는 화영.

화영 제발. 제발. 조금만. (깡깡대며 출입문을 열려고 노력한다)

그사이, 버스 전방을 돌아 화영이 있는 우측으로 전진하는 좀비2.

더 다급해진 화영. 다행히 조금씩 열리는 출입문.

좀비2가 팔을 뻗어 화영에게로 다가오는 사이.

화영, 깡깡거리며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14. 버스 안(낮)

올라탄 화영, 힘겹게 문을 밀어서 닫는다.

좀비2, 출입문 앞에 멍하니 서서 버스 안 화영을 쳐다본다.

화영,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총을 내려다본다.

화영 이걸 어떻게... 아까처럼 그냥 쏘면 되는 건가...?

남성 쿠아아아아...

화영, 놀라서 뒤돌아보면,

노약자 배려석에 한 남성이 시체처럼 폭 숙이고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남성, 고개를 기기각...거리며 기괴하게 고개 돌리면, 그 역시 좀비다.

화영, 침을 꿀꺽 삼키며 허겁지겁 남성에게 총을 겨눈다.

조준경 사이로 보이는 남성의 기괴한 얼굴.

조준하는 화영의 매서운 눈빛.

탕—! 그대로 노약자석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남성.

화영 옥...!!

화영, 갑자기 메스꺼운지 신물이 올라온다.

눈앞이 어지럽고...

그대로 가까운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FADE OUT

#15. 거리(낮)

버스로 다가오는 마라토너 좀비 떼들의 느린 발걸음.

#16. 버스 안(낮)

잠시 정신 잃은 화영의 귓가에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FADE OUT

화영, 작게 신음을 내며 눈을 뜬다.

화영 …으윽…

화영, 눈을 뜨고 현실을 다시 마주한다. 눈을 깜빡이다가...

문득 이상한 낌새에 출입문을 바라보면,

수많은 마라토너 좀비들이 버스 출입문 앞에 모여 버둥거리고 있다.

화영 깽!!!!

화영, 일어나 반대편 창가로 주춤주춤 뒷걸음질 친다.

화영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화영, 총을 들어보는데, 수도 없이 많은 좀비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버스 창밖에서 새애앵—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화영, 획 고개 돌려 창밖 보면,

요구르트 전동카를 타고 지나가는 요구르트 판매원 재숙.

화영 (다급) 아...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

재숙, 가던 길 멈추더니 여유로운 표정으로 화영을 돌아본다.

재숙 왜, 요구르트 하나 쥐었어?

버스 우측 출입문에 몰려 있는 좀비 무리들과 상반되는,

좌측 창가에 혼자 전동카트 타고 서 있는 재숙.

#17. 산부인과 전경(낮)

#18. 산부인과 밖 복도(낮)

그 시각, 산부인과 출입 자동문 바깥 복도에 느리게 돌아다니는 좀비들.
자동문 ‘눌러주세요’ 버튼이 무색하게, 그저 서성일 줄밖에 모르는 좀비들.

#19. 버스 안+버스 밖(낮)

창문 사이로 대화를 나누는 재숙과 화영.

재숙 어머 아가씨, 버스에서 얼른 나와~

화영 문 앞에….

재숙 뭐가 있나 봐양?

재숙, 전동카트를 타고서 우측으로 빙— 돌아가 본다.

버스 우측, 출입문 앞 좀비 무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좌측으로 빙 돌아온다.

재숙 어머어머, 드럽게 많네. 놀래라... 아가씨. 여기 카트 위에
발 디디면 되니까 창문으로 나와양! (요리조리 얼굴 뜯어보며)
보니까 잘만 하면 날씬해서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양?

화영 저도 그러고 싶은데... 배가….

재숙 배가? 왜?

화영, 살짝 일어나 부른 배를 보여준다.

재숙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새택이구나. 곱상해서는... 저... 그래.
그래. 버스에. 뭐 그거 있다 그랬어. 저기 망치 같은 거 없나양?
지하철에는 있잖아양. 찾아봐. 새택.

화영, 버스 천장을 두리번거리다 비상 망치를 찾아낸다.

화영 (비상 망치 들고 오며) 여기….

재속 있네 있어영! 잠시 새댁 기다려봐.

재속, 뒤로 슬쩍 전동카드를 후진해서 비키고.

재속 깨! 깨버려영!

화영, 좁은 창문 대신 바로 위 열리지 않는 널따란 창을 힘껏 망치로 내려친다.

재속 옹지! 더!!!

재속의 지원을 받아 더 힘껏 망치로 내려치면,
금이 가더니 와장창— 부서지는 유리창.

화영, 아직 매달려 있는 창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
도로로 떨어지는 유리창.

재속 내려와 새댁!

재속, 창문 바로 밑으로 전동카드를 밀고 온다.

화영, 버스 좌석 위에 올라서는데, 창틀에 배가 닿을 높다.

창틀을 짚는 화영의 손이 아직 남아 있는 유리 조각들에 베여 피가 난다.

화영, 피가 나는 손으로 창틀을 움켜쥐고 다리 한쪽을
들어 넘어가보려는데 버겁다.

화영 흐읍…! (다리 한쪽을 들고) 한 번만…! 제발…!
(힘이 빠져 다리 내렸다가 다시 들고) 흠!!

재속 (안타깝게 보다가) 기다려봐, 새댁!

재속, 전동카드 위로 올라가더니 화영에게 팔을 뻗는다.

재속 내가 받쳐줄게. 얼른 넘어와! 새댁!

화영 제가 몸이 많이 무거운데….

재속 요구르트 아줌마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요구르트 박스를 하루에 열두 개는 들었다 놔다 하는 몸이어! 이크…!

화영, 재속의 팔과 창틀을 잡고서 넘어가려 애쓰는데,
화영의 무거운 몸에 둘 다 휘청거린다.

한참을 버둥거리던 화영과 받아주려는 재속. 힘이 빠지는 화영.

화영, 뒤를 돌아보면 문 앞에 더 많아진 좀비 무리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과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화영.

화영 (울먹) 배가 너무… 무거워요….

재속 조금만… 쉬었다가. 기다려봐. 내가. 요구르트 하나 줄게.

재속, 전동카드에서 내려가 요구르트를 두 개 꺼내고
다시 카드 위로 올라가 건넌다.

재속 마셔영!

화영 감사합니다… (꿀꺽꿀꺽 마신다)

재속 얼마나 된 거?

화영 오늘… 출산 예정일이예요.
어제부터 산통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오늘…

재속 하필이면… 엄마 속을 조금 썩이네. 그치영? (미소)

화영 (미소)

재속 새댁은 잘 키울 거야. 잘 키워. 내 새끼는 어쩌나 속을 썩이는지,
내가 잘못 키웠어. …엄마가 요구르트 팔아서 저 대학 서울에 있는
데 보내주고 했는데, 글썬 그놈이… (울먹이며, 목메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네. 연락이 안 돼… (콧물 후루룩 들이마시며) 이놈의
망할 새끼. 스무 살 처먹고 지 엄마가 찾으러 돌아다니게 만들어.

화영 살아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울먹)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재속 그럴 거. 그치? (웬지 서글퍼 보이고)

화영 (울음 참으며 애써 미소) 그럼요…!

화영, 다시 다리를 올리려는데,

창틀에 배가 닿는 순간 찾아오는 강렬한 산통.

화영 으윽...! 안 돼...!
재숙 새댁!! 설마 지금?!
화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발로 차서. 괜찮아져요 곧.
으윽...!

재숙, 배를 감싸며 산통을 견디는 화영을 한참 바라본다.
화영, 다시 일어나 창틀에 배를 걸치고 힘겹게 다리를 올리려는데,

재숙 ...새댁. 그만둬.
화영 네...?
재숙 애기 다쳐. (결연한 표정으로 화영 바라보며)
저기 앞으로 가서, 문 열리는 버튼 찾아봐. 얼른.
화영 그치만...
재숙 새댁, 얼른.

화영, 기사 자리로 가 이리저리 보다가 출입문 버튼을 찾고.

화영 찾았어요...!
재숙 새댁. 내가 이 카트로 출입문에 저놈들 밀어버릴 테니까,
그사이에 앞문 열고 얼른 나와.
화영 그럼 아줌마가 위험하잖아요...!
제가 좀 더... (좌석에 올라가려는데)
재숙 새댁 애기 다쳐! 그만둬! 내 말 들어!
화영 아줌마...!
재숙 이 카트 엄청 튼튼해! 이걸로 오면서도 몇 놈 밀고 왔어.
잘 밀려 아주. 그러니까 얼른 저기 가서 버튼 누를 준비하고 있어.

#20. 버스 밖(낮)

카트를 뽐뽐뽐 타고서 버스 앞쪽으로 가는 재숙.

#21. 버스 안(낮)

화영, 기사 자리가 있는 앞으로 가면,
버스 전방 창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재숙. 약간 서글퍼진 얼굴이다.

재숙 새댁.
화영 네 아줌마...!
재숙 사실은 말야. 돌아다니다가 아들 벨소리를 들었어영.
(화영, 놀라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가 있는데,
고놈이 그 노랫 아직도 벨소리로 하고 있었네...?
다 커서도. 이놈 새끼. 그래서 단번에 찾았잖아. 그 노래 알아?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없으면~
야구르트 주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어흑흑... (눈물 닦고)
화영 (같이 눈물 흐르는)
재숙 자. 새댁. 준비해...! (홀쩍 눈물 닦고)
화영 (고개 끄덕이고)

#22. 버스 밖(낮)

재숙, 전동카트를 작동시킨다.

재숙 자 그럼 간다양~! 자!

뽐뽐뽐— 전동카트가 출입문에 물려 있는 좀비 무리를 향해 돌진한다.
통— 통— 고작 시속 8킬로미터의 전동카트에 부딪혀
하나둘 나가떨어지는 좀비들.
앞문에 있던 좀비들이 모두 밀려나면,

재숙 요구르트 아줌마가 나가신다! 새댁! 지금이야 얼른!!!

#23. 버스 안(낮)

화영, 출입문 버튼을 누르면 버스 문이 기릭—대며 앞문과 뒷문이 열린다.
 뒷문으로 하나둘 스물스물 들어오는 좀비들.
 화영, 열린 앞문으로 뒤뚱거리며 내린다.

#24. 버스 밖(낮)

버스 앞문에서 내린 화영.

화영 아주머니…!!!
 재속 새댁! 내렸엉?! 어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잉?
 재속, 전동카드를 후진하려는데, 좀비 무리들이 재속을 붙잡는다.
 동시에 주변 좀비들이 화영에게 스멀스멀 다가오고.
 화영 어떡해… 아주머니 (하고 재속을 도와주려 하는데)
 재속 새댁! 얼른 가! 에잉 요구르트 사먹으라고 돌아다닐 땐 다들
 시선조차 안 마주치더니, 더럽게 붙잡아대네.

재속, 좀비들을 하나둘 떼어내려는데 역부족이다.

재속 (보며) 새댁!! 얼른 가!!
 화영 (도와주려 다가가려 하면)
 재속 뻑!!! 얼른 가!!!! 가!!!! 잘 키워야 돼!!!
 (미소) 알았지? 자 간다!!!
 재속, 후진하려던 카드에 달라붙은 좀비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좀비 무리들로 돌진한다.
 화영,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지만, 계속해서 재속을 향해 뒤돌아보고.
 멀어지는 재속에게서 어렵풋이 들리는,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25. 거리(낮)

정신없이 도망치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 멈춰서 숨을 몰아쉬는 화영.
 손에 든 요구르트를 바라보며 눈물 흘린다.
 차마 마시지 못하고 가방에 넣는다.
 화영, 지친 듯 벽에 기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소진(E) …산모님…?
 화영 간호사님… (힘없고 포기한 듯한) 지금 가면… 낳을 수 있나요…?

#26. 산부인과/로비(낮)

지친 얼굴로 데스크 전화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 소진(24, 여).

소진 지금…이요?

소진, 반쯤 낮이 나간 상태로 뒤를 보면,
 카메라가 데스크 뒤를 따라가며 (DIS)

#27. 어제. 산부인과(낮)

(DIS) 평화로운 산부인과 로비. 대기 환자 없이 비어 있다.

INSERT
 자막—24시간 전
 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보는 소진 옆에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는 간호실장.
 간호실장, 충전되고 있는 휴대폰을 집어 든다.
 소진, 슬그머니 주머니 속 자신의 휴대폰을 켜보면 배터리가
 5프로 남아 있다.

소진 (눈치) 저 실장님…

실장 왜?
 소진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저 이제 충전시켜도 될까요?
 실장 (짜릿) 소진 씨 꺼라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소진 네?? 아니 절대 아니요…!
 실장 그럼 좀 더 쓸게요.
 소진 네…
 실장 오늘따라 한가하네.
 소진 내일 출산예정 잡힌 산모님께 연락이나 드려요.
 네…

소진, 차트를 쪽 따라서 ‘유화영’ 이름에서 멈추는데.
 산부인과 자동출입문 앞에 배가 잔뜩 부른 산모1,
 고개 숙인 채 가만히 서 있다.

실장 어머 왜 안 들어오시고 서 계시지?
 실장, 자동출입문에다가 가서 스위치를 누른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제 가만히 서 있는 산모1. 어쩐지 심상치 않은데.

실장 들어오세요. 산모님~어머!!!!
 산모1, 실장의 손을 덥석 잡는다.

실장 어디 불편하세…요?
 실장, 허리를 굽혀 산모의 안색을 살피는데,
 산모1의 변색된 눈동자를 발견한다.

실장 소진 씨 원장님 불러요. 어서 불러… 으악!!!
 좀비가 된 산모1.
 실장의 목덜미를 깨물며 실장과 함께 병원 바닥으로 넘어진다.

소진 깽!!! 실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실 안에서 원장과 양 간호사, 튀어나온다.
 목덜미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실장과, 실장을 더 물어뜯으려 용쓰는 산모1
 원장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양 간호사, 팔 붙잡아.
 원장과 양 간호사, 산모1의 양팔을 한쪽씩 붙잡고
 “하나 둘 셋” 하며 일으켜 세운다.
 소파에 산모1을 앉히고서 원장이 무릎 굽히고 앉아서 살펴본다.

산모1 그어어어어….
 원장 산모님?!!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소진, 입을 틀어막고 맨 뒤편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장, 앉아서 피가 흘러나와 괴로워하고 있고.

양 간호사 소진 씨 뭐해!!! 가서 붕대랑 소독약이랑 가져와!!!
 소진 네…!!

소진, 뒤돌아 뛰어가고, 그사이 원장,
 산모1의 팔을 붙잡아 맥을 살펴보고 있는데.

#28. 어제. 산부인과/창고 안(낮)

소진, 찬장을 열어 다급하게 붕대와 약을 찾는다.

소진 붕…붕대… 약… 어디 갔지? 이진… 진통제… 진통제가
 필요하나…? 아. 안 돼. 정신 차리자. 신소진. 정신 차리자!!!
 약… 소독제…
 원장(E) 으아악!!!!!!
 소진 엄마야!!!!

소진, 손에 들고 있던 약통과 붕대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29. 어제. 산부인과(낮)

소진,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어 밖을 본다.

원장,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양 간호사, 입이 피칠갑이 된 산모1에게 한쪽 손을 붙들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양 간호사 이거 놓으세요. 미쳤나 봐! 경찰 불러 소진 씨!! 꺾아악!!

산모1, 양 간호사의 팔뚝을 물어뜯는다.

양 간호사의 팔뚝 반이 뜯겨나간 것을 보고 소진, 자리에 주저앉는다.

실장, 이미 기절해 있다.

원장, 피가 흐르는 손을 붙잡고 데스크로 달려가 전화를 건다.

원장 쟤장…!!! 왜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소진,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고로 달려간다.

#30. 어제. 산부인과/창고(낮)

붕대와 약을 빠르게 챙기는 소진.

#31. 어제. 산부인과(낮)

소진, 원장에게 먼저 달려가 손을 붕대로 감아준다.

원장 으으윽…

소진 괜…괜찮으실 거예요. 119랑 112 전화 안 돼요?

원장 완전 불통이야. 뭐야 저 사람!!

양 간호사 소진 씨 으윽… 얼른 나도!!!!

피가 흐르는 팔뚝을 붙잡고 있는 양 간호사에게 달려가 붕대로 감아주고 있는데, 밖에서 굉장히 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소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병원 벽걸이 TV 화면이 속보뉴스 화면으로 바뀐다.

INSERT

좀비 사태를 알리는 긴급뉴스. 그리고 흘러가는 자막들.

‘물리면 모두 감염’, ‘한 시간 내로 모두 변해…’

소진, 겁먹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들썩이고 있는 산모1을 본다.

소진 …물리면 모두 감염…

원장과 양 간호사, 천천히 뒤를 돌아 소진을 본다.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실장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일어나는데, 좀비로 변했다!

덩달아 미동 없는 원장과 양 간호사. 소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소진 원장님…! 양 간호사님…!! (절망적이다. 제발… 하고 보면)

원장과 양 간호사, 천천히 소진에게 고개를 돌리는데, 좀비로 변했다.

소진 깽!!!!

병원 안 좀비로 변한 모든 사람들이 소진을 바라본다.

무시무시한 적막이 흐르는데,

데스크 전화기 벨소리가 울린다.

소진, 허겁지겁 달려가 데스크 전화를 받는다.

소진 어보세요?!!

#5 방에서 침대에 기대어 통화하고 있는 화영과 교차.

화영 제가 지금 산통이 너무 심한데요. 내일 출산 예정일인….

소진 여기는… 여기는 못 해요 산모님.

화영 안 돼요. 안 돼요!! 꼭 낳아야 해요. 제발.

소진 뉴스 안 보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그리고 밖엔…

화영 아시잖아요 간호사님. 제가 얼마나 아가를 막… 아악!!!

끊어지는 전화.

소진, 두려움에 가득한 채 병원 안 좀비들을 본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데스크 뒤에 쓰르륵 쭈그러 앉아 머리를 감싸 쥐는 소진.

FADE OUT

CUT TO

고르륵— 자신의 배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뜨는 소진.

일어나려다 다리가 저려 멈칫하는데, 데스크 밑 초콜릿 봉지가 보인다.

초콜릿 봉지에 붙어 있는 메모지.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소진,

소진, 일어나 재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건다.

소진 산모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무사하신 거죠…?

#7 통화하는 화영과 교차.

화영 날이 밝으면 가겠습니다. 산부인과로.

소진 오신다구 해도… 우리 원장님… (홀쩍) 실장님 모두 변했어요…

나 혼자예요. 전 아직… 막내예요.

(홀쩍) 혼자 못 해요 저 혼자 못 해요….

화영 지금 저한테 믿을 사람은 간호사님 한 명뿐이에요.

제발. 이대로 포기할 순… 아가를….

소진 … (울컥) 포기하면 안 되죠… 최대한… 최대한 준비해볼게요….

좀비로 변한 병원 사람들 너머로 TV 긴급재난비상방송 화면이 보인다.

TV 속 자막 ‘비상시 행동강령, 감염자의 머리를 공격하라.’

#32. 어제. 산부인과/수술실(밤)

수술용 도구들을 헤집는 소진. 수술용 메스와 가위를 번갈아 든다.

소진 머리… 머리….

소진, 메스를 선택한다.

#33. 어제. 산부인과(밤)

메스를 들고 나온 소진, 제일 가까운 원장의 등 뒤로 다가간다.

INSERT

과거. 산부인과 원장실.

원장, 차트 건네고 나가는 소진 뒷모습 흘끔 보더니 “오늘은 심리스야? 선이 안 비치네?” 소진, 못 들은 척 나가려는데 원장, “땡땡이도 이쁘던데, 쿵.”

소진 (떨리는 소리로 악 지르듯)

내가 심리스를 입든 말든 이 변태야!!!!!!

소진, 눈을 꼭 감고 원장의 뒤통수에 메스를 내다 쫓는다.

원장, 바닥으로 쓰러진다.

소진, 거칠게 숨을 몰아 내쉴다. 진정이 되지 않는다.

원장의 뒤통수에 박힌 메스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덜덜 떠는 손으로 메스를 다시 뽑는 소진.

소진, 돌아서서 좀비로 변해 서성이는 양 간호사를 본다.

INSERT

과거. 산부인과 데스크.

양 간호사가 다가와 폰으로 대머리 중년 남성의 사진을 보여준다.

양 간호사 괜찮지?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어때? 차랑 집도 있어서.

소진 (당황) 머...머리가 좀 많이 없으시네요...

양 간호사 어머 자기가 왜 따져? 이런 분은 자기한테 감지덕지야~

소진 (눈 꼭 감고) 감지덕지 뜻은 알고 썼나야!!!!

소진, 양 간호사의 머리에 수술용 가위를 푹 찌른다.

양 간호사, 바닥에 쓰러진다.

소진, 메스를 다시 뽑아 들고 좀비가 된 실장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린다.

소진, 실장을 향해 달려들며

소진 충전기가 내 꺼지 니 꺼냐!!!!!!

가위에 찢려 바닥에 쓰러지는 실장.

소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는다.

소진의 주위로 쓰러져 있는 원장, 양 간호사, 실장.

소진 (넋 나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기 진작에 사셨으면 좀 좋아요 실장님...

제 휴대폰이 안 켜지잖아요...

산모1 그어어어어어...

소진, 여전히 소파에 기대 앉아 있는 산모1을 본다.

산모1,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듯 버둥거리고 있다.

소진, 실장의 머리에서 메스를 뽑아 꽂 진다. (DIS)

#34. 현재. 산부인과/데스크(낮)(#26 연결)

(DIS) 데스크 전화기를 받고 있던 소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소진 오세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진. 앞을 바라보면 따라가는 카메라.

소파에 아직 버둥거리며 살아 있는 산모1!!

#35. 거리(낮)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겹옷 주머니에 넣는 화영.

화영,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일어난다.

요구르트를 짹 마시고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닦는다.

#36. 거리(낮)

건다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산통에 배를 부여잡고 입술을 깨무는 화영.

전조등이 켜진 택시를 발견하고.

화영 택... 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조수석 열린 창문 안으로 보면, 택시 운전사는 없고.

택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라디오(F) ...속보입니다. 국가에서 감염자들을 향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속 0.5킬로미터 이하는 감염자로 보고 사살을 하라는...

화영 뭐...? 으음... 안 돼...!!

화영, 배를 부여잡으며 택시에 기대 쓰러진다.

그때 멀리서 들리는 탕탕탕— 총소리.

#37. 산부인과(낮)

바로 앞에 서서 산모1의 배를 바라보는 소진.
소진, 메스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내리고. 찌르진 못하고 수없이 반복.
그러다 텅텅 얼굴을 감싸 쥐며 주저앉는다.

소진 제발... 누가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아이도 감염되겠지...?
아니야 아니면 어떡해... 어떡해...

산모1 그어어어...

소진 산모님 제발 대답 좀 해줘요.... 뱃속에 산모님 아기,
어떡하냐구요...!

산모1 그어어어...

소진, 눈물을 터뜨린다.

#38. 거리(낮)

군용차가 도로를 무법자처럼 이리저리 운전하며
좀비들을 차로 들이받고 멈춘다.
배려용사 군호(21, 남),
내려서 차 위로 올라타더니 좀비들에게 마구잡이로 총을 쏜다.
시끄럽게 난사하는 총소리가 도로를 메우는데,
화영,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난다.

화영 저기요...! 저기...

총을 쓰고 있는 군호에게로 화영, 천천히 애써서 걸어가는데.
군호, 총을 이리저리 쏘다가 화영을 발견하고 총을 겨눈다.

군호 뭐야! 뭐... 뭐야!!!
화영 부탁 좀 할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린산부인과라고...

군호, 화영의 말을 듣지 않고 느릿하게 걷는 화영의 걸음을 주시한다.

군호 (마치 화영의 걸음 속도를 재는 듯) 시속... 영 점 삼... 사 키로...
화영 네...? 저기. 거기까지만 태워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더 이상 걸지 못하겠어서 그래요.

군호 속도 영 점 오 키로 이하는 모두 감염자다!

화영 네...? (하고 군호 보는데)

군호 (눈이 반쯤 풀린) 속도 영 점 오 키로 이하는 모두 감염자!!!

군호, 총구를 화영에게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데,

화영 아니!! 아니에요 저 사람이예요!!

군호 속도 영 점 오 키로 이하는 모두 감염자! 모두 사살!!!

화영, 다급하게 걸옷 주머니에서 임신부 분홍 배지를 내보인다.

화영 임신부라구요. 봐봐요. 산통이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군호 그딴 거 나도 있어!!!

군호, 옷에 달려 있는 노란색 스마일 배지를 가리킨다.

군호 다...다다 사살이야!! 안 그럼 죽어!!! 사살해야 집에 가!!
다 다 죽어야 다 죽어야 집에 갈 수 있다!!!

화영, 제정신이 아닌 군호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군호 국가 명령이다! 감염자는 모두 사살! 다... 허억... 허억... 죽어야
집에 갈 수 있어... 안 그럼... 내가 죽는댔어...

화영 (애써 침착하게 달래듯) 집에... 갈 수 있어요.

군호 속도 영 점 오 키로 이하는 모두 사살... (화영을 보고)

화영 제가... 제대로 걸어볼게요. 그럼 될까요...?
 균호 어디 걸어봐 그럼!

균호, 턱짓으로 저쪽으로 걸어가 보라는 듯 앞을 가리킨다.
 화영, 입술을 꼭 깨물고 배를 부여잡으며 뒤로 돌면,
 균호, 철컹하고 화영의 등 뒤로 총을 들어 겨누는데....

#39. 산부인과(낮)

수술용 메스를 머리 위로 높게 치켜들고 있는 소진.
 소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소진, 산모1의 머리를 향해 눈 딱 감고 찌르려고 하는데.

산모1 그어어...

소진, 눈을 살짝 뜨면
 산모1, 마치 아기를 보호하듯 부른 배를 양팔로 가리고 있다.
 팽그랑— 소진, 메스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어떻게 찌르라고.
 소진, 힘이 빠진 듯 산모1의 앞에 주저앉는다.

소진 어떡해요... 산모님 아이는... 어떡해요...

산모1, 눈빛 그저 공허하다. 변색된 좀비의 눈일 뿐이지만....

소진 나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고...
 그저 25주밖에 안 된 배 속 아이라도... 존엄한 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나는 그렇게 존엄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소진, 주위를 둘러보는데 바닥에 죽어 있는 실장,
 원장, 양 간호사가 눈에 들어온다.

소진 내가... 내가 무슨 짓을...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와 괴롭다)

못 하겠어요... 산모님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요.

산모1, 여전히 멍하니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소진, 뭔가 결심을 굳혔다. 계획이 생긴 듯 문밖을 바라본다.

#40. 거리(낮)

화영, 주춤주춤 걷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다.
 여전히 화영의 등 뒤를 겨누고 있는 균호의 총.
 화영,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다가 잠시 멈춘다.

화영 이 정도면... (하고 돌아보면 균호 흔들림 없이 겨누고 있다)

화영, 한 걸음 더 떼려는데 하필 찾아오는 산통에 움찔하며 멈칫. 그때.

균호 느려.

방아쇠를 당기는 균호의 손.
 화영의 눈, 겁에 질리는 순간
 탕—! 총소리와 함께 화영의 뺨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총알이 지나간다.
 화영,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선다.

균호 에이씨 빗나갔네.

균호, 다시 화영에게 총을 쏘려고 겨누는 순간
 화영, 자신의 등에 둘러메고 있던 총을 빠르게 돌려 잡는다.
 그리고 뒤돌아 균호를 향해 총을 겨눈다.

균호 뭐... 뭐야 감히 느려터진 주제...!

화영의 매섭게 변한 눈빛.
 탕—! 균호의 귓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간다.

균호 쏘... 쏘지 마!!!!

균호, 다시 방아쇠를 당기는데 덜거덕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화영, 매서운 눈빛으로 균호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총을 겨누며 다가간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빛나가게 탕—!

균호 쏘지 마... 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균호, 겁먹은 얼굴로 군용차에 기대 양손을 번쩍 든다.
 화영, 균호의 머리에 총구를 바짝 들이댄다.

균호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화영 ...정신 차려요.

화영, 정신 나간 균호를 지켜보다, 총을 내린다.

균호 허억... 허억... (조금씩 진정하고)
 화영 부탁할게요.
 균호 (끄덕이며 눈물 툭)

#41. 산부인과/건물 계단(저녁)

계단 곳곳에 머리에 칼자국 나 있는 좀비들이 쓰러져 있다.

소진(E) 하나, 둘, 하나, 둘...

아래서 들려오는 소진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두 계단 사이를 두고 소진과 산모1이 서 있다.
 수건의 양쪽 끝을 잡고 있는 소진과 산모1.
 소진, 한 발을 한 계단 아래로 옮기고

소진 하나, 두울... 조심... 조심히...

소진이 한 계단 내려가면 산모1, 한 계단 따라 내려온다.
 소진, 고개를 들어 산모1의 얼굴을 본다.
 자신만 주시하고 있는 산모1의 얼굴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소진, 그러나 다시 필사적으로 산모1을 인도한다.

소진 천천히. 천천히요.

산모1, 다리가 느릿느릿 한 계단 내려오는데, 살짝 비틀한다.

소진 조심!!!...

계단을 메우는 소진의 긴장감 가득한 숨소리와, 산모1의 소리...

소진 ...다시 ...다시 내려가요.

소진이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산모1을 올려다보는데,
 순간 산모1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소진에게로 맞춰진다.
 갑자기 소진의 어깨를 잡으려 팔을 뻗는 산모1.
 소진,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피하면,
 산모1, 비틀하더니 배의 무게 때문에 계단을 굴러 떨어진다.

소진 안 돼!!!!

산모1 그어억...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산모1, 괴로움이 가득한 괴음을 내뿜는다.
 산모1의 손이 배를 감싼다. 소진, 서둘러 빠르게 뛰어 내려간다.

소진 괜찮아요?

산모1 그어억...

소진 흑... 흑흑... 죄송해요 산모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산모1, 쓰러진 채로 소진을 올려다본다.
소진, 죄책감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천천히 눈물 닦던 손을 내려 산모1에게로 뺏는다.

소진 제 손... 잡으세요.

산모1, 소진의 손을 턱- 잡는 순간.

#42. 산부인과 앞거리(밤)

균용차 차창 너머로 그린산부인과 간판이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그린산부인과 건물에서 누군가 실랑이를 하며 나오는 모습.
소진과 산모1이다.
균용차가 멈추고, 화영이 내려서 다가가는데.

소진 가세요. 가세요 산모님! 얼른 가세요!

왼팔로 오른팔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소진, 건물 앞에서 산모1을 떠민다.
산모1, 손을 뺀어 소진을 붙잡으려는데, 소진, 뒷걸음질 치며 피한다.

소진 얼른 가시라구요!

가까이 다가오던 화영, 산모1의 얼굴을 보고 좀비임을 알아차린다.

화영 저건...?

화영, 총을 다시 들어 산모1을 겨눈다.
소진, 총을 든 화영을 봤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산모1 앞을 막는다.

소진 안 돼요!!

화영 간호사님...?

소진 혹시... 유화영 산모님...?

화영 (끄덕) ...나와요. 비켜요 간호사님.

소진 안 돼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배 속에는...
산모1 크어어억...!!!

산모1, 순간 커다랗게 괴음을 낸다.

화영과 소진, 놀라서 보며.

산모1의 두 다리 밑에서 양수가 터져 물이 흘러내린다.

화영, 겨누고 있던 총을 내린다.

멍하니 산모1의 다리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양수를 바라보는 화영과 소진.

산모1 크어어억...!!!

산모1,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괴음을 내더니

건물 외벽에 기대 스프클 주저앉는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주저앉은 산모1, 소진을 올려다본다.

마치 산모1의 변색된 눈동자가 소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같다.

소진, 어찌할 바 모르고 눈물 흘리는데.

탕-! 산모1의 머리에 총알이 박힌다.

충격을 받은 소진과 화영. 총알이 날아온 곳을 돌아보면.

균용차에서 내린 균호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고개를 옆으로 내밀고 산모1의 머리에 총알이 박힌 걸 확인하는 균호.

균호 아싸 명중. 맞지? 저건 감염자 맞지?!!

대답 없이 균호를 차갑게 보는 소진.

균호 맞잖아!!!!!! 감염자 맞잖아!!!! 분홍 배지 없었잖아!!!!!!
감염자 맞잖아!!!!!! 모두 사살이야 느리면 모두!!! 허억... 허억...
(다시 미쳐가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 그래야 나도 집에
간다고... 간다고... 아악!!!

소진,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오른팔 손목을 감추려는 듯
왼손으로 감싸 쥐다.

미쳐 날뛰던 균호의 시선이 소진의 손목으로 향하자,

소진, 얼른 화영의 팔목을 잡아끈다.

소진 들어가요. 어서.

소진, 화영을 서둘러 감싸곤 잡아끌며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간다.

외벽에 주저앉아 있는 산모1의 시체.

건물 밖에서 여전히 미쳐 날뛰는 군호가 마구잡이로 난사하는 총질 소리.

#43. 산부인과 건물/계단(밤)

힘들어하는 화영을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는 소진.

화영 감사해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소진 그런 말 말고 얼른 올라가요.

화영 어제... 간호사님이 제 전화 받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소진 ...제 소명인걸요. (화영 바라보는데)

파앗— 순간, 계단 불이 꺼진다.

#44. 거리 전경(밤)

거리 일대가 모두 정전으로 불이 꺼진다. 덩석 깔려버린 어둠.

#45. 산부인과 문 앞(밤)

불 꺼진 병원 내부를 바라보며 소진,

자동문 눌러주세요 스위치를 마구 누른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 자동문.

소진 정전인가 봐요.

화영 여기까지 왔는데...

소진 수술실은 비상전기가 들어와요!!

문만 열리면... 제발... 이럼 안 되는데...!

소진, 눌러주세요 스위치를 마구 누른다. 어찌할 바 모르는 얼굴, 절망적이다.

화영 간호사님. 비켜요.

화영, 총을 문에 겨눈다.

소진, 두려운 얼굴로 화영의 팔을 슬며시 붙잡는다.

소진 이 문 깨뜨리면... 위험할 거예요...!

화영 여기까지 왔어요. (강한 의지가 역력한)

소진, 한 발 뒷걸음 물러서 비켜준다.

탕— 총을 맞은 자동문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다.

#46. 산부인과(밤)

어두운 산부인과 내부. 달혀 있는 출산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소진(E) 조금만. 조금만 더요!

화영(E) (진통하는 신음 소리)

소진(E) 조금만 더 힘내요... 산모님...!!!

화영의 단말마 같은 비명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47. 산부인과/출산실(밤)

아기를 안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화영.

미소 지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소진.

소진 축하드려요. 산모님.
 화영 정말 이쁘죠...
 소진 산모님 닮아서 정말 이뻐요.
 화영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소진, 오른손을 들어 눈물을 닦고 얼른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붙잡는다.

소진 제가 해냈어요... 그쵸... (과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화영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소진 산모님.
 화영 네...?
 소진 죄송해요.

소진, 오른 손목을 덮고 있는 소매를 걷어 손목을 보여준다. 물린 상처....

소진 사실 아까 물렸거든요...
 화영 ...!! (멍하니 보는)
 소진 그래도 저요. 끝까지 해냈어요...
 (미소) 건강한 아기 낳으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소진, 눈물 흘리는 와중에 미소 잃지 않으며,
 상처 난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화영, 소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며 아기를 꼭 껴안는다.

#48. 산부인과(밤)

달혀 있는 출산실 문 앞, 잠시 정적이 흐른다. 이윽고.
 탕—!
 출산실 안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 아기의 울음이 함께 터진다.
 출산실 문 밑 틈새로 빨간 피가 흘러나온다.

화면이 빨갱게 물들어가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잦아 들어간다.
 희미하게 들리는 화영의 자장가 허밍 소리.

#49. 산부인과/출산실(밤)

우는 아기를 달래려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화영의 모습.
 화영의 목소리에 물기가 잔뜩 서려 있다.
 화영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기.

화영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50. 몽타주. 지나온 길

화영(E)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상철의 휴대폰 배경화면, 아기 초음파 사진.
 — 교차로, 군인1 시체와 아이의 시체. 껌질 까진,
 아무도 못 마신 요구르트 병 하나.
 — 거리, 주인 없이 멈춰진 요구르트 전동차. 그리고 배터리 0프로 표시.

화영(E)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 병원 바닥에 죽어 있는 실장, 양 간호사, 원장 모습.
 — 건물 외벽에 기대 쓰러진 산모1.
 주저앉은 다리 사이에서 흐르는 피와 양수.
 — 출산실 바닥에 머리에 총 맞고 죽은 소진. 소진의 손에 소총이 들려 있다.

#51. 현재. 출산실(밤)

화영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잘도 잔다...

화영,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바라보다가 흐느끼며 품에 끌어안는다.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고, 흐느끼는 화영의 자장가 허밍 소리가 들리며... 엔딩.

끝.

작가 후기

타임리프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처럼
아파트에서 화영이와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버스에 숨고, 함께 충을 쓰고,
실제론 겪어보지 않은 산통을 화영과 같이 느끼며 괴로워하고,
그렇게 수십 번... 산부인과까지 그녀와 함께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화영의 곁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네요.
산부인과로 가던 길만큼 외롭고 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화영과 수십 번의 고행을 되풀이하며 끝까지 도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제 앞에 놓인 무수한 길들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오픈 작품집 드라마 하

초판 발행.

2020년 12월 22일

글. 윤나라, 이봄, 임윤성, 홍은주, 신시우,
문지은, 연조, 백이신, 김미숙, 이하니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0 979-11-972691-0-3 (04680)

ISBN 0 979-11-965931-8-6 (세트)

© CJ ENM, 2020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0 오픈 작품집 — 드라마 하
ISBN 979-11-972691-0-3 (04680)

